① 사진으로 ~
한국의 백년 (1871~1910)
한국문화출판센터, 1989

환구단 정비 기본계획

② " 서울의 옛모습
(1880~1930)
영지 박물관. 2000~2001

연구 보고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학연구소

(주) 한인건축사사무소

목 차

1장. 연구 개요 ····· 00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009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009

1) 공간적 범위 ····· 010

2) 시간적 범위 ····· 010

3) 내용적 범위 ····· 010

3. 연구의 흐름 ····· 011

4. 연구진 구성 ····· 012

2장. 제천의례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환구단 ····· 015

1. 서 론 ····· 017

2. 대한제국기 이전의 제천의례와 환구단 ····· 019

3. 대한제국기 환구단의 건립과 운영 ····· 050

4. 결 론 ····· 065

5. 보론 : 圜丘壇의 한글독음에 대하여 ····· 067

3장. 건축적 특성 ····· 069

1. 환구단 현황 ····· 071

1) 현황 및 배치 ····· 071

2) 시설물 현황 ····· 074

(1) 황궁우 ····· 074

(2) 석고(돌북) ····· 077

(3) 삼문과 협문 ····· 080

(4) 환구단 정문 ····· 082
2. 환구단의 건축사적 특징 ····· 090
1) 환구단 입지의 변화과정 ····· 090
2) 환구단의 성립과 변화과정 ····· 093

4장. 중 · 장기 기본계획 ····· 127
1. 기본 방향 및 전략 ····· 129
2. 현황 여건 조사 ····· 132
3. 종합 배치계획 ····· 138
4. 복원 및 정비방안 ····· 144

5장. 사업계획 ····· 167
1. 기본 방향 ····· 169
1. 사업 계획 ····· 172

6장. 부록 ····· 175
1. 도면 ····· 178
2. 관련자료 ····· 200
1) 지도자료 ····· 200
2) 사진자료 ····· 203
3) 고증자료 (석고각 상량문, 궁내부거래첩 원문) ····· 220
3. 현황 사진(칼라) ····· 241
4. 자문회의 기록 ····· 257

그림 목차

그림 3- 1. 환구단 주변 항공지도 ····· 71
그림 3- 2. 황궁우와 주변 현황배치도 ····· 72
그림 3- 3. 환구단 주변 고층빌딩군(좌)과 언덕에 위치한 입지(우) ····· 73
그림 3- 4. 고층 빌딩 숲속에 위치한 황궁우 주변입지(좌)와 황궁우 내부(우) ····· 74
그림 3- 5. 황궁우 전경과 입면 ····· 76
그림 3- 6. 황궁우 내부 외진부분(좌)과 내부 기둥과 천장구조(중, 우) ····· 77
그림 3- 7 남산 동본원사로 이전된 석고단 정문 ·· 78
그림 3- 8. 현재의 석고단과 석고 ····· 80
그림 3- 9. 삼문의 외부와 내부 ····· 81
그림 3-10. 삼문의 답도(좌)와 서수(우)····· 81
그림 3-11. 협문 정면과 측면의 만세 문양 ····· 82
그림 3-12. 측우대 ····· 82
그림 3-13. 그린파크 호텔로 이전된 1970년대초 무렵 조선호텔 정문과 그린파크 호텔 전경·· 83
그림 3-14. 옛 조선호텔 정문과 현재 그린파크의 백운문 ····· 83
그림 3-15. 백운문 평면과 종단면도 ····· 84
그림 3-16. 그린파크 호텔에 위치한 주거건축물과 정자 건축물 ····· 87
그림 3-17. 그린파크 호텔 주거 건축물 외부와 내부 상세 ····· 87
그림 3-18. 송성건의소 발문 : 해미군수(左)와 한산군수(右) ····· 87
그림 3-19. 송성건의소 발문과 영수증(左), 원행스님(右) ····· 88
그림 3-20. 도성전도 1834년 ····· 90
그림 3-21. 도성삼군문분계지도 1751 ····· 91
그림 3-22. 1936년 경성전도 ····· 92
그림 3-23. 현재의 환구단 주변현황····· 92
그림 3-24. 환구단 관련 독립신문 기사 원문····· 96
그림 3-25. 경복궁 집옥재 도면(상)과 사진(하) (자료출처 : 집옥재 수리조사보고서) ·· 98
그림 3-26. 황궁우 동서무 (사진출처:국립민속박물관,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 99
그림 3-27. 중국 천단 배치도 ····· 99
그림 3-28. 중국 천단 황궁우 ····· 100
그림 3-29. 중국 천단과 황궁우 그림····· 100
그림 3-30. 원단 남쪽 홍살문(좌상)과 황궁우에서 본 삼문(좌하)과 황궁우(우)····· 100
그림 3-31. 휘어진 협문 ····· 101
그림 3-32. 환구단사제서 의궤 도설 ····· 101
그림 3-33. 환구단사제서의궤 도설 (캐드 : 필자 재작성) ····· 102
그림 3-34. 초기와 중수의 환구단 규모 및 구성 비교 ····· 110
그림 3-35. 대한예전의 환구단의 도설 ····· 111
그림 3-36. 1921년 조선지형집성(좌)과 1936년 경성전도(우) ····· 113
그림 3-37. 1921년 조선지형집성 상세(좌)와 1936년 경성전도 상세(우) ····· 113
그림 3-38. 석고각(좌)과 누워있는 석고(중), 입구인 광선문(우) ····· 114
그림 3-39. 환구단 모형과 도면 (도면자료협조 : 서울역사박물관) ····· 116
그림 3-40. 덕수궁 내 정관헌과 창경궁 내 박물관 부근 모습 ····· 116
그림 3-41. 환구단 추정도면 ····· 117
그림 3-42. 1912년도 지적도 (자료출처 : 국가기록원) ····· 118
그림 3-43. 1912년 지적도에 표현한 환구단 영역·· 118
그림 3-44. 1897년 10월 12일. 독립신문 기사 ····119
그림 3-45. 1897년 10월 14일. 독립신문 기사 ····120
그림 3-46. 1967년 조선호텔 배치도 (자료출처 : 조선호텔처리지) ····· 122
그림 3-47. 1967년 조선호텔 전경 (자료출처 : 조선호텔처리지) ····· 123
그림 3-48. 축소 예정 문화재보호구역과 조선일보 1982년 9월 10일(금) 매각공고 ·····124
그림 3-49. 국가기록원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자료 125
그림 4-1 현황 지적도 ····· 132
그림 4-2 현황 배치도 ····· 134
그림 4-3 경관 위치도 ····· 135
그림 4-4 ① 황궁우 주변 전경 ····· 135
그림 4-5 ② 시청광장에서 본 황궁우 ····· 135
그림 4-6 ③ 시민광장 전경 ····· 136
그림 4-7 ④ 황궁우에서 조선호텔 연결통로 ····· 136
그림 4-8 ⑤ 롯데 주차장(석고단 자리)····· 137
그림 4-9 ⑥ 롯데주차장에서 본 황궁우····· 137
그림 4-10 대지 경계(1912년 지적도에 현황도로 및 건축물 표시) ····· 138
그림 4-11 공간 구성도(조선지형도 1925년) ····· 139
그림 4-12 대한예전의 환구단의 도설 ····· 140
그림 4-13 중국 천단 전경 ····· 140
그림 4-14 환구단 및 황궁우 사진 ····· 141
그림 4-15 황궁우 삼문 담장 ····· 141
그림 4-16 황궁우 및 동·서무, 협문 ····· 141
그림 4-17 환구단사제서의궤 도설 ····· 142
그림 4-18 조선호텔 건립 전 모습 ····· 142
그림 4-19 중수 당시 석고각 모습 ····· 142
그림 4-20 경계 및 복원배치도 ····· 143
그림 4-21 환구단 안내판(현황)····· 146
그림 4-22 안내사인 설치 계획도 ····· 146
그림 4-23 전시설 위치 ····· 147
그림 4-24 황궁우 진입로 ····· 149
그림 4-25 조선호텔측 진입-① ····· 149
그림 4-26 프레지던트호텔측 진입-② ····· 149
그림 4-27 시민광장측 진입-③ ····· 149
그림 4-28 황궁우 주변 조경석 및 수목 ····· 150
그림 4-29 삼문 주변 수목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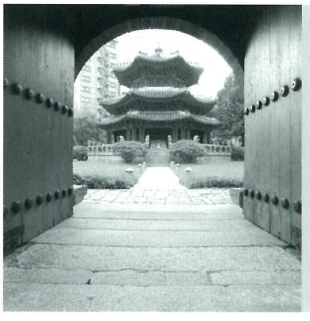
그림 4-30 황궁우 주변 수목 ····· 150
그림 4-31 앙구일구 ····· 151
그림 4-32 야간 경관 현황 ····· 151
그림 4-33 가로등 현황 ····· 151
그림 4-34 문화재 보호법 제5조 (허용기준 마련절차) ·· 152
그림 4-35 환구단 주변 검토 범위 현황 ····· 152
그림 4-36 북쪽 실외기 및 정자 부분 ····· 153
그림 4-37 남동쪽 조선호텔 배기휀 ····· 153
그림 4-38 지하주차장 출입구(유리박스) ····· 153
그림 4-29 황궁우와 시민광장 사이 수목 ····· 153
그림 4-40 황궁우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지하주차장영역 경계 ····· 154
그림 4-41 지하주차장 출입구(배면) ····· 155
그림 4-42 지하주차장 내부 ····· 155
그림 4-43 지하공간 현황배치도 ····· 155
그림 4-44 지하공간 A-A' 단면도 ····· 156
그림 4-45 지하공간 B-B' 단면도 ····· 156
그림 4-46 시민광장 전경 ····· 157
그림 4-47 시민광장과의 공간 연계 ····· 157
그림 4-48 서울 20세기100년의 사진기록 p88
촬영시기:1930년대 중반 ····· 158
그림 4-49 황궁우 지붕 전경 ····· 159
그림 4-50 황궁우 변형 조사 위치 ····· 160
그림 4-51 황궁우 전면의 동·서무 위치 ····· 162
그림 4-52 중수당시 황궁우 및 동·서무, 협문 ····· 162
그림 4-53 황궁우 주변 정비 계획 ····· 163
그림 4-54 삼문 주변 박석 포장 ····· 164
그림 4-55 진입 포장 및 잔디식재 ····· 164
그림 4-56 (구)그린파크호텔 정문(백운문) 현황 ····· 164
그림 4-57 최종 장기 복원 방안
(현재 현황에 복원도 배치) ····· 166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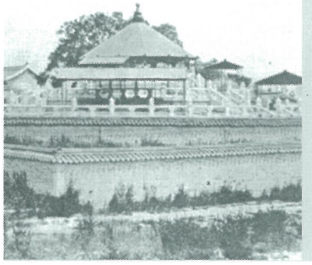
표 2- 1 三國史記에 기재된 백제의 제천행사 ····· 23
표 2- 2 삼국사기에 기재된 신라시조묘 제사 기록·· 26
표 2- 3 삼국사기의 신라 신궁 제사 기록 ····· 28
표 2- 4 고려사 禮志 吉禮에 기재된 국가제례 ···· 30
표 2- 5 고려사의 圜丘儀禮 거행 사례 ····· 32
표 2- 6 고려사 禮志 吉禮大祀 圜丘 도입부
기사의 내용 분류 ····· 38
표 2- 7 國祀와 帝室祀의 구분 ····· 63
표 3- 1 심의석 건축활동 요약 ····· 75
표 3- 2. 환구단 입지변화 ····· 93
표 3- 3. 환구단 연혁 요약 ····· 94
표 3- 4. 사전(祀典) 개혁안 ····· 94
표 3- 5. 1900년 4월 27일 궁내부에서
탁지부에 올린 황궁우 건축비 ····· 97
표 3- 6. 환구단의 제사대상 ····· 103
표 3- 7. 초기와 중수의 환구단 비교 ····· 110
표 3- 8. 1901년 6월 25일 各部請議書存案19,
의정부 편. 정수인 논문 재인용 ····· 114
표 3- 9. 1903년 궁내부에서 올린 환구단 건축비
증액비 명세서 내용 (이욱 논문 재인용) 115
표 3-10. 漢城內治道費增額豫算明細 ····· 119
표 3-11. 사적지정 구역 목록 ····· 124
표 3-12. 환구단 보수공사 기록 ····· 125
표 4- 1 환구단 주변 토지 현황
(1번지 및 87번지 대상 토지) ····· 133
표 4- 2 시민광장 주변 토지 현황 ····· 158
표 5- 1 단계별 계획(총괄) ····· 170
표 5- 2 분야별 추진 일정 ····· 171
표 5- 3 예상 사업비 ·····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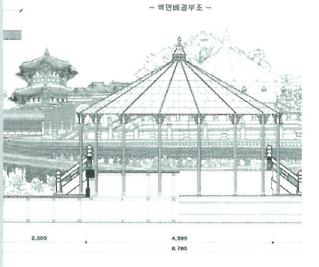
1장

연 구 개 요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환구단(圜丘壇)[1]은 대한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건립된 역사적인 건축물로서 역사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즉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가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점과 제천행사를 거행했던 장소성과 건축물이라는 점, 그리고 조선후기 근대화 과정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 이런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환구단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조사 및 보존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이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과 더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후 실행될 각종 행사의 재현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환구단 고증작업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환구단의 단기적 정비방안과 중장기적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복원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본 연구의 과업은 환구단을 둘러싼 기존의 자료들과 역사적인 고증 자료를 검토하고, 복원정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한 복원정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1) 환구단(圜丘壇), 원구단(圜丘壇), 원구단(圓丘壇) 등으로 지칭되고 있으나, 중구청이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명칭의 한자와 한글표기를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를 거쳐 한자의 표기는 고종황제실록에 기록되어 있는『圜丘壇』으로 하고 한글표기는 독립신문에 나오는 것에 따라 『환구단』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로는 '圜' 과 '圓' 은 같은 의미이다. 또한 圜은 '두를 환' '둥글 원' 으로 발음된다. 자세한 논의는 2장 참조.

1)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중구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

2) 시간적 범위

□ 현황조사 및 문헌조사 : 2006년 7월 - 2007년 12월

□ 복원정비 방안 : 사업 시작일로부터 5년

3) 내용적 범위

(1)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 대상지에 대한 주변환경 조사

□ 대상지 주변 건축물 및 설비 등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 현황 파악

□ 현재 남아 있는 황궁우, 삼문, 석고(돌북) 등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2) 당초 환구단에 대한 정확한 위치, 규모 확인

□ 지적도를 활용한 당초 건립지역의 검토

□ 옛 사진자료를 통한 분석

(3) 환구단 복원화 사업을 위한 관련자료 수집 및 고증

□ 옛 문헌 및 시각자료의 수집

□ 유사사례의 검토

(4) 환구단 복원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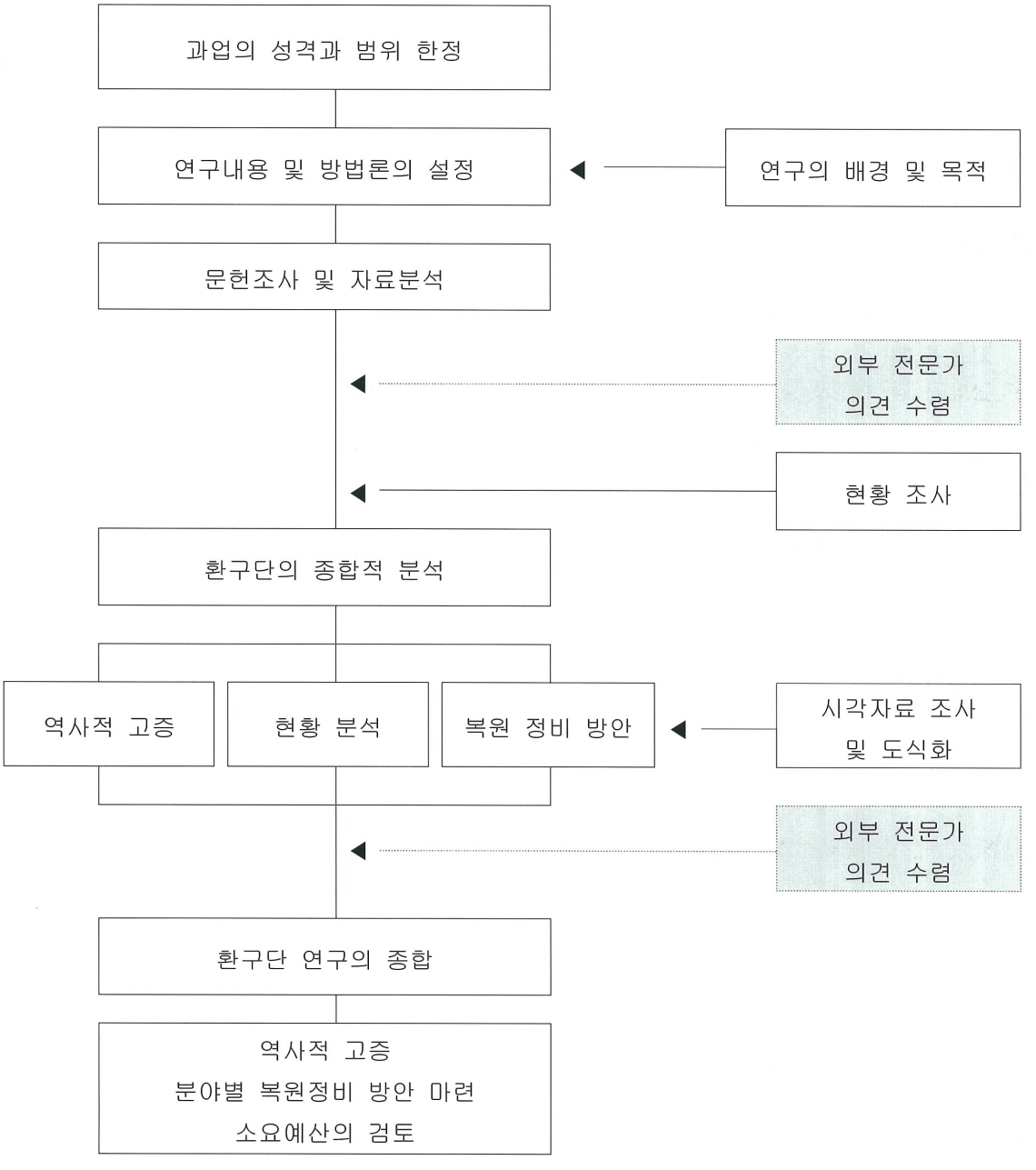
□ 환구단 복원방안 모색 : 단기·중기·장기계획 및 단계별 추정 사업비 검토

□ 복원 기본 구상안 제시

□ 고증에 의한 전통 양식의 조경 계획 및 복원 전까지 현재 건물 및 주변 부속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보존 관리 방안 등

3. 연구의 흐름

□ 본 과업은 환구단 현황조사 및 역사적 고증작업을 통해 복원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단계와 진행으로 연구의 내용이 구성된다.



4. 연구진 구성

- 조사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학연구소
  : (주) 한인건축사사무소
- 책임연구원 : (현) 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전)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원고작성 : 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김웅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박희용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 이상래 (한인건축사무소 소장)
  : 황진하 (한인건축사사무소 차장)
- 자문위원 : 이존희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홍대형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최기수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부 교수)
  : 김동욱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권기혁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사진촬영 : 박희용, 황진하 외 보조 2명
- 자료수집 : 해외자료 및 시각자료 수집 (박희용 외 1명)
  : 김연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 최인영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 황미숙 (서울시립대학교 건축사연구실 연구원)
- 도면작성 : 박희용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 황진하 (한인건축사사무소 차장)
  : 장원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 변기석 (한인건축사사무소 기사)

□ 기획 및 총괄 담당

- 책임연구원 : (현) 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서울학연구소 소장)
  (전)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총괄진행 : 박희용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 현황조사 및 자료정리

- 연구원 : 박희용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 연구보조원 : 황미숙 (서울시립대학교 건축사연구실 연구원)
- 보조원 : 장원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사연구실 연구원)

□ 연혁관련 고증 및 원고정리

- 총괄검토 : 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서울학연구소 소장)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연구원 : 김웅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연구원 : 박희용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 연구보조원 : 김연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최인영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원)

□ 종합계획 도면작성 및 보존·복원계획 마련

- 총괄검토 : 이관영 (주)한인건축사사무소 대표
- 연구원 : 이상래 (주)한인건축사사무소 소장
- 연구원 : 황진하 (주)한인건축사사무소 차장
- 연구보조원 : 이진희 (주)한인건축사무소 조경부 기사
- 보조원 : 변기석 (주)한인건축사무소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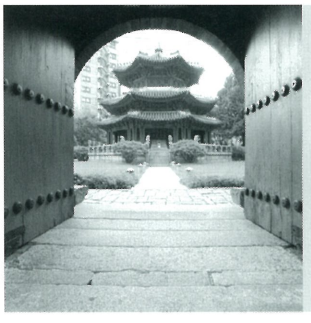
□ 중구청 관계자

- 공원녹지과장 : 김정호
- 담당자 : 박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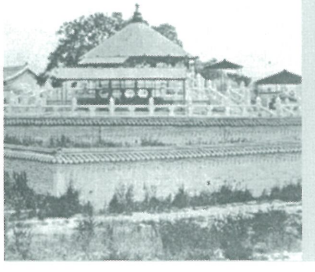
□ 협조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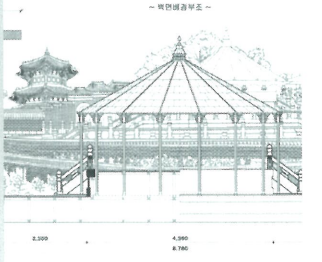
- 중구청 공원녹지과

2장
제천의례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환구단









Ⅱ. 祭天儀禮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圜丘壇

1. 서론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늘[天]을 숭배하는 관념이 존재해 왔다. 이 때의 천은 다른 神格과 구별되는 최상위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천에 제사를 지내는 의례[祭天儀禮]도 지속적으로 거행해 왔다.

우리의 토착적인 하늘숭배 관념과 제천의례는 유교가 도입된 이후 儒敎式 제천의례와 상호 충돌·교섭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제천의례로 자리잡았다. 이후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유교가 국가통치의 기본이념으로 위치하면서 토착적인 제천의례를 포섭한 유교식 제천의례는 祭天行事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확립되었다. 고려시대에 확립된 유교식 제천의례는 고려시대에 단속적으로 거행되었다.

성리학에 기반하여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제천의례는 본격적인 비판에 직면하였다. 유교 경전인 『禮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후국인 조선은 경내에 소재하는 山川만 제사할 수 있을 뿐 천자만 지내도록 규정되어 있는 천은 제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祭天의 실행 여부는 조선초기에 몇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결국 국가 의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國朝五禮儀』에서 배제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조선초기 국가 의례에서 배제되었던 제천의례가 다시 우리 역사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엽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국왕 高宗이 황제로 등극하면서부터였다. 관료들과 일반민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稱帝建元을 도모했던 고종이 환구단[1]을 건립하고 그 곳에서 昊天皇帝와 黃地祇에 대한 제사를 지낸 다음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제천의례는 다시 우리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대한제국을 상징하던 제천의례와 환구단은 대한제국과 그 운명을 같이 하였다. 대한제국 성립 이후 정례적으로 제천의례를 거행하고 환구단의 보강 공사도 진행하였으나,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되어 나라가 半植民地 상태로 전락하면서 대한제국의 제천의례는 실제 내용을 담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거행되다가 결국 1910년 '한일병탄'으로 그 종막을

1) 2007년 현재 중구에 소재한 사적 제157호의 공식 명칭은 '환구단(圜丘壇)'이다. 문화재청에서 2005년 11월 16일자 고시를 통해 한자는 '圜丘壇', 독음은 '환구단'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할 경우 '환구단'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고하였다. 제천의례의 거행 장소이자 시설물이었던 환구단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 1913년 환구단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이 세워졌다. 약화된 國勢의 만회를 위해 야심차게 기획되었던 대한제국의 제천의례와 환구단은 이처럼 대한제국의 쇠망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던 것이다.

본고는 중구청에서 발주한 <환구단 정비 기본계획>의 고증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본고에서는 우리 역사에 나타났던 제천의례의 전개 양상을 大韓帝國期 이전과 이후로 대별하여, 제천의례 실상과 제천행사의 거행장소이자 시설물인 환구단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초기에 주로 왕실에서 거행했던 道敎式 제천행사인 醮祭나 佛敎式 제천행사는 우리나라 제천의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검토를 요하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유교식 제천의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고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고 또 대한제국기 환구의례와는 그 사상적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본고의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대한제국기 이전의 제천의례 모습과 환구단에서 대해 검토한다. 1절에서는 고려시대 이전의 토착적인 제천의례의 모습을 살펴본 뒤, 2절에서는 고려시대에 거행된 환구의례의 실상과 그 성격을 규명하고, "고려사" 「禮志」에 실려 있는 '환구'에 대해 분석한다. 이어 3절에서는 조선초기 환구의례의 치폐 과정을 태조-세종대, 세조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환구의례의 폐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강화되었던 농경관련 제례들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대한제국기 환구단의 건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절에서 갑오개혁기의 환구단 건립 논의, 고종 환궁 이후의 칭제건원 논의와 환구단 건립, 親祀圜丘와 황제즉위식의 거행, 환구단 보강공사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다. 2절에서는 환구의례의 거행 사례와 관련 儀註를 분석하여 대한제국기 환구의례의 운영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사실상 국권을 상실한 통감부 설치 이후 隆熙 연간에 진행된 국가제례의 재편 과정을 검토하여 이 시기 환구의례의 위축 상황을 살펴보고, 한일병탄 이후 환구단이 철폐되고 철도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2. 대한제국기 이전의 제천의례와 圜丘壇

1) 고려시대 이전의 제천의례

신석기시대 후기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돌로 만든 괭이, 보습, 낫 등을 이용하여 조, 피, 수수 등을 재배하기 시작했다.[2] 이처럼 농경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농경과 밀접히 관련된 하늘[天]을 본격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농경을 시작하기 이전인 채집·수렵경제 단계에서의 하늘은 천둥과 번개, 비와 바람 등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천문 현상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숭배하거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농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은 두려움만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작물을 키워주는 고마운 존재로 그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청동기시대를 거쳐 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생산활동에서 농경의 비중이 현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늘을 주관하는 신 즉, 천신은 여타 다른 신앙의 대상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至高神, 다른 신격을 통할하는 主宰神의 위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천신은 기존의 토템신앙이나 지배집단의 祖上神을 포섭 또는 반영하는 형태로, 또는 직접적인 천신의 형태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1) 동예의 무천, 삼한의 농경의례, 부여의 영고

우리의 고대 역사에서도 이러한 천신을 숭배하는 신앙 형식인 제천의례가 있었는데, 東濊의 舞天, 三韓의 農耕儀禮, 夫餘의 迎鼓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3] 『三國志』에 따르면, 동예에서는 항상 10월에 하늘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사람들이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춘다고 하였다.[4] 삼한의 농경의례 역시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삼한 지역에서는 파종을 끝낸 5월과 1년 농사를 마친 10월 두 차례에 걸쳐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밤낮으로 무리를 지어 노래하고 춤을 추며 술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5] 부여에서도 이와 유

2) 한영우, 1997 『다시 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57쪽.

3) 문창로는 우리 고대에서 신앙 대상의 변화과정을 政治體의 확대과정과 연결지어 파악하였다. 邑落 단계에서는 씨족의 토템, 성읍국가 단계에서는 지배세력의 祖上神, 小聯盟國 단계에서는 天神(조상신의 관념화된 형태),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天地神(天을 중심으로 地에 대한 제사가 함께 거행되는 형식),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단계에서는 복속된 지역의 신앙 대상을 國家祭祀인 大祀, 中祀, 小祀로 편제하였다고 파악하였다(文昌魯, 1998 「三韓時代 邑落社會의 信仰儀禮와 그 變遷」 『北岳史論』 5, 국민대 북악사학회).

4)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濊.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사한 모습의 제천의례를 거행하였다. 부여에서는 12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영고라고 부르는 國中大會를 거행하였는데 이때 사람들은 연일 음식을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6] 그런데 동예, 삼한, 부여의 '祭天' 이나 '祭鬼神' 하는 모습은 경건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는 떠들썩한 축제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예, 삼한, 부여의 제천의례는 특정한 시점에서 노예를 제외한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제천의례 형식의 집단적인 축제를 거행함으로써, 원시공동체 사회가 계급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의 긴장된 관계를 이완하고자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통점 외에도 지역이나 나라별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동예에서는 호랑이를 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두고 동예 지역에서 虎神으로 상징되는 세력이 존재하였고, 또 이를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연결지어 단군왕검의 사회형성에 관여하지 않은 호신을 숭배하는 집단이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7] 삼한 지역에서는 앞서 살펴본 '祭鬼神' 행위 외에도 國邑마다 1인의 天君을 두어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여러 國에는 蘇塗라고 부르는 別邑이 있어서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걸어 두고 귀신을 섬겼다고 한다. 이 사례를, '祭鬼神' 할 때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 서로 따르면서 땅을 밟으며 몸을 수그렸다가 일으키는 춤 동작과 연관지어, 이때의 춤은 地靈을 위한 행위로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지령에 대한 제사가 더 원초적이고 천신에 대한 제사는 좀 더 발달한 농경 단계의 제의로 간주되므로 삼한의 농경의례에서 踏地하는 풍습이 남아 있는 것은 북방지역과 구별되는 삼한의 생산과 문화 기반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라고 한다.[8] 또 국읍과 별읍이 서로 정치적으로 상하관계를 맺으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신앙대상이 서로 다른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때 국읍의 조상신은 상위의 '천신' 으로, 별읍의 조상신은 그 보다 격이 낮은 '귀신' 으로 기록되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9] 부여에서는 영고라는 제천의례를 거행할 때 "斷刑獄解囚徒" 즉, 형옥을 판결하고 죄수를 풀어주는 형식으로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였다. 또 군사를 동원할 일이 생길 경우에도 제천의례를 거행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부여의 제천의례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에 머무는 것이

5)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飮酒 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

6)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夫餘.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斷刑獄解囚徒 有軍事 亦祭天 殺牛觀蹄 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有敵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飮食之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7) 최광식, 2003「고대국가의 왕권과 제의」『강좌 한국고대사』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51-152쪽.

8) 李賢惠, 1997「Ⅴ.삼한 2.삼한의 문화」『한국사』4(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국사편찬위원회, 290쪽

9) 文昌魯, 앞의 논문, 45쪽.

아니라 지배층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일환으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10]

(2) 고구려의 제천의례

고구려에서도 10월에 하늘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동맹'이라 부르는 국중대회를 거행하였다.[11] 그런데 동맹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앞의 경우와 달리 음주가무하는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 지배층에 해당하는 大加, 主簿, 小加의 화려한 복식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동예, 삼한, 부여에 비해 한층 더 사회분화가 진전된 사회임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고구려 지배층은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하늘과 교섭하는 제천의례에 참석함으로써 피지배층보다 우월한 신분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10월 동맹에서 天과 더불어 제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隧神'은 地神族 관념을 형성시킨 성읍국가 단계의 柳花部族과 관련된 것으로 연맹왕국 단계에서 扶餘神으로 관념화되면서 천신과 더불어 제천의례에서 함께 제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12] 그러므로 고구려에서 거행된 제천의례인 동맹은 천신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신을 포함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맹이라는 제의 명칭은 고구려의 건국자 東明과 관련이 있으므로 동맹은 제천의례이면서 동시에 國祖神 즉 조상신에 대한 제의로도 파악할 수 있다.[13]

고구려에서는 10월의 동맹 외에도 3월 3일에 樂浪의 언덕에 모여 수렵을 행하고 이때 잡은 돼지와 사슴을 희생으로 삼아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보인다.[14] 이 기록은 수렵의 장소가 낙랑의 언덕인 것으로 보아 고구려가 낙랑군을 합병한 4세기 전반 이후의 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狩獵圖의 모습, "큰 산이나 깊은 계곡이 많고 들판이나 못이 적으며 사람들의 성격이 흉하고 급하며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는 기록으로 보아[15] 고구려에서의 집단적인 수렵은 그 전통이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의 기사에 나타난 집단적인 수렵과 이와 연관되어 거행한 제천의례는 낙랑 병합 이후 비로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전부터 某處에서 행해 오던 집단수렵과 제천의례를 낙랑 병합 이후 낙랑의 언덕에서 거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6] 이처럼 고구려에서는 3월 3일과

10) 부여의 영고에 대해선 宋鎬晟, 1997「Ⅲ.부여 4.부여의 문화」『한국사』4(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국사편찬위원회, 222-224쪽 ; 문창로, 앞의 논문, 3-10쪽 ; 최광식, 2003, 위의 논문, 139-145쪽 등이 참조된다.

11)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高句麗.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同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

12) 문창로, 앞의 논문, 41쪽.

13) 최광식, 1998「Ⅰ.토착신앙」『한국사』8(삼국의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6쪽.

14) 『三國史記』 卷32, 雜志1, 祭祀. "古記云…又高句麗 常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獲猪鹿 祭天及山川"

15)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30, 高句麗. "多大山深谷 無原澤…其人性凶急 喜寇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제천의례를 거행하여 지배층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고 전투력을 유지·증대시켰으며 피지배층에게 지배층의 신분적 우위를 과시하였다.

한편 『三國史記』 高句麗本紀를 살펴보면, 고구려에서는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중국의 郊祀와 유사한 제천의례도 거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7] 교사 자체보다 교사의 희생으로 쓸 돼지[郊豕]가 도망하여 이를 잡아오게 하였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고구려에서 거행한 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다. 다만 교사의 희생으로 돼지를 사용했다는 것, 교사에 쓸 목적으로 '飼育' 하고 있던 돼지가 도망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때의 교사는 앞에서 살펴본 돼지를 사냥하여 거행했던 낙랑 언덕에서의 제천의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돼지가 도망한 시기가 8월, 3월, 11월인 것으로 보아 1년에 몇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교사를 거행했고 郊外에 정기적인 제천행사를 위한 祭壇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 정도가 가능하다.[18]

이처럼 고구려의 제천의례는 3월에 낙랑 언덕에서 거행된 수렵과 제천의례, 10월의 동맹, 시기가 불명확하지만 郊外에서 정기적으로 거행된 것으로 보이는 '郊祀' 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백제의 제천의례와 祭壇

고구려·신라와 함께 鼎足之勢의 한축을 형성했던 백제에서도 제천의례를 거행했다. 『삼국사기』 百濟本紀에는 백제에서 거행한 제천행사에 대한 기록이 11회 보이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를 보면 백제에서는 기원후 2년(온조왕 20) 2월에 大壇을 설치하고 왕이 친히 天地에 제사지낸 것을 시작으로 489년(동성왕 11) 10월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제천의례를 거행하였다. 『삼국사기』에는 489년 이후 660년(의자왕 20) 멸망할 때까지 제천에 대

16) 박승범도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朴承範, 2001「고구려 국가제사」『史學志』34, 한국사학회, 97-98쪽).

17)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琉璃明王 19年. "秋八月 郊豕逸 王使託利斯卑追之 至長屋澤中得之 以刀斷其脚筋 王聞之 大怒曰 祭天之牲 豈可傷也 遂投二人坑中殺之" ;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1, 琉璃明王 21年. "春三月 郊豕逸 王命掌牲薛支逐之 至國內尉那巖得之" ; 『三國史記』 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12年. "冬十一月 郊豕逸 掌者追之 至酒桶村 躑躅不能捉"

18) 고구려의 郊祀와 관련해서 금장태는 "祭天의 시기도 대체로 5월, 10월, 12월로 짐작해 볼 수 있다.…그것은 상당한 부분에서 유교적 郊祭와 공통성이 있거나 유교적 영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하였다(琴章泰, 1992「祭天儀禮의 歷史的 考察」『儒敎思想硏究』4·5, 儒敎學會, 54-55쪽). 그러나 2대 琉璃明王 시기는 기원 전후로서 고구려 초창기에 해당하고, 유목민족의 결혼풍속인 兄死取嫂制가 山上王代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구려 초기의 교사를 유교적 교사와 연결하여 파악하기보다는 중국의 天관념과 동시에 존재했던 북방 유목민족의 천관념이나 제천의례와 연결지워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북방 유목민족의 천관념과 제천의례에 대해서는 박승범, 앞의 논문, 95쪽 참조.

한 기록이 없다.

제사를 지낸 시기를 보면 초창기에는 2월 또는 10월에 거행했으나 238년(고이왕 5)부터는 정월로 고정되었다. 물론 웅진 천도 이후인 489년(동성왕 11)의 사례에서는 10월에 제천의례를 거행하기도 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처럼 제사 시기가 정월로 고정된 것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紀元儀禮적인 성격을 담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유교식 제천의례에서 정월 上辛(첫 번째 辛日)에 제천의례를 거행했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19]

표 2-1 『三國史記』에 기재된 백제의 제천행사

연번	王歷(서기)	월	내용	비고	출전
1	溫祖王 20년(2)	2월	王設大壇 親祀天地	최초 기록	권23, 백제본기1
2	온조왕 38년(20)	10월	王築大壇 祀天地		권23, 백제본기1
3	多婁王 2년(29)	2월	王祀天地於南壇	南壇	권23, 백제본기1
4	古爾王 5년(238)	정월	祭天地 用鼓吹	鼓吹, 정월	권24, 백제본기2
5	고이왕 10년(243)	정월	設大壇 祀天地山川	山川 추가	권24, 백제본기2
6	고이왕 14년(247)	정월	祭天地於南壇		권24, 백제본기2
7	比流王 10년(313)	정월	祀天地於南郊 王親割牲	南郊, 王親割牲	권24, 백제본기2
8	近肖古王 2년(347)	정월	祭天地神祇	祭壇위치 불분명	권24, 백제본기2
9	阿莘王 2년(393)	정월	王設壇祭天地		권25, 백제본기3
10	腆支王 2년(406)	정월	祭天地於南壇 大赦	大赦 시행	권25, 백제본기3
11	東城王 11년(489)	10월	王設壇祭天地	시기 변경: 10월	권26, 백제본기4

제사의 대상을 보면 天地가 9회이며 天地山川과 天地神祇가 각각 1회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백제에서의 제천의례의 대상은 하늘과 천인데 이때의 하늘과 천은 天神과 地祇를 지칭한다. 또 地域神을 의미하는 山川이 천지와 함께 제사 대상으로 1회 출현하고 있다. 금장태는 이것을 종교학적으로 해석하여, "백제의 제천의례에서 제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神 존재는 天·上帝가

19) 김일권에 따르면, 중국 儀禮史에서 정월 上辛을 신년 제천의례 시기로 삼은 것은 王莽(B.C.45-A.D.25)의 元始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김일권, 2002 「고려시대 국가 제천의례의 다원성 연구」 『고려시대의 종교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71쪽).

아니고, 天地·天地山川·天神地祇로 제시되고 있는 사실은 天[上帝]의 至高性을 강조하는 측면보다, 天과 地로 대응된 우주론적 기본 구조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전통과 마한 사회의 문화를 기반으로 일찍부터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 으로 파악하였다.[20]

최광식은 정월과 2월의 제천의례는 祈豊祭的 성격을 지니고 10월의 경우는 삼한의 10月祭와 같이 수확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다루왕·근초고왕·아신왕·전지왕 때에는 의례를 거행한 해가 왕이 즉위한 다음해이므로 즉위의례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였다.[21] 금장태와 최광식의 견해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제천의례의 거행 장소나 祭場의 형식을 보면 大壇으로 표기한 것이 3회, 그냥 設壇으로 표기한 것이 2회, 南壇이 3회, 南郊가 1회, 표기가 없는 경우가 2회이다. 대단은 제장의 형식이 壇이며 매우 크다는 것을, 설단은 제장의 형식이 단이라는 것을, 남단은 제장의 형식이 단이며 장소가 (도성의) 남쪽이라는 것을, 남교는 장소가 도성 밖 남쪽의 郊外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단이라는 표현은 전반기인 243년(고이왕 10)까지만 등장하고, 남단이라는 표현이 이른 시기인 29년(다루왕 2)부터 등장하여 설단과 더불어 후반기의 제천의례에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대단·설단·남단은 모두 '남쪽에 설치한 큰 단' 이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싶다.

정작 문제는 남단과 1회 출현한 남교 양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있다. 금장태는 양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여, 남단은 중국의 제천의례에서 도성 안의 남쪽에 자리잡은 圓丘[南壇·天壇]에 해당하고 남교는 도성 밖 남쪽 교외에서 행하는 郊祀와 유사한 것으로 보았다.[22] 그런데 중국의 儀禮史를 보면, 天地陰陽 사상에 입각하여 남교에서 天을 제사하고 북교에서 地를 제사하는 형식과, 天圓地方의 우주론에 입각하여 하늘의 모습을 본뜬 둥근 圜丘에서 天을 제사하고 네모난 땅의 모양을 본뜬 方口 혹은 方澤에서 地를 제사하는 형식의 대립이 있어 왔는데, 王莽(B.C45-A.D.25) 때 양자를 절충하여 祭場의 위치는 南郊·北郊를 따르고, 祭壇의 형태는 圓丘·方口를 취하는 방식이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양자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이후 王肅(195-256)의 郊丘一元論과 鄭玄(127-200)의 郊丘二元論이 등장하여 정현의 주장은 曹魏 이래 北朝 계통의 왕조로 전승되고, 왕숙의 주장은 西晉 이래 南朝 계통의 郊祀 제도로 이어진다고 한다.[23] 이 주장에 의거하면 남조와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던 백제에서 중국의 교사 제도를 채택하였다면 남조의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24] 즉 南郊에 圜丘를 쌓아 제천행사를 거행

20) 금장태, 앞의 논문, 6쪽.
21) 최광식, 1998, 앞의 논문, 25쪽.
22) 금장태, 앞의 논문, 6쪽.
23) 金一權, 1998「魏晉南北朝 시기의 郊祀制度 변천과 天文思想」『震檀學報』86, 震檀學會, 175-178쪽.
24) 백제의 또 다른 제천의례에서, 중국처럼 天과 五帝를 致祭 대상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25] 적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확언하기는 어려우나 백제에서의 제천의례는 남교에 제단을 쌓고 거행했다고 보는 것이 실상과 더 부합할 듯싶다. 그러므로 <표 1>에 등장하는 대단, 설단, 남단, 남교는 다 같은 표현으로 보아 '남교에 커다랗게 쌓은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를 보면 238년(고이왕 5) 정월의 제천의례 때에 鼓吹 즉 祭禮樂을 사용하였고,[26] 313년(비류왕 10) 정월의 제천의례 때에는 왕이 직접 희생을 갈랐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백제의 제천의례는 제례악을 구비하여 연주하며 희생을 바치는 등 일정한 의례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역사서인 『周書』와 『隋書』를 보면[27] 백제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다른 내용의 제천의례를 거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백제왕이 四仲之月(2·5·8·11월)에 天과 五帝의 神에게 제사하고, 또 매년 네 차례 그 시조인 仇台의 廟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발표된 김기흥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28] 그에 따르면, 백제는 熊津(공주) 천도(475) 이후 그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천하관이 반영된 周禮 체계의 五帝 숭배를 받아들여 왕이 국토 내 모든 지방을 통치할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이것은 남쪽으로 천도함에 따라 그 동안 변방에 불과하던 옛 마한 지역이 이제는 백제 영토의 핵심이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29] 그리고 이때 제천의례의 致祭 대상에서 제외된 地는 泗沘(부여) 천도(538, 성왕 16) 이후 三山과 五嶽의 제사체계를 마련하여 대체하였다. 삼산은 사비의 日山·吳山·浮山이며, 中嶽이 불명확하지만 국토 경계에 있는 계룡산(충남 공주, 동악)·월출산(전남 영암, 서악)·智異山(남악), 烏棲山(충남 보령, 북악)이 오악으로 설정되었다.[30]

요약하면, 백제에서의 제천의례는 남교에 제단을 쌓고 거행하는 것이었는데, 웅진 천도 이후 그 치제 대상이 '天地'에서 '天과 五帝의 神'으로 바뀌었으며, 이때 치제 대상에서 제외된 地는 삼산과 오악의 제사체계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5) 고려시대의 사례이지만, 老人星에 대한 제례의 거행 장소를 '南郊' '南壇' 두 가지로 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高麗史』 卷63, 志17, 禮5, 吉禮小祀, 雜祀. "(靖宗)五年二月壬午 祀老人星於南郊" ; "(睿宗)八月丙戌 命有司 祀老人星于南壇"

26) 여기서의 '鼓吹'는 고려시대처럼 제례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례 거행 이후 환궁할 때 연주하던 음악일 가능성도 있다.

27) 『周書』 卷49, 列傳41, 異域 上, 百濟. "百濟者 其先蓋馬韓之屬國 夫餘之別種 有仇台者 始國於帶方…其王以四仲之月 祭天及五帝之神 又每歲四祠其始祖仇台之廟" ;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百濟. "東明之後有仇台者 篤於仁信 始立其國于帶方故地…每以四仲之月 祭天及五帝之神 立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

28) 김기흥, 2004「백제의 정체성(正體性)에 관한 일 연구」『역사와현실』54, 한국역사연구회.

29) 김기흥, 위의 논문, 205-209쪽.

30) 李道學, 1989「泗沘時代 百濟의 4方界山과 護國寺刹의 成立」『百濟研究』20,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21-126쪽(김기흥, 위의 논문, 209쪽에서 재인용).

(4) 신라의 제천의례: 시조묘 제사와 신궁 제사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 국가차원의 제천의례를 거행했다는 직접적인 기사는 없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 찬자인 金富軾은 『禮記』 「王制」篇의 관련 기록을 인용하면서 신라는 제후국의 예법을 준수하여 제천의례를 거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31] 그러나 신라에서는 국가 차원의 제천의례를 제천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거행했던 것이 아니라 始祖廟제사나 神宮제사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거행했다. 바로 이 점이 명시적으로 제천의례를 거행한 고구려·백제와 다른 신라만의 독특한 모습이다. 하늘을 숭배했던 신라인의 천 관념을 고려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가차원의 제천의례는 이처럼 시조신을 매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국가제사에서는 제천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게 된 것이다.[32]

표 2-2 『삼국사기』에 기재된 신라 시조묘 제사 기록

代	姓	王名	年月	記事	代	姓	王名	年月	記事
2	朴	南解次次雄	3.1	立始祖廟	14	석	儒禮尼師今	2.1	謁始祖廟
3	박	儒理尼師今	2.2	親祀始祖廟 大赦	15	석	基臨尼師今	2.2	祀始祖廟
4	昔	脫解尼師今	2.2	親祀始祖廟	16	석	訖解尼師今	2.2	親祀始祖廟
5	박	婆娑尼師今	2.2	親祀始祖廟	17	김	奈勿尼師今	3.2	親祀始祖廟
6	박	祇摩尼師今	2.2	親祀始祖廟	18	김	實聖尼師今	3.2	親謁始祖廟
7	박	逸聖尼師今	2.1	親祀始祖廟	19	김	訥祇痲立干	2.1	親謁始祖廟
								19.4	祀始祖廟
8	박	阿達羅尼師今	2.1	親祀始祖廟 大赦	20	김	慈悲痲立干	2.2	謁始祖廟
			17.2	重修始祖廟					
			19.2	有事始祖廟					
9	석	伐休尼師今	2.1	親祀始祖廟 大赦	21	김	炤知痲立干	2.2	祀始祖廟
								7.4	親祀始祖廟
10	석	奈解尼師今	2.1	謁始祖廟	31	김	神文王	7.4	遣大臣於祖廟致祭
11	석	助賁尼師今	1.7	謁始祖廟	41	김	哀莊王	2.2	謁始祖廟
12	석	沾解尼師今	1.7	謁始祖廟	42	김	憲德王	5.2	謁始祖廟
			7.	禱祀祖廟及名山 乃雨					
13	金	味鄒尼師今	2.2	親祀國祖廟 大赦	42	김	興德王	8.4	王謁始祖廟
			20.2	謁廟					

출처: 나희라, 1999「新羅의 國家 및 王室 祖上祭祀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6-198쪽의 '<표 1> 시조묘·신궁·종묘제사 관계 기록'에서 부분 발췌.

31) 『三國史記』 卷31, 志1, 祭祀. "按新羅宗廟之制…皆祭境內山川 而不及天地者 蓋以王制曰 天子七廟 諸侯五廟 二昭二穆與太祖之廟而五 又曰天子祭天地天下名山大川 諸侯祭社稷名山大川之在其地者 是故不敢越禮而行之者歟"

32) 羅喜羅, 1999「新羅의 國家 및 王室 祖上祭祀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2-193쪽.

신라의 경우, 국가차원의 제천의례를 처음에는 시조묘에서 거행하다가 487년(소지마립간 9) 신궁을 세운 뒤에는 신궁에서 거행하였다.[33] 기원후 3년(남해차차웅 3)에 건립한[34] 신라의 시조묘는 시조인 박혁거세를 제사하는 廟였다. 그런데 이때 치제 대상인 박혁거세는 단순한 인격적 시조가 아니라 始祖王이 구현하고 있는 天神과 農業神 성격을 포함하는 존재였다. 또한 신궁이 건립되기 이전의 신라왕들이 대개 즉위한 이듬해에 시조묘에 나아가 親祀하는 것을 볼 때 신라의 시조묘 제사는 즉위의례도 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신라의 시조묘 제사는 제천의례와 함께 조상제사, 농경의례, 즉위의례를 겸하는 복합적인 성격의 제사로 볼 수 있다.[35]

『삼국사기』 新羅本紀에 실려 있는 시조묘 제사 기록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이를 보면, 시조묘 제사는 왕이 즉위한 이듬해에 '親祀' '親謁'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으로서 시조묘 제사와 즉위의례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이를 『삼국사기』 祭祀條의 "제2대 南解王 3년 봄에 시조 혁거세의 묘를 처음으로 세우고 四時로 제사를 지냈는데, 親妹인 阿老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는 기록과 연관지어 파악하면,[36] 왕은 즉위나 큰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에만 친히 제사를 지냈고 일상적인 제사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지내게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의 사례지만 시조묘 제사와 연관되어 대사면령[大赦]을 시행하거나, 고위관원을 임명하거나, 生父를 葛文王에 봉하는 기사가 연속해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487년(소지마립간 9)에 신궁을 건립하면서부터는 왕이 직접 지내는 시조묘 제사는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겨우 세 차례 밖에 나타나지 않고 그것도 즉위의례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사례는 40대 애장왕 2년 2월의 '謁始祖廟' 1회에 불과하다. 이것은 신궁 건립 이후에 시조묘 제사의 성격이 변화하였으며 시조묘 제사가 수행하던 즉위의례의 기능이 신궁 제사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표 3> 참조).

신궁의 主神은 시조묘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이다.[37] 시조묘는 시조의 죽음과 관련된 곳인 박혁거세의 陵 자체이거나 능 부근에 세운 祭祀處였던 것으로 보인다.[38] 그런데 신궁은 이와 달리 박혁거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탄생한 곳 즉, '誕降之地' '初生之處' 인 奈乙에 세워졌다.[39] 『삼국유사』의 박혁거세 신화를 볼 때 6部民들이 박혁거세를 '天子' 로

33)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9年. "九年 春二月 置神宮於奈乙 奈乙 始祖初生之處也"
3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3年. "三年 春正月 立始祖廟"
35) 나희라, 앞의 논문, 50-77쪽.
36) 『三國史記』 卷32, 雜志1, 祭祀. "南解王三年春 立始祖朴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37) 신궁의 주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여러 설이 있는데, 신라의 시조로 보는 설과 天地神으로 보는 설로 양분되며, 전자는 다시 김씨시조설과 박씨시조설로 나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검토는 나희라, 앞의 논문, 109-117쪽 참조.
38) 나희라는 '陵=廟' 관념에 근거하여 시조묘는 혁거세의 능이나 부근에 건립했을 것으로 보았다(나희라, 1999, 앞의 논문, 55-61쪽).
39)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9年. "九年 春二月 置神宮於奈乙 奈乙 始祖初生之處也" ; 『三國

받아들인 것은 그의 죽음보다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는 그의 탄생과 밀접히 관련된다. 즉 박혁거세가 천자로, 天神의 神聖性을 구현한 존재로 인식된 것은 그 탄생의 異蹟 때문이었다.[39]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곳에 신궁을 건립한 것은 신라사회가 마립간기에 접어들면서 인근 집단의 복속을 거의 마무리짓고 국가지배체제를 중앙집권 방식으로 정비하기 시작하며 김씨들이 왕위 계승을 독점하면서 나타난 왕권강화의 노력과 짝하는 조치였다. 눌지마립간 시기의 왕통 계보의 정리를 발판으로 소지마립간은 역대 왕의 제사를 시조묘로 모은 다음 시조의 탄강처에 신궁을 설치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궁 제사는 박혁거세를 主神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시조묘 제사와 같지만 시조 탄강처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강조점이 시조왕의 '하늘로부터의 탄강' 에 있게 됨에 따라 시조묘 제사와 비교할 때 훨씬 더 '天' 에 접근할 수 있는 제사였다. 신라 왕실은 시조묘 제사 대신에 신궁 제사를 국가 및 왕실의 최고제사 반열에 두고 이곳에서 즉위의례를 거행함으로써 보다 더 직접적으로 '천' 의 신성함과 그 지고한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40] 신궁 제사 기록을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 위의 <표 3>이다.

표 2-3 『삼국사기』의 신라 신궁 제사 기록

代	姓	왕명	연월	기록	代	姓	왕명	연월	기록
21	金	炤知痲立干	9.2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也	35	김	景德王	3.4	親祀神宮
			17.1	王親祀神宮	36	김	惠恭王	2.2	王親祀神宮
22	김	智證痲立干	3.3	親祀神宮*	37	김	宣德王	2.2	親祀神宮
23	김	法興王	3.1	親祀神宮 龍見楊山井中	38	김	元聖王	3.2	親祀神宮
25	김	眞智王	2.2	王親祀神宮	40	김	哀莊王	3.1	王親祀神宮
26	김	眞平王	2.2	親祀神宮	41	김	憲德王	2.2	王親祀神宮
27	김	善德王	2.1	親祀神宮 大赦	42	김	興德王	2.1	王親祀神宮
28	김	眞德王	1.11	王親祀神宮	47	김	憲安王	2.1	親祀神宮
31	김	神文王	2.1	親祀神宮 大赦	48	김	景文王	2.2	王親祀神宮
32	김	孝昭王	3.1	親祀神宮 大赦				12.2	親祀神宮
33	김	聖德王	2.1	親祀神宮	55	朴	景哀王	1.10	親祀神宮 大赦

* 第二十二代智證王 於始祖誕降之地奈乙 創立神宮(『삼국사기』 권32, 雜志1, 祭祀)

출처: 나희라, 1999「新羅의 國家 및 王室 祖上祭祀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6-198쪽의 '<표 1> 시조묘·신궁·종묘제사 관계 기록'에서 부분 발췌.

史記』 卷32, 雜志1, 祭祀. "第二十二代智證王 於始祖誕降之地奈乙 創立神宮 以享之"

39) 나희라, 앞의 논문, 118-119쪽.

40) 나희라, 앞의 논문, 184-185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에서는 국가차원의 제천의례를 제천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거행했던 것이 아니라 시조묘 제사나 신궁 제사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거행하였다. 처음에는 시조묘 제사를 통해 제천의 성격을 반영하였지만 신궁 건립 이후에는 신궁 제사를 통해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의미의 '親祀神宮'은 왕조 말기까지 이어졌다.[41] 시조묘와 신궁 모두 혁거세를 주신으로 하였지만 신궁이 시조의 탄강처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좀 더 '천'의 신성성과 지고성에 근접한 것이었다.

2) 고려시대 圜丘儀禮와 환구단

(1) 환구의례의 거행과 그 성격

고려는 불교국가라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고려시대는 불교·유교·도교·무속 등 여러 사상 또는 종교가 각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다종교 사회였다.[42] 성종(981-997) 때 崔承老가 時務 28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으로서 각각 修身과 理國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43] 道敎式 제천의례인 醮祭 또한 국가·왕실의 안녕과 재난 해소를 목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거행하였다.[44] 무속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무속의 주체인 巫는 시기의 변화에 따른 활동의 강약은 있었지만, 고려시대에도 儀禮전문가, 治病전문가, 占卜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45]

고려시대는 유교가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을 포함하는 지배세력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용인하면서도 고려 나름의 독자적 세계관·다원적 天下觀을 견지했던 시기이기도 했다.[46] 고려시대 이전부터 동아시아 각국은 중국의 유교 정치이념을 부분적으로

41) '통일신라'와 더불어 남북국시대를 이루었던 발해는 738년(발해 文王 大興2, 唐 玄宗 開元26)에 당나라로부터 『大唐開元禮』를 수입하였다(정구복, 2002「『高麗史』 禮志의 성격과 자료적 가치」『고려시대연구』 V, 한국학중앙연구원, 41쪽). 이로 미루어 볼 때 발해에서도 국가차원의 제천의례를 거행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제천의례의 실상을 알려주는 사료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의 서술에서는 제외하였다.

42) 박종기는 이와 같은 고려사회를 '多元사회', '사상과 문화의 다양성을 토양으로 통일성을 추구한 사회'로 보았다(박종기, 1999 『500년 고려사』, 푸른역사, 23쪽).

43) 『高麗史節要』 卷2, 成宗 1年 6月. "崔承老上書略曰…臣又錄時務二十八條…行釋敎者 修身之本 行儒敎者 理國之源"

44) 『고려사』 世家에 圜丘祭儀는 14회 등장하는 반면 도교식 제천의례인 초제는 183회나 등장한다고 한다(김일권, 2002「고려시대 국가 제천의례의 다원성 연구」『고려시대의 종교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69쪽).

45) 고려시대 巫의 기능과 그 변천과정에 대해선 최종성, 2002「고려시대 종교전문가와 종교직능: 王·巫·醫·日者」『고려시대의 종교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참고. 또 巫가 고려 및 조선시대의 祈雨儀禮에 참여했던 모습에 대해선 최종성, 2002 『조선조 무속 國行儀禮 연구』, 일지사 참조.

46) 고려시대의 多元的 천하관에 대해선 盧明鎬, 1999「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韓國史硏究』

수용하고 있었는데, 9-10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각종 정치 제도를 유교식으로 개편하였다. 고려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유교이념에 따른 정치적 덕목, 君主像, 官人像, 군신관계, 관리선발을 비롯한 인사제도, 禮制, 官制, 정치운영방식 등 본격적인 유교 정치문화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 정치이념에 따른 변화는 중국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에서 견지했던 다원적 천하관에 입각하여 전통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47]

고려시대 제천의례인 환구의례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해야 그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환구의례는 國家祭禮의 일부로서 거행된 것이므로 고려시대 국가제례의 전체 틀 속에서 조망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시대 국가제례는 『고려사』 禮志 吉禮에 개략적이나마 정리되어 있어 이를 분석하면 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48]

표 2-4 『고려사』 禮志 吉禮에 기재된 국가제례

제례 분류	제례 명칭
大祀	圜丘, 方澤, 社稷, 太廟, 別廟, 景靈殿, 諸陵
中祀	籍田, 先蠶, 文宣王廟
小祀	風師・雨師・雷神・靈星(・禜祭), 馬祖, 先牧・馬社・馬步, 司寒,諸州縣文宣王廟, 大夫士庶人祭禮
雜祀	*軷祭(→壓兵祭), 醮, 南海神, 川上祭, 老人星, 城隍神祠, 名山大川(群望), 五溫神, 箕子祠, 東明聖帝廟, (西都)藝祖廟, 禖祭, 天祥祭, 纛祭

* 1008년(목종 11) 10월에 壓兵祭로 명칭 변경.
출전: 『고려사』 권59~63, 禮1~禮5.

이를 보면 고려시대 국가제례는 크게 大祀, 中祀, 小祀, 雜祀로 편제되었는데, 이 중 국가에서 지낸 제사의 거행 사례를 왕별로 기재하고 있는 잡사는 신라나 조선시대의 제례 분류에는 없는 것으로서 고려만의 독특한 국가제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잡사라는 분류 항목은 고려시대 당대에는 없던 것으로, 조선시대에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고려시대 祀典에서 '未分等第

105, 한국사연구회 참조.

47) 노명호, 위의 논문, 37-39쪽.

48) 『고려사』 예지 길례의 기사는 첫째 고려시대에 중시되었던 불교의례가 빠져 있고, 둘째 왕이 자주 친히 거행했던 醮祭나 神祠의 제사가 雜祀로 그 격이 떨어져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조차도 누락이 심하며, 셋째 雜祀에 해당하는 제사는 관련된 儀注 없이 편년 자료로만 기록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金澈雄, 2002「고려 國家祭祀의 體制와 그 특징」『韓國史硏究』118, 한국사연구회, 135-137쪽). 그러므로 예지 길례의 분석만으로는 고려시대 국가제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본고가 고려시대 국가제례에 대해 專論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예지 길례에 대한 분석에 그치도록 한다.

된' 국가제례를 기록하기 위해 고려사 편찬자들이 『通典』과 『文獻通考』의 '雜祠'條를 참고해서 임의로 붙인 용어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당대에는 국가제례를 대사·중사·소사와 미분등재된 祭祀로 구분하여 二元體制로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미분등재된 제사인 잡사도 고려시대에는 대사, 중사, 소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행된 定式의 국가제례였다.[49]

이처럼 이원체제로 운영된 고려시대 국가제례는 그 禮制를 天子國 내지 황제의례에 준하여 행했다는 점, 왕실의 조상제사를 매우 다양하게 거행했다는 점, 嶽鎭海瀆과 名山大川 등을 大·中·小祀로 편제하지 않았다는 점, 도교의례인 초제를 국가제사로 거행했다는 점, 국가제사를 통해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50] 바로 환구의례는 그것과 짝을 이루는 方澤儀禮와 더불어 고려시대 국가제례에 보이고 있는 禮制 운영에서의 천자국 내지 황제의례의 借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고려사』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983년(성종 2) 정월 辛未에 왕이 직접 환구단에서 태조를 配享으로 하여 上帝에게 祈穀祀를 거행한 것을 시작으로 1379년(우왕 5)까지 총 16회의 환구의례를 거행하였다.[51] 이를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물론 禮志에 '有司攝事儀'가 갖추어져 있고,[52] 1121년(예종 16) 有司에게 명하여 환구의례를 거행하도록 한 <표 5>의 사례 5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사』에 나오는 16회가 고려시대에 거행한 환구의례의 전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고려사』를 편찬할 때 왕이 親祀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 16회 정도만 기재했을 것으로 보인다.[53]

먼저 환구의례를 거행한 달을 보면 정월이 4회, 4월이 2회, 5월이 7회(윤달 포함), 7월이 2회, 10월이 1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4월과 5월의 사례 모두(5·7·8·9·10·11·12·13·16)와 7월의 사례 중 4의 경우, '禱雨' '以旱 禱' '雩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우를 목적으로 환구의례를 거행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49) 김철웅, 위의 논문, 137-147쪽 참조.

50) 김철웅, 위의 논문, 147-156쪽 참조.

51) 고려시대 환구의례에 대해선 다음의 글들이 참조된다. 김일권, 2002, 앞의 논문 ; 金澈雄, 앞의 논문 ; 金海榮, 2003「『詳定古今禮』와 高麗朝의 祀典」『朝鮮初期 祭祀典禮 硏究』, 集文堂 ; 李範稷, 1991「『高麗史』 禮志 五禮의 分析」『韓國中世禮思想硏究』, 一潮閣.

52) 『高麗史』 卷59, 志13, 禮1, 吉禮大祀, 圜丘. "有司攝事儀"

53) 『高麗史節要』의 凡例를 보면 "朝會祭祀常事 而有故則書 親祭則書"라고 하여 왕이 親祭한 경우에는 기재한다는 편찬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고려사』에 나타난 환구의례 사례를 『고려사절요』에서 확인해 보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370년(공민왕 19)의 '親祀圓丘'도 『고려사절요』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고려사절요』의 편찬자들이 편찬 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2-5 『고려사』의 圜丘儀禮 거행 사례

연번	연도(王歷)	月日	관련 기사	출전
1	983년(成宗 2)	正月 辛未	王祈穀于圓丘 配以太祖 乙亥 躬耕籍田 祀神農配以后稷 祈穀籍田之禮始此 丁丑 宴群臣於天德殿 賜物有差	世家3
2	1031년(顯宗 22)	정월 乙亥	親耕籍田 赦流罪以下 圓丘方澤升壇執禮員吏及孝子順孫義夫節婦耆老篤疾者 賜物有差	世家5
3	1095년(獻宗 1)	7월 丙午	饗于太廟 王居亮陰 圓丘方澤宗廟社稷及凡載祀典者 無不擧	世家10
4	1120년(예종 15)	7월 庚戌	禱雨于圓丘廟社群望	世家14
5	1121년(예종 16)	閏5월 辛巳	命有司 雩祀圓丘	志8 五行2
6	1144년(仁宗 22)	정월 辛酉	庚申 王齋宿南郊 辛酉 祀圓丘…乙亥 親耕籍田 乘象輅 祀圓丘	世家17 志26 輿服1
7	1261년(元宗 2)	4월 辛丑	以旱 禱于圜丘 乃雨	世家25
8	1289년(忠烈王 15)	5월 甲午	禱雨于圓丘	世家32
9	1308년(충렬왕 34)	5월 甲申	禱雨于圓丘	志8 五行2
10	1309년(충선왕 1)	4월 丁丑	禱雨于圓丘	世家33
11	1313년(충선왕 5)	5월 辛卯	以旱 禱雨于圓丘	志 五行2
12	1313년(忠肅王 즉위년)	5월 辛卯	禱雨于圓丘	世家34
13	1321년(충숙왕 8)	5월 癸巳	禱雨于圓丘	世家35
14	1325년(충숙왕 12)	10월 乙未	國內名山大川載諸祀典者 各加德號 修葺祠宇圓丘籍田社稷寢園佛宇道觀 修營以祭	世家35
15	1370년(恭愍王 19)	정월 丙辰	親祀圓丘	世家42
16	1379년(禑王 5)	5월 乙酉	以旱 雩祀圓丘	志13 五行2

7월에 거행된 또 다른 사례인 3은 그 거행 목적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같은 7월에 '禱雨' 한 사례가 있으므로 祈雨祀로 볼 수도 있지만, 『고려사』의 1095년(헌종 1)에 해당하는 기간에 가뭄이 들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때의 환구의례는 독자적으로 거행한 것이 아니라, 7월에 太廟時享을 지내면서 방택·사직 및 祀典에 올라 있는 모든 제례와 함께 거행했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헌종의 왕권 확립과 관련한 정치적 조치로 판단된다. 왕이 국가 제례의 주관자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어 즉위초 불안한 왕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점은 재위기간이 18개월(1094.5-1095.10)에 불과한 헌종대의 정치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헌종이 11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母后인 思肅太后가 국정을 담당했다. 그런데 나이 어린

헌종의 왕위계승은 11세기 고려의 왕위계승 관행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11세기 고려의 왕위계승을 보면 덕종(1031-1034)이 부왕 현종(1010-1031)을 계승하여 왕위에 오른 뒤, 정종(1035-1046), 문종(1046-1083)이 잇달아 형을 계승하여 왕위에 올랐다. 또 문종의 아들인 선종(1083-1094)도 형인 순종(1083-1083)을 계승하여 왕위에 올랐다. 이처럼 先王에게 아들이 없거나 어리면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11세기 고려 왕위계승의 관행이었다.[54] 그러므로 당시 헌종의 숙부 鷄林公은 조카 헌종의 즉위와 사숙태후의 국정 專斷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헌종의 즉위 직후부터 왕실 계림공 세력과 외척인 사숙태후·李資義 등의 仁州 李氏 세력의 정치적인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아래에서 인주 이씨 세력이 5월에 선왕 선종의 小祥祭를 지낸 뒤 7월에 太廟時享을 치르면서 함께 환구의례 등을 거행함으로써 군왕으로서 헌종의 정치적 지위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55]

10월에 거행한 1325년(충숙왕 12)의 사례도 祈穀이나 祈雨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환구의례는 충숙왕이 원나라에 머물면서 反王勢力을 제거하고 귀국한 후 당시의 정치를 일신할 목적으로 거행하도록 명한 것이다. 충숙왕은 교서를 반포하여 사면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환구단을 수리하여 제천의례를 거행하도록 했던 것이다.[56] 그러므로 이때의 환구의례 역시 반왕세력으로 인한 왕권의 위신 추락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정치의 일신을 꾀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하에서 거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월에 거행한 네 차례의 환구의례를 보면, 辛日에 거행한 것이 2회(1·6), 乙日(2)과 丙日(15)이 각각 1회씩이다. 신일에 거행한 첫 번째 사례인 983년(성종 2)의 환구의례는 고려에서 최초로 거행한 환구의례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57] 정월 辛未에 성종은 환구단에서 태조를 배향으로 하여 상제에게 풍년을 祈求하였으며[祈穀], 4일 뒤인 乙亥에 籍田에서 后

54) 이러한 형제 간의 왕위 계승은 "傳國以嫡 雖曰常禮 然丹朱不肖 堯禪於舜 實爲公心 若元子不肖 與其次子 又不肖 與其兄弟之衆所推戴者 俾承大統"하라는 태조의 유훈인 訓要十條를 통해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태조의 훈요십조는 병란으로 失傳되었다가 현종·덕종·정종·문종 4代에 걸쳐 벼슬하고 門下侍中까지 역임했던 崔齊顔이 崔沆의 집에서 얻어 보관해 오다가 왕에게 바침으로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高麗史』 卷93, 列傳6, 崔承老).

55) 계림공이 1095년(헌종 1) 7월에 반대파 李資義 세력을 축출한 뒤 10월에 조카 헌종의 선양을 받아 즉위함에 따라 이러한 인주 이씨 세력의 노력은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6) 『高麗史』 卷35, 世家35, 忠肅王2, 忠肅王 12年. "五月辛酉 王及公主至自元…八月壬辰 王與公主幸漢陽…冬十月…乙未敎曰 孤承先業 謬荷丕圖 常思置器之難 采極臨淵之懼 迺者 奉詔入朝時 有負罪奸臣 飾辭誣譖 謀傾寡人 適新皇帝御極 肅將天威 掃淸內亂 賞罰至公 曲直自辨…推廣天子好生之德 遡追先考愛物之仁 宜宣實惠 以闡大和 其二罪以下咸宥除之 於戲 易俗移風 庶啓維新之化仁民愛物 旁推不忍之心"

57) 성종은 成宗이라는 廟號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묘와 사직단의 건립, 五服제도의 제정, 불교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의 철폐, 과거·교육제도의 강화 등 고려전기의 문물제도를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대폭 개정하였다. 성종 때 환구의례와 친경례를 처음으로 거행한 것도 이러한 유교화 정책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다.

稷을 배향으로 하여 神農에게 제사를 올리고 親耕禮를 거행했다. 그리고 丁丑에 天德殿에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물건을 내려주었다. 이처럼 환구단에서 祈穀祀를 거행하고, 적전에서 친경례를 행하며 이어서 축하·위로 잔치 및 시상을 행하는 圜丘祀 → 親耕禮 → 宴群臣·賜物로 이어지는 일련의 의식은 祭天의 형식을 빌어 거행한 고려시대 농경의례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려시대 환구단에서의 농경의례로는 정기적인 정월의 경우 외에도 부정기적으로 거행하는 '雩祀圜丘' 도 있었다.[58] 이것은 가뭄이 들 때 祈雨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표 5>의 1·2·3·6·14·15를 제외한 10회의 사례와, 『고려사』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구단에서 攝事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1의 사례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거행일이 辛日이고, 祭場 형식이 圜丘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정월 上辛이 신년 제천의례의 시기로 정해진 것은 1세기 전반 王莽 때 제정한 元始儀에서 비롯하였다. 왕망 이전에는 정월보다 曆年의 기원인 11월 冬至를 더 중시하였는데, 왕망이 『春秋穀梁傳』에 근거하여 정월 상신을 제천의례의 거행시기로 정한 이후부터 대부분의 왕조에서 이를 준수하였다. 그리하여 당나라 초기까지 중국에서 紀元儀禮적인 국가차원의 제천의례는 동지의 圜丘제천과 정월의 南郊제천으로 나뉘어 거행되었다. 전자는 우주의 至高神인 昊天上帝을 제사하는 것이고 후자는 帝王에게 天命을 내려준 太微感生帝를 제사하면서 겸하여 祈穀的 성격을 가미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당나라 현종 開元 연간(713-741)에 開元禮를 제정하면서 비로소 정월 제천의 주된 성격을 기곡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제단의 형식도 圜丘를 표준으로 삼게 되었다.[59] 그러므로 고려에서 정월 상신을 정기적인 환구의례의 거행일로 삼아 환구단에서 기곡 성격의 제천의례를 거행한 것은 중국의 의례 전통 그 중에서도 당나라의 개원례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구의례 거행 때 태조의 神位를 배향한 것 역시 이에 따른 것이다.

辛日의 또 다른 사례인 사례 6의 경우, 『고려사』 禮志의 규정대로[60] 왕이 親祀 전날인 庚申에 남교의 齋宮으로 가서 1일간 齋宿한 뒤 辛酉에 친사하였으며 보름 뒤인 을해에 친경례를 거행했다. 친경례는 "孟春 吉亥(정월의 길한 해일)" 에 거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61] 왕이 친사환구한 다음날인 壬戌에 금나라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므로 3일 뒤의 乙丑에 친경례를 거

58) 『高麗史』 禮志를 보면, 환구에서의 祈雨儀禮는 "祀圜丘 有常日者孟春上辛祈穀 無常日者孟夏擇吉雩祀" (『高麗史』 卷59, 志13, 禮1, 吉禮大祀, 圜丘)라고 규정하고 있어 '雩祀圜丘' 의 거행시기를 '不定期'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표 5>의 禱雨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우의례를 실제로 거행한 시기가 4·5·閏5·7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고려시대 환구에서의 기우의례를 부정기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59) 김일권, 2002, 앞의 논문, 71-73쪽.

60) 『高麗史』 卷59, 志13, 禮1, 吉禮大祀, 圜丘. "親祀儀 齊戒…王 散齋四日於別殿 致齋三日 二日於正殿 一日於齋宮 凡預祀之官 散齋四日 致齋三日 散齋皆於正寢 致齋二日於本司 一日於祀所 無本司者 宿尙書省"

61) 『高麗史』 卷62, 志16, 禮4, 吉禮中祀, 籍田. "祭日孟春吉亥"

행할 수 없었다. 散齋 3일 致齋 2일로 정해진 籍田 親享 때의 재계 규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62] 또 아마도 앞선 성종·현종 때 두 차례의 친경례를 乙亥에 거행했던 점도 이때 친경례의 날짜를 을해로 정하는 데 감안했을 것이다.

사례 2의 경우, 거행 날짜가 乙亥로 나와 있지만 환구의례는 성종 때와 마찬가지로 上辛에 거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종은 친경례를 거행한 을해에 환구와 方澤의례에 관여했던 員吏들에게 물건을 내려주고 있는데 환구와 방택, 친경의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이날 겸해서 거행할 수는 없다. 또 『고려사』를 보면 현종은 같은 해 정월에 방택을 親祭한 것으로 나와 있다.[63] 그러므로 현종이 방택을 친제하면서 방택과 짝을 이루면서도 더 중요한 환구의례는 攝事했다는 것, 또 大祀인 환구의례는 섭사하면서 그 보다 격이 낮은 中祀에 해당하는 친경례를 친히 거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때문에 현종은 『고려사』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방택과 친경례를 친히 거행하면서 함께 환구의례도 친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세 가지 大禮가 정월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일련의 행사로 거행되므로 신료들에 대한 시상만은 마지막 행사인 친경례를 마친 뒤 한꺼번에 행하였고 사례 2의 기사는 이를 압축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親祀圜丘했다면 중국의 의례전통을 반영하여 上辛에 거행한 성종 때의 前例도 있으므로 굳이 다른 날짜를 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례 2에 나타난 환구의례는 정월 上辛에 거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월에 거행한 마지막 사례인 15는 1370년(공민왕 19) 정월 丙辰에 거행되었다. 이때의 친사환구는 병진에 거행하여 "正月 上辛"이라는 환구의례 거행일 규정과도 어긋나고, 환구의례 거행 이틀 전인 甲寅에 공민왕이 王輪寺에 거둥하여 "散齋 4일 致齋 3일"의 재개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등 고려 전기의 환구의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1370년은 공민왕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시기로 판단된다. 우선 정월에 친사환구를 거행하였다. 이어 3월에는 친경례를 거행하고자 有司에게 관련 儀注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비록 이때의 친경례는 親享에 걸맞는 儀物을 갖추지 못해서 편법으로 侍中 李仁任으로 하여금 神農에게 제사지낸 다음 耕籍之禮(적전을 가는 의례)를 거행하게 하였지만[64] 친경례를 의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왕이 親享할 때에는 齋戒 → 陳設 → 鑾駕出宮 → 饋享 → 耕籍 → 鑾駕還宮의 순서로 의례를 거행하지만, 有司가 攝事할 때에는 재계 → 진설 → 饋享만으로 의례를 마치도록 하여 적전을 가는 의식이 없다.[65]

62) 『高麗史』 卷62, 志16, 禮4, 吉禮中祀, 籍田. "親享儀 齋戒 前享五日 散齋三日於別殿 致齋二日 一日於正殿 一日於行宮 餘同祈穀圜丘儀"

63) 『高麗史』 卷59, 志13, 禮1, 吉禮大祀, 方澤. "顯宗 二十二年正月 親祭方澤"

64) 『高麗史』 卷62, 志16, 禮4, 吉禮中祀, 籍田. "恭愍王…十九年三月乙巳 王欲躬耕籍田 令有司 講求儀注 以儀物未備 命守侍中李仁任攝行 仁任祭訖 遂行耕籍之禮"

65) 『高麗史』 卷62, 志16, 禮4, 吉禮中祀, 籍田. "**親享儀** 齋戒…餘同祈穀圜丘儀 陳設…鑾駕出宮…饋享…工人

그러므로 1370년에 시중 이인임으로 하여금 神農祭를 지낸 뒤에 왕의 親享 때만 실시하는 耕籍之禮를 행하도록 한 것은 이때의 의례가 왕의 친경례에 버금가는 행위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월에는 명나라에서 파견한 道士 徐師昊가 명나라 태조 朱元璋이 친히 지은 祝文을 가지고 와서 고려의 山川神에게 제사를 지냈으며,[66] 5월에는 명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공민왕을 책봉하고 印章과 冠服, 大統曆을 내려주었다. 이때 명나라 태조는 璽書를 보내와 고려의 궁궐에 왕이 정사를 처결하는 장소인 '聽政之所'가 없는 것을 책망하면서 陪臣들에게 위엄을 보일 수 있도록 청정지소를 건립할 것을 촉구하였다.[67] 공민왕의 親政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정을 위한 첫 단계로 친사원구를 거행했던 공민왕은 명나라의 요구사항이 자신의 의도와 부합했기 때문인지 1357년(공민왕 6) 이후[68] 한 번도 거둥하지 않았던 報平廳[69]에 1370년(공민왕 19) 11월 『書經』 無逸篇을 써서 걸어두게 한 다음[70] 12월에 처음으로 보평청에서 史官의 入侍한 가운데 視事(=聽政)를 하였다.[71] 이것은 10월의 "상고시대의 선왕들은 모두 친히 정사를 청단했다"고 하면서 臺諫과 6部로 하여금 날마다 출근하여 啓事하도록 한 조치,[72] 11월의 6부와 臺省에서 매월 6衙日에 奏事하도록 한 조치[73]와 연결하여 볼 때 공민왕이 親政하겠다는 의지를 신료들에게 분명하게 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공민왕은 1년 동안 親祀圓丘(1월), 친경례 시도(3월), 명나라 요구 수용(5월), 보평청 정비와 신료들과의 연결방식 변화(10·11월), 보평청에서의 시사(12월)라는 친정을 위한 단계적인 정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371년 7월에 1365년(공민왕 14)부터 정사를 전담해왔던

二舞以次出 祝板燔於齋坊…耕籍…鑾駕還宮…有司攝事儀 齋戒…陳設…饋享…工人二舞以次出 祝板燔於齋坊"

66) 『高麗史』 卷42, 世家42, 恭愍王5, 19年 4月 庚辰. "帝遣道士徐師昊來祭山川祝文曰…師昊又載碑石而來 問曰都城南楓川何地 乃以會賓門外陽陵井對 遂立之其文曰 洪武三年春正月三日癸巳 皇帝御奉天殿 受群臣朝乃言曰…禮部尙書臣崔亮欽承上旨 惟謹乃諭臣師昊 致其誠潔以俟 於是 上齊戒七日親製祝文 至十日庚子 上臨朝 以香授臣師昊 將命而行"

67) 『高麗史』 卷42, 世家42, 恭愍王5, 19年 5月 甲寅. "帝賜璽書曰…近者 使歸 問國王之政…問王居何如言有居而無聽政之所 朕因思之 若果如是 深爲王慮也…凡有國者 必有聽政之所 今王有居室而聽政之所不設 非所以示尊嚴於陪臣 若或設之 但不當過於奢侈耳"

68) 『高麗史』 卷39, 世家39, 恭愍王2, 5年 5月 庚辰. "王御報平廳 觀棊 慶千興元松壽侍"

69) 공민왕 때의 보평청에 대해선 金東旭, 1998「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고려 궁궐과의 관계에 대해서-」『建築歷史硏究』15(7-2), 한국건축역사학회, 14-15쪽이 참조된다.

70) 『高麗史』 卷42, 世家42, 恭愍王5, 19年 11月 乙巳. "命前禮儀判書韓脩 書無逸篇 揭于報平廳" 『서경』 무일편은 게으름을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려시대 經筵에서 자주 講論의 대상이 되었다. 공민왕도 몇 차례 이를 강론하기도 하고 또 베껴서 고위 관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다(『高麗史』 卷39, 世家39, 恭愍王2, 6年 5月 戊子. "王命寫無逸篇 賜宰相 命尹澤進講").

71) 『高麗史』 卷42, 世家42, 恭愍王5, 19年 12月 丙寅. "王始御報平廳視事 史官二人侍左右"

72) 『高麗史』 卷42, 世家42, 恭愍王5, 19年 10月 己卯. "王謂侍中李春富等曰…上古先王皆親聽政 自今其令臺諫六部 日仕本官 各稱啓事"

73) 『高麗史』 卷42, 世家42, 恭愍王5, 19年 11月 辛丑. "令每月六衙日 六部臺省官親奏事 又令史官近侍"

辛旽을 반역을 도모했다는 죄목으로 그 세력과 함께 제거하고 본격적인 친정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15의 사례는 친사원구의 여러 규정과 부합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공민왕이 친정에 나서고자 하는 시발점으로 기획하고 거행했다는 점에서 친사원구가 지니는 정치적 의미를 잘 살린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고려사』에서 추출한 16회의 환구의례를 분석하여 고려시대 환구의례의 성격을 검토하였다. 고려시대 환구의례는 정기적인 정월 상신의 祈穀的 성격과 부정기적인 祈雨的 성격으로 대별되므로, 기본적으로 양자 모두 農耕儀禮的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이 점은 정월 제천을 기곡적 성격으로 거행하면서도 孟夏大雩(4월), 季秋明堂大享(9월), 冬至郊祀(11월)를 아울러 거행함으로써 天과 교감하는 천자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중국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74] 天을 제사하는 환구의례와 짝하여 地를 제사하는 방택의례의 거행 사례가 『고려사』에 몇 차례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75] 고려시대 환구의례의 기본 성격이 농경의례였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중국보다 강도가 약하고 기본적으로 기곡적 성격이라 하더라도 고려시대 환구의례 역시 정치적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천과 교감할 목적으로 건립한 환구단에서 제천의례를 親行하고 연속 행사로서 신료들로부터 賀禮를 받고[76] 죄수를 석방하며[77] 대대적인 축하연을 개최함으로써 천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 천을 대신하여 인민을 통치하는 존재로서의 왕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환구의례가 이러한 정치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표 5>의 3·14·15 사례 같은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2) 『고려사』「예지」의 '환구' 분석

여기서는 『고려사』 예지에 기재된 圜丘 儀注를 분석하여 환구의례의 개괄적인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예지의 '환구' 기사는 도입부, 親祀儀, 有司攝事儀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재 순서대로 먼저 도입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고 분석한 뒤, 이어 친사의를 검토하면서 유사섭사의

74) 중국 北宋(960-1126)에서는 정월 상신의 환구의례를 祈穀祀로 거행하면서도 제왕에게 天命을 내려준다는 感生帝를 제사하여 祈穀祀로만 거행했던 고려에 비해 그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김일권, 2002, 앞의 논문, 72-74쪽 참조).

75) 『高麗史』 卷59, 志13, 禮1, 吉禮大祀, 方澤. "顯宗 二十二年正月 親祭方澤 靖宗 二年二月庚戌朔 祭方澤 十年十月丙申 祭神州地祇 仁宗 五年三月戊午 制方澤祭地祇 四郊迎氣"

76) 『高麗史』 卷67, 志21, 禮9, 嘉禮, 親祀圓丘後齋宮受賀儀. "祭畢 王旣還齋殿 侍衛如常儀 太子公侯伯宰臣樞密及文武從祀群官 並朝服 詣齋宮門外 合班以俟 王坐殿…訖 以次退 雩祀圜丘 禘祫享及時享太廟享 先農耕籍親幸後齋宮受賀 並同此儀"

77) 『高麗史』 卷68, 志22, 禮10, 嘉禮, 親祀圓丘後肆赦儀. "祭後 鑾駕還至儀鳳門前 廻輅南向 仗衛鹵簿 以次環列 左右監門衛 設鼓於左右 刑部典獄署 以囚徒 集於仗外…雩祀圜丘 禘祫享及時享太廟 享先農耕籍親幸後肆赦 並同此儀"

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한다.

표 2-6 『고려사』 禮志 吉禮大祀 圜丘 도입부 기사의 내용 분류

분류	기사
圜丘壇	周六丈三尺 高五尺 十有二陛 三壝 每壝二十五步 周垣四門 燎壇在神壇南 廣一丈 高一丈二尺 戶方六尺 開上南出
祀日	祀圜丘 有常日者孟春上辛祈穀 無常日者孟夏擇吉雩祀
祝板	稱高麗國王臣王某敢明告
玉幣	上帝以蒼璧 四圭有邸幣以蒼 靑帝以靑圭 赤帝以赤璋 皇帝以黃琮 白帝以白琥 黑帝以玄璜 幣如其玉 凡幣之制 皆長一丈八尺
牲牢	上帝及配主用蒼犢各一 五方帝各用方色犢一 若方色難備者以純色代之 攝事上帝配主各用羊一 五方帝各豕一
獻官	親祀 太子若公侯伯爲亞獻 太尉爲終獻 太尉宰臣爲之 或太尉爲亞獻 光祿卿爲終獻 攝事 太尉爲初獻 太常卿爲亞獻 光祿卿爲終獻

도입부는 환구단의 규모를 밝히는 것을 시작으로 환구의례의 거행시기, 의례 주관자인 왕을 祝板에 표기하는 방식, 제사 대상별 玉·幣와 牲牢의 종류 및 수량, 初獻·亞獻·終獻官 등 獻官 관련 규정을 차례로 기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

이를 보면 고려시대의 환구단은 단의 둘레가 6丈 3尺,[78] 높이가 5척, 12陛로 이루어졌다. 또 몇 층으로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壝의 구성과 규모가 중국 송나라와 같은 점을 참고할 때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3층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79] 환구단의 외곽에는 3중으로 된 壝(낮은 담장)가 있는데 壝 사이의 간격은 25步였고, 유 밖에는 垣(높은 담장)을 쌓아 환구단 전체의 영역을 표시하였으며 원에는 사방으로 門을 내어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80] 燎壇은

78)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대한제국기의 척도는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대략 周尺을 20㎝ 영조척을 30㎝로 계산할 때, 주척으로 환산하면 고려시대 환구단은 둘레가 12.6m 높이가 1m이고, 영조척으로 환산하면 둘레가 18.9m 높이가 1.5m이다. 조선초기 주척에 따라 원구단의 크기를 계산할 때 너무 비좁다는 이유로 영조척으로 환구단을 개축한 바 있는데 이를 보면 고려시대의 환구단 역시 영조척을 기준척으로 삼아 건립했을 가능성도 있다.

79) 중국 당나라는 4층으로, 송나라는 3층으로 환구단을 쌓았다(金海榮, 2003 『朝鮮初期 祭祀典禮 硏究』, 集文堂, 37쪽).

80) 垣에 4개의 문이 있으므로 각각의 壝에도 4개의 문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神壇의 남쪽에 있으며 너비가 1장이고 높이가 1장 2척이었는데, 폐백을 넣어 태우는 곳인 戶는 사방이 6척이고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위로 배출하기 위해 위쪽은 터 놓았으며 남쪽으로 출구를 내어 태울 폐백을 넣을 수 있게 하였다[開上南出].

환구단에서의 제천의례는 정월 상신의 기곡제와 길일을 택하는 孟夏(4월)의 기우제[雩祀] 등 연중 2회 거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축판에는 주제자인 왕을 '高麗國王 臣 王某' 라고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중국에서 '嗣天子 臣 某' 라는 표기 방식으로 하늘을 계승한[嗣] 천자의 지위를 표현했던 것이나, 조선초기 세조 때 복설된 환구의례에서 '朝鮮國 嗣王 臣 諱' 라는 표기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옥폐와 생뢰 규정을 보면 고려시대 환구단에서는 上帝를 正位로, 태조를 配位로, 그리고 五方帝(靑帝·赤帝·皇帝·白帝·黑帝)를 從祀하였음을 알 수 있다.[81] 오방제만을 종사 신위로 한 것은 종사 신위가 수백에 달하였던 중국이나 14종류에 이르렀던 대한제국기와도 구분되는 것으로,[82] 이러한 흐름은 조선초기 세종대까지 이어졌다. 상제에게는 蒼璧·四圭有邸의 옥과 蒼色의 폐백을, 靑帝에게는 靑圭의 옥과 푸른색의 폐백을, 赤帝에게는 赤璋의 옥과 붉은색의 폐백을, 皇帝에게는 黃琮의 옥과 누런색의 폐백을, 백제에게는 白琥의 옥과 흰색의 폐백을, 黑帝에게는 玄璜의 옥과 검은색의 폐백을 올리도록 했다.[83] 생뢰의 경우, 상제와 태조에게는 창색의 송아지 한 마리를 올리고 오제에게는 해당 색깔의 송아지 한 마리를 올리되 해당 색의 송아지를 준비하기 어려우면 純色의 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 올리도록 하였다. 有司攝事일 때에는 상제와 태조에게는 양 한 마리씩을, 오방제에게는 돼지 한 마리씩을 올리도록 하였다.

헌관은 친사일 때에는 왕이 초헌관, 태자 또는 公·侯·伯이 아헌관, 太衛가 종헌관이었으며, 유사섭사일 때에는 태위가 초헌관, 太常卿이 아헌관, 光祿卿이 종헌관이 되었다.

親祀儀는 ① 齋戒, ② 陳設, ③ 鑾駕出宮, ④ 省牲器, ⑤ 奠玉帛, ⑥ 進熟, ⑦ 鑾駕還宮 등 7단계로 세분된다.

① 재계: 재계는 제사에 앞서 제사와 관련된 자들이 몸을 정결히 하고 근신하는 것으로, 대사·중사·소사 별로 산재와 치재 기간이 규정되어 있었다.[84] 제사 7일 전 이른 새벽에 환구의례의

81) 이 점은 天地合祭의 형식으로 昊天(黃天)上帝와 黃地祇를 正位로 하여 거행한 세조대와 대한제국기의 환구의례와 크게 구별되는 고려시대 환구의례의 특징이다. 김일권은 고려시대 환구의례에서의 상제는 昊天上帝일 것으로 추정했다(김일권, 2002, 위의 논문, 73-74쪽).

82) 김해영, 앞의 책, 36쪽 및 본고 3장 1절의 (2) 칭제건원 논의와 환구단의 건립 참조.

83) 禮志의 도입부에는 태조에게 바치는 옥폐에 대한 서술이 없다. 그러나 親祀儀의 '陳設' 규정을 보면 태조에게는 폐백은 올리지만 玉은 올리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84) 고려시대의 경우 대사는 산재 4일 치재 3일, 중사는 산재 3일 치재 2일, 소사는 산재 2일 치재 1일로 규정되었는데, 이것은 중국 당나라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한다(이범직, 앞의 책, 83쪽). 조선시대의 대·중·소사 별 재계 기간은 고려시대의 그것과 동일하다.

行事官과 執事官이 尙書省에 모여 太尉의 주관 하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맹서하는 것으로 재계를 시작한다. 왕은 4일 동안 別殿에서 산재를 하고, 3일간 치재를 하는데 2일은 正殿에서 마지막 1일은 환구단에 마련된 齋宮으로 거둥하여 행하며, 환구의례에 참여하는 관리[預祀之官] 역시 4일간의 산재와 3일간의 치재를 행한다.[85] 산재 때에는 평사시처럼 업무를 수행하지만 조문, 문병, 음악연주, 형벌문서에 대한 서명이나 형벌 집행, 불길한 일[穢惡]을 해서는 안 되며, 치재 때에는 오로지 제사와 관계된 일만 수행하고 다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86] 치재 기간인 제사 이틀 전에 태위가 태조의 陵·祠에 가서 상제에게 배향함을 알리는 告由祭를 지내고, 하루 전에는 여러 衛[87]에서 환구단 주변에 군사를 배치한다.

有司攝事儀의 재계 규정도 친사의와 같다. 다만 왕이 친행하지 않으므로 제사 전날 태위가 관리들을 인솔하여 大觀殿[88]에서 왕으로부터 祝板을 받아 祀所로 나아가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② 陳設: 진설은 의례집행자 및 참석자들의 位·次와 饌幔·牲牓 등을 설치하고, 제기· 祭需와 玉·帛 따위를 의례를 거행하기 이전에 미리 의례 거행 장소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사 3일 전에 尙舍局에서 왕의 大次와 태자의 小次를 설치하고, 守宮署에서 문무 관원과 행사관의 次와 饌幔(제수를 준비하는 천막)을 설치한다. 이틀 전에 郊社令은 환구단을 청소하고 燎壇에 땔나무[柴]를 쌓아 두고, 掌牲令은 생뢰를 갖추어 놓으며, 太樂令은 登歌를 壇上에, 軒架를 壇下에 진설한다.

하루 전에 奉禮는 왕의 板位·飮福位·望燎位와 아헌관·종헌관 등 여러 의례 관계자들의 位, 그리고 牲牓(희생을 매어두는 우리)을 설치하고, 太史令은 神位版을, 교사령은 上帝·太祖의 神座를 壇上에 설치하고 五帝의 신좌를 정해진 위치에 설치한다.[89] 이어서 상제와 태조, 오방제에게

85) 『高麗史』 卷59, 志13, 禮1, 吉禮大祀, 圜丘. "凡預祀之官 散齋四日 致齋三日 散齋皆於正寢 致齋二日於本司 一日於祀所 無本司者 宿尙書省" 이들 외에 의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나 從祀하는 관리, 음악 연주자[工人], 文舞·武舞를 추는 자[二舞]들은 산재·치재 대신에 淸齋 1일만 행한다.

86) 『高麗史』 卷59, 志13, 禮1, 吉禮大祀, 圜丘. "散齋 理事如故 唯不弔喪問疾 不作樂 不判署刑殺文書 不行刑罰 不經穢惡 致齋之日 唯祀事得行 其餘悉斷"

87) 고려시대 중앙군은 2군과 6위로 구성되었는데, 2군은 鷹揚軍과 龍虎軍이고, 6위는 左右衛·神虎衛·興威衛·金吾衛·千牛衛·監門衛였다. 이 중 2군(禁軍), 천우위(왕의 친위부대), 금오위(도성에서 경찰업무 수행), 감문위(도성문과 주요시설 수비)가 도성방위를 위한 부대이고, 나머지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는 윤번으로 북방으로 나아가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부대였다(鄭景鉉, 1993「III. 군사조직 1. 경군」『한국사』13(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271-293쪽). 그러므로 儀注에서 언급한 諸衛는 2군·천우위·금오위·감문위 또는 이 중 일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88) 乾德殿을 1138년(인종 16) 5월 이후에 고친 전각 명칭이다(정구복, 2005「『高麗史』 禮志 譯註(3)」『고려시대연구』VIII, 한국학중앙연구원, 124쪽의 각주 7)).

89) 『高麗史』 卷59, 志13, 禮1, 吉禮大祀, 圜丘. "太史令設神位版 郊社令設上帝神座於壇上北方南向 席

제사할 때 필요한 각종 祭器를 진설하고 거기에 祭需를 담는 절차를 진행한다.[90] 상제의 경우, 簠와 簋가 각각 2개인데 보에는 稻·粱(벼·기장)을 담고 궤에는 黍·稷(기장·피)을 담으며, 籩·豆가 각각 12개인데 변은 왼쪽에, 두는 오른쪽에 3행으로 진설하고 제수를 담는다. 甒에 大羹을 담아 변과 두 사이에 두고, 희생의 머리와 고기를 담은 俎 2개를 豆의 오른쪽 앞에 둔다. 이어 술잔인 匏爵 3개와 酒尊(술병·술독)인 太尊·著尊·犧尊·山罍 각각 2개에 정해진 술을 담아 壇上의 동남쪽 모퉁이에 北向하여 진설한다.[91] 또 단하의 南陛 동쪽에 象尊 2개, 壺尊 2개, 산뢰 4개에 정해진 술을 담아 진설한다.[92] 이상의 주준에는 술을 뜨는 勺과 덮개인 冪이 있으며 주준은 받침대인 坫 위에다 올려놓는다. 玉·幣를 담은 篚는 주준 옆에, 축문을 올려놓는 祝坫은 상제 신위판의 옆쪽에 설치한다.

배위인 태조의 경우, 태조 제사에 사용할 착준·희준·상준·산뢰 각각 2개씩에 정해진 술을 담아서 단상에 있는 상제 주준의 동쪽 편에 둔다. 보, 궤, 등, 조, 爵坫, 祝坫, 幣篚의 설치는 상제의 경우와 같게 하되 태조에게는 玉을 바치지 않으므로 玉篚는 설치하지 않는다.

오방제의 경우, 태준·착준·희준 각 2개와 산뢰 1개에 정해진 술을 담아 각 신좌의 왼쪽 편에 둔다. 보·궤와 변·두는 상제와 태조의 그것에 비해 줄여서 진설하는데, 보와 궤 각각 1개씩과 변과 두 각각 8개씩에 정해진 제물을 담아 진설한다. 나머지 甒, 俎, 爵坫, 幣玉 등의 진설은 상제의 경우와 같게 한다.

마지막으로 왕이 손을 씻는 盥洗位와 술잔을 씻는 爵洗位, 아헌관과 종헌관의 관세위와 작세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진설을 끝낸다.

有司攝事는 왕의 친사가 아니므로 친사 때 설치하는 대차와 소차는 생략하고 行事·執事官과 관련된 次와 位만을 설치는데, 친사와 비교할 때 그 설치 방향이 조금 다르다. 사용하는 희생도 犢 7마리에서 羊 2마리 돼지[豕] 5마리로 바뀐다. 여타 신위와 제기, 희생을 진설하는 것은 친사 때와 같다.

③ 鑾駕出宮: 난가출궁은 왕이 의례를 거행하기 위해 궁궐을 나와 난가를 타고 환구단에 있는 齋宮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주에서는 致齋 이튿날 낮 漏上水5刻을 난가의 출발 시

以藁秸 配位太祖神座於東方西向 席以莞 靑帝於東陛北 赤帝於南陛東 皇帝於南陛西 白帝於西陛南 黑帝於北陛西 席並以藁秸”

90) ‘진설’에서는 제기별로 담을 제수를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제기에 제수를 담는 것은 의례 당일의 ‘전옥백’ 과정에서 행한다.

91) 『高麗史』 卷59, 志13, 禮1, 吉禮大祀, 圜丘. “太尊二 一實明水 一實泛齊 著尊二 一實明水 一實醴齊 犧尊二 一實明水 一實盎齊 山罍二 一實玄酒 一實淸酒 在壇上東南隅 北向西上 象尊二 一實明水 一實醍齊 壺尊二 一實明水 一實沈齊 山罍四 二實玄酒 一實事酒 一實昔酒 在壇下南陛東 北向西上”

92) 위와 같음.

간으로 규정하였다. 출발전 7각[93]부터 '난가출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출발전 7각에 一嚴(=初嚴)을 아뢰고, 출발전 5각에 二嚴을 아뢰면 大駕 鹵簿를 진열하고 신료들은 大觀殿 뜰에 모여 반열을 정비한다. 출발전 2각에 三嚴을 아뢰면 왕이 赭黃袍를 입고 坐殿하여 태자와 신료들의 再拜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난가출궁을 시작한다. 이후 왕이 輦을 타고 興禮門[94]을 거쳐 儀鳳門[95]에 도착한 다음 輅로 갈아타고 昇平門을 거쳐 재궁에 도착하는 것으로 난가출궁은 끝난다. 이 과정에서 문무 侍臣들은 말을 타고 왕을 수행하여 재궁에 도착한 다음 각자의 次로 들어가 마지막 치재를 행한다. 유사섭사는 친사가 아니므로 이 과정을 생략하였다.

④ 省牲器: 성생기는 의례 때 사용할 희생이 적합한지와 각종 제기 등이 정결한지를 살피는 것으로, 의례를 거행하기 전날 午後 8각부터 시작한다. 왕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太常卿이 희생을, 光祿卿이 제기를 살피는 것을 주관한다. 未後 2각에 교사령이 술병[尊]·받침대[坫]·광주리[篚]·보자기[冪]를 신위 앞에 설치하면, 執禮官과 祀官, 御史들이 각자의 位로 나아가 예행연습[肄儀]을 거행한다. 이후 太常卿이 술병이 정결한지, 희생이 의례에 적합한지를 살펴본 다음 희생을 廚[주방]로 넘기도록 하며, 光祿卿과 御史가 廚로 가서 광록경이 솥단지[鼎鑊]의 청결 여부를 조사하고 어사가 饌具를 살펴본다. 協律郞은 벌여 놓은 악기를 살펴 본다.

친사하는 날 未明 5각에 희생의 머리를 자르고 털과 피[毛血]는 豆에 담아 둔 다음 희생을 삶는다. 잘라낸 희생의 머리는 단상의 술병을 놓는 곳으로 옮겨놓았다가 이후 籩과 豆에 제수를 담을 때에 豆의 남쪽에 놓는다. 유사섭사 때에도 이와 동일하게 省牲器를 수행한다.

⑤ 奠玉帛: 전옥백은 의례 당일에 상제와 오방제의 신위에 옥과 폐백을 올리고, 태조의 신위에 폐백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親祀 당일 미명 3각에 祀官과 從祀官들은 朝服[其服]을 착용한다. 교사령·良醞令은 술병에 술을 채우고, 太祝은 옥과 폐를 광주리에 넣으며, 감찰어사는 환구단 아래위를 살펴본다. 미명 2각에 奉禮·贊者·어사·교사령·태축·祝史·令史와 樽·罍·篚·冪 담당 등 실무자들이 먼저 들어가 再拜한 다음, 어사가 壇上을 영사가 단하를 청소한다. 사관과 종사관이 門外位로 나와 대기하였다가, 태악령이 工人과 二舞[文舞·武舞]를 정해진 위치에 배치한 다음 입장한다. 미명 1각에 왕이 곤룡포와 면류관[衮冕]을 착용하고 大次로 나와 축판에 서명한 다음 內壝門을 거쳐 神壇의 정문으로 입장한다.[96]

---

93) 하루를 100각을 구분하는 百刻法에 따르면 1각은 현재 시각으로 15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7각은 1시간 45분이다.

94) 고려 태조 때의 창덕문을 고친 명칭이다(정구복, 앞의 논문, 125쪽의 각주 15)).

95) 神鳳門을 개칭한 것. 신봉문은 궁성 남문인 승평문 안쪽에 있는 중앙문이었다(정구복, 앞의 논문, 125쪽의 각주 16)).

96) 이때 軒架에서 黃鐘宮 正安之曲을 연주한다. 왕이 단을 오르내리거나[升降] 이동하거나 멈출[行止] 때에는 모두 정안지곡을 연주한다. 유사섭사일 때의 헌가와 등가의 연주는 친사 때와 동일하지만 ① 초헌관이 문으로 들어올 때, ② 관세위로 나아갈 때, ③ 단에 오르내릴 때, ④ 망료위로 나아갈 때, ⑤ 음복할 때 등 5가지 경우에는 친사와 달리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高麗史』 卷70, 志24, 樂1, 雅樂, 登歌軒架樂迭奏

왕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재배한 뒤 의례가 시작되면 헌가에서 夾鍾宮 景安之曲를 3차례, 黃鍾·角·大簇徵·姑洗羽를 각각 한번 연주하고, 文舞를 6번 춘다. 단상에서 희생의 머리를 연기로 그슬린 뒤 燎壇으로 옮겨 굽는다.[97] 太常卿의 인도 하에 왕이 南陛로 올라가 상제에게 옥과 폐를 바치고[98] 이어 태조에게 폐를 바친 뒤[99] 제자리로 돌아온다. 왕이 태조에게 폐를 바칠 때 太祝들이 오제에게도 옥과 폐를 바친다.[100] 희생의 머리가 다 구워지면 신좌 앞에 희생의 毛血을 담은 료를 올리는 것으로 전옥백의 절차가 끝난다.

유사섭사의 경우, 미리 왕이 서명한 축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축판에 서명하는 절차가 없으며 왕 대신 태위가 알자의 인도 하에 동일한 절차를 진행한다. 또 친사 때의 太祝과 祝史의 업무를 섭사 때에는 祝史와 齋郞이 집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집례자의 격이 친사 때에 비해 낮아지는 차이점을 보인다.

⑥ 進熟: 진숙은 익힌 고기를 올리는 것으로, 환구의례에서는 희생의 삶은 고기를 담은 俎를 올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를 올린 이후에 거행하는 왕의 盥手·洗爵 후의 初獻과 飮福,[101] 아헌관·종헌관의 아헌·종헌과 음복, 送神, 望燎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司徒가 상제에게 俎를 바치면[102] 왕이 盥洗位로 가서 손을 씻고 爵洗位로 가서 술잔을 씻은 뒤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상제와 태조에게 차례로 초헌을 행하고[103] 축문을 읽는다.[104] 이후 음복위로 이동하여[105] 의례 때 사용한 술을 마시고 胙肉과 籩飯을 받는 음복례를 거행한다. 왕이 음복을 마치고 版位로 돌아오면 文舞가 퇴장하고 武舞가 입장한다.[106]

왕이 초헌을 마치고 판위로 돌아가고자 할 때 태위는 盥手·洗爵하고 상제와 태조에게 아헌을 행하며,[107] 태위가 태조에게 아헌을 행할 때 五方帝의 담당 태축들이 오방제에게 아헌을 행한다. 아헌을 마치면 태위가 음복위로 나아가 음복하는 것으로 아헌례가 끝난다. 광록경이 담당하는

節度. "有司攝事同 唯入門 詣洗位 升降壇 詣望燎位 飮福 並不奏樂").

97) 연기를 피워 天神이 下降하기를 기원하는 '降神' 의례이다.

98) 등가에서 大呂宮 嘉安之曲을 연주한다.

99) 등가에서 大呂宮 仁安之曲을 연주한다.

100) 그러므로 왕은 상천과 태조에게만 친히 옥·폐를 바치는 셈이다. 이후의 초헌·아헌·종헌도 초헌관·아헌관·종헌관이 상제와 태조에게만 행하고 오제에 대해서는 태축이 이를 담당한다.

101) 유사섭행에서는 왕 대신에 태위가 초헌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102) 사도가 饌所에서 조를 받들고 문으로 들어올 때 헌가에서 黃鐘宮 豊安之曲을 연주한다.

103) 侍中이 상제 尊所에서 太尊의 泛齊를 爵에 따를 때에는 등가에서 大呂宮 嘉安之曲을 연주하고, 태조 준소에서 술을 따를 때에는 등가에서 大呂宮 仁安之曲을 연주한다.

104) 축문은 태축이 낭독한다. 오제의 경우, 축문을 낭독하는 절차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축문을 작성하되 낭독하지는 않고 祝坫에 올려놓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105) 왕이 음복위에 자리하면 등가에서 黃鐘宮 禧安之曲을 연주한다.

106) 문무가 퇴장하고 무무가 입장할 때 헌가에서 黃鐘宮 崇安之曲을 연주한다.

107) 아헌할 술을 따를 때 헌가에서 黃鐘宮 武安之曲을 연주하고 武舞를 추며 鄕樂을 교대로 연주한다.

종헌례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종헌례가 끝나면 徹籩豆하고 送神한 뒤,[108] 왕이 望燎位로 나아가 의례 때 사용한 玉幣와 祝板, 饌物을 柴壇에서 태우는 望燎禮를 행한다. 망료례가 끝나면 태상경이 '예가 끝났음[禮畢]'을 고하고 왕이 大次로 돌아오는 것으로 공식적인 환구의례는 종료된다. 유사섭사에서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진설 과정을 진행하지만 초헌은 태위가, 아헌은 태상경이, 종헌은 광록경이 행하는 점이 다르다. 또 집례자의 격이 친사 때에 비해 조금 낮아지는 차이점을 보인다.

⑦ 鑾駕還宮: 환구의례가 끝나면 왕은 齋殿으로 돌아와 잠시 머물다가 絳紗袍를 입고 나와서 신료들로부터 재배를 받은 다음, 올 때처럼 大駕 鹵簿를 갖추고 輅를 타고 환궁한다. 다만 올 때는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鼓吹하지 않았으나 환궁할 때는 의례를 거행한 뒤이기 때문에 고취악을 울리며 환궁한다는 점이 다르다.[109] 물론 유사섭사에서는 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

3) 조선초기 환구의례의 거행과 폐지

(1) 태조-세종대 환구의례의 거행과 중단

조선은 성리학에 기반하여 세워진 국가라는 통설에 걸맞게 조선초기 환구 관련 기사는 환구의례의 폐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392년(태조 1) 8월에 禮曹典書 趙璞이 圓丘는 천자가 하늘을 제사하는 의례라고 하면서 환구의례의 폐지를 요청하였다.[110] 그의 요청이 수용되었는지는 실록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다음 기록을 보면 수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394년(태조 3)에는 예조에서, 圓丘에서 祈穀과 祈雨한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를 祀典에 기재하여 舊制를 회복하되 원구의 명칭을 圓壇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왕의 승낙을 받았다.[111] 이를 보면 1392년 8월 조박의 요청에 따라 환구의례를 폐지했다가 1394년 8월에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예조가 복설할 것을 요청하자 다시 환구의례를 거행하도록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108) 철변두할 때에는 등가에서 大呂宮 肅安之曲을 연주하고, 送神할 때에는 헌가에서 夾鍾宮 永安之曲을 연주하고 鄕樂을 교대로 연주한다.

109) 『高麗史』 卷70, 志24, 樂1, 雅樂, 用鼓吹樂節度. "祀圜丘先農享太廟燃燈八關會鑾駕出宮鼓吹陳而不作及還振作"

110) 『太祖實錄』 卷1, 太祖 1年 8月 庚申. "禮曹典書趙璞等上書曰…圓丘 天子祭天之禮 請罷之"

111) 『太祖實錄』 卷6, 太祖 3年 8月 戊子. "禮曹啓曰 吾東方 自三國以來 祀天于圓丘 祈穀祈雨 行之已久 不可輕廢 請載祀典 以復其舊 改號圓壇 上從之" 이때 圓丘를 圓壇으로 개명한 이유와 그러한 개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선 현재 알 수가 없다(최기복은 "圜丘는 天子의 祭天場所라 하여 圜壇으로 改稱하도록 하였다"고 추정하였다(최기복, 1993「儒敎의 祭天儀禮」『이성과 신앙』6, 수원가톨릭대학교, 43쪽). 思想史·儀禮史의 맥락에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환구의례가 복구되자 1395년(태조 4)에는 奉常寺에서 원단에 쓸 樂章의 개정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112] 또한 1398년(태조 7) 4월에는 원단에서 기우제를 거행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기록으로 확인되는 조선왕조 최초의 환구의례 거행 사례이다.[113] 6일 뒤에 또 다시 원단에서 기우제를 거행했다.[114]

이상의 다섯 차례 기사가 태조대 환구의례와 관련하여 실록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조박의 요청으로 일시 환구의례를 폐지했다가 이내 복구하면서 환구단의 명칭을 圓丘에서 원단으로 바꾸었으며, 또 악장도 개작했다. 두 차례 환구의례를 거행했는데, 이는 한양천도 이후의 일이므로 고려시대처럼 한양의 南郊에도 환구단을 건립했음을 알 수 있다.

1398년과 1400년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은 후 왕위에 오른 태종은 원년(1401) 정월에 원단에서 기곡제를 거행했다.[115] 이때는 開城留後司로 옮겨온(1399년) 이후인데 유후사에 있던 (고려의) 환구단에서 행한 것인지[116] 태조대에 漢京[新京·漢城府]에 건립했던 원단에서 행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1404년 정월에도 원단에서 기곡제를 거행했는데 이때의 원단 소재처가 한경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117] 원년 정월의 원단 기곡제 역시 한경의 원단에서 거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親祀·攝事 여부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태종이 환구의례를 거행하기 3일전에 觀音窟에서 수륙재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보이고[118] 또 친사였다면 즉위 이듬해인 원년 정월에 거행한 의미 있는 친사를 실록에 명기하지 않을 까닭이 없으므로[119] 이때의 원단의례는 섭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의 원단제 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1404년 정월에 漢京의 원단에서 기곡제를 행한 기사의 말미에 나오는 "歲事之常"이라는 표현이다. "세사지상" 즉 '해마다 거행하는 일상적인 행사'라는 표현이 1394년 복구된 圓壇祭가 고려 때의 환구의례와 마찬가지로 정월의 기곡제 및 孟夏의 雩祀, 그리고 부정기적인 기우제로 구성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404년과 1406년 정월 上辛에 기곡제를 거행하고 1412년 4월에는 가뭄이 들지 않았는데도 원단에서 雩祀(기우제)를 거행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

112) 『太祖實錄』 卷8, 太祖 4年 11月 丙子. "奉常寺啓 今當國初 一新舊制 已改宗廟樂章 其社稷圓丘文宣王等祭樂章 尙循舊制 亦宜改作 上從之"
113) 『太祖實錄』 卷13, 太祖 7年 4月 丁酉.
114) 『太祖實錄』 卷13, 太祖 7年 4月 癸卯.
115) 『太宗實錄』 卷1, 太宗 1年 1月 庚辰. "祈穀于圓壇"
116) 개경 환도 당시 고려시대의 환구가 그대로 있었다.
117) 『太宗實錄』 卷7, 太宗 4年 1月 辛亥. "行祈穀圓壇祭于漢京 歲事之常也"
118) 『太宗實錄』 卷1, 太宗 1年 1月 丁丑. "設水陸齋於觀音窟 上謂侍讀金科曰…"
119) 이 점과 관련하여, 신라 왕이 즉위 이듬해 정월이나 2월에 시조묘·신궁에 親祀하고 이를 명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본고 2장 1절의 (4) 신라의 제천의례 참조).

한편 1405년 7월에는 개경에 새로 원단을 쌓고 기우제를 攝行하고자 하였다.[120] 이듬해 윤7월에는 원단의 壇場과 欄園을 수리하고 이를 수호하는 人丁을 지급했는데,[121] 이때는 한양으로 재천도한 이후이므로 한양에 소재한 원단을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122] 1411년 정월에는 韓尙敬의 요청에 따라 원단에 神廚와 齋宮을 세우고 老牛를 희생으로 쓰던 관행을 바로잡아 犢을 쓰도록 조치를 취했다.[123]

1411년(태종 11) 3월에는 송나라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고려의 것을 참조하여 대대적으로 원단을 개축하였다.[124] 그런데 같은 해 10월 기사를 보면 "천자가 아니면 제천할 수 없다"는 의정부의 上言에 따라 원단을 혁파했다가 다시 단을 쌓았다고 하였다.[125] 위의 두 기사를 연결하여 파악하면 3월에 원단을 대대적으로 개축하려 했으나 의정부의 상언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의 원단마저 혁파되었다가 10월에 다시 쌓게 했는데 이때의 개축은 3월의 결정대로 송나라의 제도를 바탕으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1412년에는 환구의례 때의 치제 대상을 東方 靑帝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예조의 요청에 따라 원단을 쌓도록 결정하였다가 다음날 "제후가 天地에 제사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는 태종의 결단에 따라 원단의 신축공사는 중단되고 그 제사는 폐지되었다.[126]

이때 폐지된 원단 제사는 1416년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卞季良의 건의에 따라 부정기적인 기우제를 거행하는 형태로 복구되었다가,[127] 세종 후반인 1444년 경에 이르면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古制 연구의 심화를 바탕으로 원단 제사는 더 이상 거행되지 않게 되었다. 태종대 건립된 雩祀壇에서의 기우제 및 風雲雷雨祭와 같이 祭天에 비견될 수 있는 제례의 정비, 佛齋를 통한 기우제의 거행으로 이를 대신했다.[128]

---

120) 『太宗實錄』 卷10, 太宗 5年 7月 庚子. "命再禱雨于圓壇 議政府啓曰 籍田圓丘 乃前朝之舊 請行之於新京之壇 上曰 境內之地 莫非此天之下 豈可安處於斯 而遙祭於新京乎 舍舊丘築新壇行之 因命左政丞河崙行事" 한형주는 이때 한양에 새로운 제단을 건립한 것으로 보았으나(한형주, 앞의 책, 23쪽), 이 사료를 보면 개경의 옛 환구단을 버려두고 개경 남교의 다른 곳에 환구단을 신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121) 『太宗實錄』 卷12, 太宗 6年 閏7月 戊寅. "命修治圓壇籍田社稷山川壇城隍堂壇場欄園 仍給守護人丁有差"

122) 한양으로 재천도하는 과정에 대해선 洪順敏, 1996「朝鮮王朝 宮闕 經營과 "兩闕體制"의 변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6-39쪽 참조.

123)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 1月 癸酉. "西川君韓尙敬上言 請圓壇之祭 一依禮制 從之 圓壇無神廚齋宮 且祭天之牲 當用犢 今用老牛 皆不合禮 故尙敬請焉"

124) 『太宗實錄』 卷21, 太宗 11年 3月 丁丑. "禮曹上圓壇祭儀 上書曰…依宋朝之制 參以前朝之法築壇 縱廣七丈 十有二陛 下作三壝 周垣四門 於壇南丙地 築燎壇 廣一丈高一丈二尺 戶方六尺 又依宋制 作神廚齊宮 依禮記牲用犢 在滌三月 永以爲式何如 從之"

125) 『太宗實錄』 卷22, 太宗 11年 10月 乙卯. "更築圓壇于南郊 先是 政府上言 非天子 不得祭天 故罷 至是或以爲 秦在西 只祭白帝 我國在東 亦宜祭靑帝 故更築之也"

126) 이 기사를 보면 "전년 10월의 圓壇을 다시 쌓았다"라는 기사가 실제로 거행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127)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6月 辛未.

128) 韓亨周, 1996「朝鮮 世祖代의 祭天禮에 대한 연구」『震檀學報』81, 震檀學會, 114-115쪽.

태종·세종대의 환구의례를 보면 태종대와 세종대 모두 昊天上帝와 五帝를 치제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태종대에는 관련 기사 대부분이 圓丘祭의 시행 여부와 그 시행 자체인 반면, 세종대에는 각종 의례절차나 제도적인 보완이 논의의 중심을 이루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129]

이상의 태조~세종대 환구의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시기 환구의례는 1392년 8월 조박의 상소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1394년 예조의 요청에 따라 복구되었다. 이 때 복구된 환구의례는 고려시대와 동일하게 정월 기곡제와 맹하 雩祀,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거행하는 기우제의 형태였다. 이후 1412년 태종의 결단으로 환구의례는 다시 폐지되었다가 1416년 卞季良의 건의에 따라 다시 복구되었는데 이 때 복구된 환구의례는 정월 기곡제와 맹하 우사가 생략되고 부정기적인 기우제만 지내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1443년에 그 동안의 고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논의를 통해 환구의례는 다시 중단되고 대신 風雲雷雨祭와 같은 제례의 정비와 佛齋를 통한 기우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 세조대 환구의례의 복설

1443년 이후 폐지되었던 환구의례는 1458년(세조 3) 정월에 이르러 圜丘祭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복설되었다.[130] 세조대 환구의례를 복설하게 된 계기는 1457년(세조 2) 6월에 발생한 '死六臣 사건'이라는 주장[131]과 같은 해 3월 梁誠之가 상소하여 제천의례의 거행을 촉구한 것이라는 주장[132]이 있는데 양자 모두 세조대 환구의례의 복설이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만큼 두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즉 3월의 양성지의 상소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세조가 사육신 사건을 겪으면서 禮制 차원에서 왕권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 결과 환구의례에 관한 儀註를 정비하여 이듬해 정월에 천자례에 버금가는 환구의례를 거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58년 복설되어 세조대에 지속적으로 거행되었던 환구의례는 이전의 태종·세종대와 비교하면 철저하게 왕의 親祭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환구의례를 처음 거행했던 1458년 외에도 1459·1460·1461·1462·1463년, 1465년의 환구의례도 친제의 형태로 거행하였다. 1464년과 1466년의 경우 세조의 병환으로 친제를 거행하지 못했는데 이때도 세자나 大臣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환구의례 자체를 거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세조대의 환구의례는 철

129) 한형주, 1996, 앞의 논문, 116-117쪽.
130) 『世祖實錄』 卷6, 世祖 3年 正月 庚辰.
131) 한형주, 1996, 위의 논문.
132) 김상태, 1996「조선 세조대 圜丘壇의 복설과 그 성격」『한국학연구』6·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저하게 왕의 친제로 거행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의례 거행시기는 정월 15일로 정례화하여 거행하였다. 다만 1458년 9월의 사례와 1460년 정월의 사례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세자의 병이 위독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환구의례를 거행했던 것이고 후자는 공교롭게도 정월 15일에 月食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틀 앞당겨 거행했던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정월 보름에 환구의례를 거행하였다. 또한 환구의례를 전담할 관청으로 圜丘署를 설치하고 담당 관원을 배치했다.[133]

이때 복설된 환구단은 고려 毅宗代 편찬된 『詳定古今禮』에 의거했기 때문에 담 주위에 네 개의 문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 것만 제외하면, 고려시대의 환구단과 그 규모에 있어서 동일하다.[134]

신위판의 규격은 1416년의 圓壇에서 기우제를 거행할 때의 신위판의 규격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趺는 윗부분 즉 신위판의 길이가 3척 1촌, 너비가 6촌, 두께가 1촌 2푼이고, 부는 길이가 1척 2촌 5푼, 너비는 5촌 5푼, 높이는 7촌으로 하였다. 또 신위판은 밤나무로 제작하며 먹으로 신위 명칭을 쓰도록 하였다.[135] 치제 대상이 되는 신위 명칭은 '昊天上帝之位' '皇地祇之位' '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之位' '大明之位' '夜明之位' '星辰之位' '岳瀆山川之位' '風雲雷雨之位' '東南西海之位'로 표기하도록 하였다.[136] 그런데 고려시대나 조선초기의 태종·세종대와 달리 세조대 복설된 환구의례에서는 五帝를 치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당시 중국 명나라의 환구의례에서도 오제를 치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조는 환구의례를 천자국에 준하여 거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세조대의 환구의례가 이전의 기우제 성격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중국의 冬至祭天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처음 儀註를 준비할 때 제외되었던 北海는 이후 추가되어 1458년 정월의 환구의례 때부터 치제 대상으로 되었다.[137]

치제 대상인 神을 稱揚하는 頌辭인 축문은 소나무에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호천상제에 대한 세조의 自稱을 '朝鮮國嗣王臣(諱)'로 하고 있다.[138] 대사·중사·소사라는 제사의 등급체계는 중국 수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는데,[139] 이러한 등급체계는 축문의 皇帝(天子)臣某, 皇帝(天

133) 한형주, 1996, 위의 논문, 126-127쪽. 그런데 중국 儀禮史를 보면 정월의 환구의례는 그 거행시기가 正月上辛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조대 어떤 경전이나 고사를 근거로 정월 15일을 거행시기로 결정했는지는 불분명하다.

134) 『世祖實錄』 卷5, 世祖 2年 12月 丙午.

135) 『世祖實錄』 卷5, 世祖 2年 12月 甲寅.

136) 『世祖實錄』 卷6, 世祖 3年 正月 辛未.

137) 김상태, 1996, 위의 논문, 206쪽.

138) 『世祖實錄』 卷6, 世祖 3年 正月 壬申.

139) 대·중·소사 구분의 禮書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周禮』 卷5, 春官宗伯 上, 肆師. "肆師之職 掌立國祀之

子)某, 皇帝(天子)라는 自稱 3형식과 대응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세조가 호천상제에 대한 자칭으로 사용한 '朝鮮國嗣王臣(諱)'는 중국의 대사의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왕의 위상도 중국의 천자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0]

獻官 규정을 보면 세조 혼자서 초헌·아헌·종헌을 다 거행하도록 하고 있다.[141] 이는 고려나 중국의 경우와 모두 다른 것으로 세조의 절대권 과시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142]

그러나 왕권강화라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투영되었던 세조대의 환구의례는 여타 국가제례의 정비과정과는 별도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세조 사후 『국조오례의』을 편찬할 때 제후국에서 거행해서는 안 되는 僭禮로 인식되어 결국 등재되지 못하였다.[143]

세조대 이후에도 성종대나 광해군대 등 몇 차례가 환구의례를 거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144]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환구의례가 지니는 기곡·기우라는 농경의례적 성격은 가뭄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환구의례의 치폐논의와 연결되면서 태종대부터 기우·기곡과 관련된 각종 제례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風雲雷雨, 嶽海瀆, 雩祀가 吉禮 中祀로 편입되었고, 특히 1414년(태종 14) 5월에는 우사를 위한 별도의 祭壇이 興仁門 밖에 건립되기도 하였다. 이들 제례는 『세종실록』 五禮와 『국조오례의』에도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거행되었다.[145]

한편 중종대 이후 중농주의 이념이 강화됨으로써 국가제례에서 기곡·기우와 같이 민생과 연결된 기능은 더욱 중시되었다. 이를 위해 중사에 포함된 先農, 풍운뇌우, 악해독, 우사의 관련 儀註는 더욱 확대되었고, 아울러 『국조오례의』에서는 大臣의 섭행으로만 실시되었던 선농, 악해독, 우사 등에서의 기우제가 영조대에 편찬된 『國朝續五禮儀』에서는 국왕의 親行 의주까지 기록되었다. 또한 仲春(2월)·중추(8월)에 시행되는 社稷大祭와는 별도로 정월에 행해졌던 사직에서의 祈穀祭는 大祀로 규정되어 중시되었는데 이것 역시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146]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태조-세종대까지의 환구의례는 기곡·기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우를

禮 以佐大宗伯 立大祀 用玉帛牲牷 立次祀 用牲幣 立小祀 用牲 以歲時 序其祭祀及其祈珥"

140) 김상태, 1996, 위의 논문, 207쪽.

141) 『世祖實錄』 卷6, 世祖 3年 正月 庚辰.

142) 김상태, 1996, 위의 논문, 207쪽.

143) 韓亨周, 2002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 一潮閣, 62쪽.

144) 『成宗實錄』 卷143, 成宗 13年 7月 甲申 및 乙酉 ; 『光海君日記』 卷106, 光海君 8年 8月 庚子·乙卯·丙辰·戊午·乙丑·丙寅 ; 한형주, 2002, 위의 책, 58-59쪽.

145) 『世宗實錄』 卷129, 五禮, 吉禮序例, 辨祀. "中祀 風雲雷雨 嶽海瀆 先農 先蠶 雩祀 文宣王 朝鮮檀君 後朝鮮始祖箕子 高麗始祖" ;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辨祀. "中祀 風雲雷雨 嶽海瀆 先農 先蠶 雩祀 文宣王 歷代始祖"

146) 한형주, 2002, 위의 책, 60-61쪽.

목적으로 거행되다가 古制연구의 심화와 맞물리면서 참례로 인식되어 1444년 경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조대에 강한 정치적 목적을 띠고 환구의례가 복설되어 세조 말년까지 천자국에 준하는 형태로 거행되었지만, 『국조오례의』를 편찬할 때 참례로 인식되어 등재되지 못함에 따라 고종대 복설될 때까지 조선왕조에서는 환구의례가 사라지게 되었다.

3. 대한제국기 圜丘壇의 건립과 운영

1) 환구단 건립과 대한제국 수립

(1) 갑오개혁기 환구단 건립 논의

1894년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해였다. 연초에 갑오농민전쟁이 발발한 것을 시작으로, 淸軍과 일본군의 개입,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과 친일정권 수립, 청일전쟁 발발, 2차 농민군의 봉기와 일본군의 무력진압 등 온 나라가 1년 내내 혼란에 휩싸였다.

이 와중에 국왕 고종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일본을 등에 업은 친일정권의 '개혁조치'로 인해 왕권행사가 극히 제한당하는 입장에 처했다. 친일정권은 국왕-의정부-육조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정부조직을 宮內府-의정부(-8衙門) 체제로 개편하여 국왕의 국정관여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왕실과 국정을 분리하여 왕실관련 업무를 궁내부로 통합하고, 국정은 의정부(-8아문)에서 전담함으로써 왕권의 형해화를 도모했던 것이다.[147]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조선시대 국가차원에서 거행했던 국가제례는 궁내부 산하 宗伯府(→掌隷院)로 귀속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제례는 국가전체의 행사에서 왕실내부의 행사로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되었다.[148]

국정에서 왕실관련 업무를 분리, 배제하려는 노력은 祀典 개편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1894년 8월 의정부 관리를 祭官으로 차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149] 이어 1895년 1월 14일 구체적인 祀典 개혁안을 확정하였다.[150] 이 개혁안은 국가 사전을 대·중·소사와 俗禮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속하는 제향과 날짜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폐지할 제사를 기재하였다. 祈禳의례

147) 갑오개혁기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해선 서영희, 1990「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韓國史論』 23, 서울대국사학과 참조.

148) 이욱, 2004「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 95(2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2쪽.

149) 『高宗實錄』 卷32, 高宗 31年 8月 28日.

150) 『奏本』(奎 17702), 주본 제85호(開國五百四年正月十四日奉)(『奏本·議本』 1, 1994, 서울대학교 규장각, 48-49쪽)(이욱, 2004, 위의 논문, 64쪽에서 재인용).

를 중심으로 한 자연신의 배제(雩祀·司寒·祈雨·禜祭·祈雪 등), 중국 관련 제사의 폐지(大報壇·啓聖祠·宣武祠·靖武祠 등), 왕실 俗節의 폐지 또는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때의 사전 개혁안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 중국으로부터 독립, 왕실의례의 축소 등을 통해 근대국가에 합당한 의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기조는 1895년 말까지 이어졌다.[151] 물론 조선 내부의 자체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친일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는 조치였지만, 여하튼 근대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번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국가제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 개편의 방침과 방향이 정해졌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제례의 축소가 사전 개혁안의 주된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세조 이후 폐지되었던 圜丘의례를 복원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즉 "冬至에 천지를 합쳐 제사하면서 풍운뇌우의 신위와 국내 산천의 신위를 배향하며(合祭天地 配風雲雷雨位 國內山川位), 정월 상신에 기곡의례(正月上辛 祈穀)"를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조선전기 이후 폐지된 제천의례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지의 郊祀禮를 중심으로 제천의례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15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환구의례는 기곡과 기우를 목적으로 거행하였으며, 환구의례가 폐지된 이후에는 사직단에서의 기곡과 南壇[雩祀壇]에서 雩祀 형태로 기곡제와 기우제를 거행했을 뿐, 중국처럼 동지 교사례는 거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1894년의 사전 개혁안에서 갑자기 황제의례에 준하는 환구의례가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1894년 12월에 발표한 <洪範14條>에서 밝힌 '청나라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의례 차원에서 확립한 것으로 판단된다.[153] 이는 같은 시기에 왕실의 형식적 권위를 더 높이는 조치가 취해진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이때에 主上殿下는 大君主陛下로, 王大妃殿下는 王太后陛下로, 王妃殿下는 王后陛下로, 王世子(嬪)邸下는 王太子(嬪)殿下로 호칭을 높였으며, 箋文도 황제국에서 사용하는 表文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154] 친일정권은 국정운영에서 왕을 배제하면서도 자신들의 등장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례차원에서 환구단을 복설하고 왕실의 외형적 권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청나라는 1882년 발발한 임오군란 때 군대를 동원하여 개입하면서 조선의 屬邦化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구했다.[155] 그 일환으로 <朝鮮中國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여 조선에서의 상업과

151) 이욱, 2004, 앞의 논문, 64-68쪽.
152) 이욱, 2003「대한제국기 환구제(圜丘祭)에 관한 연구」『종교연구』30, 한국종교학회, 185-186쪽.
153) 이욱, 2003, 앞의 논문, 186쪽.
154) 『高宗實錄』 卷32, 高宗 31年 12月 己未.
155) 임오군란 이후 이후 청나라의 조선 속방화 정책에 대해선 具仙姬, 1999「조선중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청 관계의 변질」『한국사』38(개화와 수구의 갈등),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대외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으며, 서울에 주둔한 군대를 배경으로 내정간섭을 행하였다. 특히 1884년 갑신정변 이후 더 심해진 내정간섭으로 인해 고종의 개화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상황은 1894년 때까지 10여 년간 지속되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가 우세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1894년 농민전쟁 발발 이후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한 것을 빌미삼아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경복궁에 난입하여 친일정권을 수립하였다. 또 친일정권을 내세워 외형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던 중 청일전쟁에서 우세를 점하게 되면서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이 아니라 독립국임을 대외에 천명하고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구의례의 복원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추진된 환구의례의 복원은 '청나라와의 주종관계 단절' '독립' '자주'라는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조선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강화를 국가의례의 개편 과정에서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환구의례의 거행 주체는 왕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에서 왕을 배제하고자 했던 친일정권의 입장과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하여 이때의 사전 개혁안에 따른 환구의례의 복원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웠다.[156]

이후 1895년 5월 5일 러시아·프랑스·독일의 이른바 三國干涉이 관철되고,[157] 또 같은 달 14일에 '2차 개혁'(1894.12-1895.5)을 추진하던 박영효가 국왕과 왕비 암살 음모 혐의로 실각하여 재차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자 고종은 조서를 내려 직접 정사를 수행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시 국정의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위상이 추락하고 친일정권 내부의 알력을 이용하여 친러시아 정권이 등장한 것을 계기로 국정 주도권의 회복을 기도한 것이다. 이때 내각에 제출된 <圜丘建築請議書>[158]은 바로 이러한 고종의 입장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의 <환구건축청의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1. 南門 밖의 南壇으로 圜丘를 作함.
2. 壇의 周圍를 돌로 쌓고 그 直徑과 높이는 便宜에 따름.
3. 셋째 壇垣은 폐지하고 수목을 還植함.
4. 넷째 紅箭門舊例는 停止함.

이를 보면, 환구단은 별도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南壇을 수리하여 만들도록 하였음을

156) 이욱, 2003, 앞의 논문, 187쪽 참조.

157) 삼국간섭에 대해선 姜昌一, 1999「삼국간섭과 을미사변」『한국사』41(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158) 內閣編錄課, 『內部請議』(奎 17721) 제1책, 63호,「圜丘建築請議書」(이욱, 2003, 앞의 논문, 187쪽에서 재인용)

알 수 있다. 조선초기 환구의례가 폐지된 이후 南郊에 위치한 남단은 天神의 일종인 풍운뇌우를 제사하기 때문에 폐지된 환구단에서의 제천의례를 대체하는 의례로 인식되었다. 특히 정조는 남단을 이전의 환구단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中祀들에 비해 祭官의 품계를 높이고 제단과 단 주변을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고종이 환구단을 별도로 건립하지 않고 남단을 환구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은 조선후기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159]

또한 단의 직경이나 높이를 편의에 따르도록 하고, 돌이나 벽돌로 된 담장을 쌓지 않고 대신 나무를 심어 영역을 표시하게 하였으며, 홍살문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제단의 형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혼란하고 급박한 정국 상황과 궁핍한 재정 형편을 감안한데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청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禮樂은 天子로부터 나오는 義" 라는 것을 강조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의례의 거행주체이자 制定주체로서의 천자·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근대화 과정에서 보이는 허례허식의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160]

그러나 이러한 고종의 노력은 얼마 뒤인 8월 20일 일본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왕비를 시해한 사건[乙未事變]이 발발하면서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161] 고종과 왕비가 러시아와 연결하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은 왕비시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고종 다시 국정운영에서 배제되고, 김홍집과 유길준을 중심으로 한 친일정권은 자신들의 '1차 개혁' (1894.6-1984.11)의 성과를 계승하여 단발령, 태양력 채용, 建陽 연호 제정 등 '3차 개혁' 을 추진하였다. 이런 와중에 환구의례는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되었다.[162]

(2) 칭제건원 논의와 환구단의 건립

을미사변 이후 사실상 경복궁에 유폐되었던 고종은 일본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1896년 2월 10일 전격적으로 러시아공사관으로 移御하는 이른바 '아관파천' 을 단행하였다.[163] 고종은 아관파천 직후 친일정권에 대한 처벌을 행하고 친미파와 친러파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또한 내각을 의정부로 바꾸고 그것을 大君主인 고종이 직접 統領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이후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머무는 동안 환궁에 대비하여 기존의 慶運宮을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러

159) 이욱, 2003, 위의 논문, 188쪽.

160) 이욱은 <환구건축청의서>의 내용을 이러한 시각에서 해석하였다(이욱, 2003, 위의 논문, 189쪽).

161) 을미사변에 대해선 강창일, 1999, 위의 논문 참조.

162) 이욱의 연구에 따르면 이 와중에도 1895년 11월 15일에 올린 「建陽元年度 歲入歲出豫算表」에 '圜丘祭祀及修理費' 의 항목으로 940원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한다(이욱, 2003, 위의 논문, 189-190쪽).

163) 아관파천에 대해선 李珉源, 1999 「아관파천」 『한국사』 41(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시아의 군사 교관을 초빙하여 환궁시 궁궐수비대의 양성을 도모하였다. 환궁할 궁궐로 경복궁 대신 경운궁을 택한 것은 경복궁이 왕비가 시해된 곳일 뿐만 아니라 공간이 매우 넓어 방어에 불리한 데 반해 경운궁은 임진왜란 때 의주로 播遷했던 宣祖가 돌아와 '국가를 재건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으며 영국·러시아·미국·프랑스 등의 외교 대표부가 에워싸고 있어 유사시 피신하기에 용이했기 때문이었다.[164] 경운궁의 수리와 궁궐수비대의 양성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朝野의 환궁 요청이 빗발치자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궁하였다.

고종이 환궁한 지 얼마 후부터 稱帝建元하자는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갑신정변 당시 金玉均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며, 1895년 을미사변 이후 일본측에서도 이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옥균의 주장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좌절되었고, 일본측의 시도는 을미사변 이후의 사태를 호도하려는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고종의 강력한 거부와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열국 외교관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65]

그러나 환궁 이후 제기된 칭제건원 논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897년 5월 前승지 이최영 등이 황제 즉위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린 것에서 시작된 이때의 '칭제건원' 논의는 崔益鉉 등의 보수 유생층과 尹致昊같은 서구지향적인 신지식층의 반대도 있었지만, 대체로 張志淵·鄭喬 등이 주장한 '東道西器'적인 논리에 따라 황제 즉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반대 주장을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동시에 유생층이나 전·현직 관료, 市井人 등 여러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차츰 그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8월 16일 光武라는 연호가 제정되었고, 또 10월 3일에는 황제 즉위건에 대한 재가도 내리게 되어 마침내 10월 12일 환구단에서 환구의례를 거행한 뒤 고종이 황제의 위에 나아가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다.[166]

황제 즉위식이 10월 12일로 결정되면서 이에 따르는 각종 절차가 채 보름도 되지 않는 짧은 시일 안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결정할 것은 환구단을 설치할 장소를 선택하는 것과 환구의례에 따른 제반 의례 규정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먼저 환구단을 설치할 장소는 掌禮

164) 이태진은 이러한 해석은 아관파천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 피상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도심에 자리잡은 경운궁을 환궁할 궁궐로 삼은 것은 조선후기 영·정조 이래 民과 國(王)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民國論이 고종대에 부활한 것으로 이해하였다(이태진, 2000「대한제국의 서울 황성(皇城) 만들기」『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384-385쪽).

165) 李玟源, 1999「Ⅰ.대한제국의 성립」『한국사』42(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20-21쪽.

166) '칭제건원'을 둘러싼 찬반논의에 대해선 이민원, 1999, 앞의 논문과 韓永愚, 2001「大韓帝國 성립과정과《大禮儀軌》」『韓國史論』45, 서울대 國史學科 참조. 특히 한영우의 논문에 칭제건원의 찬성 논리와 그 속에 내재한 사상적 맥락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院卿 金奎弘이 營繕司長을 데리고 가서 相地하여 날짜를 卜定해서 환구단을 건립하도록 하였다.[167] 이에 따라 김규홍은 영선사장 李根命과 함께 相地官 吳聖根을 데리고 가서 적합한 터를 살핀 결과 南署 會賢坊 小公洞契의 亥坐巳方의 땅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고 10월 2일(음력 9월 7일) 辰時에 공사를 시작하여[168] 10월 11일 이전에 완공하였다. 이때 완성된 환구단에 대해 『독립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169]

> 이전 남별궁 터전에 단을 모았는데 이름을 환구단(圜丘壇)이라고도 하고 황단(皇壇)이라고도 하는데 역군과 장색 천여 명이 한달이 못되어 거의 다 건축을 하였는데 단이 삼층이라. 맨 밑층은 장광이 영척으로 일백 사십 사척 가량인데 둥글게 돌로 쌓아 석자 길이 높이를 쌓았고, 제이층은 장광이 칠십 이척인데 밑층과 같이 석자 높이를 쌓았고, 맨 윗층은 장광이 삼십 육척인데 석자 길이로 둥글게 높이를 쌓아서 올렸고, 바닥에는 모두 벽돌로 깔고 맨 밑층 가으로는 둥글게 석축을 모으고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 동서남북으로 황살문을 하여 세웠는데 남문은 문이 셋이라.

이를 보면 도성 안쪽에 있는 남별궁 터에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천여 명의 일꾼을 동원하여 돌로 3층으로 된 환구단을 쌓았는데, 1층의 長廣은 營造尺으로 144척이고 둥근 형태이며 높이는 3척이고, 2층의 장광은 72척이고 높이가 3척이며, 3층의 장광은 36척이고 높이가 역시 3척이었다. 바닥은 모두 벽돌로 깔았으며 맨 아랫층의 끝에는 둥글게 석축을 모으고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170] 동서남북 사방으로 황살문을 세웠는데 남문만은 삼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환구단의 건립한 위치가 도성 안쪽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중국의 경우 당나라 開元禮 이후 祭天은 남교에서 둥근 단을 쌓고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이때 환구단을 도성 안쪽에 건립한 것은 기존 典禮를 깨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에 대해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大韓禮典』에서는 "本朝는 황성 내 회현방 경운궁의 동쪽에 두었으니, 그 예법은 따르면서도 그 자취는 구애받지 않았으니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마땅하게 하려는 뜻이다" 라고 설명하

167) 서울大學校奎章閣, 2001 『高宗大禮儀軌』, 서울大學校奎章閣(이하 『高宗大禮儀軌』로 표기), 85쪽(掌禮院奏本 丁酉九月初四日). 『高宗大禮儀軌』의 본래 명칭은 『大禮儀軌』이며 모두 9件이 제작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6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2건이 남아 있고, 오대산본은 행방을 알 수 없다(韓永愚, 2001, 위의 논문, 235-236쪽). 2001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던 御覽用 『大禮儀軌』(도서번호 奎13488)를 『高宗大禮儀軌』라는 이름으로 축소 영인하여 출간하였다.

168) 『高宗大禮儀軌』, 86쪽(掌禮院奏本 丁酉九月初六日·同日).

169) 『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2일 논설.

170) 이를 보면 1897년 건립된 환구단의 담장은 이후처럼 네모난 것이 아니라 둥근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 있다.[171] "그 예법은 따르면서도 그 자취는 구애받지 않았다" 는 점은 갑오개혁기인 1895년 윤5월에 제출된 <환구건축청의서>에 파격적으로 제단의 형식을 규정하면서 "禮樂은 天子로부터 나오는 義" 라는 것을 강조하여 의례의 거행주체이자 제정주체로서의 천자·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조치는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공사관에 머물 때부터 추진하였던 서울[皇都·皇城]의 도시개조사업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도 이해된다. 고종은 1896년 9월 <한성내 도로의 폭을 개정하는 건>을 통해 기존의 大路인 종로와 남대문로를 정비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남대문에서 용산, 새문에서 삼개, 염창교에서 삼개 등 성밖 상공업지대로 연결한 다음, 경운궁 대안문 앞에서 放射狀 도로를 내어 성안의 도로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한편 그 외연을 의주로에 닿게 하여 성안과 성밖의 연결성도 함께 높이는 조치를 잇달아 진행하였다.[172] 환구단의 도성 내 건립이 이처럼 같은 시기에 진행된 황성의 도시개조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였을 것이다.

환구단 건립 장소로 결정된 남서 회현방 소공동계의 해좌사방의 땅은 조선후기 이래 중국사신이 머물던 南別宮이 있는 곳이었다. 남별궁은 본래 태종의 부마 趙大臨의 집터로서 이 일대가 小公洞으로 불리게 된 연유도 거기에 있었지만,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李如松이 이곳에 머문 이래 중국 사신들의 숙소나 연회장으로 자주 이용되었던 곳이다.[173] 또 임오군란 이후 체결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에 따라 부임해온 초대 總辦朝鮮商務委員 陳樹棠도 이곳에 여장을 풀고 始務한 바 있었다.[174] 그런 만큼 남별궁 자리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상징하던 곳이었고, 그 주변에는 중국 상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새로운 '天下' 의 건설을 상징하는 환구단을 건립하여 남별궁을 대체하도록 결정한 것은 서울 주민들에게 對淸 사대관계의 완전한 종식을 알리는 가시적 효과를 지니는 것이었으며, 迎恩門을 獨立門으로 대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징의 逆轉' 을 기획하여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175]

환구의례의 제반절차는 자문을 요구받았던 時原任議政 沈舜澤·金炳始·趙秉世 등이 '素昧禮學' '方病淹鄕廬神精遁爽' '病未獻議' 함에 따라 장례원에서 관련 내용을 두루 고찰한 다음 稟裁하도록 하였다.[176]

---

171) 『大韓禮典』 卷3, 壇壝圖說(이욱, 2003, 위의 논문, 193-194쪽에서 재인용).
172) 이태진, 2000「대한제국 황성 만들기」『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369-370쪽.
173) 서울 特別市市史編纂委員會, 1979 『서울六百年史』 2, 서울 特別市市史編纂委員會, 134쪽.
174) 서울 特別市市史編纂委員會, 1980 『서울六百年史』 4, 서울 特別市市史編纂委員會, 341쪽.
175) 全遇容, 1999「대한제국기-일제초기 서울 공간의 변화와 권력의 지향」『典農史論』 5, 서울市立大學校 國史學科, 53-54쪽.
176) 『高宗大禮儀軌』, 84-85쪽(掌禮院奏本 丁酉八月二十九日). 이때 장례원에서 고찰하여 稟裁된 儀註는 『高

또 圜丘位版과 從享位牌의 書寫式도 결정하여 환구위판의 경우 '黃天上帝'와 '黃地祇'로 결정하였으며, 종향위패는 '大明之神' '夜明之神' '北斗七星之神' '木火土金水之神' '二十八宿之神' '周天星辰之神' '雲師之神' '雨師之神' '風伯之神' '雷師之神' '五嶽之神' '五鎭之神' '四海之神' '四瀆之神'으로 결정하였다.[177] 즉 황천상제와 황지기를 正位로 하고 14종류의 신을 從享하기로 한 것이다. 또 위판의 규격과 書寫하는 방법도 정하였는데, 위판의 규격은 길이가 2척 5촌, 너비가 5촌, 두께가 1촌이고 받침대인 趺의 높이는 5척으로 결정하였다. 正位位版은 황색 바탕에 금색으로 글자를 새기고, 從享位牌는 적색 바탕에 역시 금색으로 글자를 새기도록 하였다.[178] 환구단 享祀에 사용할 제기와 악기는 궁내부에서 역대의 典禮를 참고해서 빨리 만들도록 하였다.[179]

(3) 환구의례와 황제 즉위식 거행[180]

고종은 환구의례를 거행하기 전날인 10월 11일에 경운궁 太極殿[181]에서 遠遊冠과 絳紗袍 차림으로 誓戒하는 의례[親臨誓戒儀]를 거행한 뒤, 黃龍袍에 冕旒冠을 쓰고 환구단으로 나아가 제사에 사용할 희생과 제기, 희생을 삶을 솥단지[정확]을 미리 살펴보는 의례[省牲器省鼎鑊視滌溉儀]를 거행하였다.[182] 앞에서 분석한 『고려사』 禮志의 규정에서는 親祀圜丘할 때에도 태상경이 희생을 살피고 광록경이 제기와 정확을 살폈던 것과 달리, 대한제국기 환구의례에서는 황제와 황태자가 의례를 거행하기 전날에 직접 환구단으로 나아가 단상의 位次를 살펴보고 이어서 희생과 제기, 정확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행하도록 규정했던 것이다.

이때 고종이 경운궁을 출발하여 환구단으로 나아가는 광경을 『독립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宗大禮儀軌』 123-193쪽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177) 『高宗大禮儀軌』, 88-89쪽(掌禮院奏本 (丁酉九月初六日) 同日).

178) 『高宗大禮儀軌』, 90쪽(掌禮院奏本 (丁酉九月初七日).

179) 『高宗大禮儀軌』, 90쪽(掌禮院奏本 (丁酉九月初六日) 同日).

180) 1897년 10월 12일에 거행된 환구의례와 황제즉위식에 대해서는 이 의식을 정리한 『大禮儀軌』도 남아 있고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도 있어 크게 도움이 된다. 韓永愚, 2001, 위의 논문 ; 韓永愚, 2001「大韓帝國 성립 과정과 《大禮儀軌》」『高宗大禮儀軌』, 서울大學校奎章閣 ; 최석영, 2002「한말 일제 강점기 國家祭禮 공간의 변화」『韓國史硏究』118, 한국사연구회 ; 이욱, 2003「대한제국기 환구제(圜丘祭)에 관한 연구」『종교연구』30, 한국종교학회 ; 이욱, 2004「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95(2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수인, 2006「대한제국시기 원구단의 원형복원과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학연구』26, 서울학연구소 ; 김문식·송지원, 2001「국가제례의 변천과 복원」『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학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181) 황제즉위의 일환으로 10월 7일에 경운궁의 卽祚堂의 명칭을 太極殿으로 변경하였다(한영우, 2001, 앞의 논문, 223쪽).

182) 이때의 의례를 정리한 것이 『高宗大禮儀軌』 儀註에 기록된 '親臨誓戒儀'(123-125쪽)와 '省牲器省鼎鑊視滌溉儀'(130-132쪽)이다.

묘사했다.[183]

십일일 오후 두시 반 경운궁에서 시작하여 환구단까지 길가 좌우로 각 대대 군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었다. 손검들도 몇백명이 틈틈이 벌려 서서 황국의 위엄을 나타냈다. 좌우로 휘장을 쳐 잡인 왕래를 금하였고 옛적에 쓰던 의장등물을 고쳐 황색으로 만들어 호위하게 하였다. 시위대 군사들이 어가를 호위하고 지나갈 때에는 위엄이 웅장했다. 총 끝에 꽂힌 창들이 석양에 빛을 반사하여 빛났다. 육군장관들은 금수로 장식한 모자와 복장을 하였고, 허리에는 금줄로 연결된 은빛의 군도를 찼다. 옛 풍속으로 조선군복을 입은 관원들도 있었으며 금관조복한 관인들도 많이 있었다. 어가 앞에는 대황제의 태극국기가 먼저 지나갔고, 대황제는 황룡포에 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채색한 연을 탔다. 그 뒤에 황태자가 홍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채 붉은 연을 타고 지나갔다. 어가가 환구단에 이르자 제향에 쓸 각색 물건을 둘러보고 오후 네시쯤 환어하였다

2시 반 경운궁을 출발해 4시에 환어하여 1시간 반에 불과한 짧은 행사였지만 황제의례에 걸맞는 의장기물을 갖추고 진행된 초유의 행사였으므로 당시 서울시민들에게는 대단한 볼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종은 환구단에서 희생과 제기 등을 살피는 의례를 거행한 뒤에 심순택과 조병세 등 고위관료들을 입시케 하여 國號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종이 국호 제정의 문제를 먼저 제기하자 심순택 등도 "이제 天命이 바뀌었으니 天下를 가진 호를 정하는 것이 典則에 합당하다"며 동의하였다. 이에 고종이 "우리나라는 三韓의 땅이다. 국초에 이를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천하를 가진 號를 정하여 大韓으로 해도 불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입시한 신료들의 동의를 받아 국호를 '대한'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대한이라는 국호는 이미 그 전에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보다 3일 전인 10월 8일에 이미 '大韓'이라고 쓰여진 國璽를 만들기 위한 寶文正本이 고종에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종은 미리 국호를 정해놓고 이날 대신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184]

11일의 의례에 이어 12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환구의례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때의 사

183) 『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4일 논설.

184) 한영우, 2001, 위의 논문, 225-226쪽. 이와 같은 고종의 독단적인 정국운영과 관련하여 "유교정치이념과 양반관료체제의 견제를 받았던 조선왕조의 왕권과 달리 대한제국기 모든 국정운영에서 황제는 議政府會議 결과에 관계없이 재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힌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서영희, 2007「대한제국의 빛과 그림자」『한국사 시민강좌』40, 일조각, 219쪽).

람들의 반응과 광경 역시 『독립신문』에 잘 묘사되어 나타나고 있다.

> 십일일 밤 장안의 사가와 각 전에서는 등불을 밝게 달아 길들이 낮과 같이 밝았다. 가을 달 또한 밝은 빛을 구름 틈으로 내려 비쳤다. 집집마다 태극국기를 높이 걸어 애국심을 표하였고, 각 대대 병정들과 각처 순검들이 만일에 대비하여 절도있게 파수하였다. 길에 다니던 사람들도 즐거운 표정이었다. 십이일 새벽에 공교히 비가 왔다. 의복들이 젖고 찬기운이 성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사를 즐거워하는 마음에 젖은 옷과 추위를 개의치 않고 질서 정연히 각자의 직무를 충실히 하였다.[185]

> 십이일 오전 두시 다시 위의를 갖추어 황단에 가서 하느님께 제사하고 황제위에 나아감을 고했다. 황제는 오전 네시반에 환어했다. 동일 정오 십이시에 만조백관이 예복을 갖추고 경운궁에 나아가 대황제폐하께와, 황태자전하께와 황태비전하께 크게 하례를 올리니 백관들이 즐거워들 하더라.[186]

> 광무 원년 시월 십이일은 조선사기에서 몇 만년이 지내더라도 제일 빛나고 영화로운 날이 될지라. 조선이 몇 천년을 왕국으로 지내어 가끔 청국에 속하여 속국대접을 받고 청국에 종이 되어 지낸 때가 많더니…이달 십이일에 대군주폐하께서 조선사기 이후 처음으로 대황제 위에 나아가시고 그날부터는 조선이 다만 자주독립국뿐이 아니라 자주독립한 대황제국이 되었으니…어지 조선인민이 되어…감격한 생각이 아니 나리오.[187]

『독립신문』에서는 의례 전날 저녁부터 일반집과 市廛에서 등불을 달아 밤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광경과 공교롭게 새벽에 비가 와서 옷이 젖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표정, 환구의례와 황제즉위식 그리고 경운궁에 환궁하여 거행한 신료들의 하례에 이르기까지 묘사한 뒤, 이 의례와 의식을 통해 조선이 자주독립한 대황제국이 되어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빛나고 영화로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는 희망섞인 평가까지 내렸던 것이다.

황제에 즉위한 고종은 1895년에 사망한 왕후 민씨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했다. 이어 10월 20일에는 太廟南殿, 慶基殿, 璿源殿, 華寧殿, 肇慶廟의 그릇과 의장을 모두 천자의 격식에 맞추어 쓰게 했는데, 이는 모두 황제국으로 변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188] 또한 선대왕들을 추존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1899년(광무 3) 12월 7일에 태조를 太祖高皇帝로, 莊宗을 莊

185) 『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4일 논설.
186) 『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4일 논설.
187) 『독립신문』, 광무 원년 10월 14일 논설.
188) 『高宗實錄』 卷34, 高宗 34年 10月 20日(김문식·송지원, 앞의 논문, 677쪽에서 재인용).

祖懿皇帝로, 正宗을 正祖宣皇帝로, 순조를 純祖肅皇帝로, 翼宗을 文祖翼皇帝로 추존했다.[189] 자신이 황제가 된 후속조치로 태조를 비롯한 4대 왕을 황제로 추존한 것이었다. 이러한 선대왕 추존사업은 이후 순종대에도 계속되어, 1908년(융희 2) 5월에 진종을 眞宗昭皇帝로, 헌종을 憲宗成皇帝로, 철종을 哲宗章皇帝로 추존하고 태묘와 영녕전에 있던 신주의 이름도 바꾸었다.[190]

고종이 황제로 즉위함에 따라 佾舞와 제례악도 황제의 위격에 맞게 조정되었다. 황제의 위격에 해당하는 宮懸의 제도를 정하고,[191] 환구와 태묘 등의 제사에 8佾舞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제례 때 줄을 지어 추는 춤인 일무는, 천자는 8일무, 제후는 6일무, 경대부는 4일무, 士는 2일무로 그 제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우리의 경우, 고려 예종 때 송나라 제도를 수용하면서 6일무를 쓴 이래 제후국의 예로서 6일무를 사용해 왔는데, 이때에 와서 환구단과 종묘 제사에 8일무를 사용했다.[192] 또한 樂懸의 명칭도 바꾸어 환구, 종묘, 사직, 선농, 문묘, 경모궁 등의 '軒架' 라는 명칭은 모두 황제의 위격에 맞추어 '宮架' 라 칭하게 되었다.[193]

(4) 환구단의 보완 공사

1897년 10월 환구단을 건립하여 환구의례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지만, 환구단의 건립이 이때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皇穹宇와 東·西廡의 건립, 석고와 石鼓壇의 건립, 환구단의 중수와 주변정리 등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다.[194]

1899년 동지 환구의례 때 태조고황제를 배향할 목적으로 황궁우와 동·서무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898년 9월 황궁우 주춧돌을 놓는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899년 황궁우를 완성하였다.[195] 그러나 이때 동서무는 함께 세워지지 못했다가 1900년 11월에 가서야 완공하였

189) 『高宗實錄』 卷39, 高宗 36年 12月 7日(김문식·송지원, 앞의 논문, 678쪽에서 재인용). 고종은 익종(孝明世子의 추존 묘호)을 계승하여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190) 『純宗實錄』 卷2, 純宗 1年 5月 6日 ; 11日 ; 15日(김문식·송지원, 앞의 논문, 679쪽에서 재인용).

191) 『增補文獻備考』 卷97, 樂考8. "光武元年 始定宮懸之制" 궁현이란 천자를 위한 악대배치이다. 제후는 軒懸, 경대부는 判懸, 사는 特懸으로 구분한다. 궁·헌·판·특현은 편종과 편경의 배치로 구분하는데 궁현은 동서남북의 사방에 편종과 편경 각 3틀씩을 편성, 헌현은 북동서의 3면에 각 3틀씩, 판현은 동서의 2면에 각 3틀씩, 특현은 동쪽에만 3틀을 편성한다(김문식·송지원, 앞의 논문, 734쪽).

192) 『增補文獻備考』 卷104, 樂考15, 樂舞. "今上光武元年 祀圜丘宗廟 始用八佾 中祀用六佾" 한일병탄 이후에는 종묘 제사에서 다시 6일무를 쓰게 된다(김문식·송지원, 앞의 논문, 682쪽).

193) 김문식·송지원, 앞의 논문, 679쪽.

194) 환구단의 건립과 보완공사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Ⅱ. 건축적 특성' 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195) 이욱은 고종 재위기간에 황천상제·황지기·태조고황제의 신위가 황궁우가 아니라 동서무에 모셔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황궁우의 기능은 신위의 보관이 아니라 수직적 상승을 통한 초월성의 표출로 제천의 장소를 밝히고 황제의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으로 이해했다(이욱, 2003, 위의 논문, 197쪽).

다. 또 1901년 궁내부에서 탁지부에 올린 '환구단 중수비 청구서'를 보면 이 시기에 대대적인 환구단 중수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볼 수 있다. 청구서에 딸린 예비금지출조서의 명세서 항목들에는 이때 기존의 3층 단을 걷어내고 새로 지대석을 놓고 박석을 까는 등의 공사비용을 책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후대의 사진자료[19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壇上東·西廡 4개의 설치도 이때 추진되었다.[197]

또한 1902년에는 고종황제의 즉위 40년 및 望六旬(51세)을 기념하기 위해 前군수 이건중의 주도로 頌聖建議所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석고단의 건립을 추진하였다.[198] 이들은 민간에서의 모금과 관의 지원을 받아 烏石의 생산지로 유명한 충남 藍浦에서 석고를 만들 오석을 장만하고 환구단 동쪽의 옛 洪宮 터에 석고단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황성신문』에 옛 홍궁 터에서 開基祭를 지낸 기사[199]와 1903년 송성건의소의 요청에 따라 內部에서 13도 관찰사에게 보조금 징수를 독촉하면서 "이제 겨우 9층의 鼓閣을 상량하고 석고 3개를 조각중인데"라고 밝힌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그렇지만 이후 석고단의 건립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황궁우 옆에 남아 있는 3개의 석고는 이때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본래 송성건의소에서 환구단 동쪽의 옛 홍궁 터에 석고단을 건립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석고가 비각과 함께 그곳에 세워졌다가 이후 황궁우 앞으로 옮겨지면서 비각은 철거되었으리라 추측된다.[200]

석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종황제 즉위 기념, 망 6순기념)
頌聖建議所 건립 추진

또 1903년 궁내부에서 올린 환구단 건축비 증액비 명세서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때에도 환구단 관련공사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명세서에 의하면 이때의 공사는 환구단 주변의 외국인 소유의 가옥을 사들여서 外墻을 신축하는 공사와 담장 내에 行閣을 새로 짓고 內地에 박석을 새로 까는 공사였다. 환구단이 인적이 드문 교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도성 한복판에 세워졌고, 또 이곳이 이전부터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으므로[201] 이들로부터 환구단과 인접한 가옥을 매입하여 성스러운 공간인 환구단 영역과 일반 세속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 조치로 이해된다.

196) 서울학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 20세기 사진기록』, 서울학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17쪽(원구단과 황궁우).

197) 이욱, 2003, 위의 논문, 199쪽. 이욱은 단상동서무의 설치는 壇 위에 廟의 요소를 가미하여 上帝의 인격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이욱, 2003, 위의 논문, 202쪽).

198) 석고단 건립 과정에 대해선 李潤相, 2003「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韓國學報』111, 일지사, 121-128쪽 참조.

199) 『황성신문』 1902년 2월 4일자 및 2월 17일자 雜報.

200) 이윤상, 2003, 위의 논문, 128쪽.

201) 이욱, 2003, 위의 논문, 203-204쪽.

2) 대한제국기 환구의례 분석

환구의례의 대상은 1895년 사전 개혁안에서는 천·지와 풍운뇌우, 국내산천의 신위로 규정되었다가, 1897년 10월 황제즉위를 고하기 위한 환구의례를 거행하기 며칠 전에 황천상제와 황지기를 正位로 하고, 大明·夜明·北斗七星·木火土金水·二十八宿·周天星辰·雲師·雨師·風伯·雷師·五嶽·五鎭·四海·四瀆 등 14종류의 신을 從享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1899년 태조고황제를 배향하기로 결정하면서 태조가 추가되는 변화가 생겼다.

환구의례는 정기적인 仲冬冬至(11월 동지)와 孟春上辛(정월의 첫 번째 신일)의 祈穀과 부정기적인 告由와 報祀로 구분된다.[202] 고유는 국가나 황실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를 고하기 위해 거행하는 것이며, 보사는 특정 사항을 기원해서 효험을 보았을 적에 보답하는 의미로 지내는 환구의례를 말한다.

대한제국기에는 정월 기곡을 중시했던 고려시대나 조선초기와 달리 동지의례를 더 중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기의례를 거의 빠짐없이 지내지만[203] 1897년의 황제즉위 고유제를 제외하면 황제가 親祀했던 경우는 1899년 태조고황제를 배향하면서 지냈던 동지의례와 1907년의 동지의례 뿐이었다.[204] 『大韓禮典』에 실려 있는 <冬至祀圜丘儀>, <冬至祀圜丘攝事儀>, <元日祈穀圜丘儀>의 규정을 비교할 때 원일기곡의례에서는 헌관이 1인밖에 등장하지 않고 진행 절차도 소략하다는 점에서도 동지의례를 더 중시했던 대한제국기 환구의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205]

대한제국기 환구의례는 크게 준비단계(告由祭·陳設·車駕出宮·省牲器), 迎神(燔柴·晨祼禮-三上香·灌沙池·奠玉幣), 進獻(進熟-進俎·초헌·讀祝·아헌·종헌), 음복, 送神(撤籩豆·望燎)의 절차를 거쳐 거행되었다.

한편 대한제국기 환구의례가 복원되면서 국가제례 전반에 걸쳐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국가제례의 위계가 바뀌었다. 조선시대 제례의 위계는 종묘에 대한 월등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명목상으로는 사직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환구의례가 복원되면서 사전의 위계질서는 '환구단 → 종묘 → 사직'으로 변화하였다. 제한된 영토에서 정치력을 행사하는 제후에게는 사직이 곧 국가와 동일시되지만, 명목상 천하를 자기 영토로 하는 천자에게는 사직의 중요성이 약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조선초기 환구의례를 폐지한 이후 사직단에서 거

202) 『本署儀軌(圜丘壇祠祭署)』 時日(한국은행 소장). "祀有常日者 仲冬冬至 孟春上辛祈穀 祀無常日者 告由報祀"

203) 대한제국기 거행한 환구의례의 사례는 최기복, 1993「儒敎의 祭天儀禮」『이성과 신앙』6, 수원가톨릭대학교, 71-75쪽의 <도표 4 朝鮮朝의 儒敎祭天儀禮> 참조.

204) 1907년의 동지의례가 친사인지 섭사인지는 좀 더 확인을 요한다.

205) 이욱, 2003, 위의 논문, 207-208쪽.

행해왔던 기곡제를 다시 환구의례로 전환하였다. 환구의례의 폐지와 재난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變禮인 사직 기곡제가 환구의례의 복원에 따라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다. 풍운뢰우신을 主神으로 하고 山川神과 城隍神을 배향해왔던 南壇에도 변화가 있게 되었다. 환구의례의 복원으로 풍운뢰우신이 환구의례의 종향 대상으로 옮겨가자 기존의 남단은 명칭도 山川壇으로 바뀌고 제향대상도 天下名山之神, 天下大川之神, 城隍之神, 郊壇司土之神으로 변경되었다.[206]

3) 일제강점 이후 환구단 철폐와 변화

(1) 융희 연간 국가제례의 재편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거행되었던 환구의례를 위시한 대한제국의 국가제례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순종이 즉위한 이듬해인 1908년 대대적인 재편을 경험한다. 재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국가제례를 '國祀'와 '帝室祀'로 구분하는 것과 전반적인 祭享의 폐지 및 축소였다. 먼저 국가제례를 內閣에서 담당할 국사와 宮內府에서 주관할 제실사, 즉 국가의 것과 황실의 것으로 구분하였다(<표 7> 참조). 이것은 통감부 설치 이후 국정운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국가제례 전반을 계속 주관함으로써 국가의 중심축을 형성하려는 황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었다.[207]

표 2-7 國祀와 帝室祀의 구분

구분	祭祀	주관
國祀	圜丘 宗廟 中霤 社稷 孔子廟 啓聖祠 四賢祠 山川 岳瀆 先農 先蠶 雩祀 司寒 歷代始祖 檀君 箕子以後至于高麗 關帝廟 崇義廟 纛祭 大報壇 萬東廟 武烈祠 宣武祠 靖武祠 奬忠壇 厲祭 城隍祭 馬祖壇	내각
帝室祀	肇慶廟 肇慶壇 慶基殿 濬源殿 穆淸殿 永禧殿 咸興本宮 永興本宮 華寧殿 璿源殿 景孝殿 懿孝殿 各陵園墓各宮廟	궁내부

출처: 이욱, 2004, 위의 논문, 86쪽의 <표 5>

통감부는 먼저 국가제례를 국사와 제실사로 구분하여 황실에서 주관하는 제례의 범위를 황실과

206) 이욱, 2004, 위의 논문, 72-73쪽.
207) 이욱, 2004, 위의 논문, 84-86쪽.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원전 등의 제례로 극히 좁게 제한한 다음 <享祀釐正件>(칙령 제50호, 1908.7.23)을 통해 국사의 대폭적인 축소를 도모하였다. 이를 보면 먼저 제실과 무관한 것으로 분류된 국사는 궁내부에서 거행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국사 중에서 時宜에 부적합한 제례는 폐지하였으며, 폐지하지 않은 제례들도 合祀하고 중요하지 않는 제례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중·소사 중에서 환구, 종묘, 사직, 영녕전, 문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례들이 폐지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사직, 역대시조, 문묘 등은 정부의 소관 아래 두었으며, 제실사로 구분되었던 宮廟와 眞殿에 대해서 합사의 원칙을 관철하여 영희전·목청전·화령전 등의 제례는 선원전으로 통폐합되었고 저경궁·대빈궁·선희궁·경우궁·연호궁 등은 육상궁에 합사하였다. 결국 황실에서 관장하는 제례로서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종묘 이외에 선원전과 육상궁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례의 대폭적인 축소와 병행하여 제례 절차의 과감한 축소도 단행하였다.[208]

(2) 한일병탄과 환구단의 철폐, 철도호텔의 건립

1908년의 享祀釐正으로 이미 형해화의 길을 밟고 있던[209] 환구단에서의 환구의례는 1913년 그 자리에 철도호텔이 들어서면서 그 祭壇조차도 없어지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과 대외적 자주를 상징하던 대한제국의 핵심 시설물이 일제 식민지배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철도의 상징적 시설물로 변화된 것이다. 反日의 상징이던 장충단 맞은편에 伊藤博文의 사당이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환구단에서도 주권의 변동과 연동되어 상징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일병탄과 동시에 폐쇄되었던[210] 환구단은 철도호텔이 들어서면서 3층의 환구단을 비롯한 각종 부대시설물들이 철거되고 황천상제·황지기·태조고황제의 신위를 모셔두는 황궁우와, 고종의 어극 40년 망육순을 기념하여 제작된 석고, 齋室로 사용되던 한옥식 건물 4채, 그리고 정문만 존재하게 되었다. 환구단의 정문은 철도호텔 건립 이후 호텔 정문으로 사용되었다.

석고단의 경우 본래 석고를 싸고 있는 石鼓閣과 석고, 정문인 光宣門으로 구성되었는데, 석고각이 1927년 남산의 동본원사로 이전되고[211] 광선문을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문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아[212] 아마도 이때를 전후하여 석고만 황궁우 동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

208) 이욱, 2004, 위의 논문, 86-90쪽.

209) 향사이정이 이루어진 1908년 7월 이후에는 환구의례의 거행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최기복, 1993, 앞의 논문, 75쪽의 <도표 4>).

210) 김문식·송지원, 앞의 논문, 682쪽.

211) 『京城府史』에는 1929년 장충단 동편에 이토오 히로부미를 위한 사찰인 博文寺을 세우고 石鼓壇의 閣을 옮겨 鐘樓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京城府史』 3, 145쪽).

212) 정수인, 앞의 논문, 130쪽.

재실로 사용되었던 한옥식 건물 4채는 해방 이후에도 철도호텔을 계승한 조선호텔에서 고급 한정식을 판매하는 아리랑 하우스로 사용되다가 1967년 이후 철거되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대한제국기 환구단은 1913년 철도호텔이 건립될 때 치명적인 훼손을 입은 이후 현재의 조선웨스틴호텔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몇 개 남아 있지 않던 시설물조차 현재 보는 바와 같이 황궁우와 석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4.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대한제국기 이전과 이후의 제천의례와 환구단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예, 삼한, 부여의 제천의례는 토착적인 제천의례로서,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떠들썩한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었다. 유교를 받아들인 삼국의 경우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10월의 동맹, 3월 3일 낙랑 언덕에서의 제천의례, 郊祀 등 세 가지 형식의 제천의례를 거행하였으며, 백제에서는 남교에 제단을 쌓고 天地를 대상으로 제천의례를 거행하다가 5세기 후반이후에는 사계절 가운데 달에 天과 五帝를 대상으로 제천의례를 거행하였다. 신라의 경우 제천의례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은 없으나, 시조묘 제사와 신궁 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천의례를 거행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유교가 주요한 정치이념으로 자리잡은 고려시대에는 당나라의 開元禮 전통을 계승하여 정월 上辛에 上帝, 태조, 五帝를 대상으로 남교의 환구단에서 제천의례를 거행하였다. 고려시대 제천의례는 기본적으로 농경의례적 성격을 띠었으며 이외에 간혹 정치적 목적 하에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고려사 禮志의 圜丘에는 환구의례의 거행시기, 축판의 크기, 옥과 폐백, 생뢰, 헌관과 관련된 규정이 수록되어 있으며, 親祀圜丘는 재계→진설→鑾駕出宮→省牲器→奠玉幣→進熟→鑾駕還宮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有司攝事의 경우에는 난가출궁과 난가환궁이 생략되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성립된 조선왕조에서는, 제천의례는 天子禮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조선초기 여러 차례 제천의례의 치폐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1444년(세종 26) 경 그 동안 거행하여 오던 기우제 성격의 제천의례마저 중단하였는데 세조가 집권한 이후 정치적 측면에서 제천의례를 복구하였다. 세조대의 제천의례는 태조~세종대의 그것보다는 중국의 천자례인 冬至祭天에 준하여 거행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세조 사후 천자례로 비판받아 國朝五禮儀에 등재되지 못하였다. 대신 농경과 관련된 의례인 風雲雷雨, 雩祀, 嶽海瀆 제사를 강화하고 정월 사직단에서의 祈穀祭를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조선초기 기우제 성격의 제천의례를 '계승'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던 제천의례는 정세가 격변하던 조선 말에 부활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였던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한 후 자주국가의 상징으로 환구단을 건립하고 황제위에 즉위하면서 제천의례가 명실상부하게 복원되었다. 이후 제천의례를 정비함과 더불어 환구단 일대의 보완공사를 진행하였다. 황궁우와 동·서무의 건립, 환구단의 개건과 단상동·서무의 건립, 石鼓壇의 설치와 담장 등 주변정비 사업이 그것이다.

대한제국기의 환구의례는 黃天上帝와 黃地祇, 태조, 14종류의 신을 치제 대상으로 하였다. 동지와 정월 上辛의 정기적인 의례와 告由祭, 報祀 등의 부정기적인 의례가 있었으며, 준비단계→迎神→進獻→飮福→送神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처럼 대한제국기에 환구의례가 복원됨에 따라 국가제례의 위격이 종래의 '사직 → 종묘'에서 '환구 → 종묘 → 사직'으로 변화하였다.

대한제국기 환구의례는 일제가 조선에서의 실권을 장악함에 따라 자주적인 황제국이라는 실제 내용을 담보하기 어려워졌으며, 환구단의 시설물 역시 동일한 운명을 밟았다. 이에 따라 한일병탄 이후 환구단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철도호텔이 건립되었으며, 황궁우와 석고, 齋室을 제외한 환구단의 부속 시설물도 모두 철거되는 운명에 처하였다.

5. 보론: 圜丘壇의 한글 독음에 대하여

1) '환구단(圜丘壇)' 명칭 결정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사적 제157호의 공식 명칭은 '환구단(圜丘壇)'이다. 문화재청에서 '동 문화재의 한자표기 및 독음을 '환구단(圜丘壇)'으로 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공고(문화재청 공고 제2005-146호)'를 2005년 9월 6일자로 예고하고, 일정 기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년 11월 16일자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5-81호)를 통해 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이러한 공식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구단(圜丘壇)'으로 독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여러 경로를 통해 표출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독음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론에서는 각각의 견해에 대한 논거를 살펴보고 '환구단'과 '원구단' 중 어느 쪽으로 독음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213]

2) 圜丘壇의 한글 독음

문화재청에서는 공고를 통해 "사적 제157호 원구단/환구단의 한자 표기와 독음에 있어서 환구단(圜丘壇), 원구단(圜丘壇), 원구단(圓丘壇) 등이 혼용되고 있는 바, 단을 조성하고 고종 황제가 제사를 지낸 1897년 10월 당시 「독립신문」 등의 기록을 존중하여 동 문화재 명칭의 한자표기 및 독음을 '환구단(圜丘壇)'으로 하고자 함."이라고 그 사유와 논거를 제시하였다.

고종이 환구단에 나아가 환구의례를 거행하고 황제의 位에 오른 날인 1897년 10월 12일자 「독립신문」에는 '환구단'이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온다. 그렇지만 동년 동월 7일자 「독립신문」에는 '환구'라는 표현 대신에 '원구'라는 표현이 두 차례나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후 자료를 보면 1899년의 「제국신문」에는 '원구단'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1908년의 「공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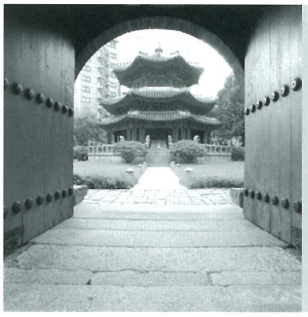
213) '환구단'이라는 독음은 문화재청 공고안을, '원구단'이라는 독음은 문화활동가 이순우씨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견해를 바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특히 명칭 논란이 있게 되면서 이순우씨가 모아 놓은 자료는 보론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순우씨의 자료 및 글은 그의 홈페이지(http://cafe.daum.net/distorted)의 '환구단 아닌 원구단'에 실려 있다.

신보」에는 '환구단'이라고 쓰고 있어 당시에 '圜丘壇'의 한글 독음이 일관된 원칙 하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당대의 신문 자료만 가지고는 '圜丘壇'의 한글 독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圜丘壇의 '圜'에 대해서 중국측의 『康熙字典』를 보면, 당나라 때에는 "王權切"이라 하여 '왕'과 '권'의 반절인 '원'으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고, 청나라 때에도 "于權切"이라 하여 역시 '원(위안 yuan)'으로 발음하며 한자 '圓'과 같다고 되어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漢韓大字典』(1966년, 민중서림)을 보면 '圜'에 대해서 "㉮ 두를환, 에울환 ㉯ 둥글원 圓과 仝字"로 풀이하고 있다. '圜丘'의 圜은 '두르다'가 아니라 '둥글다'라는 의미이므로 圓과 같은 글자이고 그 한글 음은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현재 중국에서 圜丘壇을 '후안치우탄(huanqiutan)'이 아니라 '위안치우탄(yuanqiutan)'으로 발음하여 우리말 '원구단'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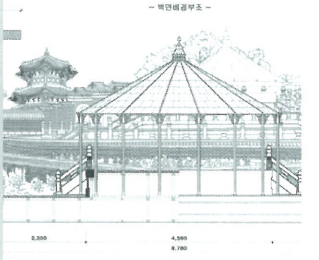
환구단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는데, 전근대 유교사회의 우주관이 '天圓地方(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圜丘壇'은 '원구단'으로 독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환구단'으로 독음하는 것이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정신을 더 잘 표현하는 점이 확실하게 입증될 때에 '환구단'으로 독음을 변경하고, 그 전까지는 여러 자전에 나타난 바와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원구단'으로 독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3장
건축적 특성









Ⅲ. 건축적 특성

1. 환구단(圜丘壇) 현황

1) 현황 및 배치

덕수궁에서 시청 앞 광장을 가로질러 조선호텔 구내로 들어서서, 호텔 정면 출입구를 지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선 후기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祭天壇)이었던 환구단(圜丘壇)의 일부를 볼 수 있다. 이 제단은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수용하고 있던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중국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주적 국가로 첫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단이었다.



그림 3-1. 환구단 주변 항공지도 (자료출처 : Google)

환구단은 고종 34년(1897년)에 조선을 독립적 지위의 황제국(皇帝國)으로 격상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면서 조선시대의 제천단을 다시 건립한 것이다. 그러나 1913년 일본인에 의해 이 자리에 철도호텔(현 웨스틴조선호텔)이 건립되면서 원단은 훼손되어 없어지고 현재는 황궁우(皇穹宇)와 석고(石鼓 : 돌북)를 비롯한 부속시설물들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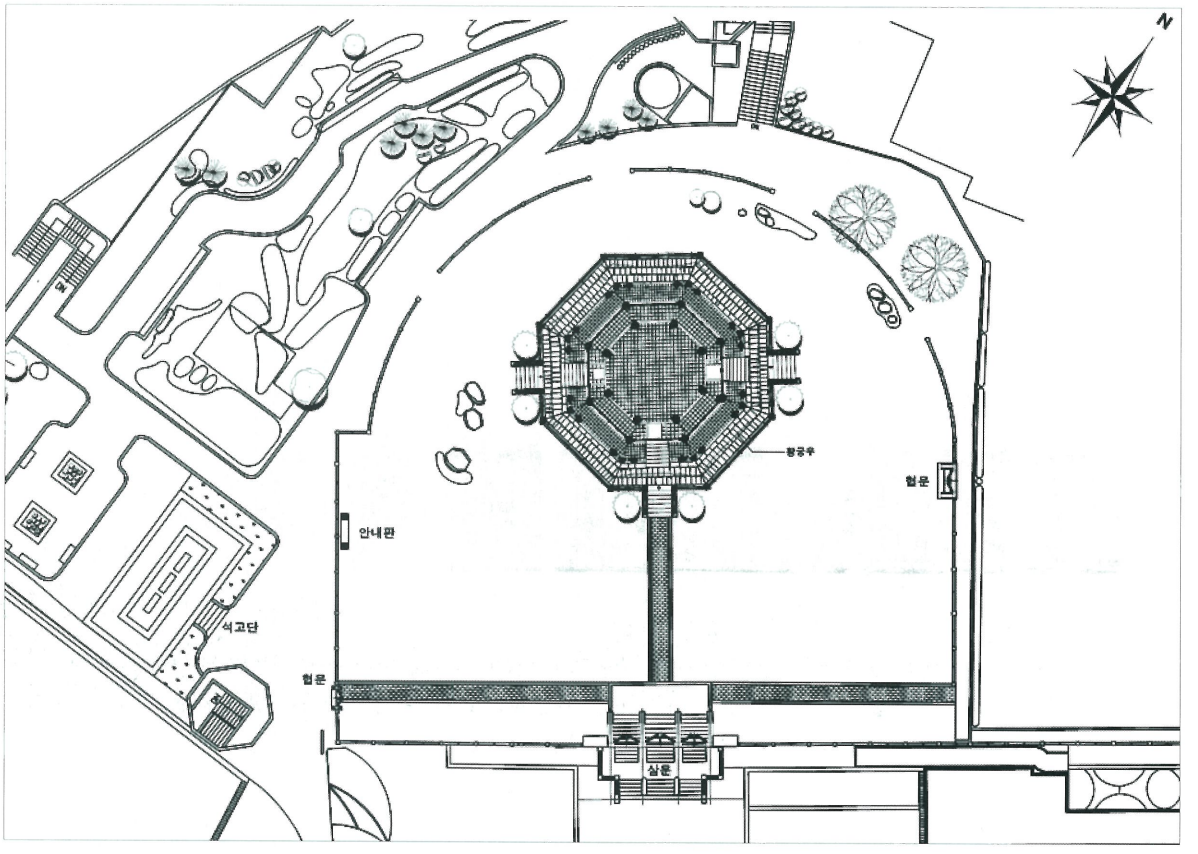


그림 3-2. 황궁우와 주변 현황배치도 (자료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년에 들어서는 시청 앞 광장과 연결되는 환구단 시민광장이 조성되고,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하였다.

한편 2006년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황궁우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었으나 기울어짐 현상과 석조물들은 조금씩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14] 또한 정밀안전진단 자문위원과의 면담에 의하면 황궁우 남쪽의 호텔 지하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부동침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고려되고 있어 황궁우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반기초공사를 먼저 시행해야하는 보존·복원 및 정비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214) 환구단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006, 8. (주)건양구조.

현재 남아 있는 황궁우와 석고, 삼문 등은 조선호텔을 중심으로 약간 서북쪽(해좌사향 : 亥坐巳向)[215]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 황궁우 주변은 환구단 주위에 둘렀던 난간형식의 석조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고, 조선호텔과 북측으로 인접해서는 삼문과 계단이 남아 있다. 또한 황궁우 동북쪽으로는 봉황으로 문 모서리를 장식한 협문이 있고, 서남쪽으로는 3개의 石鼓(돌북)가 남아 있다. 그리고 삼문 서쪽으로도 작은 협문이 있고 석조 울타리 안에 측우대가 하나 위치하고 있다.

현존하는 황궁우를 비롯한 시설물들의 입지는 주변 지역보다 약간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방에서 우뚝 솟아 시각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고려되나, 현재는 남동쪽으로 조선호텔을 비롯하여 동북쪽에 롯데호텔, 서북쪽에 재능교육빌딩, 서쪽에 하나은행 빌딩 등이 에워싸고 있어 높은 빌딩 속에 가려져 있어 이곳이 환구단이었다는 장소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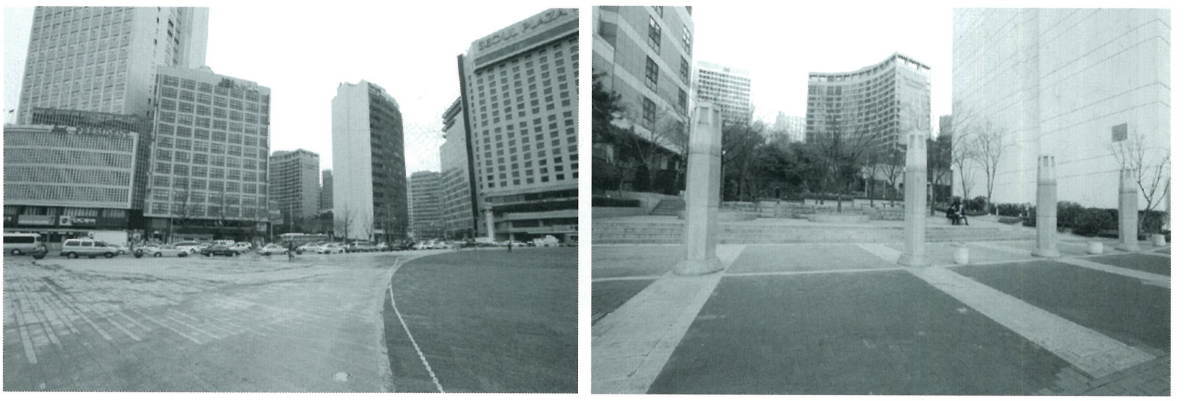


그림 3-3. 환구단 주변 고층빌딩군(좌)과 언덕에 위치한 입지(우)

215) 高宗實錄 36권, 34년(1897 정유, 대한 광무(光武) 1년) 10월 1일. 掌禮院卿 金奎弘이 아뢰기를, "신이 營繕司長 李根命과 함께 相地官 吳聖根을 데리고 圜丘壇을 설치할 장소를 看審하니, **南署의 會賢坊 小公洞契의 亥坐巳向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계를 정하여 壇을 쌓는 절차를 營繕司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원구단에 단을 쌓는 공사를 시작할 길일 및 位版과 從享位牌를 만드는 길일은 음력 9월 7일로 정하며, 그 조성하는 절차를 奉常司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원구단의 위판과 종향 위패를 만드는 장소는 어느 곳에 마련해야하겠습니까?" 하니, 制勅을 내리기를, "勤政殿에 하라." 하였다.

掌禮院卿 金奎弘奏 臣與營繕司長李根命 率相地官吳聖根 圜丘設壇處所看審 **則南署會賢坊小公洞 契亥坐巳向之地爲吉云** 以此定界 築壇節次 令營繕司 卽速擧行何如 又奏 圜丘築壇始役吉日及位版從享位牌造成吉日 以陰曆九月初七日爲定 而其造成節次 令奉常司 專管擧行何如 竝允之 又奏 圜丘位版與從享位牌造成處所 以何處磨鍊乎 制曰 勤政殿爲之

해좌사향에 대한 기록을 보면 1913년 司空留가 지은 詠史歌辭인 "漢陽五百年歌"에서 「太祖大王 擧動 보소 鄭三峰을 吩咐하고, 無學을 불러다가 王都로 정할 적에, 臨津江 얼른 건너 三角山 一枝脈에 대궐터를 잡아노니, 대궐 좌향 어찌 할꼬. **無學이는 亥坐巳向, 鄭三峰은 子坐午向**, 둘이 서로 다툴 적에 鄭三峰 하는 말이 네 모른다 이 중놈아, 亥坐巳向 놓지 마라.…」에서처럼 조선시대 좌향 논의에서 자주 나오던 것으로 고려된다.

2) 시설물 현황

(1) 황궁우 (皇穹宇)

황궁우는 조선 광무 2년(1898년) 9월 3일(음력 7월 18일)[216] 공사를 시작하여 광무 3년(1899년) 무렵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217] 그러나 당시에는 내부에 감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즉 감실은 이후 마련된 것으로 추정된다.[218]

현재 황궁우 내부에는 2006년 12월에 위패(位牌)를 고증하여 새로 만들어 안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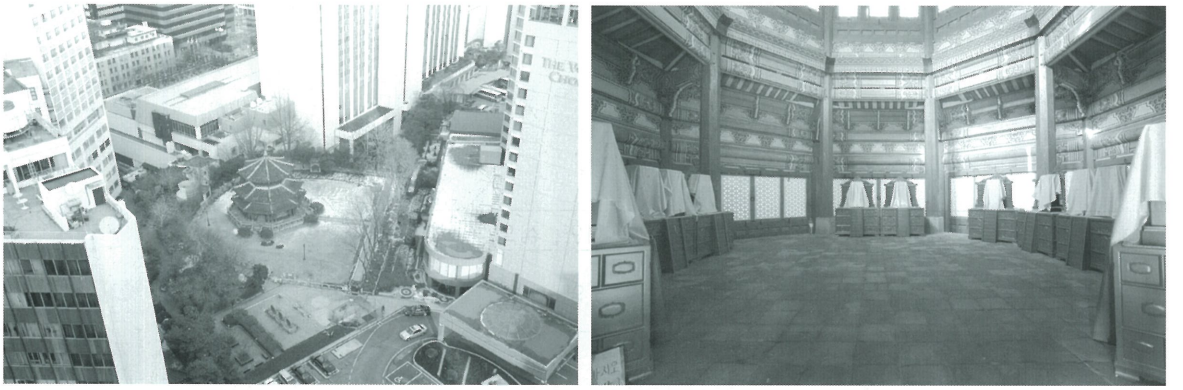


그림 3-4. 고층 빌딩 숲속에 위치한 황궁우 주변입지(좌)와 황궁우 내부(우)

황궁우는 19-20세기 무렵 정동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자생적 건축가인 심의석(沈宜碩, 1854-1924)[219]에 의하여 건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던 환구단과 석고단(石鼓壇)

---

216) 高宗 37卷, 35年(1898 戊戌, 대한 광무(光武) 2年 8月 31日). 宮內府大臣 李載純이 아뢰기를, "**圜丘壇 皇穹宇의 定礎할 吉日은 음력 7월 18일로** 정해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宮內府大臣李載純奏 **圜丘壇皇穹宇定礎吉日 以陰曆七月十八日推擇** 定行何如 允之

217) 경성부사 1권 657p에는 광무 3년(1899) 환구단의 북쪽에 황궁우를 건립하여 제신의 위판을 봉안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일보 1981년 2월 15일자에는 황궁우 상량문이 서울시의 해체복원공사중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상량의 시기를 광무 2년(1898) 7월 30일 未時로 적고 있다. 현재 상량문은 서울시에서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정확한 기록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다.

218) 이욱에 의하면 황궁우는 외연상 1899년에 완공되었지만 건물 내에 감실은 만들어지지 않고 세 신위를 황궁우 옆에 세워진 동서무에 임시로 모셔두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황궁우에 감실이 만들어지고 皇天上帝, 皇地祈, 太祖의 신위를 모신 것은 융희년간에 들어서 인 것으로 고려하였다.

이욱, 대한제국기 환구제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30, 2003. 196p. 참고.

219) 심의석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서울의 근대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가이자 도편수, 토건업자였다. 그는 목조, 석조, 벽돌조를 모두 다룰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그의 건축가로서의 능력은 더욱 돋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金守淵과 함께 우리 전통건축의 마지막 세대였으며 동시에 신건축의 창시세대였다. 그는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한양의 개조자로서 크게 공헌하였다. 주요 업적으로 러시아공사관의 시공을 비

도 그에 의해 만들어졌다.

표 3-1 심의석 건축활동 요약 (우대성,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p. 참고 정리)

건물명	위치	기간	설계자	구조	담당업무	비고
배재학당	정동	1887-1887. 9	T. 요시자와(吉澤)	벽돌조	시공	
배재학당 삼문출판부	정동	1889 -		벽돌조	시공	
施病院	상동(남창동)	1890.10	심의석	벽돌조	설계, 시공	
선희궁	신교동	1897	영선사	목조, 벽돌조	別監董	유형문화재32호
환구단	소공동	1897, 10, 2	영선사	석조	설계, 監董[220]	
독립문	橋北洞 (현저동)	1896, 11, 21 - 1897, 11, 20	Sabatine	석조	시공	사적 32호
이화학당 본관	정동	1897-1897, 12	Cross. 심의석	벽돌조	설계, 시공	
정동제일교회	정동	1895, 8, 5 - 1898, 10	T. 요시자와 (吉澤)	벽돌조	시공	사적 256호
황궁우	소공동	1899	영선사	목조	설계, 監董	사적 157호
상동교회	상동(남창동)	1900, 7, 30 - 1901, 5, 12	심의석	벽돌조	설계, 시공	
協律社	신문로	1902, 8	이채연, 심의석	벽돌조, 목조	설계, 시공	
기념비전	세종로	1902, 9	영선사	목조	監董	유형문화재
석고단	소공동	1902, 1, 6 - 1903 초	영선사	석조	설계, 監董	사적 157호
광선문	소공동	1902, 1, 6 - 1902, 11	영선사	목조	설계, 監董	
탑골공원 음악당	종로		심의석	목조	설계, 시공	
손탁호텔	정동	1902, 10 - 1903	Sabatine	벽돌조	시공	
석조전	덕수궁 내	1900 -1909	G. A. Harding	석조	監董(기초)	사적 124호
산릉도감		1904	영선사		監董	
원소도감		1905	영선사		別看役	

롯하여 배재학당 참여, 독립문, 정동교회, 이화학당 본관, 상동교회, 광화문의 기념비전, 協律社, 손탁호텔, 석조전 등이 있다.

한편 광화문 기념비전은 김정동에 의하면 심의석이 참여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배희한 목수의 증언에 의한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라는 책에서는 조선말 궁궐 도편수인 최백현이 만든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아마도 실무와 감독의 차이로 고려되는데 이 점은 앞으로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동, 서울건축사, 552-555p.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10. pp. 151-152.

우대성, 대한제국의 건축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6.

220) 조선시대 국가의 토목공사나 서적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원. 監役

팔각인 황궁우는 화강암으로 된 세벌대의 장대석 기단 위에 아래쪽과 위쪽이 모두 벌어진 하엽을 놓고 육각형의 단면을 한 난간대를 두르고 있으며, 사각형의 단면으로 된 각 모서리 법수 위에는 짐승상을 올려놓아 단을 구성하고 있다.

단은 동서남 세방향으로만 6단의 계단을 구성하고 있고 북쪽에는 계단을 설치하지 않았다. 계단은 단 위와 같은 모양의 하엽과 난간대, 그리고 법수와 짐승상을 설치하고 있다. 여기서 하엽은 계단에는 한 개씩, 단 위에는 각 면마다 5개씩 설치하고 있다. 계단 밑 법수 앞쪽으로는 삼태극 문양을 한 돌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삼문 계단 밑 법수 앞에도 동일한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림 3-5. 황궁우 전경과 입면

단 위에는 방전(方塼)으로 바닥을 마감하고 있고, 이 위에 다시 한단의 장대석 기단을 쌓고 처마 기둥을 받는다. 기둥은 각 모서리마다 3개씩 구성되고 팔각형 모양의 단면형을 하며, 기둥 밑에는 기둥보다 직경이 굵은 팔각형 초석을 두고 있다. 각 기둥사이와 기둥 위를 연결하는 창방 밑에는 낙양각을 두어 장식하고 있다. 창방 위에는 소로를 두고 장혀를 놓아 도리를 받고 있다. 각 기둥 위와 기둥 사이 도리 밑의 소로와 장혀에는 물익공형식으로 결구하고 있고, 각 모서리 기둥은 물익공을 세 방향으로 만들어 구성하고 있다. 처마는 사각형의 단면을 가진 홑처마에 가와지붕을 얹고 지붕에는 양성을 했으며 잡상이 4개씩 설치되어 있다.

2층은[221] 기둥 상부를 창방으로 결구하고, 기둥 위에 소로를 놓아 익공(翼工)을 구성하고 있고 다시 이 위에 소로를 놓고 장혀를 두고 도리를 얹은 이익공 형식을 하고 있다. 익공형식은 1층과는 달리 모서리 기둥에 이익공형식이 사용되고 있고,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물익공 형식이

官, · 監照官이라고도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2, 304p.

221) 실제적으로 건물은 2층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을 에워싸서 사방으로 일종의 차양을 구성하고 있어 외견상 처마의 구성으로 보면 3층으로 보여진다. 여기서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처마층수에 따라 설명하였다.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둥사이의 익공도 1층과는 달리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높이를 조절하면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처마는 서까래와 부연을 둔 겹처마이며 사래 끝에는 토수를 끼웠다. 1층과 마찬가지로 지붕마루에는 양성마감을 했으며 내림마루에는 4개씩의 잡상을 얹고 있다.

3층도 2층과 거의 유사한 구성을 하는데 2층 보다는 층고를 높여서 각 면에 3개씩의 고창을 두고 있고, 잡상 수에 있어서도 1층과 2층보다 2개 더 많은 6개씩을 올려놓고 있다. 지붕 중앙의 추녀마루들이 모이는 곳에는 절병통을 놓아 마무리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공포형식은 익공식이지만 청(淸)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장식이 있고, 익공이 기둥 위에만 있지 않고 기둥 사이에도 있어 다포계(多包系)와 혼용된 중국양식의 수법이 보인다.

내부는 외진평주(外陣平柱)와 내진고주(內陣高柱) 사이 반간폭의 공간이 주위를 돌면서 구성되어 있는데 내진고주 안쪽 공간보다는 약간 내려가 있고, 내진고주는 반면 한단 높게 되어 있어 내부공간이 분절되고 있다. 단지 이 외진평주와 내진고주의 사이 공간은 동서남쪽 계단이 있는 부분은 다른 바닥보다 한단 정도 높게 해서 내진고주 안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내진고주는 팔각형 단면의 주초석 위에 팔각형 단면의 기둥을 세워 상부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붕은 우물반자를 구성하고 있으며 다시 그 안에 팔각형으로 천장을 구성하여 두 마리의 용을 장식하고 있다. 우물반자는 각각 5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면당 20개씩의 총 160개의 반자청판이 구성되어 있다.[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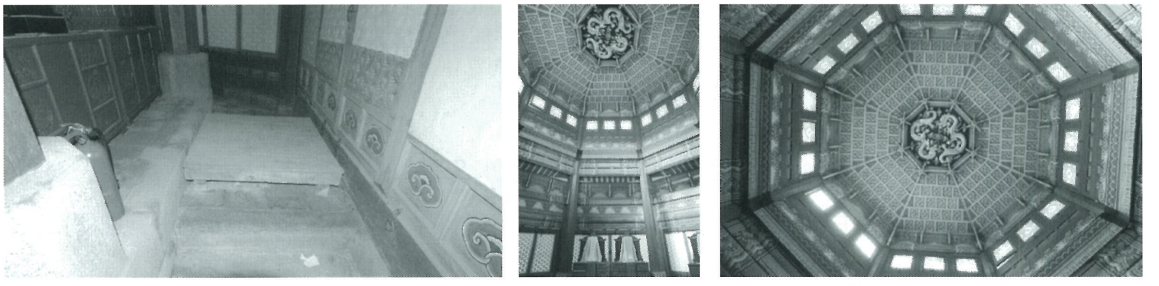


그림 3-6. 황궁우 내부 외진부분(좌)과 내부 기둥과 천장구조(중, 우)

(2) 석고 (石鼓, 돌북)

현재 황궁우 서남측으로 제천(祭天)을 위한 악기로서 3개의 석고가 있으며, 석고단은 고종황제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심의석의 설계로 1902년 1월 광선문과 함께 공사를 착수하여 동년 12월 대체적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1903년 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223]

222) 여기서의 반자청판 수는 양끝의 마름모꼴의 반자청판을 제외한 사각형 모양의 반자청판의 개수만을 말한다.

지금은 석고단 위에 석고가 세워져 있지만 예전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석고단은 구 조선총독부 도서관 자리에 있었던 석고각(石鼓閣) 안에 있었고[224], 또한 당시에는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 눕혀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225] 더불어 석고는 미완성인채 남아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것은 이 석고 표면에 문자를 새겨 넣을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석고 표면에 문자를 새겨 넣을 예정이었던 점은 梅泉野錄 光武 5년 辛丑 11월에,

『金聲根이 석고를 제작하여 聖上의 中興功績을 기록하고자 건의하였다. 이에 京官은 1개월 봉급을 감봉하고, 또 이 여론을 外郡까지 파급시켜 그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고 頌聖建議所를 설치하여 趙秉式을 의장, 李裕承을 부의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유승은 강력히 사절하고 다음과 같은 상소를 하여 그것이 非理임일 지적하였다. "역대의 제왕으로 堯, 舜, 禹, 湯, 文, 武로부터 한, 당, 송에 이르기 까지 상하 3-4,000년 동안에 걸쳐 그 덕망과 업적을 기록한 것은 오직 簡冊으로 전한 것뿐이며, 비석을 세워 자신의 덕을 칭송한 것은 진시황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석고에 대해서는 경전에도 상고할 수 없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문왕의 석고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宣王 때 시를 각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왕의 중흥은 詩經과 史傳 등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며 석고에 의하여 후세에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가의 私業과 大勳에 있어서는 훌륭한 사가들이 大書特筆하여 천추에 전해질 것이니 어찌 한 조각의 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을 중지하라는 특명을 내려 겸손한 덕을 빛내시기 바랍니다." 이 상소가 전해졌으나 그 후 거론되지 않았다.』[226]

는 기록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석고를 건립하려는 목적은 고종황제의 상징적 권력에 대한 과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고각으로 진입하는 문으로 광선문(光宣門)이 있었다. 그리고 석고에 사용된 석재는 용인군(龍仁郡) 백운사(白雲寺)[227]에서 5좌(坐)를 운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의 연구에

223) 경성부사 2권 59p.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석고각 상량문에 의하면 『光武七年(1903년)癸卯閏五月乙巳』에 석고각을 상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24) 1921년의 조선지형집성을 보면 조선총독부도서관(총독부립 경성도서관) 자리 서북쪽으로 석고각의 자리가 표시되어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은 1923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도서관 본관은 르네상스식 외관을 하고 벽돌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였고, 서고는 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였다. 현재 이 자리에는 롯데호텔과 백화점이 들어서 있다.

225) 애초부터 석고가 눕혀져 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1939년 이전의 연구논문에 눕혀져 있는 사진이 있고, 孫澔翼의 南別宮考에 의하면 故老의 설명에 의해 석고 표면에 문자를 새겨 넣을 예정이었으나 미완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애초에 세워져 있었다는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에는 미완성인 채 눕혀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에 문자를 새겨 넣은 다음 최종적으로는 세우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6) 황현 저, 김준 역, 매천야록, 교문사, 1996, 10, pp. 502-503.

의하면 석재를 오석(烏石)의 생산지로 유명한 충남 남포(藍浦)에서 채취하여 마련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28]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남산 동본원사로 이전된 석고단 정문 광선문[231]

이후 광선문은 1927년 6월 남산 동본원사(東本願寺)[229]로 옮겨지고, 석고각은 1935년 4월 박문사(博文寺)[230]로 옮겨져서 석고만이 도서관 서고 후면에 존재하다가 1936년 여름 조선호텔의 후원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다.

본래의 석고단 형식은 鶴田金誠鎭에 의하면 상징적인 표현체계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석고의 원은 태극을 상징하고, 두께는 2척으로 양의(兩儀)를 상징하며, 넓이는 7척으로 칠성(七星)을 상징한다. 3개의 석고는 삼재(三才)를 상징하고, 단의 팔각은[232] 팔괘(八卦)를 상징한다. 계단은 9층으로 구궁(九宮)을 상징하며 대(臺)는 사각으로 사상(四象)을 상징한다. 또한 넓이 33척은 33천을 상징하며 높이 28척은[233] 28숙(宿)을 상징한다.[234]

---

227) 왕림위 백운산 중턱에 자리잡은 사찰이다. 원래 백운산 동남쪽에 있었으나 고종 31년(1894) 산불로 소실되자 이 때 史蹟 또한 소실되어 창건연대를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빈터에 몇 개의 주춧돌과 탑의 기단석이 남아 있다. 소실된 이후 고종 32년(1895) 청풍 김씨 문중에서 건평 20평의 암자를 현재의 위치에 다시 세웠다. 그 뒤 1916년 敬欣스님이 중수를 하는 등 그 후에도 여러 스님들의 원력으로 법당과 요사를 신축하고 도량을 손질하였다.

228) 이윤상, 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 한국학보 111, pp. 96-139. 참고.

229) 東本願寺(히가시혼간지)는 서울 남산 북쪽기슭, 대한접십자사 건물 위쪽에 일제침략의 일익으로 종교적인 거점을 확보한 일본 불교세력이 세운 것으로 本寺는 일본 교토에 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빼앗겼던 고종황제가 황태자와 함께 침략의 괴수 이토 히로부미의 강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내놓은 하사금으로 지은 법당이었다고 한다.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8. 참고.

230)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사당이었던 박문사는 현재 장충단과 신라호텔이 들어선 일대이다. 박문사는 석고각뿐만이 아니라 경희궁의 흥화문을 옮겨다가 정문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 건축사적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다.

231) 경성부사 2권 59p 사진자료 인용

232) 현재의 석고단과 이전의 석고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臺)와 단(壇)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김동현에 의하면 대나 단은 특별한 구조물을 올려놓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어떠한 용도에 필요한 받침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이 둘의 정확한 구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 下, 通文館, 1977, 3, 66p. 참고) 여기서는 석고의 설명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아 맨 아래층에 대가 있고 그 위에 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33) 높이 28척은 대나 단만의 높이가 아닌 석고까지 포함한 전체 높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약 8.5m의 높이가 대나 단만을 말한다면 사진자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높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높이는 전체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석고의 규모는 두께가 약 50㎝, 직경이 131㎝ 정도로 되어있다.[235] 그리고 하층의 넓이는 가로가 206㎝, 세로가 156㎝, 밑단은 가로가 761㎝, 세로가 206㎝, 전체높이는 172㎝로 되어 있어서 석고의 상징적인 표현체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전의 석고단의 모습은 석고각 안에 있어서 전체 규모는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석고단은 2단으로 구성된 사각형의 장대석으로 둘러싸여 이 위의 중앙에 돌로 된 넓은 판돌을 놓고 3개의 석고가 하엽 문양의 돌로 받쳐져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단위로 오르는 계단은 동쪽에 있고, 단 위에는 법수석을 앞뒤로 4개씩 모두 8개를 설치하여 석고를 둘러싸고 있다. 이 석고 몸체에 부각(浮刻)된 용문(龍文)은 조선 말기의 훌륭한 조각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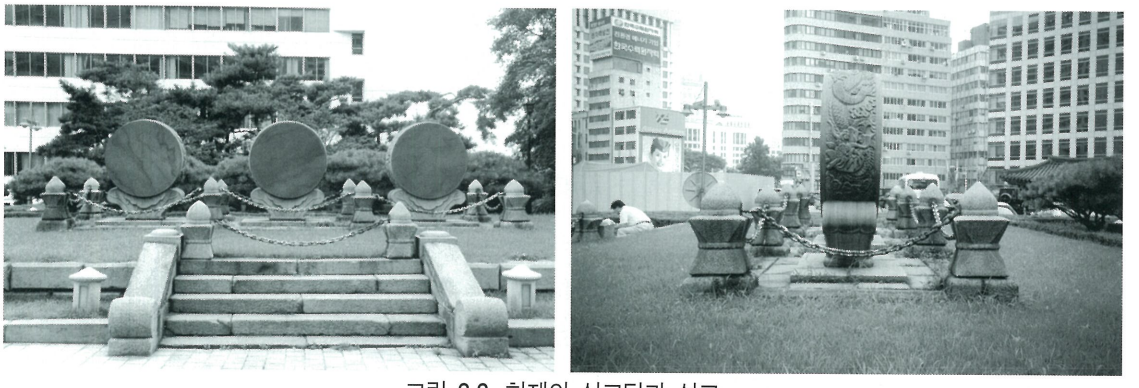


그림 3-8. 현재의 석고단과 석고

(3) 삼문과 협문

제단에서 황궁우에 이르는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삼문은 환구단의 중수 무렵 원단과 황궁우 주변 공사가 대략 마무리 될 때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삼문은 조선호텔과 바로 인접한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문은 궁궐 정전에 이르는 계단과 유사한 삼중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중앙에 용문양의 답도(踏道)와 폭이 작은 계단을 양옆에 구성하고 이 옆에는 서수(瑞獸)를 길게 늘여 중앙부 계단을 구성한 다음, 다시 그 양옆으로 계단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2중 월대(月臺)로 구성되어 계단이 상하 2단으로 구성되듯이 여기서도 2단으로 계단이 구성되고 있다. 다만 상층 계단에는 하층과 같은 서수는 구성되지 않고 계단만 구성되어 있다.

하층에는 계단 양옆으로 법수와 하엽으로 구성된 난간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용된 난간

234) 손호익, 南別宮考 下, 文獻報國 제5권 제8호 통권 제38호, 1939, 8, 13p. 참고.
235) 석고단의 규모는 본 연구자에 의한 것으로 정밀 측량이 아닌 개략적인 측정에 의한 치수이다.

과 법수석, 그리고 하엽은 황궁우와 유사한 모습을 한다.



그림 3-9. 삼문의 외부와 내부



그림 3-10. 삼문의 답도(좌)와 서수(우)

상층에는 5단의 계단을 구성하고 이 위에 아치로 된 3개의 문을 두고 있다. 문은 석재와 벽돌을 혼용하여 만들었고,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으며 중앙이 높은 삼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문 양옆으로는 중간 정도의 높이로 구성된 벽돌담이 남아 있다. 애초에 벽돌담은 삼문 양옆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나 현재는 잘려나가고 대신 환구단의 철거로 인해 남은 석조난간 부재를 이용하여 현재와 같이 조성하였다.[236]

삼문은 현재 지붕 위에 취두가 없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애초에는 취두가 중앙부 양쪽 끝과 양쪽 지붕의 끝에 설치되어 있었다.

협문은 석조와 전(塼)으로 아치형의 문을 구성한 것으로 황궁우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바닥에서 중간부분까지는 커다란 석조로 기둥을 세우고 이 위를 전으로 올려 아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부는 팔작지붕으로 기와를 올려 마무리 하고 있다. 아치의 상부로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을 상징하는 문양이 아치 위로 새겨져 있고, 양쪽 삼각형의 모서리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다. 또한 양측면 전벽면에는 한 글자씩 "만세(萬歲)" 라는 글씨를 새겨 넣어 대한제국의 영원을 기원하는 듯한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236) 삼문 양옆으로 구성된 벽돌담은 환구단을 구성하는 방형의 담장과 황궁우를 구성하는 원형의 담장이 맞물려서 구성된 담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세한 내용은 3장 2절 2의 환구단의 성립과 변화과정을 참고할 것.

이런 석조와 전으로 구성하는 협문은 이 무렵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고려되는데 특징적인 것으로 현재 덕수궁(德壽宮)의 석어당(昔御堂)과 덕홍전(德弘殿) 사이에 있는 유현문(惟賢門)은 이러한 석조와 전으로 구성된 문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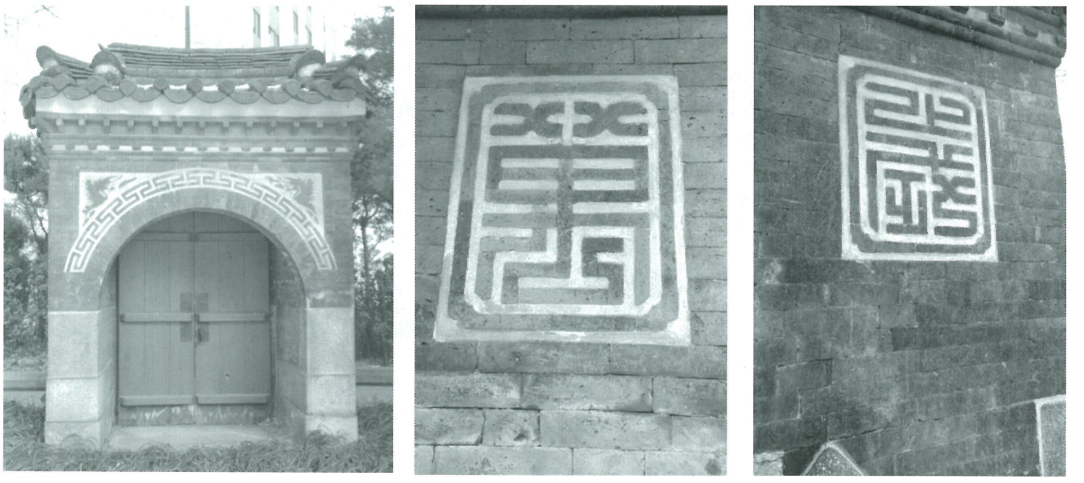


그림 3-11. 협문 정면과 측면의 만세 문양



그림 3-12. 측우대

아울러 황궁우 잔디[237] 위에는 서쪽으로 측우대가 한 개 남아 있다. 아마도 이곳에서의 행례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고려되지만 정확한 제작년대와 사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4) 환구단 정문[238]

최근 환구단의 정문이 우이동 그린파크에서 발견되었다. 문의 현판은 현재 백운문(白雲門)이

237) 황궁우 주변의 바닥에는 박석이 깔린 사진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환구단은 방형의 담장 안쪽으로 박석이 깔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자료를 볼 수 있다.

238) 환구단 정문은 우이동 그린파크호텔 입구에서 발견되었다. 1967년 무렵 까지도 조선호텔이라는 현판으로 존재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 조선호텔의 신축과 함께 그린파크로 매각되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씌어있다. 그린파크에 70년대 무렵 근무를 했었던 최영규 상무이사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주)메트로 호텔의 회장이 조선호텔의 정문을 매입한 것이라고 한다.



그림 3-13. 그린파크 호텔로 이전된 1970년대 초 무렵 조선호텔 정문과 그린파크 호텔 전경 239)

아울러 「韓國觀光 50年秘史」240)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1967년 7월 6일 조선호텔을 폐관하고 철거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재활용될 건축자재 이외에도 1914년에 건립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골동품 가치가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들을 했으나 그같은 물건은 찾지 못했다. **호텔건물과 함께 철거된 조선호텔 정문 건축물은 그린파크에서 매입, 백운문이라는 이름을 붙여 옛 모습 그대로 그린파크에 세워져 있다.**

조선호텔 건설설계·감독·공간 감리회사로 벡텔(Bechtel Overseas Corp)이 선정되고 벡텔은 건축설계를 윌리암 테이블러 설계사무소(William Tabler Architect), 실내장식설계는 헨리 엔드 합명회사(Henry End Associates), 기초 골조설계는 와이만 씨 위잉 합명회사(Wayman C. Wing)에 하청을 주고 굴토, 기초, 골조공사는 삼환기업과 현대건설이 조인트 벤처로 공동시공했다. 국내 시공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현대건설과 삼환기업이 심한 경합을 벌였으나 결국 공동으로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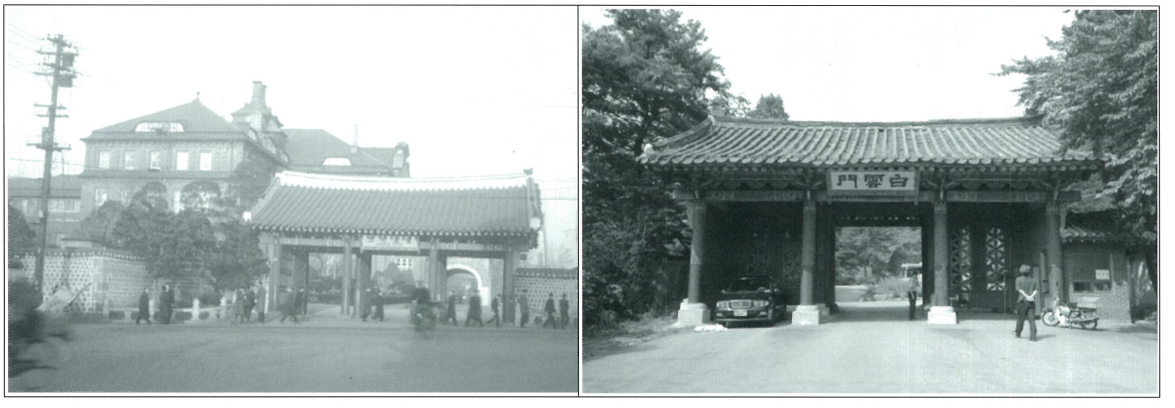


그림 3-14. 옛 조선호텔 정문과 현재 그린파크의 백운문241)

239) 사진자료 제공, (주)메트로 호텔 최영규 상무이사.
240) 여행신문, 한국관광 50년비사, 1999, 7, pp. 183-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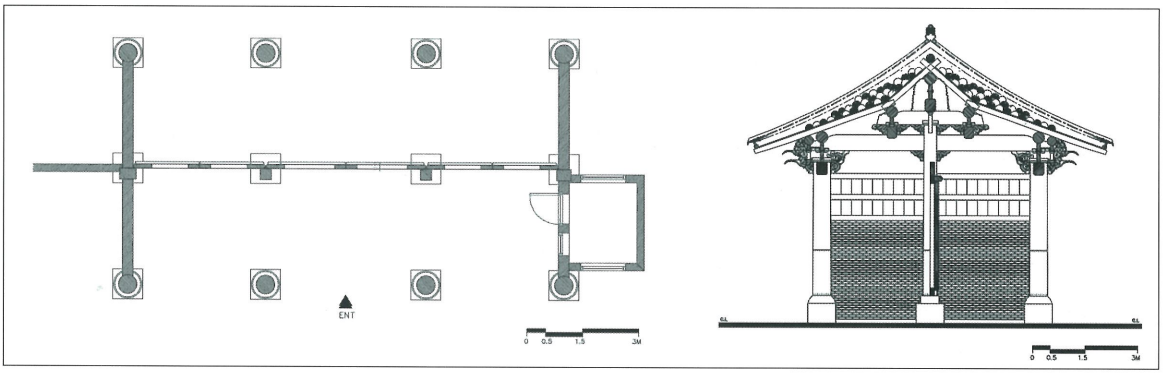


그림 3-15. 백운문 평면과 종단면도

그린파크의 백운문은 이 문 뒤로 백운봉이 보여 백운문이라는 이름을 붙인것이라고 하며, 1968년 매입하여 그해 5-6월 경 해체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약 1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69년 5월말 복원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당시 전통목조 기술자를 구할 수 가 없어서 공사기간이 오래 걸렸고, 또한 공사 이후에도 지붕에서 기와장이 내려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 일부 기와장들이 교체되었고 한 차례의 단청공사가 있었지만 부재의 교체나 큰 수리공사는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목조 부재는 대부분 애초의 환구단 정문의 부재일 것으로 추정된다.[242]

또 하나 의문점은 현재 그린파크 호텔에는 조선호텔 정문 이외에도 정자와 주거형태의 전통건축물이 있다. (주)메트로 호텔 최영규 상무이사는 가옥건물도 정문과 함께 조선호텔에서 이전되어 그린파크에서는 "인수각" 이라는 음식점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함께 근무했었던 동료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 현장조사를 함께 했었던 김정동교수과 장헌덕교수도 내부의 단청 흔적과 대들보의 부재규모와 기단의 높이 등을 고려해 보면 일반 주거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이 점은 추후 좀 더 조사를 진행해야 될 점으로 남는다. 단 1967년 무렵까지 조선호텔에 남아 있었던 건축물은 재실건물과 일부 부속건물이었기에 이들 건물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조선호텔 정문은 원행스님이라는 출가승에 의해 발견되었다. 원행스님은 한 지인에 의해 그린파크 호텔 내에 있는 환구단의 정문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의 형태가 예사롭지 않아 언론에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 정문은 서울학연구소에 의해 다시 고증되었다.

241) 옛 조선호텔 정문과 현재의 그린파크 호텔의 문은 외관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지붕마루의 양성이 없다는 점과 잡상의 수가 다르다는 점 등이 있다. 이것은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70년대 초기 사진을 보면 현재의 그린파크 호텔 문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242)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제관광공사의 건물 매각문서의 확인이 필요하였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현지의 동료를 통한 확인과 이번 조사에 소장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준 (주)메트로 호텔 최영규 상무이사에게 감사드린다.

원행스님은 환구단 정문과 함께 우연하게 석고각 건립과 관련이 있는 頌聖建議所의 발문을 입수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서울학연구소에 제공하였다.[243]

송성건의소에 적혀있는 원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44]

『公函[245]

敬啓者[246] 本所財政이 窮乏ᄒᆞ와 幾乎停役이온고 ... 承 僉位議長句敎ᄒᆞ와 依京江例ᄒᆞ야 各郡 ... 鹽井[247]魚磯[248]와 往來船商[249]處의 擧皆請助ᄒᆞ옵기 ... 司 貴郡의 派送ᄒᆞ옵고 玆에 仰牒 ,,, 照亮[250]ᄒᆞ신후 貴境內 各浦港鹽井魚磯船 ... 閣等處의 到底 曉飭[251]ᄒᆞ오셔 使此莫重國役 ... 至中停케ᄒᆞ시을 仰要

光武七年 四月二十七日

建議所發文有司[252] 前郡守李建重

前參奉 尹進學

海美郡守 閣下

再』

【삼가 말씀드립니다. 본소의 재정이 궁핍하여 거의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 첨위의장의 구교를 받들어 경강의 예에 의거해서 각 군 ... 염정, 어기와 왕래하는 선상처에 모두 도움을

243) 원행스님은 충청도 청원의 광제사라는 작은 사찰에서 기거하고 계신 스님이다. 본 연구 자료는 원행스님과의 면담을 통해 제공받았다. 연구를 위해 기꺼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원행스님에게 감사드린다.

244) 원문은 자료가 원상태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되는 부분에 한해서 원문과 함께 해석을 달았다.

245) 공함(公函) : 공무에 관하여 주고받던 편지, 公札.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5, 6. 참고.

246) 경계(敬啓) : "삼가 말씀드립니다." 의 뜻으로, 편지 첫머리에 쓰는 한문투의 말, 拜啓.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5, 6. 참고.

247) 염정(鹽井) : ① 소금을 만들 바닷물을 모아 두는 웅덩이. ② 염분이 있는 우물.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5, 6. 참고.

248) 어기(漁磯) : 낚시터.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5, 6. 참고.

249) 선상(船商) : ① 배를 사고 파는 영업, 또는 그 장사치. ② 배에 물건을 싣고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5, 6. 참고.

250) 조량(照諒) : 사정(事情)을 살펴서 밝게 하는 것.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5, 6. 참고.

251) 효칙(曉飭) : 잘 타일러 경계하는 것.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5, 6. 참고.

252) 유사(有司) :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5, 6. 참고.

청하여 ... 귀 군에 파송하니, 이에 문서를 보냅니다 ... 조량하신 후에 귀 경내에 각 포항, 염정, 어기선 ,,, 각 등처에 철저히 효칙하셔서 이러한 막중한 나라의 공사가... 중간에 정지되지 않도록 우러러 바랍니다.

광무 7년(1903년) 4월 27일 건의소발문 유사 전군수 이건중 전참봉 윤진학 해미군수 각하 】

『公函

敬啓者 本所財政窮乏ᄒᆞ와 將至停役이온고로 奉承僉位議長句敎ᄒᆞ와 依京江例ᄒᆞ야 各浦港鹽井魚磯와 往來商船及船旅閣處에 擧皆請助ᄒᆞ옵기 別 ... 貴郡에 派送ᄒᆞ옵고 玆에 仰牒ᄒᆞ오니 照亮ᄒᆞ신 후 貴境內 浦港商民處에 這這曉飭 ... 仰俾各出力義助ᄒᆞ야 以紓役費用ᄒᆞ시을 仰要

光武七年 四月二十五日

建議所發文有司 前郡守李建重

前參奉 尹進學

韓山郡守 閣下

再

此亦中 米穀麰草(?)諸船商民處에 亦爲申飭ᄒᆞ시와 隨力出助케 하시을 望홈』

【삼가 말씀드립니다. 본소의 재정이 궁핍하여 장차 공사가 정지됨에 이를 것이므로 첨위의장의 구교를 받들어 경강의 예에 의거하여 각 포항, 염정, 어기와 왕래하는 상선 및 선려 각처에 모두 도움을 청하여 ... 귀군에 파송하고 이에 문서를 보내니, 살피신 후에 귀 경내 포항 상민처에 일일이 효칙하셔서 ... 각각 물력을 내어 돕도록 하셔서 공사의 비용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7년(1903년) 4월 25일 건의소발문 유사 전군수 이건중 전참봉 윤진학 한산군수 각하

추기

이것도 또한 ?? 모든 선상 민처에 역시 신칙하셔서 힘에 따라 돕도록 하심을 바랍니다.】



그림 3-16. 그린파크 호텔에 위치한 주거건축물과 정자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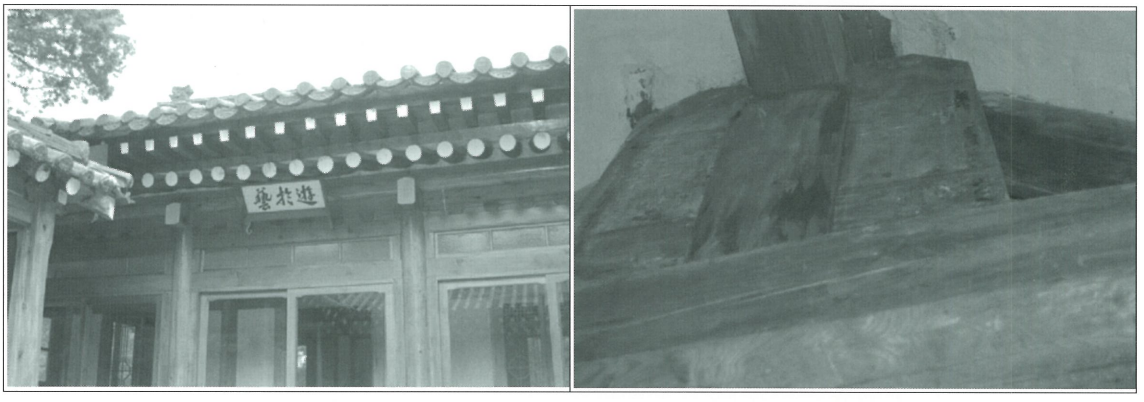


그림 3-17. 그린파크 호텔 주거 건축물 외부와 내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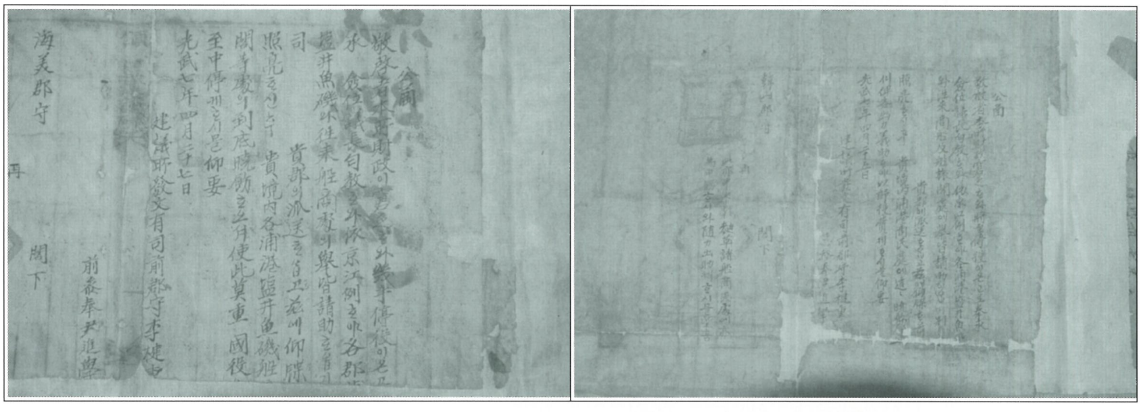


그림 3-18. 송성건의소 발문 : 해미군수(左)와 한산군수(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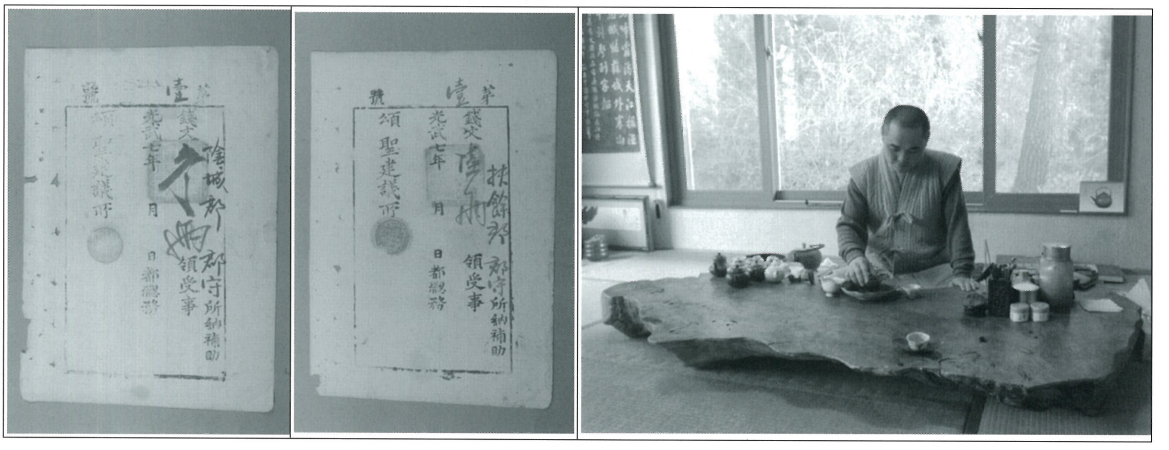


그림 3-19. 송성건의소 발문과 영수증(左), 원행스님(右)

□ 백운문 이전 입지에 대한 분석[253]

1) 이전 복원할 경우의 예정 입지 분석

- 이전할 대상 입지는 현상태에서 크게 4가지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애초의 환구단과 함께 세워져 있던 최초 입지에 이전하여 보존할 경우 (원형복원)

둘째, 현재 황궁우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구단 시민광장으로 이전하여 보존할 경우

셋째,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우이동 그린파크 호텔에 보존할 경우

넷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보존할 경우

① 애초의 환구단과 함께 세워져 있던 최초 입지에 이전하여 보존할 경우

-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 반면 현재의 변화된 지형과의 측면에서 소공로 중앙에 놓이면 교통문제, 이전될 입지의 소유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러나 환구단의 최종적인 장기복원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애초의 입지에 이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253) 본 내용은 최근 발견된 백운문의 보존문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입장에서의 정리이다. 이것은 본 연구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많은 자문과 관련연구자들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제언에 해당하고, 현실적으로 이전과 복원, 보존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에는 백운문에 대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조선호텔과의 관련성 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② 환구단 시민광장으로 이전하여 보존할 경우

- 서울시 소유의 부지 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전 부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점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 그러나 시만광장으로 이전할 경우 현재 시민광장의 부지에 여유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대지와 건축물과의 어색한 모습이 될 것으로 고려되고, 현재 황궁우 주변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반침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또한 덕수궁 정문과 마주보게 되는 제천단의 정문이라는 전통적인 건축공간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③ 우이동 그린파크 부지 내에 보존할 경우

- 현재의 부지 내에 문화재 지정을 할 경우 문화재의 훼손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인 환구단 복원계획과 함께 이전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문화재 지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거나, 현재 매각된 그린파크 호텔 부지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재의 훼손이 될 수 있고, 현재 그린파크 호텔 부지 매입자와 이해관계로 문제점을 발생 할 소지가 있다.

④ 서울시 소유의 대체 부지에 이전하는 경우

- 문화재 지정이 검토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현재 그린파크 호텔 부지가 매각된 상황에서 백운문의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단시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이다.

2. 환구단의 건축사적 특징

1) 환구단 입지의 변화과정

환구단이 있는 소공동 지역은 조선시대 태종의 둘째 딸인 경정공주(慶貞公主)의 남편인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조대림(趙大臨)에게 이 땅을 준 뒤부터 속칭 작은 공주골, 이를 한자로 소공주동(小公主洞)으로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선조시대에는 셋째 왕자인 의안군(義安君) 성(城)의 제택이 되면서 남별궁(南別宮)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중국사신의 접대소인 태평관이 소실된 이후 명나라의 도움으로 한양을 다시 찾은 뒤 선조 26년(1593년) 명나라 장수였던 이여송(李如松)이 이곳에 머문 이래 중국사신이 머물렀고, 이후로 이곳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곳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런 연유로 이곳 주변은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주지가 되었다.



그림 3-20. 도성전도 1834년(출처 : 서울의 옛 지도)

조선시대 초기에는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치고[254] 9월에는 종묘사직 과 궁궐을 완성하였다. 1396년 백악산(白岳山), 낙산(駱山), 목멱산(木覓山 : 南山), 인왕산(仁王山)을 연결하는 약 18㎞의 도성을 쌓았으며,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5부(五府 : 東部, 西部, 南部, 北部, 中部) 52방(坊)으로 하고, 각 방에는 방명표(坊名標)를 세웠다.[255] 당시 이곳은 남부 호현방(好賢

254) 太祖實錄 7卷, 4년 6월 6일 戊辰. 한양부를 고쳐서 한성부라 하고, 아전들과 백성들을 현주로 옮기고 양주군이라 고쳤다. 改漢陽府爲漢城府 移其吏民于見州 改爲楊州郡

255) 太祖實錄 9卷, 5년 4월 19일 丙午. 令漢城府建五部坊名標 東部十二坊曰燕喜 崇敎 泉達 彰善 建德 德成 瑞雲 蓮花 崇信 仁昌 觀德 興盛 **南部十一坊曰廣通 好賢** 明禮 太平 熏陶 誠明 樂善 貞心 明哲 誠身 禮成 西部十一坊曰永堅 仁達 積善 餘慶 仁智 皇華 聚賢 養生 神化 盤石 盤松 北部十坊曰廣化 陽德 嘉會 安國 觀光 鎭定 順化 明通 俊秀 義通 中部八坊曰貞善 慶幸 寬仁 壽進 澄淸 長通 瑞麟 堅平

坊)[256] 지역이었다.

당시 각 부의 방명은 동부가 12방으로, 연희방(燕喜坊), 숭교방(崇敎坊), 천달방(泉達坊), 창선방(彰善坊), 건덕방(建德坊), 덕성방(德成坊), 서운방(瑞雲坊), 연화방(蓮花坊), 숭신방(崇信坊), 인창방(仁昌坊), 관덕방(觀德坊), 흥성방(興盛坊)이고, 남부는 11방으로 광통방(廣通坊), 호현방(好賢坊), 명례방(明禮坊), 대평방(大平坊), 훈도방(勳陶坊), 성명방(誠明坊), 낙선방(樂善坊), 정심방(貞心坊), 명철방(明哲坊), 성신방(誠身坊), 예성방(禮成坊)이다. 서부는 11방으로 영견방(永堅坊), 인달방(仁達坊), 적선방(積善坊), 여경방(餘慶坊), 인지방(仁智坊), 황화방(皇華坊), 취현방(聚賢坊), 양생방(養生坊), 반석방(盤石坊), 신화방(神化坊), 반송방(盤松坊)이며, 북부는 10방으로 광화방(廣化坊), 양덕방(陽德坊), 가회방(嘉會坊), 안국방(安國坊), 관광방(觀光坊), 진정방(鎭定坊), 순화방(順化坊), 명통방(明通坊), 준수방(俊秀坊), 의통방(義通坊)이다. 마지막으로 중부는 8방으로 정선방(貞善坊), 광행방(廣幸坊), 관인방(寬仁坊), 수진방(壽進坊), 증청방(澄淸坊), 장통방(長通坊), 서린방(瑞麟坊), 견평방(堅平坊)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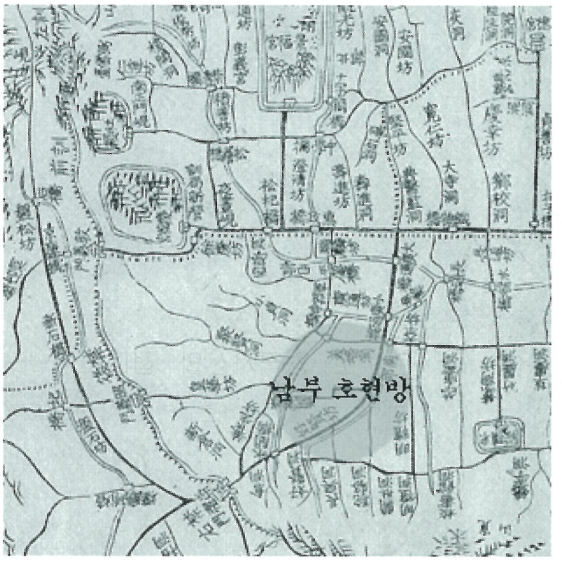


그림 3-21. 도성삼군문분계지도 1751
(출처 : 서울의 옛 지도)

1914년 대관정(大觀亭)터에 조선군 사령관이었던 장곡천호도(하세가와 요시미찌 : 長谷川好道)가 거주했다하여 장곡천정(長谷川町)으로 지명이 바뀌었고, 이후 1943년에 중구에 편입되었으며, 1946년에는 소공동으로 바뀌었다.

256) 실록기록에는 조선 초기부터 호현방이 나오고 조선 후기 각종 지도에도 호현방이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종실록에는 환구단이 회현방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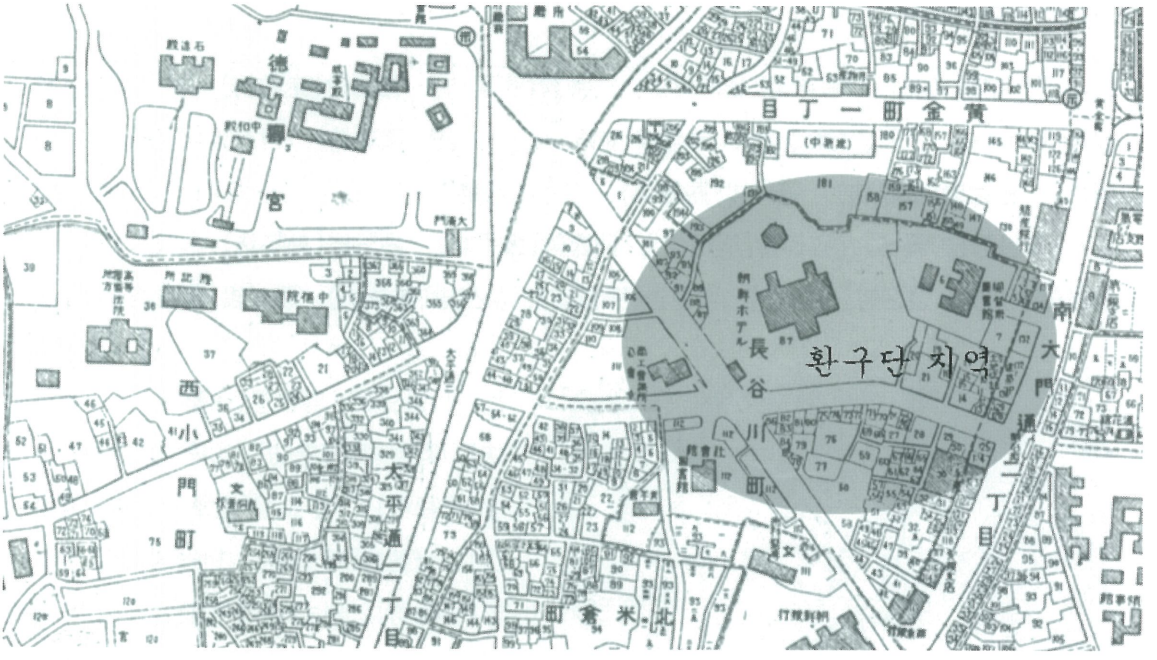


그림 3-22. 1936년 경성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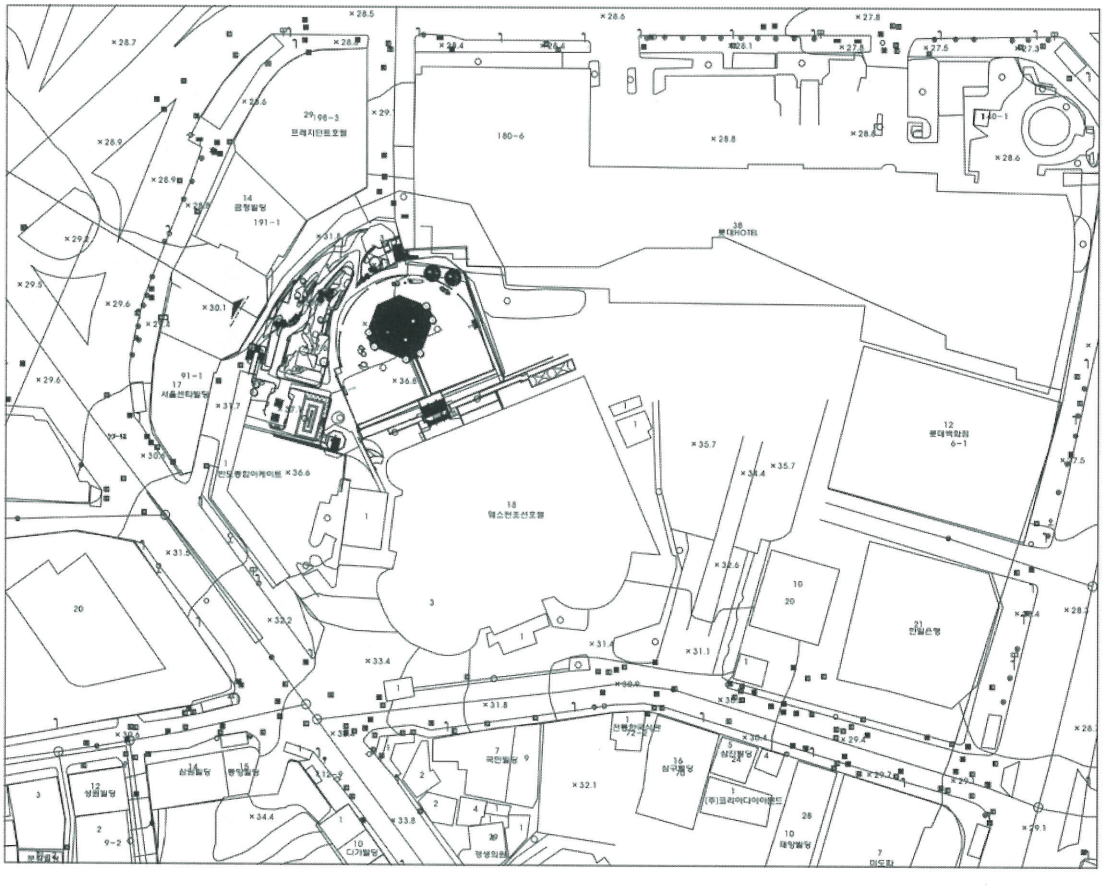


그림 3-23. 현재의 환구단 주변현황

표 3-2. 환구단 입지변화

연 대	내 용
고려시대 (14세기 말 - 15세기 초)	남경궁터의 일부
조선 태종시대 (15세기 무렵)	소공주동
조선 선조시대 (16세기 무렵)	의안군 제택 → 남별궁
1914년 (일제강점기)	장곡천정(長谷川町)
1946년 이후	소공동

2) 환구단의 성립과 변화과정

환구단의 성립은 대한 광무 원년인 1897년에 시작하지만 이전부터 환구단에서의 제천례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고종의 황제 칭호에 대한 여론도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 환구단은 지금의 조선호텔 지역에 건축되게 된다.[257]

그러나 처음부터 완성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몇 번의 증축과 중수에 의해 환구단은 그 형식을 갖추게 되고 이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258]

우선 처음으로 환구단이 신축된 시기로 이를 창건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때에는 환구단과 황궁우, 동서무, 어재실 등 대체적인 윤곽이 확립되기 시작하던 시기이다. 두 번째로 중수기로 애초의 환구단이 철거되고 새롭게 환구단이 설치되고, 석고각과 석고단 등이 건립되는 시기이다. 셋째로 환구단 영역에서 황궁우만 남기고 환구단이 철거되어 이곳에 철도호텔이 들어서는 시기이다. 이후로 철도호텔은 다시 현재의 조선호텔로 건립된다. 이 시기를 훼철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57) 환구단이 입지한 지역은 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19세기 말 도시개조사업의 중요한 곳이었고, 이것은 경운궁의 축조와 독립문, 황제즉위 40주년 기념비전, 독립공원, 탑골공원, 용산일대의 경영 등과 관련된 대한제국시대 독립국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일련의 계획아래 추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태진, 1896-1904년 서울 도시개조사업의 주체와 지향성, 한국사론 37, pp. 181-206.참고.

258) 시기의 구분은 필자에 따라, 또한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는 커다란 시기구분의 틀과 원단의 건축을 중심으로 창건기와 중수기 그리고 단이 없어지는 훼철기라는 시기구분 방식에 의해 구분하였다.

표 3-3. 환구단 연혁 요약

시 기	년 대	내 용	비 고
1기 (창건기)	광무원년 1897년 10월	남별궁터에 환구단 신축	독립신문 기사
	광무2년 1898년 6월	환구단 치목 假家 소실	
	1900년	환구단신건비 청구, 황궁우, 동서무, 어재실 등 146간	공사비용 146,232원27전8리
2기 (중수기)	1901년	환구단 중수, 구단철거, 신단설치	공사비용 49,675원38전3리
	1903년	석고단, 석고각, 光宣門	
	1903년 7월	중수중 누락비용 청구	공사비용 31,529원 68전
	1903년 9월	중수비 지출	
	1904년 4월	신건비 지출	
3기 (훼철기)	1913년 3월 15일 기공 1914년 9월 30일 준공	환구단을 헐고 조선경성철도호텔 건립	
	1963년 8월 1일	반도·조선호텔로 개칭됨	
	1967년 - 1969년	현 조선호텔 준공	

환구단에 대한 논의는 갑오개혁 당시인 1895년 1월 14일 사전(祀典) 개혁안이 확정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때 김홍집과 박영효 내각에서 올린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259]

표 3-4. 사전(祀典) 개혁안

구분	제 향	비 고
大祀	圜丘(風雲雷雨, 山川), 宗廟, 永寧殿, 社稷	八僧舞 사용
中祀	景慕宮, 文廟, 역대시조, 尾箕星, 先農, 先蠶	
小祀	纛祭, 厲祭(城隍), 북악, 한강, 목멱산, 관왕묘	
俗禮	永禧殿, 璿源殿, 慶基殿, 華寧殿, 各陵園廟, 肇慶廟, 各宮廟	
폐지	雩祀, 司寒, 祈雨, 禜祭, 祈雪, 馬祖, 四賢祠	
기타	大報壇, 啓聖祠, 宣武祠, 靖武祠	폐지로 추정

여기에는 대사 가운데 환구라는 사전이 대사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895년 윤 5월 20일에 『환구건축청의서(圜丘建築請議書)』가 내각에 제출된다. 여기에는 환구단에서 제

259) 이욱, 대한제국기 환구제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30, 184p 참고.

사를 할 수 있게 옛 남교에 있던 남단을 수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문 밖의 남단(南壇)[260]으로 환구를 만듬

둘째, 단의 주위를 돌로 쌓고 그 직경과 높이는 편의에 다름

셋째, 단의 담장은 폐지하고 수목으로 대신함

넷째, 홍살문을 세우는 옛 제도는 금함

이 같은 내용으로 환구단을 수축한 다음 이곳에서 환구제사를 시행하려 한 점은 이후 같은 해 11월 15일에 올린 건양원년도 세입세출예산표에 『환구제사급수리비(圜丘祭祀及修理費)』의 항목으로 94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관파천 이후인 1896년 12월 20일 동지일에 섭행으로 남단을 수축한 환구단에서 환구제가 거행되었다. 이러한 환구의례가 현재의 중구 소공동에 창건되기 이전부터 시행된 점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본격적인 건축물로서의 환구단은 1897년에 들어서 세워진다. 즉 1897년 8월 16일 새로운 연호인 '광무(光武)'를 반포하고, 1897년 10월 2일에는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할 환구단이 지금의 위치에 건립되기 시작한다.[261] 착공한지 불과 10일도 안되어 환구단이 완공되고, 10월 12일(양력) 이곳에서 고종황제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으며, 13일에는 황제위에 오른 것과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한 사실을 조서(詔書)로써 선포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운궁(慶運宮, 현재 덕수궁)도 황제가 있는 황궁으로 격상되었다.

창건된 환구단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는 독립신문의 기사에 비교적 자세히 보인다.

기사의 원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60) 남단은 목면산 남쪽에 풍운뢰우, 산천 성황의 신을 모신 단을 가리킨다. 남단은 정조시대 환구단으로 이해되었다.

正祖實錄 22卷, 10년 8월 8일 戊申. 하교하기를, "風雲雷雨祭에 쓰는 제물과 祭儀는 가장 중하고 존귀하다. 우리 나라의 圜丘의 제도를 南壇으로 개정하였으니, 이곳의 祭官을 또한 잘 선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차스러움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해당 전형의 관원을 추고하라." 하였다.

261) 독립신문의 기사내용과 공사의 상황, 그리고 이전부터의 준비과정을 고려해 볼 때 환구단의 공사는 10월 2일 이전부터 준비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재료의 준비과정과 운반,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10일이라는 기간에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독립신문 기사에 '한 달이 채 못 되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환구단 의례에 사용될 각종 儀物 등의 마련이 이전부터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고종의 황제 등극과 관련된 제반 상황들이 이전부터 준비되기 시작했던 점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젼 남별궁 터뎐에 단을 모앗는ᄃᆡ 일홈은 환구단(圜丘壇)이라고도 ᄒᆞ고 황단(皇壇)이라고도 ᄒᆞ는ᄃᆡ 역군과 쟝ᄉᆡᆨ 쳔여명이 ᄒᆞᆫ돌이 못되야 이 단을 거진 다 건츅을 ᄒᆞ엿는ᄃᆡ 단이 삼층이라 ᄆᆞᆫ ᄆᆡᆺ히 층은 쟝광이 영쳑으로 일빅 ᄉᆞ십ᄉᆞ쳑 가량인ᄃᆡ 둥글게 돌노 ᄊᆞ셔 셕ᄌᆞ 길억지 놉히를 ᄊᆞ앗고 뎨 이층은 쟝 광이 칠십 이쳑인ᄃᆡ ᄆᆡᆺ층과 ᄀᆞᆺ치 돌노 셕ᄌᆞ 놉히를 ᄊᆞ앗고 ᄆᆞᆫ 웃층은 쟝 광이 삼십 륙쳑인ᄃᆡ 셕ᄌᆞ 놉히를 돌노 둥글게 ᄊᆞ셔 올녓고 바닥에ᄂᆞᆫ 모도 벽돌을 ᄭᆞᆯ고 ᄆᆞᆫ ᄆᆡᆺ층 가으로ᄂᆞᆫ 둥글게 셕츅을 모으고 돌과 벽돌노 담을 ᄊᆞ앗스며 동 셔 남 북으로 황살 문을 ᄒᆞ여 셋ᄂᆞᆫᄃᆡ 남문은 문이 셋이라 이 단은 금월 십이일에 황뎨 폐하……】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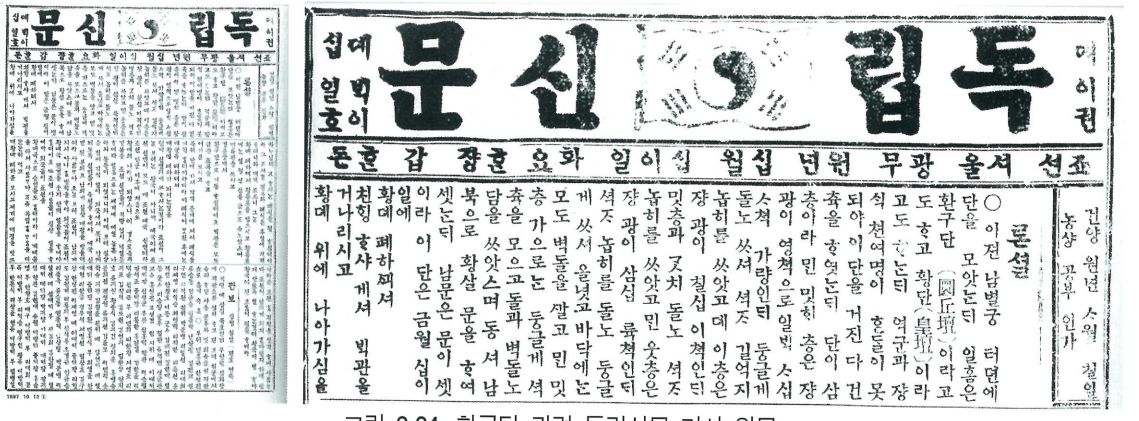

독립신문 이권
십뎨 일ᄇᆡᆨ 호이
문신
론ᄉᆞᆫ 갑 쟝ᄉᆞᆫ 요화 일이십 월십 년원 무광 울셔 션죠
론셜
○ 이젼 남별궁 터뎐에 단을 모앗ᄂᆞᆫᄃᆡ 일홈은 환구단(圜丘壇)이라고도 ᄒᆞ고 황단(皇壇)이라고도 ᄒᆞᄂᆞᆫᄃᆡ 역군과 쟝ᄉᆡᆨ 쳔여명이 ᄒᆞᆫ돌이 못되야 이 단을 거진 다 건츅을 ᄒᆞ엿ᄂᆞᆫᄃᆡ 단이 삼층이라 ᄆᆞᆫ ᄆᆡᆺ히 층은 쟝광이 영쳑으로 일ᄇᆡᆨ ᄉᆞ십ᄉᆞ쳑 가량인ᄃᆡ 둥글게 돌노 ᄊᆞ셔 셕ᄌᆞ 길억지 놉히를 ᄊᆞ앗고 뎨 이층은 쟝광이 칠십 이쳑인ᄃᆡ ᄆᆡᆺ층과 ᄀᆞᆺ치 돌노 셕ᄌᆞ 놉히를 ᄊᆞ앗고 ᄆᆞᆫ 웃층은 쟝광이 삼십 륙쳑인ᄃᆡ 셕ᄌᆞ 놉히를 돌노 둥글게 ᄊᆞ셔 올녓고 바닥에ᄂᆞᆫ 모도 벽돌을 ᄭᆞᆯ고 ᄆᆞᆫ ᄆᆡᆺ층 가으로ᄂᆞᆫ 둥글게 셕츅을 모으고 돌과 벽돌노 담을 ᄊᆞ앗스며 동 셔 남 북으로 황살 문을 ᄒᆞ여 셋ᄂᆞᆫᄃᆡ 남문은 문이 셋이라 이 단은 금월 십이일에 황뎨 폐하ᄭᅴ셔 ᄇᆡᆨ관을 거나리시고 친히 ᄒᆞ샤 게셔 위에 나아가심을
건양 원년 스월 칠일 농상 공부 인가

그림 3-24. 환구단 관련 독립신문 기사 원문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전 남별궁 터에 단을 만들었는데 이름은 환구단이라고도 하고 황단이라고도 하는데, 역군과 장사 천여 명이 한 달이 못되어 이 단을 거의 다 건축을 하였다. 단은 삼층으로 맨 아래층은 장광이 영조척으로 144척 가량인데 둥글게 돌로 3자 높이를 쌓았고, 이 층은 장광이 72척인데 밑에 층과 같이 돌로 3자 높이를 쌓았고, 맨 위층은 장광이 36척인데 3자 높이를 돌로 둥글게 쌓아올렸고, 바닥에는 모두 벽돌을 깔고 맨 아래층 주위로는 둥글게 석축을 만들고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 동서남북으로 황살문[263]을 해서 세웠는데 남문은 문이 셋이다.” 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으로 애초의 단의 규모와 형태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1층은 지름이 영조척으로 144척이고, 2층은 72척, 3층은 36척이며, 높이는 모두 3자로 하였다.

262) 독립신문 1897년 10월 12일 (논설)

263) 각종 사진자료를 보면 홍살문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황살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모양은 홍살문과 같지만 색깔이 황색이어서 황살문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 모양은 원형이며, 바닥은 모두 벽돌로 깔았고, 단 주변은 원형으로 돌과 벽돌을 이용하여 원형의 담장을 둘렀으며 여기에 동서남북으로 황살문을 세웠는데 남쪽은 삼문의 형식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층은 지름이 43.632m, 2층은 21.816m, 3층은 10.908m, 각 높이는 0.909m로 총 2.727m로 추정된다.[264]

이후 광무 3년(1899년)에는 환구단의 북쪽에 황궁우를[265] 신설하여 황천상제 이하 제신위의 위판을 봉안하기에 이르렀다. 황궁우는 광무 2년(1898년) 9월 3일(음력 7월 18일) 공사를 시작하여[266] 광무 3년(1899년) 12월 22일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267] 또한 황궁우의 동서무(東西廡)는 1900년(광무4) 11월 이전에 완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때 재실과 행각 146간이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268]

이때 사용된 공사비는 대략 다음의 기록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5. 1900년 4월 27일 궁내부에서 탁지부에 올린 황궁우 건축비.
宮內府去來文牒, 제6책, 제34호. 참고.

공사내용	황궁우 14간 3층
	동서무(東西廡)
	어재실(御齋室) 이하 행각 146간
총 공사비	은 17만9천5백21원24전4리
황궁우예산청의지출조(기 지출액)	3만3천2백88원96전6리
부족액	은 14만6천2백32원27전8리

264) 광무 6년(1902년)부터 한국에서 일본의 척도와 같은 30.3㎝의 단위 길이로 曲尺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1척을 30.3㎝로 계산하였다.

윤장섭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건축학연구, 1985, 1. pp. 63-82. 참고.

265) 황궁우라는 명칭은 1538년(嘉靖 17년)에 이전에 신위를 모셨던 泰神殿을 황궁우로 개칭한 것에서 연유한다. 秦蕙田, 오례통고, 권 20 24면, 이욱 196p, 참고

266) 高宗 37卷, 35年(1898 戊戌, 光武 2年 8月 31日). 참고.

267) 이 무렵 황궁우는 완성되었지만 건물 내에 감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황궁우 옆에 동서무를 세우고 여기에 세 신위 즉 황천상제, 황지기, 태조의 신위를 모신 것으로 추정하는 논의도 있다.

이욱, 대한제국기 환구제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30, 참고.

268) 환구단 사제서의궤도설을 보면 재실은 환구단의 서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곳이 재실이었다는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또한 행각에 대해서도 그 정확한 위치 추정이 어렵다. 단지 1967년 조선호텔 배치도와 이후의 사진자료와 도면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곳이 재실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환구단 관련 공사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곳은 호텔이 들어서고 난후 아리랑하우스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재실 건물은 이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황궁우의 동서무는 황궁우를 촬영한 사진으로부터 그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건물은 벽돌로 측면을 쌓아 올렸고, 지붕은 한식기와지붕을 얹었으며, 앞쪽으로 반간폭의 퇴를 가진 제사건물형식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건물형태는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경복궁의 집옥재, 선희궁[269] 등의 건물과 유사하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점은 개략적으로 황궁우 동서무의 측면 막새기와 개수가 사진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며[270], 이것을 집옥재 등 다른 건물과 비교하여 건물 측면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그 내부 구성에 있어서도 측면에서 보여지는 형태로 보아 정면 3간에 전면으로 반간폭의 퇴를 가진 평면구성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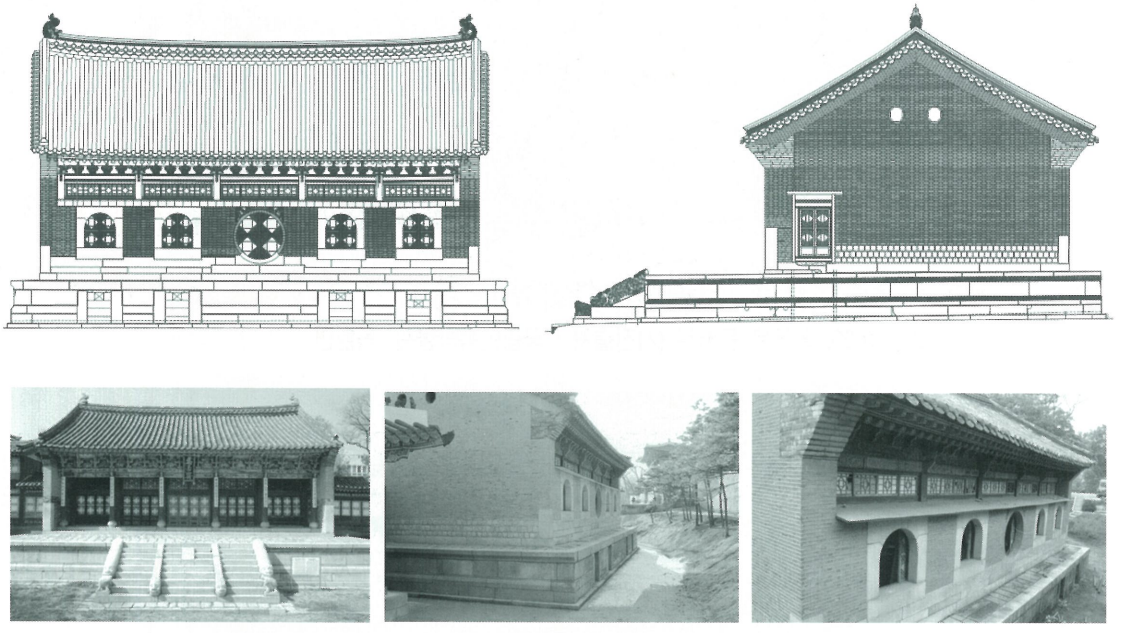


그림 3-25. 경복궁 집옥재 도면(상)과 사진(하) (자료출처 : 집옥재 수리조사보고서)

269) 선희궁은 환구단 공사에 참여한 심의석에 의해 새롭게 건립된 건물이다. 따라서 이들 건물들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70) 사진으로 보여지는 막새의 개수는 왼편이 13개, 오른편이 16개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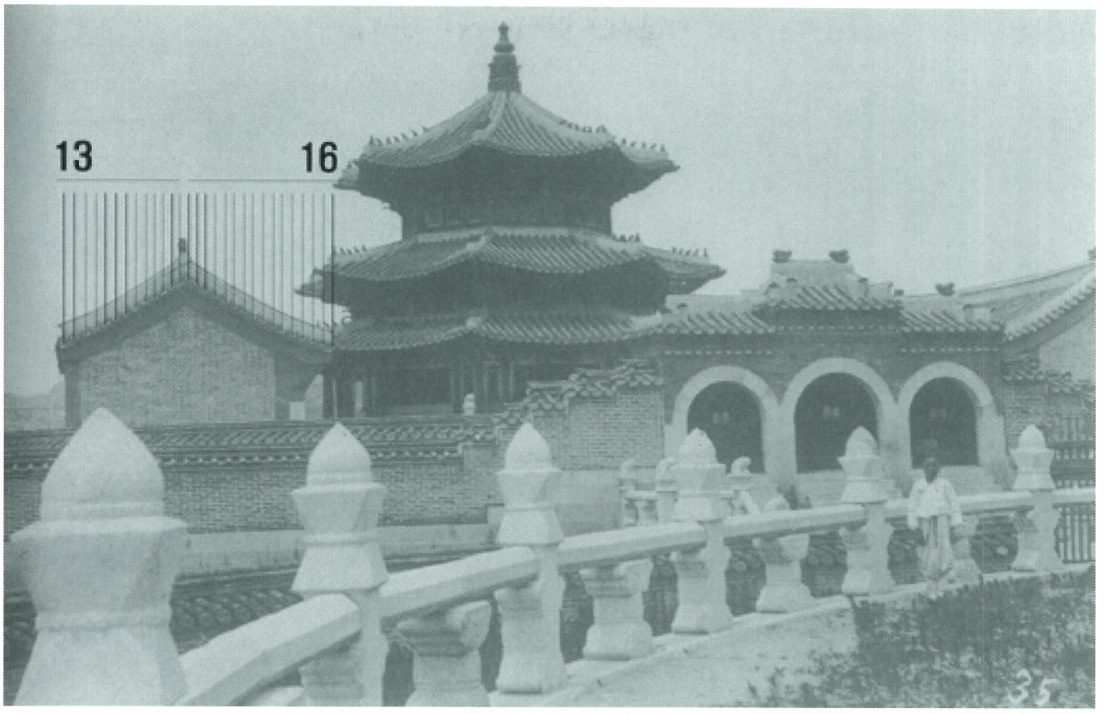


그림 3-26. 황궁우 동서무 (사진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또한 황궁우 영역은 원형의 벽돌담으로 둘러서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쪽의 원단과 함께 동일한 삼문을 사용하면서 방형과 원형의 원단 영역과 원형의 황궁우 영역이 맞물려 각각의 공간을 구성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황궁우 영역에는 박석이 깔린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애초부터 박석은 깔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원단 영역은 방형의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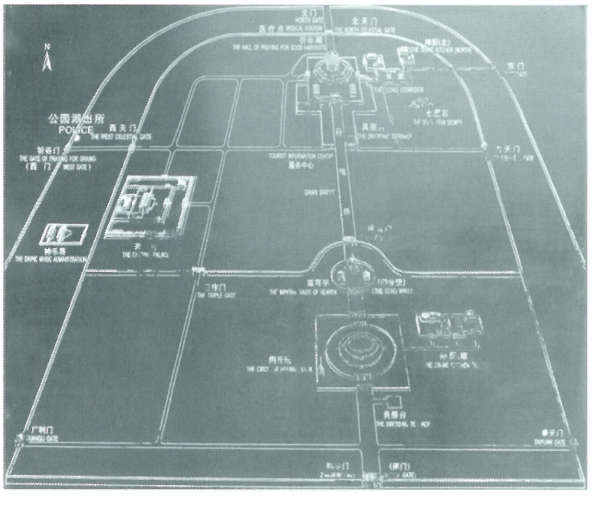


그림 3-27. 중국 천단 배치도

안으로 박석으로 추정되는 것이 바닥에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시대의 원단과 황궁우 영역의 구성형식은 중국 천단의 구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중국의 천단과 황궁우 영역이 각기 방형과 원형으로 된 천단영역과 이 북쪽으로 원형의 회음벽을 구성하여 황궁우 영역을 구성한 형식은 대한제국시대의 환구단 구성형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림 3-28. 중국 천단 황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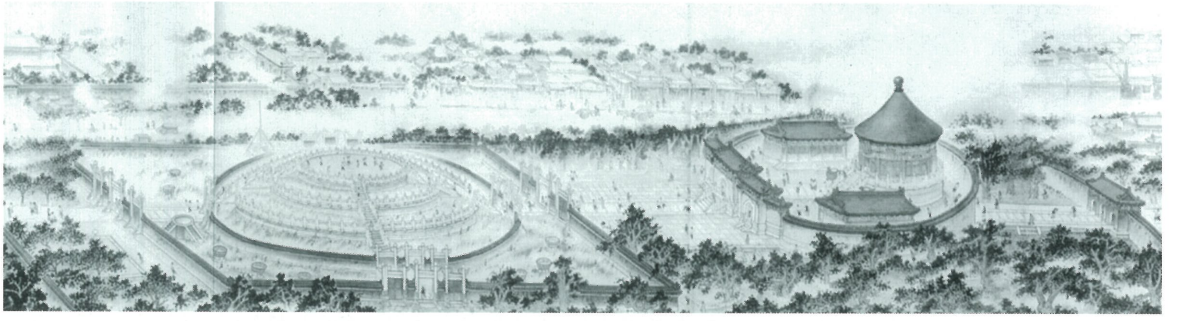


그림 3-29. 중국 천단과 황궁우 그림[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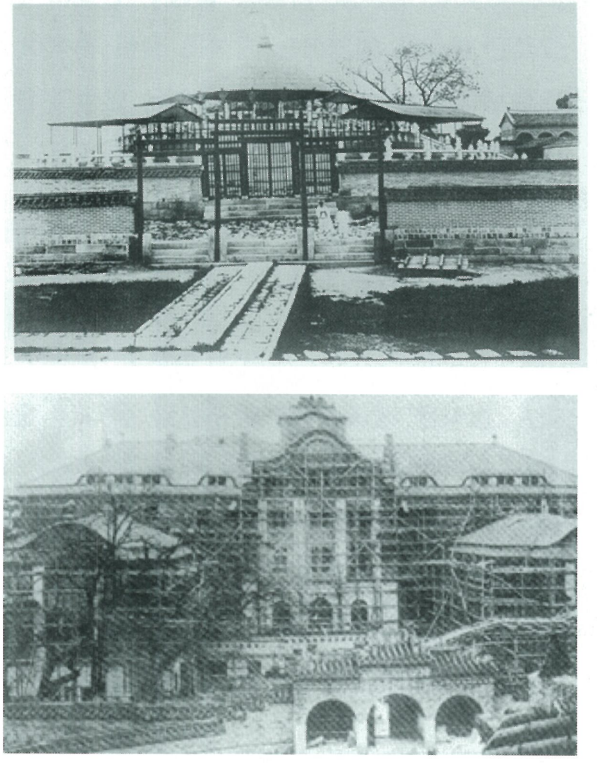




그림 3-30. 원단 남쪽 홍살문(좌상)과 황궁우에서 본 삼문(좌하)과 황궁우(우)

271) 天衢丹闕 -老北京風物圖卷, 刘洪寬 繪, 榮寶齋出版社, 200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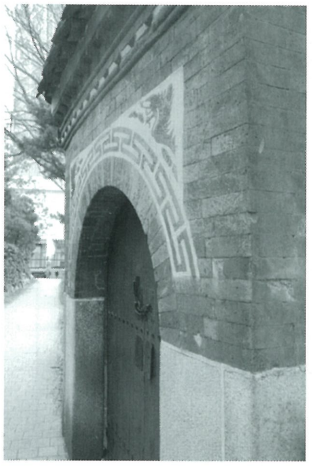


그림 3-31. 휘어진 협문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환구단 영역은 1901년 무렵 새롭게 중수된다. 이때 환구단이 새롭게 구축되고, 황궁우 삼문 등도 정비된다. 기존의 연구로는 이 무렵 단상에 동서무가 새로이 건립되고 이후 황막도 새롭게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구단사제서(圜丘壇祀祭署)[272] 의궤에는 1897년과 1899년 환구단에서 고종이 친림하여 제사를 지낸 기록을 전하면서 2장의 환구단 도설(圖說)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상에 동서무가 표현되고 있다. 물론 이 의궤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897년 당시의 제사기록을 전하는 단상의 배치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애초부터 환구단의 단상에는

동서무의 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상에 있는 황막(黃幕)의 시설은 정확한 년대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이 의궤에서 표현되지 않은 점과 또한 1903년 궁내부에서 올린 환구단 건축비 증액비 명세서에 "황막"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1901년 중수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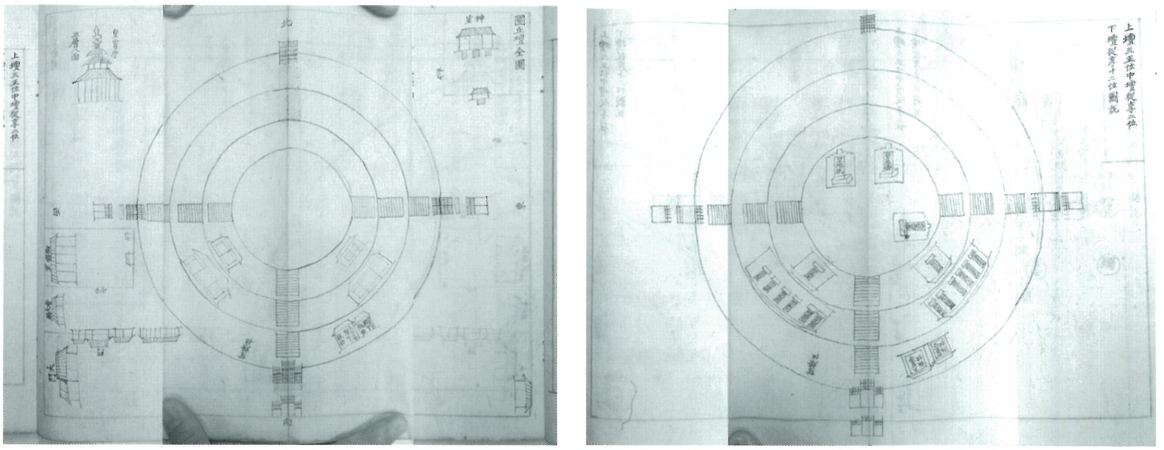


그림 3-32. 환구단사제서 의궤 도설

272) 조선 光武 원년(1897)과 3년(1899)에 고종 황제가 환구단에 親臨하여 제사지낸 제반 절차와 과정을 기록한 儀軌이다. 광무 원년에 掌禮院의 주청에 의하여 환구단을 축조하고 그 해와 광무 3년에 각각 皇天上帝 神位 및 日月星辰, 風雲雨雷 등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이 의궤의 내용은 환구단 全圖, 三壇圖說, 大享圖說, 告由祭圖說, 正配位從享位圖說, 式例, 祭器祭服, 祝式, 牲牢, 幣帛, 祭物, 齋官, 職官, 大小事笏記, 儀節로 되어 있으며, 끝에 환구단 致祭와 관련된 조정의 의사 결정 및 치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은행, 圜丘壇祀祭暑 本署儀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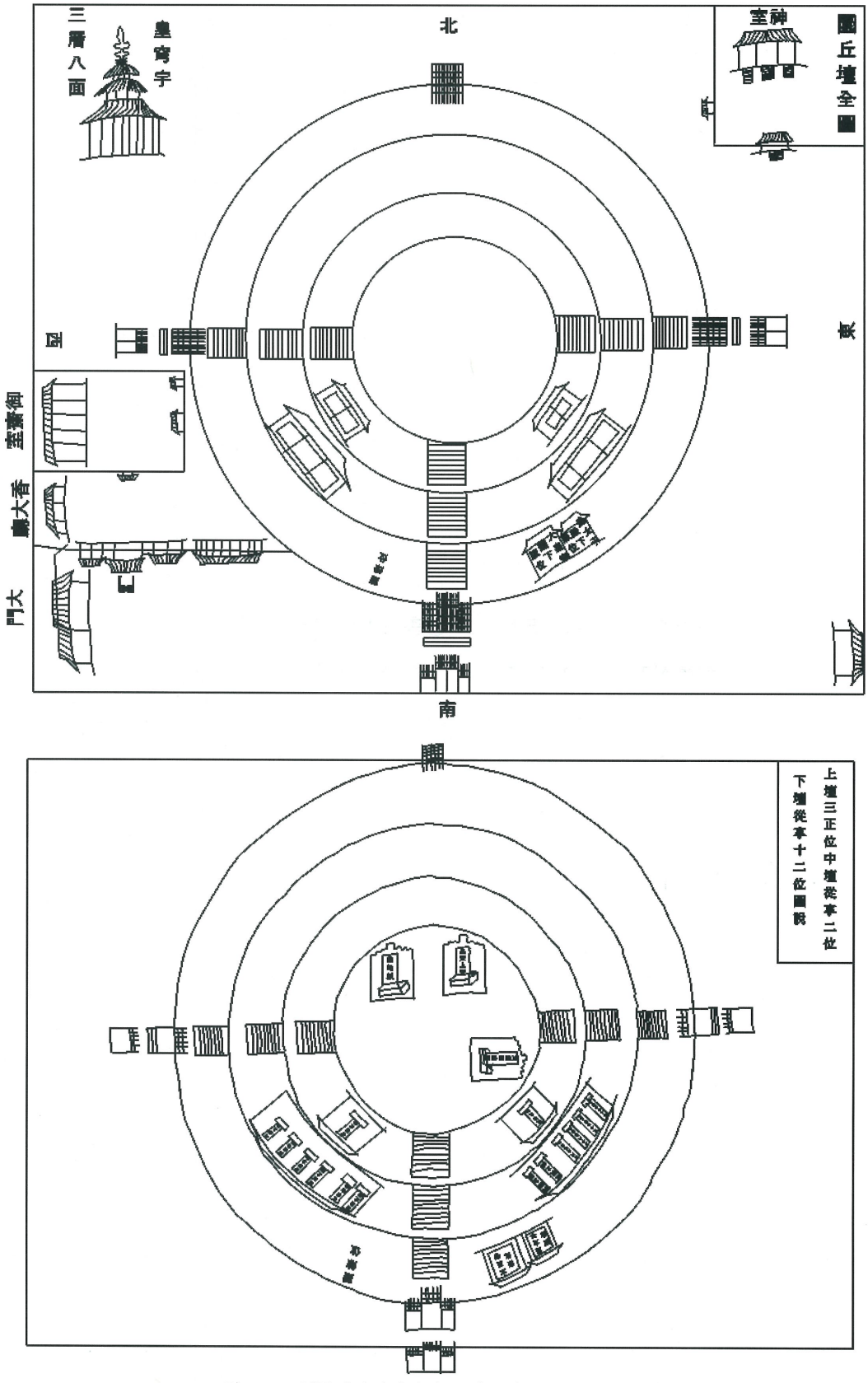


그림 3-33. 환구단사제서의궤 도설. (캐드 : 필자 재작성)

표 3-6. 환구단의 제사대상[273]

층수	방 위	
	서 쪽	동 쪽
3층	皇地祈	皇天上帝
2층	夜明之神	大明之神
1층	風伯, 雲師, 雷師, 雨師, 五鎭, 四瀆	木火土金水之神, 北斗七星, 二十八宿, 周天星辰, 五嶽之神, 四海之神
담장안	望燎位	太皇帝板位, 皇太子板位

한편 환구단 중수와 관련된 공사의 내용을 환구단 중수비 명세서(1901년 12월 9일 궁내부에서 탁지부에 올린 것)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74]

환구단 3층석물 하층하정지대 349尺2寸 중층하정지대 234尺 상층하정지대 118척
하층청판석 347尺5촌 중층청판석 232척1촌 상층청판석 113척1촌
하층상정지대 349척2촌 중층상정지대 234척 상층상정지대 118척

명 칭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所用別長臺價	尺	2095.5	3.2	6705.92					
車運費(彰義門外)	尺	1040					3.2	3328	
車運費(牛耳洞)	尺	1055					4.4	4642	
治鍊石手	名	10477			2.4	25144.8			
錠次鐵物價	名	10477			0.6	6286.2			
錠別音工錢	名	10477			1.6	16763.2			
入排石手	名	419			2.4	1005.6			
工字 +鐵柱 16穴	名	244			2.4	585.6			
掩石長臺 721척2촌	名	72			2.4	172.8			
錠次鐵物價	名	735					0.4	294	
錠別音工錢	名	735					0.8	588	
합 계				6705.92		49958.2		8852	65516.12

273) 환구단사제서의궤에 나오는 각 단의 방위와 순서에 따라 작성하였음.

274) 규장각자료총서 錦湖시리즈 궁내부편 宮內府去來文牒 宮內府去來案 1992, 12,(부록참고). 우대성, 大韓帝國의 建築組織과 活動에 관한 연구, 홍익대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6. pp. 40-43. 참고 재구성.

3층 난간석 : 우이동 반입

명 칭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石柱	塊	96	58	5568					
車運費	塊	96					38	3648	
治鍊石手	名	3360			2.4	8064			
錠次鐵物價	名	3360			0.6	2016			
錠別音工錢	名	3360			1.6	5376			
入排石手	名	144			2.4	345.6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1						172.8	
童子柱石	塊	84	20	1680					
車運費	塊	84					24	2016	
治鍊石手	名	2184			2.4	5241.6			
錠次鐵物價	名	2184			0.6	1310.4			
錠別音工錢	名	2184			1.6	3494.4			
入排石手	名	126			2.4	302.4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1						151.2	
竹石 : 140塊	尺	1029	1.6	1646.4					
車運費	尺	1029					2.4	2469.6	
治鍊石手	名	4116			2.4	9878.4			
錠次鐵物價	名	4116			0.6	2469.6			
錠別音工錢	名	4116			1.6	6585.6			
入排石手	名	210			2.4	504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1						252	
합 계				8894.4		45588.0		8709.6	63192

3층 步石 : 우이동 輸入

명 칭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步石	尺	576	1.6	921.6					
車運費	尺	576					2.4	1382.4	
治鍊石手	名	1728			2.4	4147.2			
錠次鐵物價	名	1728			0.6	1036.8			
錠別音工錢	名	1728			1.6	2764.8			
入排石手	名	62			2.4	148.8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74.4	
貢石	塊	24	20	576					
車運費	塊	24					34	816	
治鍊石手	名	768			2.4	1843.2			
錠次鐵物價	名	768			0.6	460.8			
錠別音工錢	名	768			1.6	1228.8			
入排石手	名	36			2.4	86.4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43.2	
邊石	塊	24	40	960					
車運費	塊	24					40	960	
治鍊石手	名	840			2.4	2016			
錠次鐵物價	名	840			0.6	540			
錠別音工錢	名	840			1.6	1343			
入排石手	名	120			2.4	288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144	
茂塞	塊	24	16.8	403.2					
車運費	塊	24					24	570	
治鍊石手	名	288			2.4	691.2			
錠次鐵物價	名	288			0.6	172.8			
錠別音工錢	名	288			1.6	460.8			
入排石手	名	36			2.4	86.4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43.2	
합 계				2860.8		17315.0		4033.2	24209

壇上地排磚石 : 273간

명 칭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大磚石	張	6780	3.8	25764					
車運費	輛	1130					3	3390	
眞土	坳	546	9	4914					
石灰	石	273	4.8	1310.4					
細沙	駄	273	1.2	327.6					
三太	立	273	0.3	81.9					
泥匠	名	1911			2.4	4586.4			
支架軍	名	2730	1.2	3276					
합 계				35673.9		4586.4		3390	43650.3

壇上東西廡 : 우이동 輸入

명 칭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小柱礎	塊	40	6	240					
車運費	塊	40					6.5	260	
治鍊石手	名	120			2.4	288			
錠次鐵物價	名	120			0.6	72			
錠別音工錢	名	120			1.6	192			
入排石手	名	13			2.4	31.2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15.6	
脫只長臺	尺	242	2.2	532.4					
車運費	尺	242					2.4	580.8	
治鍊石手	名	726			2.4	1742.4			
錠次鐵物價	名	726			0.6	435.6			
錠別音工錢	名	726			1.6	1161.6			
入排石手	名	24			2.4	57.6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28.8	
합 계				772.4		3980.4		885.2	5638

皇穹宇 三門外欄干 : 우이동 輸入

명 칭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石柱	塊	8	58	464					
車運費	塊	8					38	304	
治鍊石手	名	496			2.4	1190.3			
錠次鐵物價	名	496			0.6	297.6			
錠別音工錢	名	496			1.6	793.6			
入排石手	名	12			2.4	28.8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14.4	
童子柱石	塊	6	20	120					
車運費	塊	6					24	144	
治鍊石手	名	156			2.4	374.4			
錠次鐵物價	名	156			0.6	93.6			
錠別音工錢	名	156			1.6	249.6			
入排石手	名	9			2.4	21.6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10.8	
竹石 : 8塊	尺	40	1.2	44					
車運費	尺	40					2.4	88	
治鍊石手	名	136			2.4	226.4			
錠次鐵物價	名	136			0.6	81.6			
錠別音工錢	名	136			1.6	217.6			
入排石手	名	12			2.4	28.8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14.4	
龍石	塊	2	40	80					
車運費	塊	2					40	80	
治鍊石手	名	140			2.4	336			
錠次鐵物價	名	140			0.6	84			
錠別音工錢	名	140			1.6	124			
入排石手	名	8			2.4	19.2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9.6	
邊石	塊	2	40	80					
車運費	塊	2					40	80	
治鍊石手	名	70			2.4	168			
錠次鐵物價	名	70			0.6	42			
錠別音工錢	名	70			1.6	112			
入排石手	名	12			2.4	28.8			
錠次鐵物價 + 錠別音工錢	식							14.4	
합 계				788		4517.9		759.6	6165.6

雜物秩

명 칭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 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石灰	石	750	4.8	3600					
非音鐵	斤	650	0.9	585					
常鏁	斤	2859	1	2859					
工字金刂	介	570	7	3990					
雜石	斛	360	3	1080					
菴石	塊	750	1.1	825					
靑石	負	250	0.7	175					
束毬	巨里	20	12	240					
葛毬	沙里	1500	0.08	120					
靑兀赤	朶	5	0.7	3.5					
黃銅油	桶	4	40	160					
法油	斗	10	28	280					
白紙	卷	100	0.35	35					
炭	石	7	2	14					
加乃	柄	10	3	30					
光耳	柄	50	1.3	65					
三太	立	100	0.3	30					
排尺	介	4	5.6	22.4					
網罟	沙里	2500	0.05	125				240	
舊壇撤毁都給	식	1							
擔軍	名	5760			1.5	8640			
支架軍	名	9535			1.2	11442			
募軍	名	4950			1.1	5445			
합 계				14238.9		25527		240	40005.9

기록으로 보아 환구단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단을 구성한 점을 알 수 있고, 황궁우 주변도 새롭게 정비한 점과 단상의 동서무 등도 정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황궁우와 주변은 이전의 건축물을 정비하는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환구단은 기존의 단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을 다시 구성한 점이다. 이것은 "舊壇撤毁都給"이란 항목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환구단의 3층 석물 중수비 지급내역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상·중·하층마다의 크기와 각 부품의 소요경비가 자세하게 적혀있어 중수시 환구단의 개략적인 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바닥 크기에 대한 추정을 하면, 1층은 349척 2촌, 2층은 234척, 3층은 118척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길이를 지칭하는 단위로 고려되고, 단은 원형으로 되었기에 길이는 원의 길이로 고려된다. 따라서 1층은 $2\pi r$ = 349척 2촌으로 지름은 111.21척, 2층은 $2\pi r$ = 234척으로 지름은 74.52척, 3층은 $2\pi r$ = 118척으로 지름은 37.58척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지름은 1층이 33.697m, 2층은 22.58m, 3층은 11.387m로 계산된다.[275]

위의 결과로 추정해 보면 새로 중수된 환구단의 규모는 애초의 환구단보다 1층 크기만 약 10m 가량 축소된 반면 2층과 3층은 거의 비슷한 규모로 다시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층 난간석이란 항목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중수시 단에 난간을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닥은 전돌을 깔고, 황궁우 삼문의 난간을 설치했으며[276], 단 위에는 작은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워 동서무를 구성한 것으로 고려된다. 동서무의 바닥에는 한단의 장대석으로 된 기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277]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애초의 환구단 규모와 중수시의 환구단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

275) 중수비 기록에서 환구단 3층 석물(石物)에 "정지대(正址臺)"와 "청판석(廳板石)"의 항목이 있고 척수가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바닥과 측면의 돌을 지칭하거나, 또는 둘 다 바닥을 지칭하는 용어로 고려되고, 이 두 항목의 척수 차이가 수직으로 세운 돌에 대한 척수로 고려해 본다면, 1층은 정지대와 청판석의 지름 차이가 0.54척으로 16.36㎝, 2층은 0.6척으로 18.18㎝, 3층은 1.4척으로 42.42㎝의 차이가 있게 된다. 단은 3개층 모두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측의 두께를 감안하면 1층은 두께가 8.18㎝, 2층은 9.09㎝, 3층은 21.21㎝정도의 돌로 측면을 두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청판석과 정지대에 대한 정확한 용어사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76) 삼문 난간의 재료명을 보면 삼문의 벽돌과 석재 등의 재료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삼문 계단과 난간 부분의 정비만 있었던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삼문은 기존에 만들어 졌고 중수시에는 난간 등의 장식적인 부분만 정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277) 단상 재료명에 "脫只長臺"라고 한 용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즉 '只'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다. 만일 '長臺'가 장대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면 동서무의 기둥 밑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 장대석 기단으로 고려될 수 있고, 장대나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면 환구단에 세워졌던 동서무의 기둥 재료는 나무재료인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붕도 얇은 나무판 위에 황색 기름을 칠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의 정확한 용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단지 여기서는 동서무의 기둥재료와 지붕재료를 「중앙 상부는 황색을 칠한 원추형의 지붕으로 만들었다.(中央上部に黃色塗圓推形の屋根を設けた)」는 경성부사의 기록을 참고하여 나무로 판단하였다.

표 3-7. 초기와 중수의 환구단 비교

구 분		신축시 환구단 (1897년)	중수시 환구단 (1901년)	비 고
규모 (지름)	1층	144척 (43.63m)	111.21척 (33.70m)	1층만 10m차이
	2층	72척 (21.82m)	74.52척 (22.58m)	
	3층	36척 (10.91m)	37.58척 (11.39m)	
단 높이		매단 3자 총 9자 (2.73m)	총 9자 (추정)	동일할 것으로 추정
담장구성		돌과 벽돌로 구성된 원형	돌과 벽돌로 구성된 원형	외곽 방형 담장
바닥재료		전돌과 박석	전돌과 박석	박석은 추정
난간		없음 (추정)	있음	
황막		없음 (추정)	있음	나무에 황색칠 (추정)
동서무		있음	있음	나무에 황색칠 (추정) (1층 4간, 2층 2간)
황살문		동서남북 4개	동서남북 4개	남문은 삼문형식
삼문 계단		있음 (추정)	있음	황궁우 삼문 계단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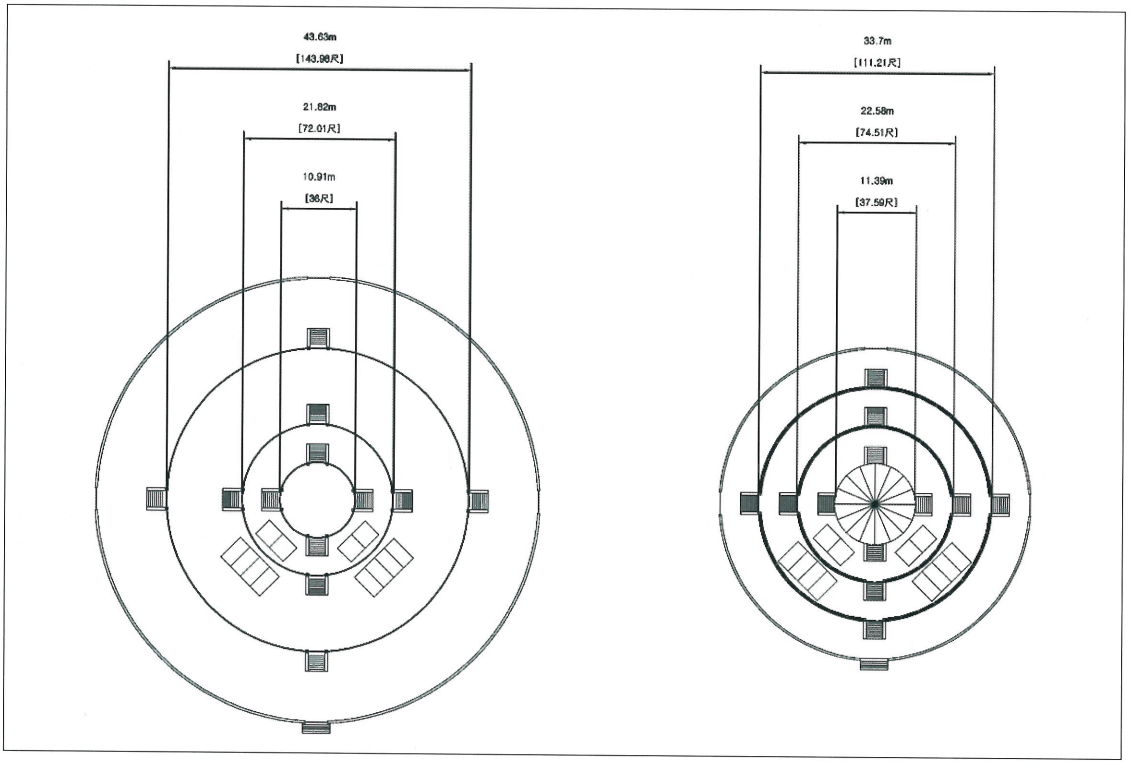


그림 3-34. 초기와 중수의 환구단 규모 및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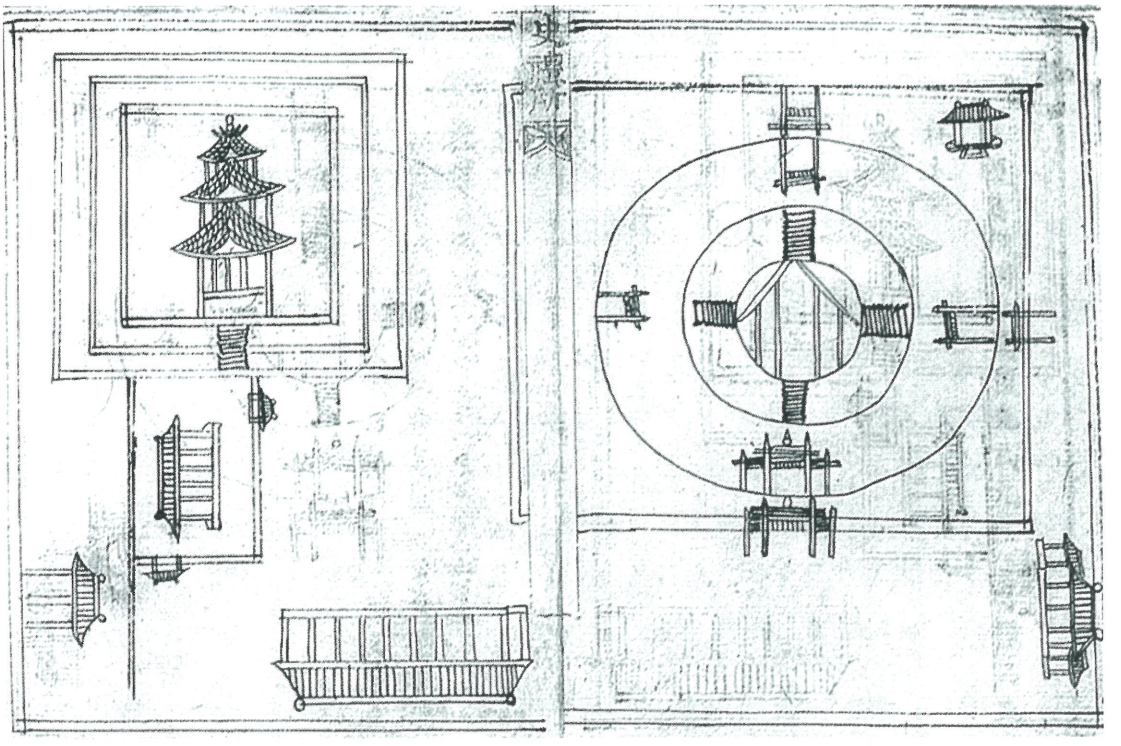


그림 3-35. 대한예전의 환구단의 도설, 20 × 28.4cm, 장서각 소장 (국립민속박물관편, 『天文』). 강병희,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조선의 하늘제사 건축 -대한제국기 원구단을 중심으로-, 대원사, 2005, 12, 413p. 재인용.

반면 1897년 환구단 건립 이전부터 대한제국의 건설과 이에 수반되는 황제 즉위와 환구단의 건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78]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례소(史禮所)[279]에서 작성한 『대한예전(大韓禮典)』[280]의 기록과 도설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278) 한우영,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대례의궤, 한국사론 45, 2001, pp. 205-222.

김문식, 고종의 황제 등극의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37, 2006, pp. 71-104.

황현, 매천야록, 김준 역, 교문사, 1996, 10, pp. 409-410. 9월 17일,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대한이라고 하였다. 을미년(1895년) 이후 정부에서는 고종의 마음을 헤아려 황제로 즉위하기를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여러 나라 공사들은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일본공사 미우라고로(三浦梧樓)도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 후 이우라고로가 죄를 지어 떠나자 우리 조정에서는 다시 그 여론이 일어나 점차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각국에서는 강력히 우리측의 의견을 저지하고 러시아 공사도 "귀국이 帝號를 쓰면 우리 러시아는 반드시 절교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고종은 조금 두려움을 느꼈으나 거의 완성단계에 와서 저지를 받는 것도 별로 보기 좋은 일은 아니므로 몇몇 신료들에게 밀지를 내려 계속 진정을 하게하였다. 흡사 고종이 뜻을 굽혀 여러 대신들의 의견을 따른 듯한 느낌이었다. 이에 耆老臣 金在顯 등은 聯名疏를 올리고 의정 沈舜澤과 특진관 趙秉世도 그들의 뒤를 이어 백관을 거느리고 庭請을 하였다.

279) 高宗實錄 35권, 34년(1897 / 대한 건양(建陽) 2년) 6월 3일.

황제국의 위상에 맞는 국가전례를 정비하고자 내부대신 남정철의 건의로 1897년 6월 3일 설치되어 대한제국의 국가례를 정비한 대한예전을 편찬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1898년 10월 폐지된 기관이다.

280) 대한제국 창건과 동시에 과거의 예제를 고쳐 독립제국에 맞도록 제정, 시행하기 위해 만든 예전으로 총 10권 10책으로 구성되었다. 권1은 皇帝卽位儀 등 즉위에 관계되는 의식 18편, 권2는 吉禮로 辨祀, 時日 · 祝版 등

이 자료는 환구단과 관련된 도설이 있어 주목된다. 이것이 환구단의 건립에 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유사한 점이 있어 초기의 환구단 건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건립되는 단이니 만큼 의례서에 나오는 도설을 참고하였을 것이라는 추정과 환구단이 건립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무렵에 제작된 점은 이 자료가 환구단 건립시에 이용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환구단과 황궁우의 기본설계는 아마도 1897년 환구단이 조성되기 전에 이미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을 염두에 두고 조성된 환구단과 대한예전의 단묘도설을 비교해 보면, 우선 황궁우 동서무와 원단 위 동서무가 그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원단 위에 지붕이 있는 구조물 즉 황막 시설은 있다. 또한 황궁우가 3층으로 그려져 있는 점도 동일하다. 그리고 황궁우에 있어서 담장인지 단인지 알 수 없지만 이중의 계단으로 표현된 점은 현재의 황궁우와도 유사한 구성이다. 더불어 황궁우가 사각형이 아닌 팔각형으로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81] 원단이 3층으로 표현된 점도 실제 지어진 것과 동일하다.

환구단이 중수된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한 주변 정비 사업은 계속된다. 우선 환구단의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01년 12월 9일(양력 1902년 1월 18일) 개기식을 해서 1903년 5월 17일 환구단 동쪽에 건립된 석고각(石鼓閣)이다. 석고각은 석고단(石鼓壇)이 있었던 건축물로, 애초의 석고단은 석고각 안에 있었다. 또한 석고각에는 1902년 11월 29일 완성된 정문인 광선문(光宣門)이 있었다. 황성신문을 비롯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석고각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보조금을 모았으나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그 완성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석고단(석고각)이 있던 곳은 1923년에 총독부립 경성도서관(조선총독부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1921년과 1936년의 지형도와 지적도를 비교해 보면 석고단(석고각)과 광선문의 위치와 변화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921년 조선지형집성에는 광선문과 석고각이 환구단 동쪽에 표시되어 있는 반면 1936년 경성전도에는 도서관 자리로 되어있다.

73편, 권3은 壇廟圖說 24편, 各宮廟 47편, 薦新庶物 1편, 大夫士庶人時享 1편, 권4는 雅部樂懸圖說 10편, 속부악현도설 10편, 아부악기도설 · 속부악기도설, 定大業之舞儀物 각 1편, 祭服圖說 7편, 권5는 儀仗圖說 1편, 鹵簿 4편, 執事官 1편, 冠服圖說 6편, 악기도설, 尊爵圖說 각 1편, 俗部樂章 2편, 殿庭宮架圖說 1편, 鼓吹圖說 3편, 舞圖 5편, 正至聖節朝賀圖 등 그림 5편, 納后制文 등 혼서식 4편, 賓禮序例 3편, 國書式 9편, 軍禮 2편, 권6~9는 길례로 의식 74편, 권9 · 10은 가례로 의식 49편, 빈례의식 2편, 軍禮儀式 2편, 凶禮儀式 1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2. pp. 648-649. 참고.

281) 황궁우의 지붕 표현을 보면 사각형 평면을 가진 전각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원형 평면을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맨 아래층의 기둥수를 보면 5개가 그려져 있어 4각을 구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8각형 평면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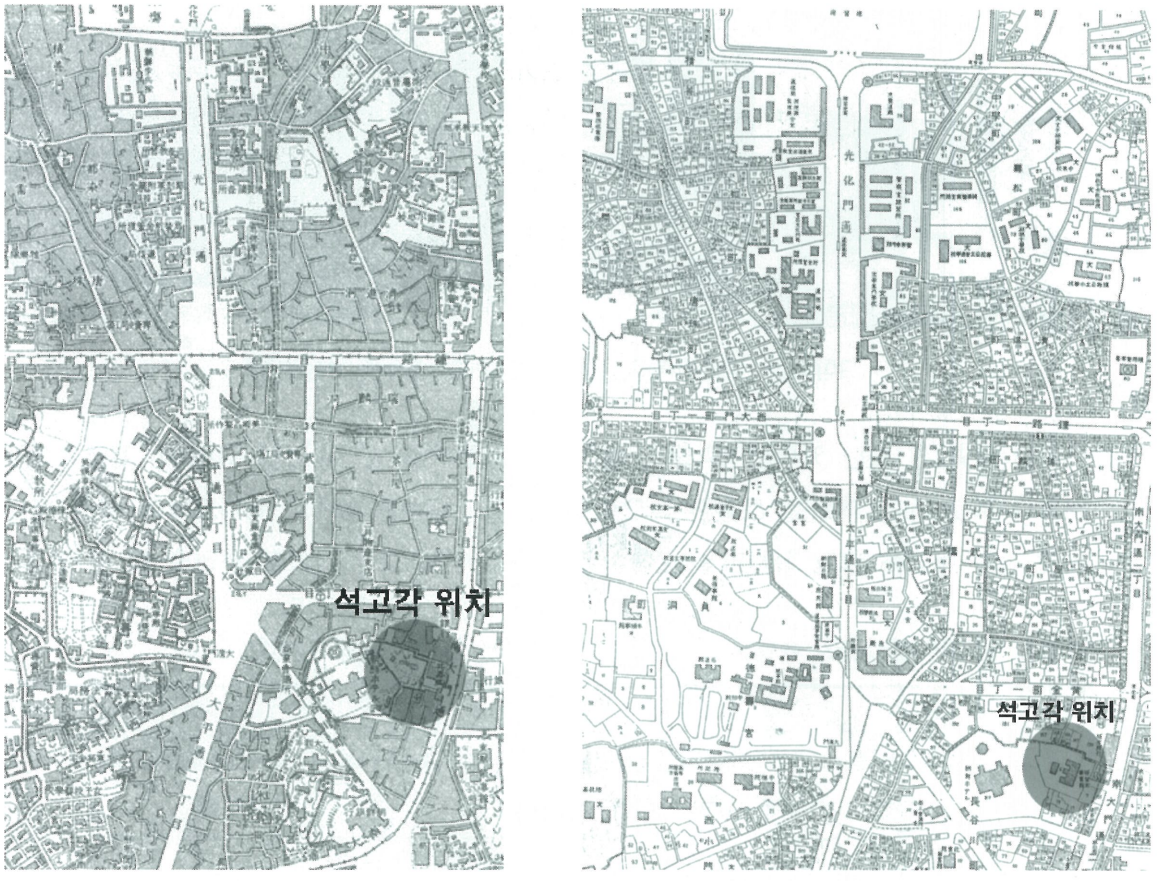


그림 3-36. 1921년 조선지형집성(좌)과 1936년 경성전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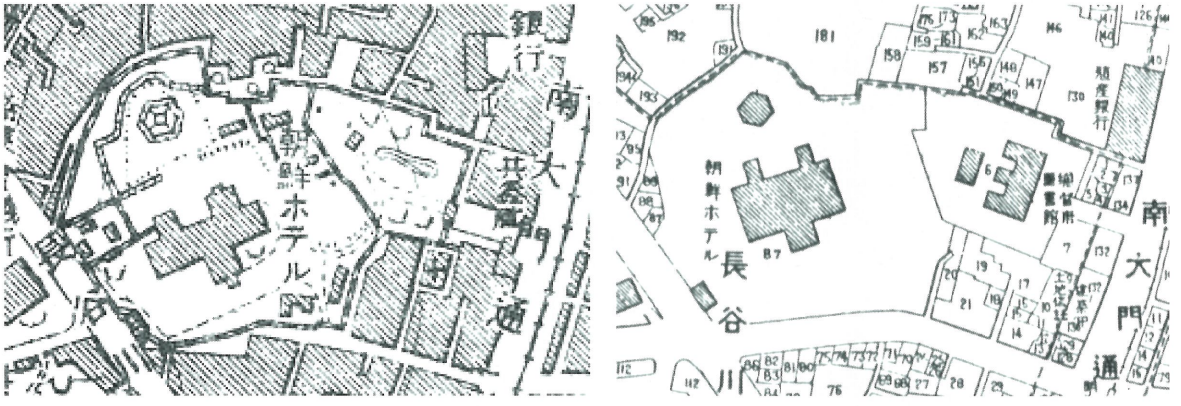


그림 3-37. 1921년 조선지형집성 상세(좌)와 1936년 경성전도 상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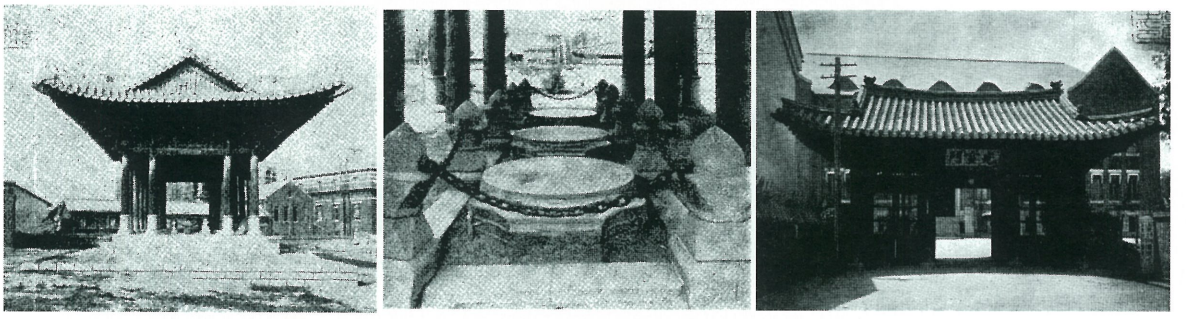


그림 3-38. 석고각(좌)과 누워있는 석고(중), 입구인 광선문(우)

석고단(석고각)이 있던 지역은 이 단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공간마련을 위해 이 지역에 있던 가옥들의 철거와 정리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01년 환구단 동쪽지역에 대한 청인들의 가옥 매입과 철거를 위한 공사비를 요청한 자료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3-8. 1901년 6월 25일 各部請議書存案19, 의정부 편. 정수인 논문 재인용.

구입가옥	비 용
丁老六 瓦家十七間	1천 7백원
張隆成 草家七間	5백원
程景福 草家十間	7백원
閣煥堂 二層甓屋七間 瓦家十七間	8천원
仁禮堂 瓦家一所 草家一所 又草家一所	2천5백원
합 계	1만 3천 4백원

이 정비작업은 1903년 7월 28일 의정부 문서에 환구단 건축비 증액요청에 의한 명세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로도 계속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환구단 동쪽 지역에 대한 정비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석고단(석고각)이 있었던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환구단 동쪽 주변의 중국인 소유의 가옥을 사들이고, 외장을 새로 개축하며, 담장 내 행각을 새로 건축하는 등의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이 지역의 동쪽에는 중국인의 거주지가 많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특이할 점은 "圜丘壇黃幕及左右廡與四面壝門塗黃油淸人都給工錢"의 내용으로 보아 제일 위 중앙에 있는 것은 "황막"으로 불리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동서무와 유문도 함께 황유로 칠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황막과 동서무의 지붕은 얇은 나무판으로 되어 있

는 것에 황색으로 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282]

표 3-9. 1903년 궁내부에서 올린 환구단 건축비 증액비 명세서 내용 (이욱 논문 재인용)

내 용		비 용
가옥철거	東墻外淸人 丁道淳家舍價(지폐 1천5백원)	7천1백50원 (동화 1만3천5백85원)
	法人徐多淳家舍(지폐 1천8백50원)	
	淸人 秦敬復 層料家舍(지폐 3천 8백원)	
皇穹宇 後地碣芒		3천3백28원80전
典祀廳 後地碣芒		1천6백64원40전
方墻內地排礎石東西壝門 이하 150칸		4천2백39원30전
東墻改築 17간반		7백9원6전
東南外墻新築 23간		1천5백33원44전
東墻內行閣新建 13간반 통14간		5천7백5원88전
圜丘壇黃幕及左右廡與四面壝門塗黃油淸人都給工錢		지폐 402원(동화 7백63원80전)
총 계		3만1천5백29원68전

황막과 동서무의 재료에 대한 검증은 추후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서양식 건물인 덕수궁의 정관헌(靜觀軒)과 일본식 건축물들을 보면 기둥 재료가 상당히 가늘고 가볍게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당시 구리나 동을 주재료로 건물을 세웠다고는 생각해 보기 어렵다. 즉 환구단의 동서무 재료에 脫只長臺 242척[283]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과 황동유, 법유 등의 재료명이 들어있는 점 등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동시대의 다른 건물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 있었다. 따라서 재료는 나무로 판단된다.

282) 이 황막의 재료는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환구단 모형에서처럼 지붕과 기둥의 재료가 구리나 동으로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무 재료에 황색을 칠한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점은 경성부사에 "단은 3층으로 화강석으로 만들었고 **중앙 상부는 황색을 칠한 원추형의 지붕으로 만들었다.(中央上部に黃色塗圓推形の屋根を設けた)**" 고 언급한 기록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경성부사 1권, 655-657. 참고.

283) 脫只長臺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242척은 길이로 73.33m로 환산되고 이것을 동서무 재료에 들어간 기둥으로 고려해 보면(환구단 위 동서무는 사진자료를 통해 보면 각각 4간과 2간으로 되어있다.) 기둥 하나가 2.29m로 된다. 여기에 가공에 의한 재료손실을 감안해도 2m 내외의 기둥 길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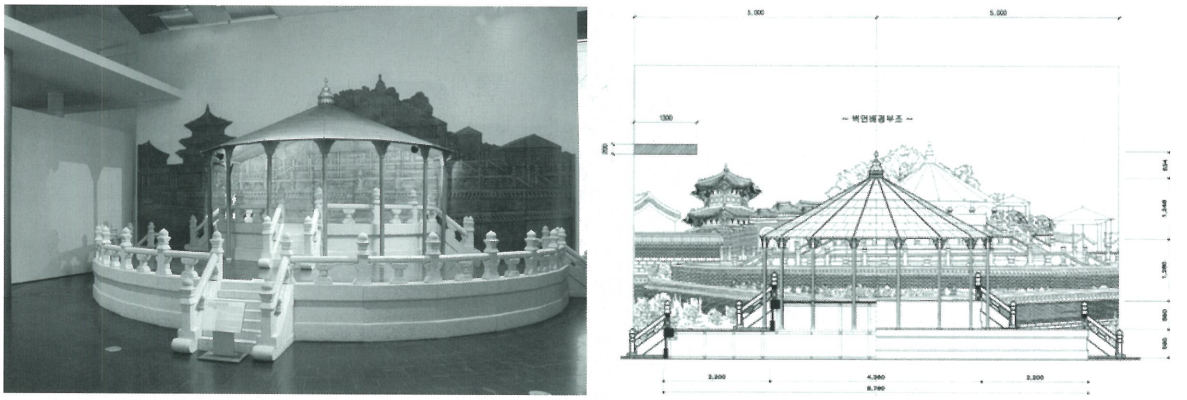


그림 3-39. 환구단 모형과 도면 (도면자료협조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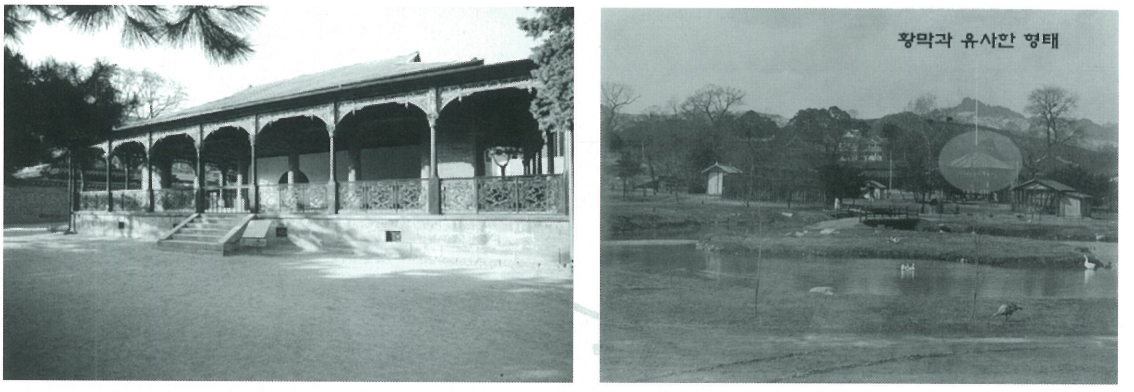


그림 3-40. 덕수궁 내 정관헌과 창경궁 내 박물관 부근 모습[284]

이상의 논의로 보아 환구단 영역이 다시 중수되고, 황궁우 영역이 정비되며, 환구단 동쪽으로 석고단 영역이 완성된 시기의 환구단 구성이 가장 정돈된 형태의 환구단과 주변일대의 공간구성이었을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의 공간구성이 가장 합리적인 환구단의 전체 공간영역으로 보인다. 이것을 1912년 지적도에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산정되고[285], 이것을 현재의 배치도에 겹쳐보면 개략적인 환구단의 대지면적과 규모가 산정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진자료를 통해 검토된 전각 위치관계를 종합하고, 사직서의궤와 중수비 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전각명칭과 위치관계를 확인하여 다음의 추정도면을 제시하였다.[286]

284)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2006, 11, 48p.

285) 대지면적의 산정에는 1912년 지적도가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밖의 여러 다른 지도들과도 대비하여 면적계산을 추정하였다.

286) 추정도면은 완벽한 고증이 아닌 사진자료 등을 통한 개략적인 도면임을 밝힌다. 그러나 캐드를 통해 각 전각의 크기나 간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건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정 도면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3-41. 환구단 추정도면[287]

287) 환구단을 중심으로 서쪽영역은 사진으로 개략적으로 판단되었고, 황궁우 영역도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구단 동쪽영역과 석고각이 있었던 영역은 시각자료가 불충분 하여 추정배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점은 추후 계속적인 연구와 자료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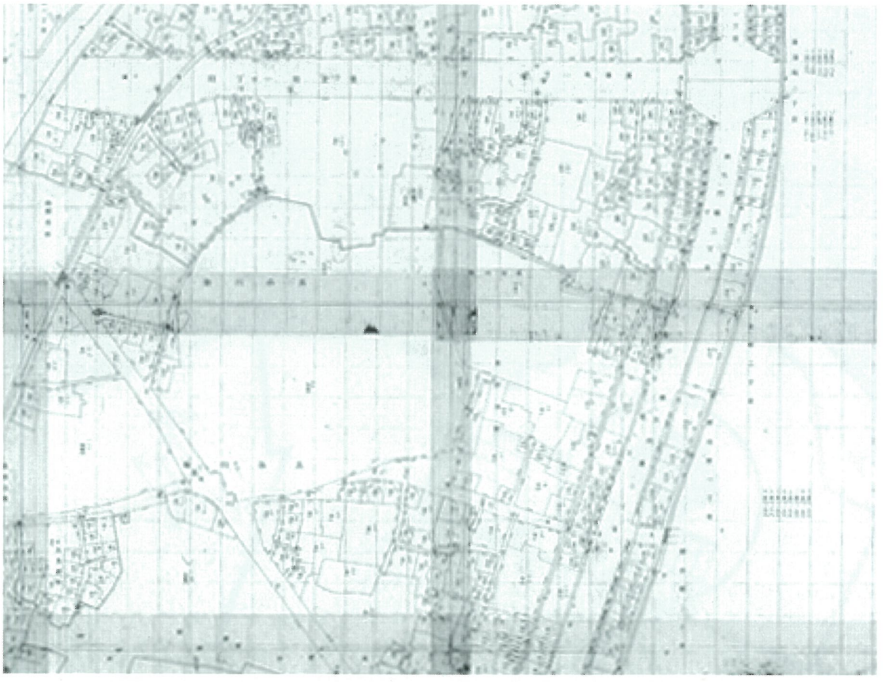


그림 3-42. 1912년도 지적도 (자료출처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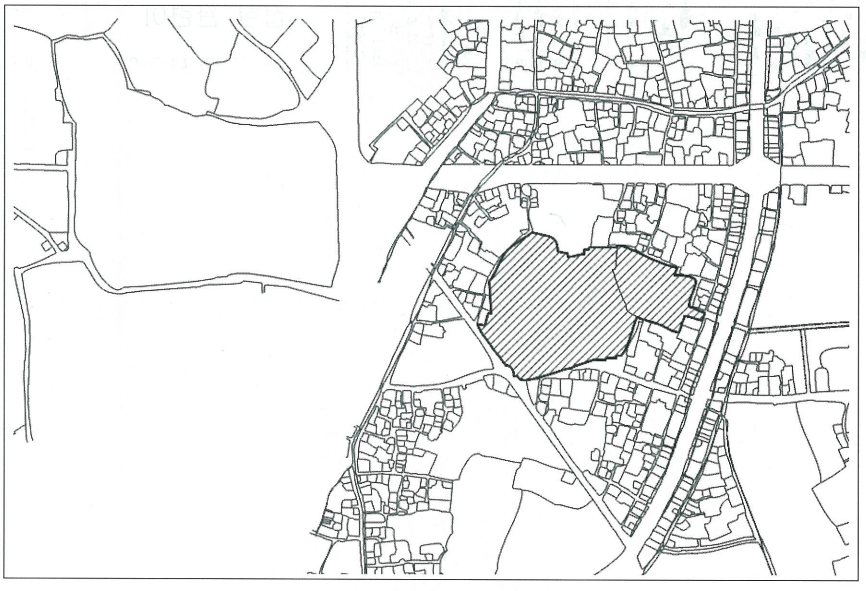


그림 3-43. 1912년 지적도에 표현한 환구단 영역

환구단의 건립과 함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소공로의 변화가 있다. 소공로는 환구단이 처음으로 지어질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후 환구단의 건립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288]

288) 정수인, 앞논문, pp. 136-137 참고.

표 3-10. 漢城內治道費增額豫算明細

도로명	공사내용	비용
壽洞路	司僕東墻七十間	566元
	治道費	96元
	計	662元
公館路	左右溝石築	245元
	治道費	145元
	計	390元
公洞路(현 소공로)	左右溝石築	230元
	民家毁撤費	1642元16濱
	計	1956元16濱



1897. 10. 12 ③

그림 3-44. 1897년 10월 12일. 독립신문 기사

더불어 경운궁(덕수궁)의 정문도 인화문(仁和門)에서 대한문(大漢門, 대안문 大安門)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당시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종시대에 경운궁을 본궁(本宮)으로 삼으려는 계획과 환구단의 건립 등 황제권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89]

여기서 환구단에 친림하는 동선은 대례의궤에는 덕수궁의 인화문을 통해 환구단으로 친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경운궁의 포덕문을 통해 출궁한 것으로 고려된다. 그것은 독립신문 기사에 포덕문을 통해 환구단에 친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과 포덕문 앞으로 숙위장솔들의 숙소가 새롭게 마련되는 등 포덕

289) 이태진,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 1994, 2, pp. 1-36.
김문식, 고종의 황제 등극의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37, 2006, pp. 71-103.
한영우,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대례의궤, 한국사론 45, 2001, pp. 193-277. 참고.

문이 당시에는 환구단에 가는 일반적인 문이었던 것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당시의 고종황제 행차모습을 독립신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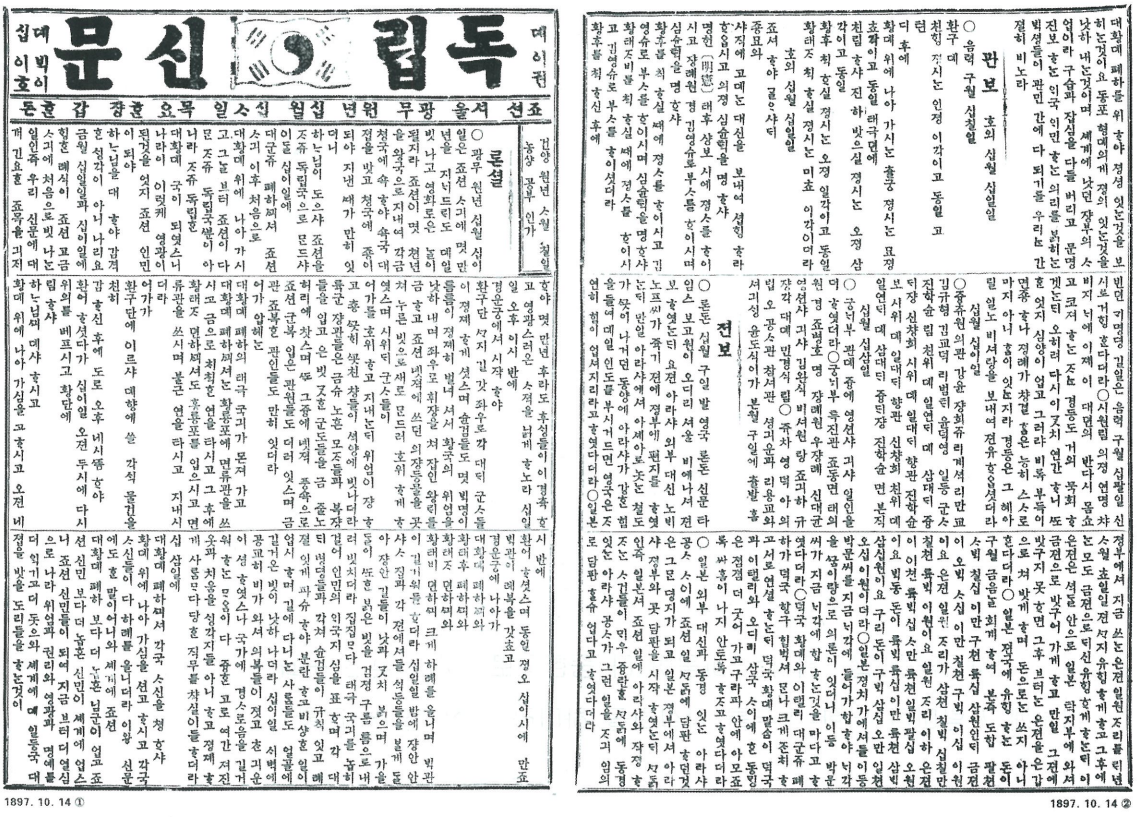


그림 3-45. 1897년 10월 14일. 독립신문 기사

위 독립신문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290]

【론설 : 광무 원년 십월 십이일은 조선 사기에 몇 만년을 지나더라도 제일 빛나고 영화로운 날이 될지다. 조선이 몇 천년을 왕궁으로 지내며 가끔 청국에 속하여 속국대접을 받고 청국에 종이 되어 지낸때가 많이 있더니 하느님이 도와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만들어 이달 십이일에 대군주 폐하께서 조선 사기 이후 처음으로 대황제 위에 나아가시고 그날부터 조선이 다만 자주독립국뿐이 아니라 자주독립한 대황제국이 되었으니 나라가 이렇게 영광이 어찌 조선인민이 되어 하느님을 대하여 감격한 생각이 아니 나리요. 금월 십일일과 십이일에 행한 예식이 조선 고금 사기에 처음으로 빛나는 일인즉 우리 신문에 대개 긴요한 조목을 기재하여 몇 만년 후라도 후생들이 이 경축하고 영광스러운 사적을 넓게 하노라. 십일일 오후 2시 반에 경우궁에서 시작하여 환구단까지 길 가 좌우로 각 대대군사들이 정제하게 섰으며 순검들도 몇 백명이 틈틈이 정제히 벌여 서서 황국의 위엄을 나타내며 좌우로 휘장을 쳐 잡인 왕래를 금하고 조선 옛적에

290) 1987년 10월 14일, 독립신문 론설. 원문을 현재의 용어로 풀어서 실었다.

쓰던 의장등물을 고쳐 누른빛으로 새로 만들어 호위하게 하였으며 시위대 군사들이 어가를 호위하고 지나는데 위엄이 장하고 총 끝에 꽂힌 창들이 석양에 빛나더라. 육군 장관들은 금수놓은 모자들과 복장들을 입고 은빛 같은 군도들을 금줄로 허리에 찼으며 또 그중에 옛적 풍속으로 조선 군복 입은 관원들도 더러 있으며 금관조복한 관인들도 많이 있더라. 어가 앞에는 대황제 폐하의 대극 국기가 먼저가고 대황제 폐하께서는 황룡포에 면류관을 쓰시고 금으로 채색한 연을 타시고 그 후에 황태자 전하께서도 홍룡포를 입으시고 면류관을 쓰시며 붉은 연을 타시고 지나시더라. 어가가 환구단에 이르자 제향에 쓸 각색 물건을 친히 감하신 후에 도로 오후 네시쯤하여 환어하셨다가 십이일 오전 두시에 다시 위의를 베푸시고 황단에 임해서 하느님께 제사하시고 황제 위에 나아가심을 고하시고 오전 네시 반에 환어하셨으며 동일 정오 십이시에 만조백관이 예복을 갖추고 경운궁에 나아가 대황제 폐하께와 황태후 폐하께와 황태자 전하께와 황태비 전하께 크게 하례를 올리며 백관이 즐거워들 하더라. 십일일 밤에 장안 사사집과 각 전에서는 색등들을 밝게 달아 장안 길들이 낮과 같이 밝으며 가을달이 또한 밝은 빛을 검정 구름 틈으로 내려 비치더라. 집집마다 애국집을 표하며 각 대대 병정들과 각처 순검들이 규칙있고 예절있게 파수하여 분란하고 비상한 일이 없이 하며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얼굴에 즐거운 빛이 나타나더라. 십이일 새벽에 공교히 비가 와서 의복들이 젖고 찬기운이 성하였으나 국가에 경사로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다 중한고로 여간 젖은 옷과 추움을 생각지들 아니하고 정제하게 사람마다 당한 직무를 착실히들 하더라. 십삼일에 대황제 폐하께서 각국 사진을 청하여 황제 위에 나아가심을 선고 하시고 각국 사신들이 다 하례를 올리더라. 이왕 신문에도 한 말이거니와 세계에 조선대황제 폐하보다 더 높은 임금이 없고 조선 신민보다 더 높은 신민이 세계에 없으니 조선 신민들이 되어 지금부터 더 열심히 나라 위엄과 권리와 영광과 명예를 더 아끼고 더 돋우어 세계에 제 일등국 대접을 받을 도리들을 하는 것이 대황제 폐하를 위하여 정성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요 동포 형제에게 정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세계에 나선 장부의 사업이라. 구습과 잡심을 다들 버리고 문명진보 하는 애국애민 하는 의리를 밝히는 백성들이 관민간에 다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비노라.】

【관보 : 호외 십월 십일일 음력 구월 십칠일. 환구제 친행 정시는 인정 이각이고 동일부터 이후에 황제 위에 나아가시는 출궁 정시는 묘정초각이고 동일 태극전에 친림 하여 진하 받으실 정시는 오정 삼각이고 동일 황후 책하실 정시는 오정 일각이고 동일 황재자 책하실 정시는 미초 이각이더라.】

이후 대한문(대안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아울러 도로계획으로 인해 덕수궁 주변도로가 새롭게 정비되고 소공로를 통한 길이 마련되면서 대안문에서 소공로를 통해 환구단에 이르는 길이 일반적인 동선으로 변화된 것으로 고려된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일본은 세계 각국에 그들의 시정(施政)을 널리 알리고자 『施政五年記念物共進會』를 경복궁에서 열기로 하여 내·외국인을 숙박시킬 숙소로 총독부 철도국 주관으로 1913년 3월 15일 환구단이 있는 곳에 "조선경성철도호텔"을 기공했다. 이때 황궁우는 다행히 철거를 면했지만 단이 있는 곳은 모두 철거되어 호텔 건립지로 사용되었다.

약 6,750평(22,275㎡)의 대지에 건평 583평(1,924㎡), 연건평 2,123평, 객실 69실의 4층 규모로 철도호텔을 세웠는데, 독일인 케데라란테(Geotheland)가 설계하고 일본인(호리우찌 기사)들이 공사를 하여 1914년 9월 30일 준공하였다.[291] 공사비는 당시 일본 돈으로 844,000엔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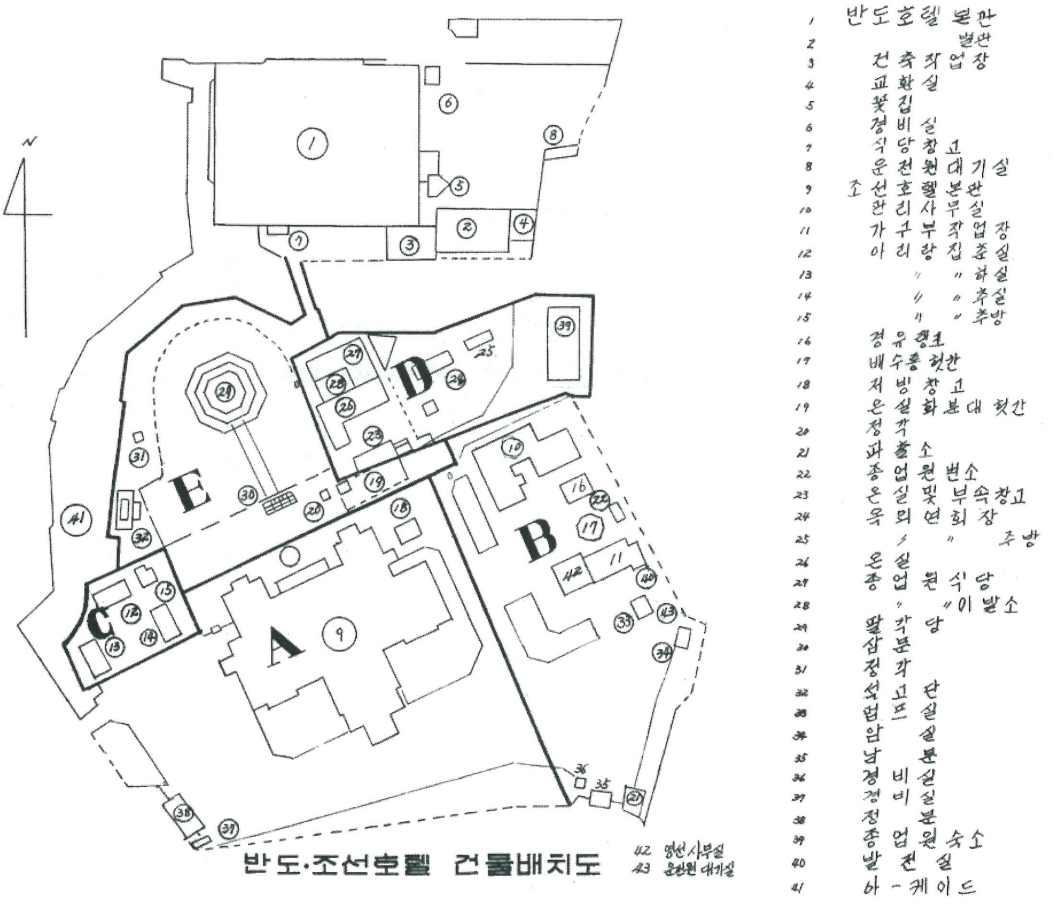


그림 3-46. 1967년 조선호텔 배치도 (자료출처 : 조선호텔처리지)

당시 호텔의 건축자재는 주로 외국제로서, 실내장식 및 침구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건설재료 및 석재는 내벽용 벽돌인 적벽돌은 한국산으로, 그 외는 일본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한다.[292]

291) 개관일은 1914년 10월 10일로 되어 있다.

292) 국제관광공사조선호텔처리의원회, 조선호텔처리지, 1967, 9. 참고.

철도호텔의 건립 당시 환구단의 부속건물이었던 재실건물 3동은 이후 아리랑하우스로 명명하고 춘실(春室), 하실(夏室), 추실(秋室)로 하여 음식점 및 연회장소로 사용하였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이 3동의 건물에 100여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림 3-47. 1967년 조선호텔 전경 (자료출처 : 조선호텔처리지)

이후 1963년 8월 1일 국제관광공사의 발족으로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이 교통부로부터 이관되어 통합 운영됨으로서 반도·조선호텔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67년 7월 7일 오전 9시 정업식을 하고, 호텔건물이 헐리고 이 자리에 새롭게 아메리카 에어라인(America Air Line)과의 합자투자로 지상 20층 규모의 현재 웨스틴조선호텔건물이 세워졌다.[293] 새로운 건물은 1967년 9월 16일 착공하여 1969년 준공하였다. 이 건물은 총 1,100만달러로 한국과 미국이 50 : 50으로 투자하였다.[294] 설계는 당시 힐튼 호텔 등을 설계한 테블러가 했고 설계자문가로 서울공대 건축과 이구(李玖)씨[295]와 홍익대 건축과 정인국씨가 했으며, 공사는 현대건설과 삼환건설에서 했다.[296]

이후의 논의는 조선호텔처리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이기에 이후로는 편의상 주석을 생략한다.

293) 1995년 신세계가 웨스틴체인의 지분을 완전히 인수했다.

294) 새로운 호텔의 건립에 대한 회의 내용을 보면 호텔의 신축을 찬성하면서 호텔의 위치는 구 철도호텔의 자리에 새롭게 짓는 것으로 해서 환구단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95) 의민황태자(영친왕)의 아들 이구를 말한다. 이순우 자료 참고 http://cafe.daum.net/distor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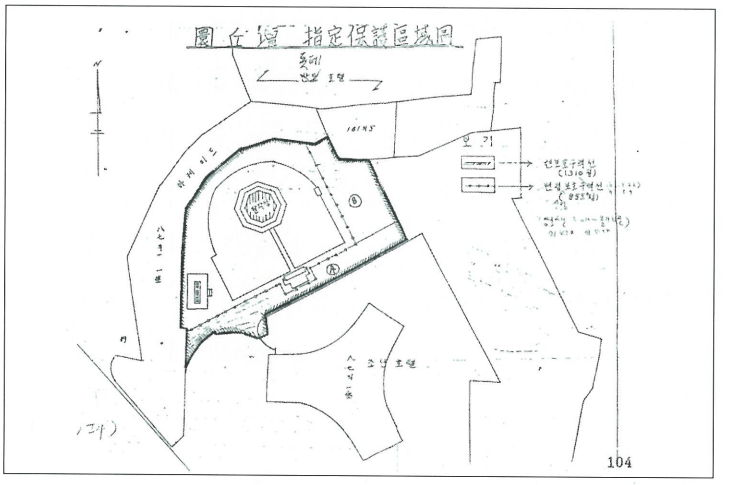
296) 한국일보 1968년 2월 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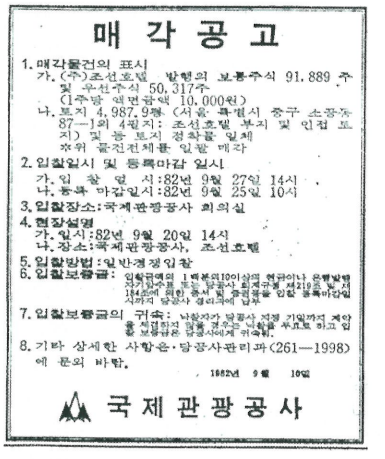
1948년 교통부에서 본관 및 부속건물에 대한 대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1961년에 미군정으로부터 인수하여 교통부주관으로 대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 무렵 호텔 주변에 남아있던 환구단의 부속건물들도 새로이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67년 7월 15일 문화재관리국은 황궁우를 중심으로 1,505평을 사적 157호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사적지 지정면적은 1967년 10월 21일자 대한민국 관보 문교부고시 제299호(1967년 10월 18일)에는 1,310평으로 축소되어 있다.

표 3-11. 사적지정 구역 목록

지 번	지 목	지 적	비고
서울시 중구 소공동 87-1	대	72,5평	
서울시 중구 소공동 87-10	대	24.7평	
서울시 중구 소공동 87-12	대	138,3평	
서울시 중구 소공동 87-13	대	240평	74년 6월 7일 매각
서울시 중구 소공동 87-14	대	834.5평	
총 계		1,310평	현재 1,070평

이 면적은 이후 1974년 6월 7일 지번 87-13(240평)이 롯데그룹에 매각되고, 1982년까지 지속되다가 다시 88년 올림픽 대비로 570억 상당의 관광센터 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총 사적지정 면적에 대한 축소를 계획하게 되어 문화재보호구역이 약 855평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297] 그러나 이것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고, 현재 사직지정면적은 1,070평인 것으로 보인다.





매 각 공 고

1. 매각물건의 표시
가. (주)조선호텔 발행의 보통주식 91,889주 및 우선주식 50,317주
(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나. 토지 4,987.9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외 4필지: 조선호텔 부지 및 인접 토지) 및 동 토지 정착물 일체
※위 물건전체를 일괄 매각
2. 입찰일시 및 등록마감 일시
가. 입 찰 일 시 : 82년 9월 27일 14시
나. 등록 마감일시 : 82년 9월 25일 10시
3. 입찰장소 : 국제관광공사 회의실
4. 현장설명
가. 일시 : 82년 9월 20일 14시
나. 장소 : 국제관광공사, 조선호텔
5.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현금이나 유통증권 외환은행을 또는 보증사 회사구별 제219호 및 제184호에 의한 증서 및 증권등을 입찰 등록마감일 시까지 당공사 앞으로 입금
7.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당공사 지정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공사에게 귀속됨.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 당공사관리과(261—1998)에 문의 바람.

1982년 9월 10일

국 제 관 광 공 사

그림 3-48. 축소 예정 문화재보호구역과 조선일보 1982년 9월 10일(금) 매각공고

297) 관련기록을 보면 88 올림픽 이전부터 환구단 지역에 대한 매각신청이 국제관광공사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즉 보호구역에서 A지역은 조선호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잔디, 수목, 담장을 옛 상태대로 보존 유지하기가 곤란하며, B지역은 시적 지정 이전에 기 시설물이 산재한 지역으로 이후 관광지 개발 계획에 차질이 올 뿐 아니라 당 공사 주무부장관의 반도호텔민영화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문화재 보호구역 가치를 이미 상실하였다는 이유이다. <그림 40 문화재 보호구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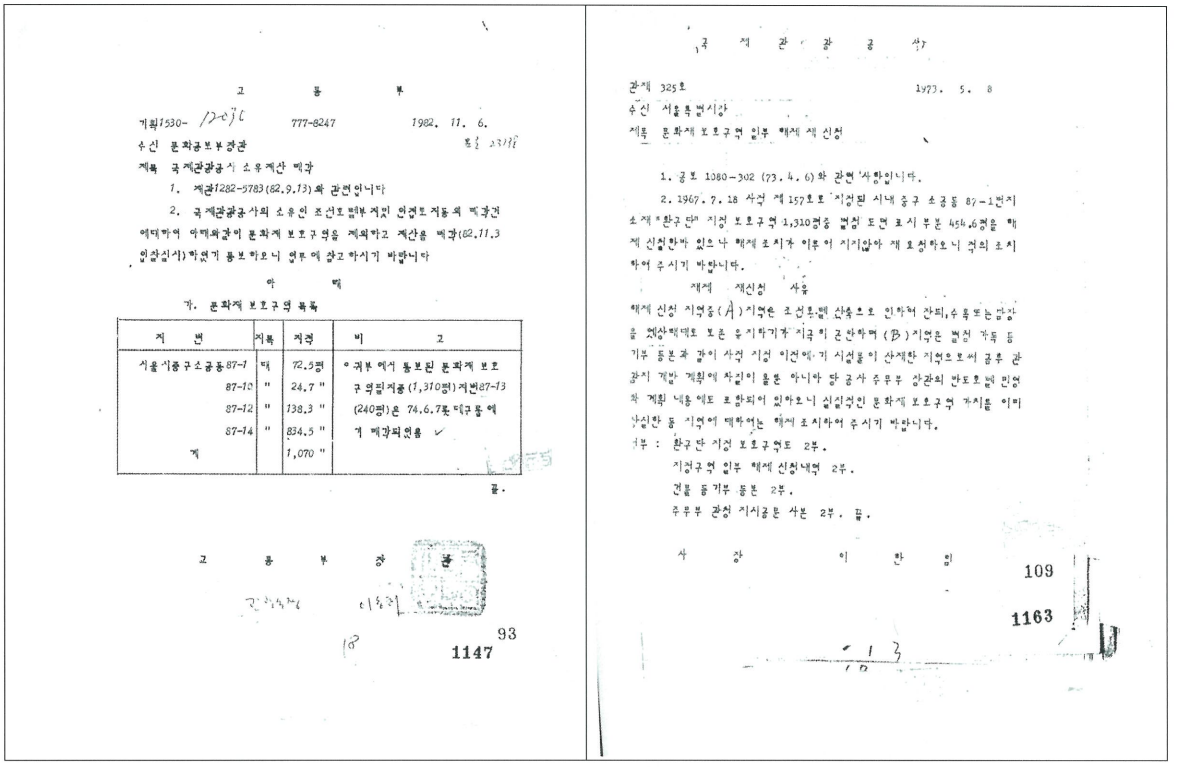


그림 3-49. 국가기록원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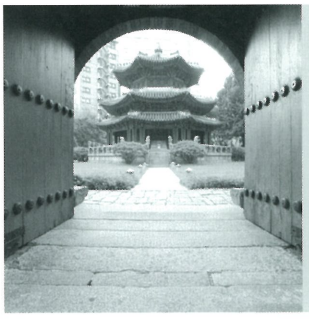
한편 1977년 12월 16일부터 황궁우 해체복원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후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보수공사가 있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2. 환구단 보수공사 기록

연도	공 사 내 용	비 고
1988년	환구단 내 황궁우 기단 박석포장 보수, 계단 보수, 창호보수공사, 협문 보수공사, 보호석 칸막이 설치공사(4개소)	문화재관리국
1989년	환구단 단청공사, 사문 보수공사, 만세문 보수공사, 협문 단청공사, 부분적 기와교체, 천장 용각부 부분 금박시공	문화재관리국 (주)신일건업
1997년	황궁우 보수공사, 삼문 보수공사, 만세문 보수공사, 협문 보수공사,	문화재관리국 (주)신일건업
1998년	삼문 서측간 지붕 부식목재 교체 후 번와 보수	문화재관리국
2000년	정밀실측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태광건축사사무소
2001년	환구단 기와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	중구청 (주)원택공사
2005년	서측 석재 난간 전도에 따른 임시조치	중구청 현대리모델링
2005년	서측석재 난간보수, 황궁우 신위판 복원, 배수로 정비사업	중구청 (주)길평종합건설
2006년	환구단 정밀안전진단	중구청 (주)건양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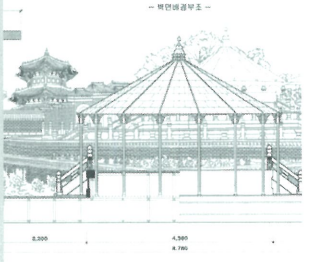
4장

중 · 장기 복원 계획









1. 중 · 장기 복원 계획

가. 기본 방향 및 전략

1) 기본 원칙

□ 문화재 보호법 제2조의 2항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보존 ·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문화재는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 또한 최근에는 인류의 문화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산업의 소재로서 개발 · 활용하며, 문화재를 문화관광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하는 것도 정책의 주요한 목표이다.[298]

□ 환구단은 조선시대 말기 대한제국시기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써 역사적 사건과 현대화를 같이 하면서 많은 변화를 하여 조성 당시의 모습과는 다르게 영역의 축소 및 주변 경관으로 인하여 그 의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구단을 보존 정비하기 위한 대 복원 · 정비 원칙을 크게 3가지로 접근하였다.

- 첫 번째는 환구단의 건립 취지 및 의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조성 당시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정비방안 수립.
- 두 번째는 문화재 주변 자연환경, 원형 경관에 대한 문헌조사 및 고증에 의해 주변 정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
- 세 번째는 사적지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원형유지를 위한 고증 및 안정성 확보와 조성 당시의 환구단 전체에 대한 복원 방안 수립.

298)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37페이지

2) 주요 고려사항

□ 환구단은 조선 후기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祭天壇)으로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수용하여, 고종 때 조선을 독립적 지위의 황제국으로 격상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면서 건립되었다.

□ 현재 환구단은 황궁우, 석고단과 석고, 삼문 및 협문 등이 남아 있으나, 고종 때 작성된 "환구단사제서의궤도설", "대한예전의 환구단의 도설", 각종 문헌자료와 대지여건을 비교하여 환구단이 고종 당시 중수된 모습에는 정문, 환구단, 제실 공간 등의 공간에 대하여 파악 할 수 있었다.

□ 환구단 관련 자료는 크게 문헌자료, 시각자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헌자료에는 의궤, 공사관련 기록 등이 있으며, 시각자료에는 지적도, 지도, 사진 등이 남아 있어 건립 당시의 제천행사시의 환구단 모습을 파악하는 자료들 이다.

- 문헌자료에는 「환구단사제서의궤」, 「환구단제사급수리비」, 「궁내부법래무문첩(황궁우 건축비)」, 「대한예전의 환구단 도설」, 독립신문 기사 등이 있으며, 앞의 문헌자료는 환구단의 배치 및 규모, 보수 내용, 건축비 사용내역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환구단 건립 당시의 배치 및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대해 유추해 나가는데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 시각자료 중 지적도 및 지도는 환구단의 영역 변천을 알 수 있는 자료로써, 지적도중 1912년 지적도는 환구단의 건립 당시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고, 지도 중 1921년 조선지형도집성과 1936년 경성전도는 환구단의 공간구조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또한 시각자료 중 사진은 조선호텔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기타 확보된 자료를 통해 중수 당시의 환구단 공간구조와 각 영역별 건축물의 형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써의 활용이 가능하다.

□ 현존하고 있는 황궁우 주변과 현재의 조선호텔, 롯데호텔 등의 영역까지 고종 때의 제천 행사를 위한 환구단 영역으로 파악되며, 건립 당시의 주변은 황궁우, 환구단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주변의 지형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현재의 주변 현황은 높은 빌딩 속에 가려져 있어 환구단(圜丘壇)이라는 장소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 따라서 고종 당시의 새롭게 확장된 덕수궁, 기념비전, 탑골공원, 독립문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한성의 신영역의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환구단 주변에 대한 경관 개선방안을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을 통해 향후 환구단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기본 방안을 제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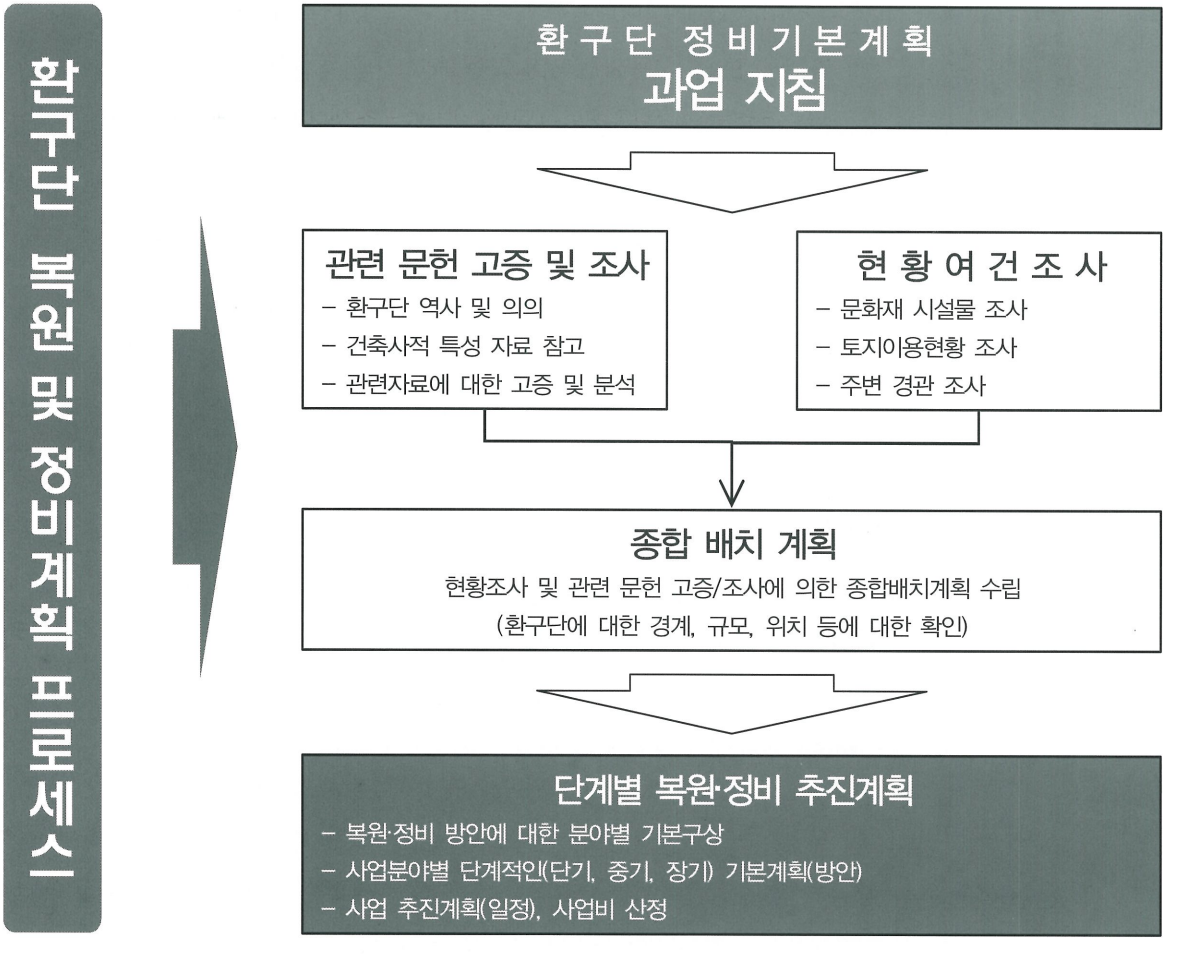
자 한다.

□ 또한 제천 행사를 위한 제천단으로써의 환구단 모습은 학술연구차원의 복원 영역 및 건립 당시의 환구단에 있었던 건축물에 대한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며, 현재의 주변 여건과 재정적인 예산 문제들을 고려한 현실적인 복원 및 정비 방안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럼으로 고종 당시 환구단의 모습에 대해 전반적인 영역을 이해하여 현재 문화재보호구역내(사적지)에서의 시설물 복원 및 정비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복원 정비 방향이 될 것이며, 향후에는 환구단 전체의 영역에 대한 복원자료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즉 현재의 시설물현황을 조사하여 단계적인 복원방향을 수립하여 현실적인 복원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고종 당시 제천 행사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문헌자료 및 대지여건을 조사 수립하여 중수(1902년) 당시의 모습을 찾기 위한 근거자료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 복원 및 정비 방안 수행방법



나. 현황 여건 조사

1) 주변 대지 검토

□ 일제시대에 작성된 지적도는 환구단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현재의 지적도와 비교하여 부지의 범위와 도로의 확장방향을 알 수 있고 주변의 대지 지적선과 가로를 분석하여 고종 때 제천행사 당시의 대문 및 담장의 위치도 추정 가능하다.

□ 따라서 현재의 환구단 주변 일곽의 현황을 파악하고 근래의 지적도와 일제시대의 지적도를 비교 · 분석하여 환구단의 중수(1902년) 당시의 부지를 파악할 수 있다.

□ 환구단 대지는 현재 황궁우가 있는 87-14번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의 부지인 1(롯데호텔), 87-1(조선호텔), 87-10(신세계백화점) 번지는 보호구역으로 함께 구획되어져 있으며, 현재의 보호구역과 고종 때 중수 당시 영역의 범위는 비슷하며 일부 도로 및 북측부지의 영역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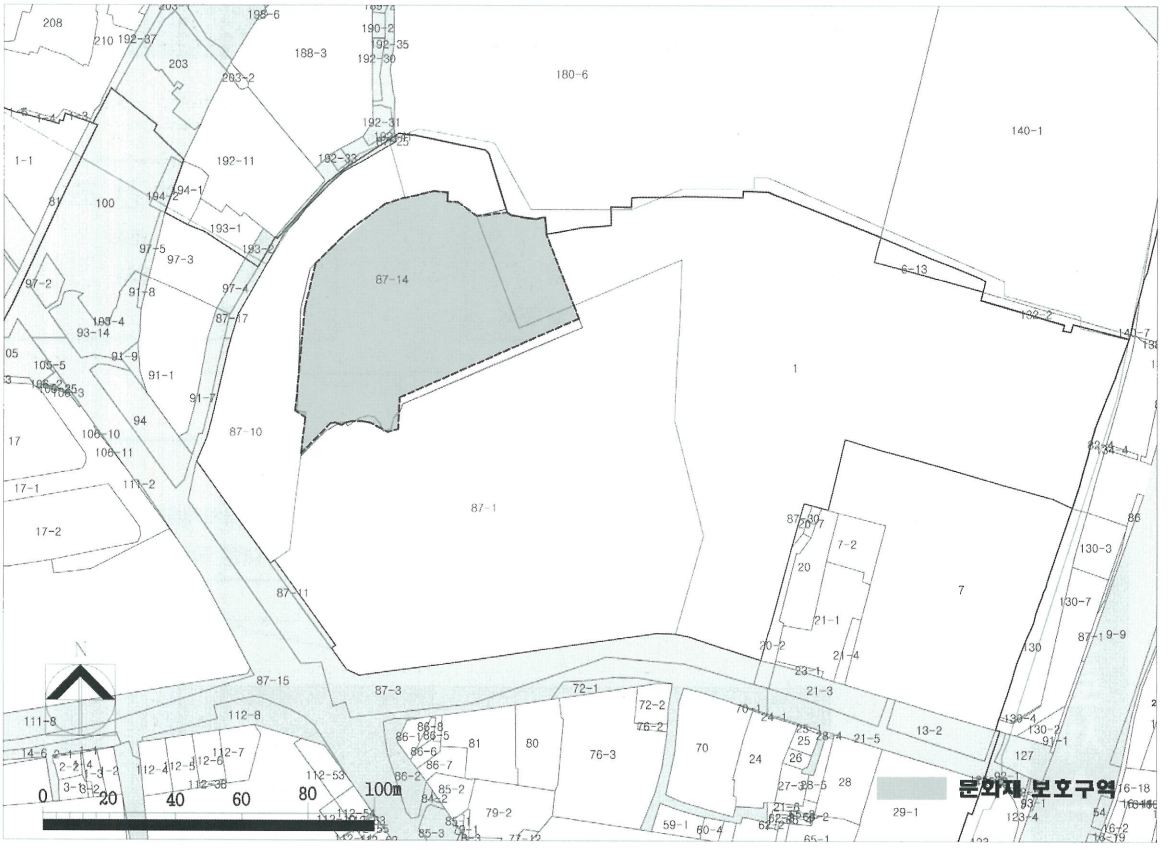


그림 4-1 현황 지적도

표 4-1 환구단 주변 토지 현황(1번지 및 87번지 대상 토지)

지번	지목	면 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소유자	건 물 개 요	비 고
1	대	11,943.2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도로(접함), 시장(저촉)	보호구역(일부) <문화재보호법>	주식회사 호텔롯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쇼핑센터 및 프라자 (지하3층/지상25층+옥탑2층, 1외 33필지)	
87-1	대	10,369.7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도로(접함)	보호구역(일부) <문화재보호법>	주식회사 조선호텔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1계건사무실1동, 건평15평	
87-3	도	1,871.10	일반상업지역, 도로(저촉)		국		
87-10	대	2,531.6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도로(접함), 주차장(저촉)	보호구역(일부) <문화재보호법>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4층 업무시설 및 주차장 (87-1, 87-10, 87-11, 87-12, 87-14)	
87-11	도	50.3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도로(접함)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4층 업무시설 및 주차장 (87-1, 87-10, 87-11, 87-12, 87-14)	
87-14	사	3,537.2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주차장(저촉)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한국관광공사	목조와즙 단층8각당 153.85㎡ 목조와즙 단층 정 문 3.34㎡	
87-15	도	4,065.4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저촉)	정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87-17	도	102.5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도로(저촉), 주차장(저촉)		서울특별시 중구		
87-25	도	2.0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도로(저촉)		서울특별시 중구		
87-30	대	26.2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시장		지이리얼 에스테이트 주식회사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12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4층/지상12층, 소공동20외 7필지)	

2) 주변 현황 및 경관

□ 현재 환구단에는 황궁우를 중심으로 석고단, 삼문, 협문 등이 있는데 이들의 배치와 현재 상태를 조사하여 건물의 용도와 건립연대 및 중수 당시의 위치 등에 대해 검토한 후 환구단의 복원·정비 방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황궁우 주변은 빌딩 숲을 형성하고 있어 환구단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황궁우, 삼문, 협문 등의 일부만 남아 있어 중수 당시의 주변여건은 많이 변화가 되었다.

□ 원래 환구단 자리로 알려진 황궁우 남쪽으로는 웨스턴조선호텔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황궁우 동쪽에 자리한 석고단은 서쪽으로 이전되고 그 자리에 롯데 주차장의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또한 황궁우 주변의 빌딩들은 황궁우의 건축물 높이를 압도하게 높게 되어 있어 중수 당시의 환구단의 상징적인 위상은 현재로써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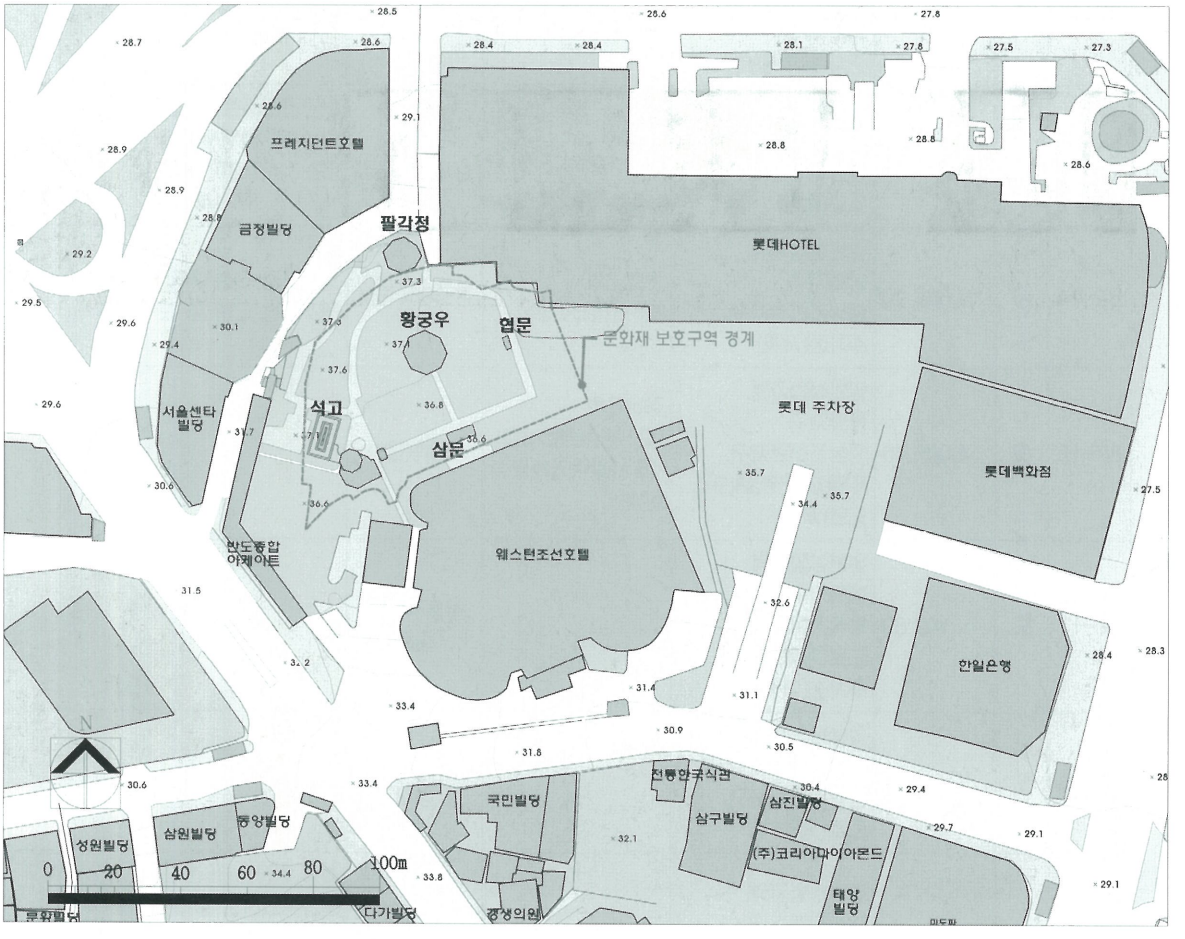


그림 4-2 현황배치도

□ 현재 있는 환구단의 영역 중 황궁우, 석고단 및 석고, 삼문, 협문 등이 있는 영역만 현존하고 있으며, 이곳은 현재 사적지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 현재 황궁우 주변에는 바닥의 잔디, 수목 등이 있어 본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원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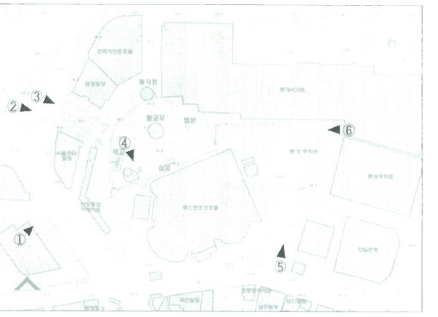


그림 4-3 경관 위치도



그림 4-4 ① 황궁우 주변 전경

□ 시청광장에서 황궁우를 본 전경으로 현재 중앙의 부분에 황궁우 지붕 상부가 보이며, 중간에 있는 곳은 시민광장으로 되어 있으며 양쪽에는 현재 빌딩이 있어 환구단의 주변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4-5 ② 시청광장에서 본 황궁우

□ 시민광장은 시청광장과 환구단 영역의 중간에 있는 오픈공간을 공원형식으로 조성하여 환구단 시민광장으로 불리고 있는 곳이다. 이곳을 통해 환구단과 주변 지형과의 관계를 엿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림 4-6 ③ 시민광장 전경

□ 황궁우와 조선호텔과의 연결 도로부분 이며, 조선호텔 자리는 원래는 환구단의 제천단 자리에 현재 웨스턴조선호텔을 건립하게 되었다. 조선호텔의 바로 뒤쪽에 있어 직접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연결통로 부분이다.



그림 4-7 ④ 황궁우에서 조선호텔 연결통로

□ 조선호텔 남쪽 도로에서 롯데호텔쪽을 본 전경으로 현재는 지상 및 지하 2층의 롯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 자리는 원래는 석고단이 있었던 자리로써 우측의 황궁우 영역보다는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그림 4-8 ⑤ 롯데 주차장(석고단 자리)

□ 롯데 주차장 지상에서 환구단 및 조선호텔쪽을 본 전경으로 황궁우의 상부 지붕이 약간 보이고 있다.



그림 4-9 ⑥ 롯데주차장에서 본 황궁우

다. 종합 배치계획

1) 대지의 형태와 경계

□ 환구단 대지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는 1912년에 제작된 지적도와 최근에 제작된 지적도를 비교하여 고종 때 중수(1902년) 당시의 환구단 영역 및 석고단 영역의 경계 및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 환구단은 1912년 지적도상 87대 지번 영역으로 보인다. 이 영역에 황궁우, 환구단, 제실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남쪽과 서쪽 경계부분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축소된 영역으로 원래는 서쪽 중앙선 부분까지 환구단 영역으로 파악된다. 또한 6대는 석고단이 있었던 영역이다.



그림 4-10 대지 경계(1912년 지적도에 현황도로 및 건축물 표시)

2) 공간 구성

□ 환구단은 각종 문헌 및 지도 등의 자료를 통해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현재 사적지로 남아 있는 황궁우 영역과 남쪽의 조선호텔 자리의 환구단 영역, 황궁우의 서쪽편(현재 반도 아케이드) 자리에 있었던 제실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환구단의 동쪽으로 현재 롯데백화점 및 주차장 자리에 석고단 영역으로 공간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간 구분은 환구단, 석고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각 영역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황궁우와 환구단을 기준 축으로 남북으로 배치한 후 부속실을 좌 · 우측에 배치하고 남쪽으로도 일부 부속건축물을 배치 한 것으로 보인다.

□ 환구단으로의 진입은 서쪽 남측에 있는 대문으로 진입하였으며, 석고단 영역의 진입은 동쪽의 진입문을 통해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환구단과 석고단을 연결하는 출입문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11 공간 구성도(조선지형도 1925년)

3) 각 시설물 복원 방안

□ 시설물 계획은 사전조사인 건축적 변화에 대한 고증에 의해 중수기인 1902년을 전·후 시기를 복원 시기로 하고 현재의 주변 현황, 시설물별 중수 당시의 관련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 본 용역에서는 규모 및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것 보다 환구단 본래의 영역 및 경계,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작성하였으며, 전체 및 건축물에 대한 복원계획도는 향후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고증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 환구단 영역의 주요 시설물로써는 제천단인 환구단과 황궁우, 황궁우 서동무, 재실, 전사청, 정문 등의 시설물 등을 들 수 있다.

(가) 환구단

□ 환구단의 중심 공간인 원단은 각종 기록으로 보아 기존 환구단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단을 구성한 시기인 1901년에 중수하면서 건립된 규모 및 형태로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 고증된 자료인 환구단 사제서의궤, 대한예전(장서각 소장)의 자료 및 관련 사진에서 보여지듯 환구단의 원단이 3단으로 구성되고 밖으로 원형의 담장을 설치하고 사방으로 황살문을 설치하였으며, 원형 담장 밖으로는 사각형의 담장이 독립적으로 원단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의 천단에서도 보이는 형식으로 황궁우의 영역과는 별도로 독립되도록 설치하고 있다. 또한 사각형의 담장의 사방으로 황살문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남쪽의 황살문은 3칸 규모의 황살문으로 설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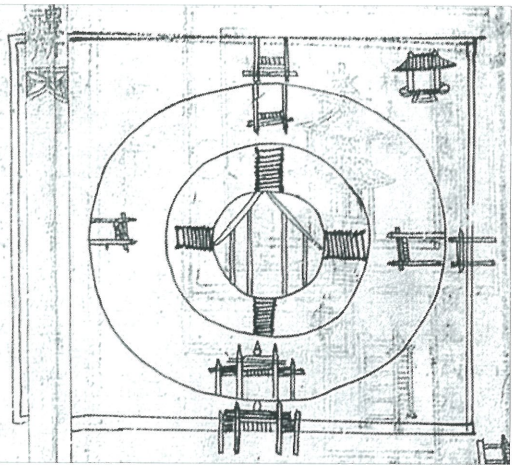


그림 4-12 대한예전의 환구단의 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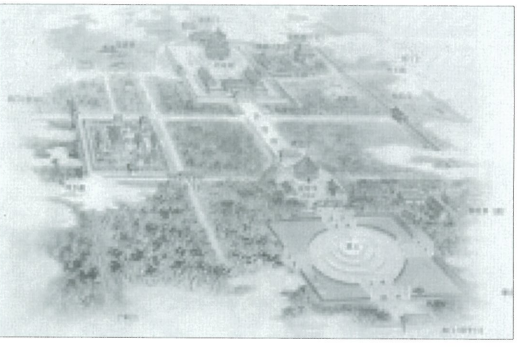


그림 4-13 중국 천단 전경

□ 원단의 규모는 사전 조사된 건축사적인 규모를 참고하여 단구성의 하단부의 규모를 33.7m의 지름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황궁우 영역

□ 황궁우는 현재의 모습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몇 차례에 걸쳐 개보수하면서 부분적인 변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황궁우에는 정문인 삼문과 동쪽에 협문이 있으며, 관련된 건축물은 중수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현재의 위치에 배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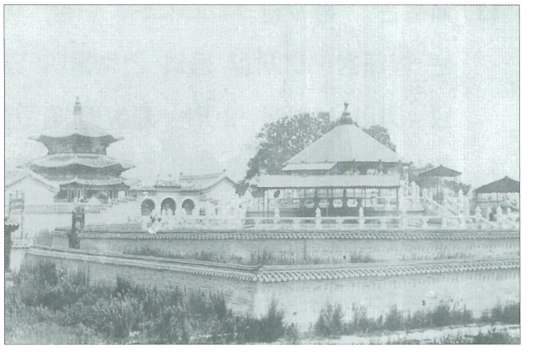


그림 4-14 환구단 및 황궁우 사진

□ 또한 황궁우의 전면에는 삼문이 조적식의 홍예문 형식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관련 사진에서 파악할 수 있듯 삼문 좌·우측으로는 직선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황궁우 안쪽으로 곡선형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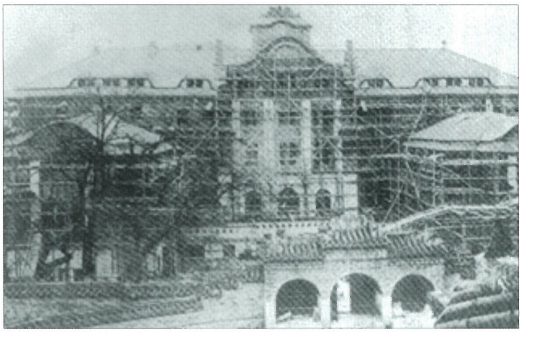


그림 4-15 황궁우 삼문 담장

□ 또한 황궁우 전면에는 동 · 서무가 좌·우 대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황궁우 전면을 기준으로 남쪽에 동 · 서무가 대칭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중국 천단의 경우도 황궁우 좌 · 우로 동서무가 대칭으로 설치되어 있다.

□ 그리고 황궁우 동측에 있는 협문은 현재의 위치에 있었던 문으로써 추측되며, 문 주변으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황궁우 정문인 삼문과 연결되어 황궁우 주변을 둘려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6 황궁우 및 동·서무, 협문

(다) 제실 및 기타 영역

- 제실은 "환구단 사제서의궤 도설" 에 나와 있는 향대청, 어제실 등의 건축물이 있으며, 종묘, 기타 능에서 보이는 재실을 참고하였으며, 제실은 중앙에 건축물이 있고 좌·우측에 건축물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 향대청은 제실 남쪽에 배치하고 있으며, 전사청은 황궁우 우측에 배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신실 영역을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환구단 사제서의궤 도설" 을 통해서 위치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
- 환구단의 정문은 (구)그린파크호텔의 정문인 백운문으로 확인되어 그 형식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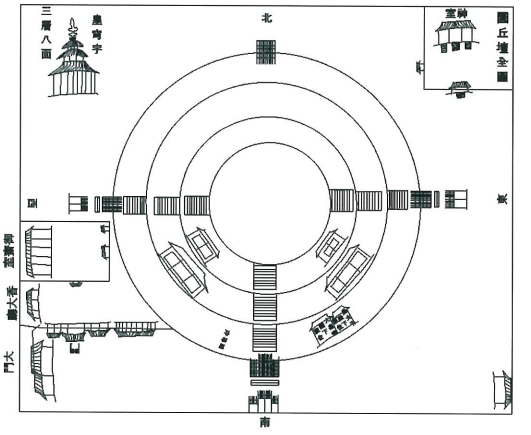


그림 4-17 환구단사제서의궤 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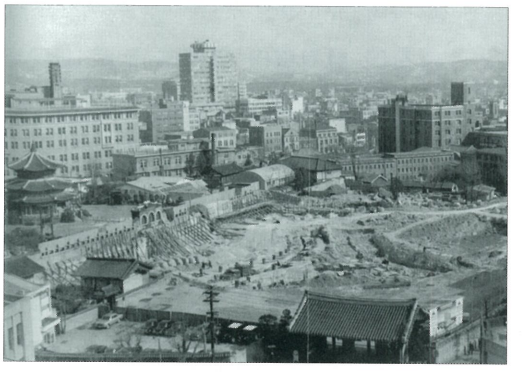


그림 4-18 조선호텔 건립 전 모습

(라) 석고단 영역

- 1921년 조선지형도에 있는 석고각의 위치 및 진입 정문을 위치가 되며, 석고각은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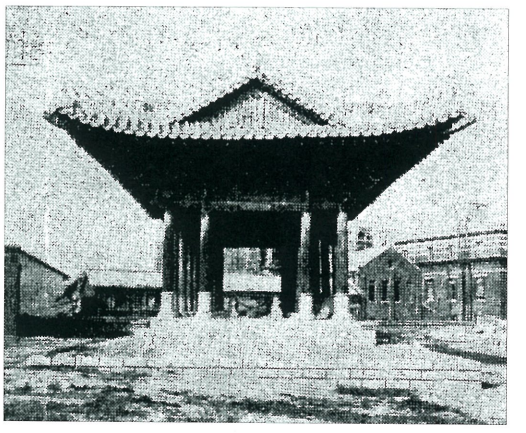


그림 4-19 중수 당시 석고각 모습

4) 경계 및 배치 종합

□ 환구단은 1912년도 지적도의 지적 경계와 1921년 조선지형도에 표현된 경계 부분이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12년 당시의 지적선을 경계로 담장이 있었으며, 조선지형도의 환구단 정문과, 석고단 정문의 위치를 통해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또한 환구단 내의 영역 경계 및 석고단의 경계는 조선지형도에 구획되어진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발견된 (구)그린파크호텔의 정문인 백운문이 환구단의 정문으로 확인되어 정문의 형식 및 규모를 알 수 있었다.

□ 각 영역내의 시설물은 건축적 변화에 의한 고증자료를 토대로 각 영역의 담장 내에 배치하여 추정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종합계획도은 각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활용되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복원도 작성은 별도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 규모는 1921년 지적도를 근거로 개략적으로 파악하였다. 환구단의 대지 면적은 약 22,651㎡(6,852평) 정도이며, 석고단의 대지 면적은 약 6,280㎡(1,900평) 정도의 규모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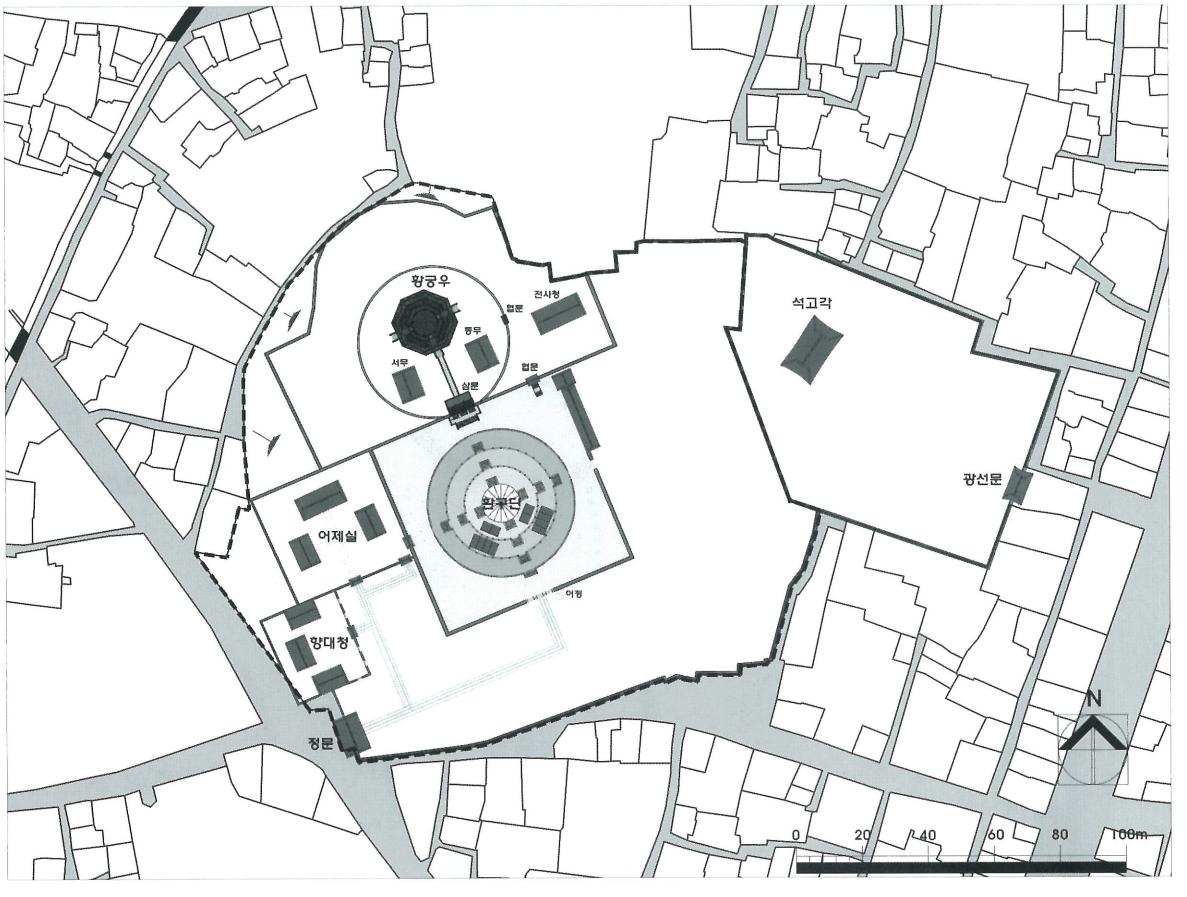


그림 4-20 경계 및 복원배치도

라. 복원 및 정비 방안

1) 기본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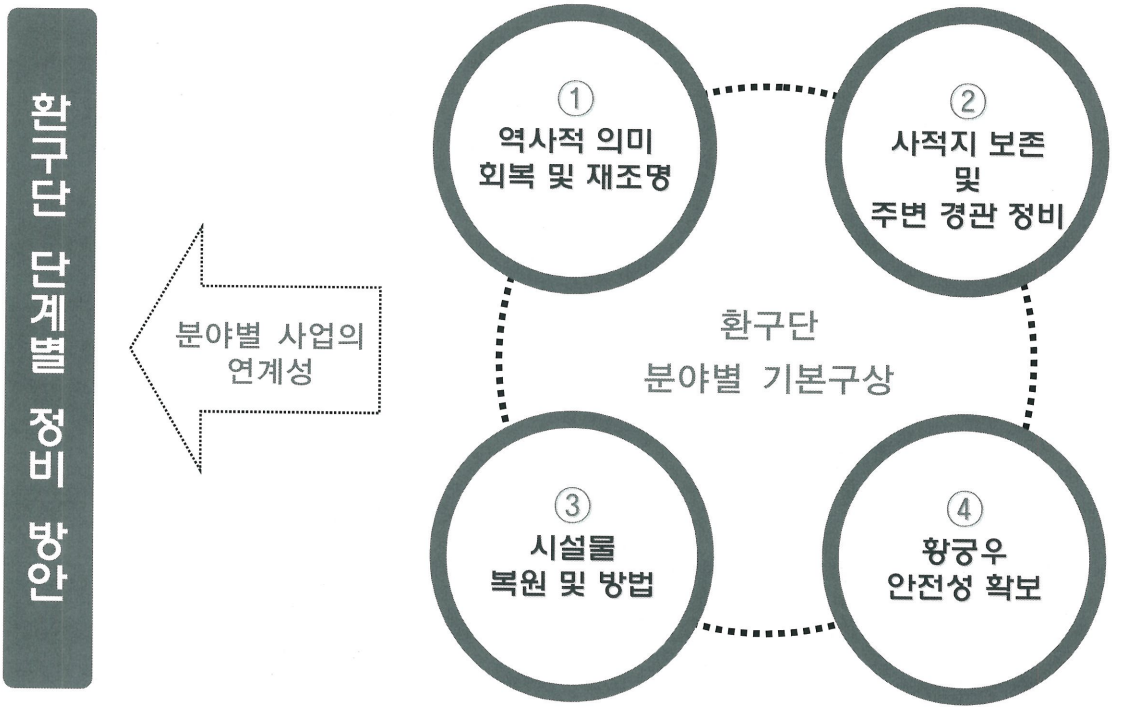
□ 환구단은 많이 변천과정을 통해 조성 당시의 본래 의미 및 문화재적인 가치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의 주변여건 또한 환구단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국민들로부터의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 역사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 현재 조사된 환구단 주변 여건과 관련문헌조사를 통해 파악된 종합배치계획 등이 확인되면서 앞으로 환구단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환구단의 의미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존 및 가치 찾기 차원에서 크게 4가지 분야별로 구분하여 환구단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방안 수립을 제시한다.

□ 또한 분야별 기본구상 및 계획을 서로 연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환구단의 단계별, 분야별 정비방안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본 구상도



2) 역사적 의미 회복 및 재조명

(가) 기본 방향

□ 환구단은 대한제국의 자주성과 황제권의 상징공간으로써 고종 황제의 즉위식 및 제례를 거행하던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 그리고 환구단에는 현재 남아 있는 황궁우와 훼손된 환구단, 제실, 전사청, 대문 등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는 황궁우만 현존하고 있어 환구단의 전체 영역과 규모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 따라서 환구단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 회복과 국민들에 대한 재인식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 단기계획은 안내사인 시스템 정비, 중기계획은 전시공간 확보를 통해 홍보, 전시,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장기계획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황궁우를 중심으로한 제천행사 시행하여 환구단의 의미를 찾는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본 방향

구 분	단 기 계 획	중 기 계 획	장 기 계 획
주요 사업	안내사인 시스템 정비	전시공간 확보	제천행사 시행
내 용	시뮬레이션 작성 시설물 설계 및 설치	홍보, 전시, 관리 재천행사와의 연계	제천행사 재현 관련 단체와 연계
계획 목표	역사적 가치 이해 및 건립 의의 재조명 중수 당시의 모습 전시 및 대국민 홍보 제천 행사 재현을 통한 문화행사 홍보 및 문화재 활용 활성화		

(나) 안내사인 시스템 정비(단기계획)



그림 4-21 환구단 안내판(현황)

□ 현재 환구단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에는 환구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환구단의 본래 규모 및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안내사인이다.

□ 따라서 현재 환구단으로 출입하는 3개소에 환구단의 조성 당시의 모습 및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과 제천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여 명실공히 대한제국시기의 제천행사 공간으로써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계획 내용

- 복원 관련 시뮬레이션을 작성 우선 시행
- 환구단 진입로 주변에 종합 안내판 디자인 및 설치 (문화재청, 「경복궁, 창덕궁 문화재 안내판 개선」 참고)
- 각 시설물별 안내사인, 방향표시판 디자인 및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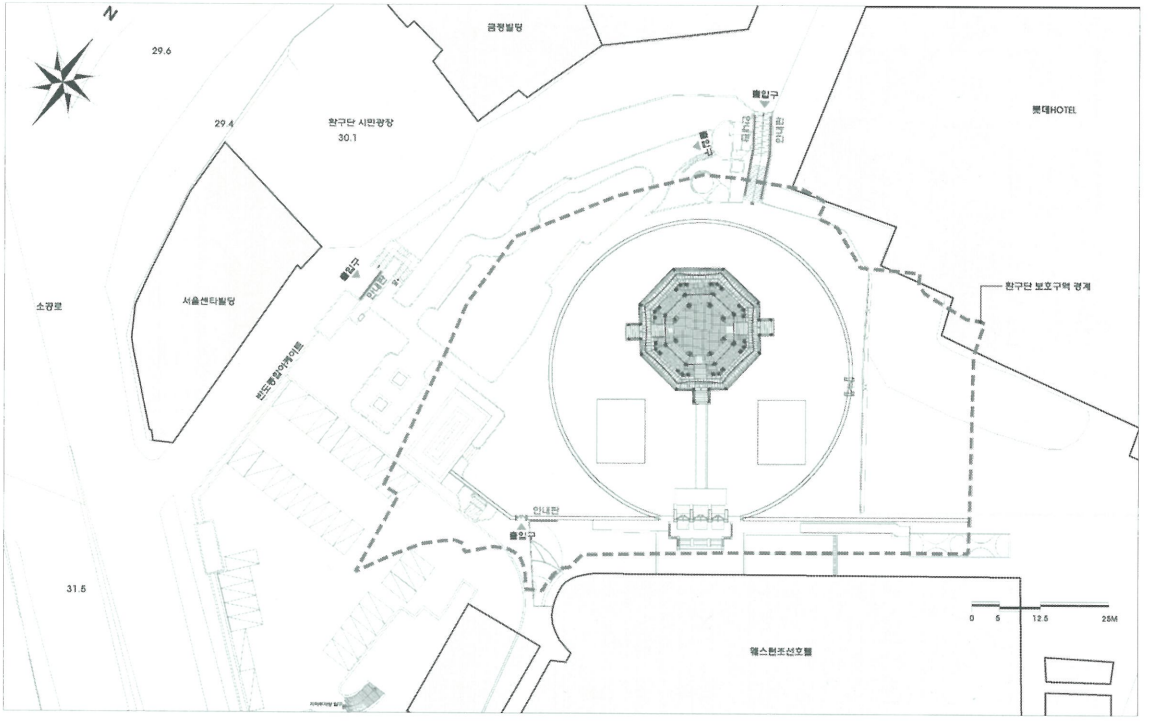


그림 4-22 안내사인 설치 계획도

(다) 전시공간 확보(중기계획)

□ 단기적으로는 안내사인을 통해 환구단에 대한 역사적 의미을 찾고 구체적인 전시공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환구단 관련하여 체계적인 전시,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환구단의 의미 및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사적지내(환구단 보호구역 경계)에 있는 지하공간은 조선호텔 지원업무부서 및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 시민광장과 인접한 조선호텔 지원업무부서 1층 일부를 우선 행정 지원(임대, 매입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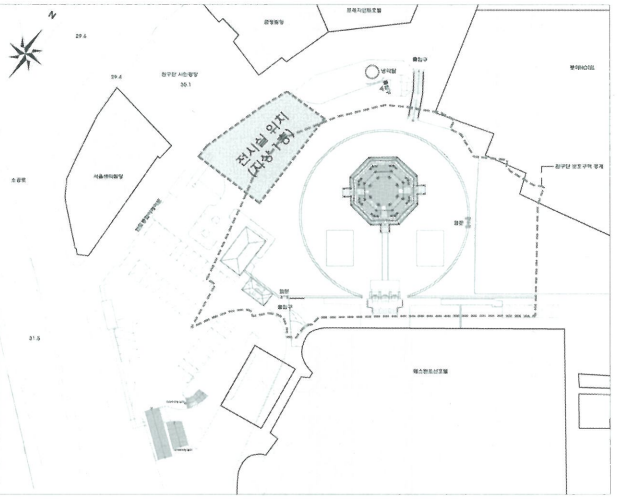


그림 4-23 전시실 위치

□ 전시공간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덕수궁과 시청앞 광장, 그리고 환구단 시민광장을 연결하는 오픈공간의 연계를 통해 환구단의 본래 경관을 확보하여 관람객의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결정한다.

□ 계획 내용

- 전시실 기능 = 환구단 관련 자료의 전시, 홍보, 관리 등의 기능 + 재현행사 준비공간
- 전시공간은 단기계획의 “지하공간의 정비/활용” 방안 연구시 함께 계획 수립

(라) 제천행사 재현(장기계획)

□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조성당시 제천행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 덕수궁과 환구단의 연계성을 확보 한다. 또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행사를 재현하도록 한다.

□ 계획 내용

- 제천행사 관련 절차 및 행위에 대한 연구
- 지하공간(전시공간)의 일부를 준비공간으로 활용
-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한 행사 계획 수립

3) 사적지 보존 및 주변 경관 정비

(가) 기본 방향

□ 현재 사적지 경계는 황궁우를 중심으로 삼문, 협문, 그리고 석고단(현재 위치)을 포함한 경계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 사적지 경계내에는 현재 황궁우를 주변으로 잔디식재, 수목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또한 조경석, 가로등, 석물, 배수로, 냉각탑, 각종 설비라인 등은 황궁우 경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이 있다.

□ 또한 사적지내 경계내에 시민광장방향으로 지하공간(업무시설, 주차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황궁우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고 환구단 주변으로는 고층 빌딩이 건물 숲을 형성하여 환구단의 주변지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사적지와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과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구단의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정비하여 환구단의 경관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본 구상

구 분	단 기 계 획	중 기 계 획	장 기 계 획
주요 사업	동선/황궁우 주변 정비	주변 경관 정비 방안	지하공간 정비 및 활용
내 용	진입로 개선 정비 시설물, 수목 제거 및 이전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경관 훼손 요소 정비방안 지하공간 지상 수목제거	지하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동선체계 정비 시민광장과 연계
계획 목표	환구단의 문화재적 가치에 적합한 시설물 도입으로 문화재 주변 정비 주변 경관 저해 요소에 대한 정비를 통한 문화재 주변 경관 확보 문화재 구역내의 개발 및 활용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방안 수립		

(나) 동선 및 황궁우 주변 정비(단기계획)

1) 진입로 개선 정비

□ 황궁우 조성 당시의 출입구는 삼문, 협문을 통해 진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삼문, 협문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개설한 3개의 진입로를 통해 황궁우 건물로 진입이 가능하다.

□ 사람들이 주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조선호텔에서 진입하는 길로써 삼문 옆으로 확장한 담장과 지하공간으로 출입하는 유리박스 사이의 통로를 통해 진입하도록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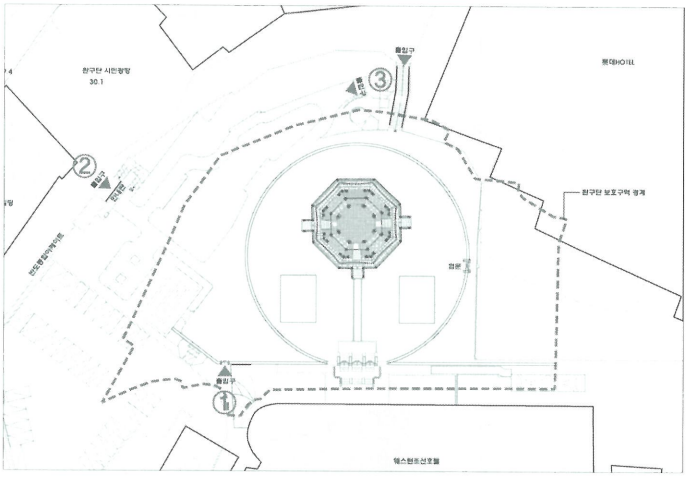


그림 4-24 황궁우 진입로

□ 이곳 출입 통로를 통해 진입 후 우측으로는 황궁우가 있으며, 황궁우를 따라 가면 배면으로는 프레지던트 호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황궁우 중간 수목공간과 시민광장 사이에도 좁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황궁우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4-25 조선호텔측 진입-①



그림 4-26 프레지던트호텔측 진입-②



그림 4-27 시민광장측 진입-③

□ 현재 3개소의 진입로는 주변의 고층빌딩 및 지하공간으로 인하여 환구단으로의 진입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의 시설물들이 있어 환구단의 진입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환구단으로의 진입은 삼문, 협문에 의해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현재 진입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 환구단의 문화재적 가치 및 전통적인 분위기에 적합한 진입로가 되도록 한다.

□ 조선호텔 측에서의 진입로에 협문을 설치하고 주변으로는 삼문과 연결하는 전통 담장을 설치

하여 진입을 유도하도록 하며, 프레지던트 호텔측과 시민광장측에서의 진입계단 및 주변 벽체에 전통적인 분위기의 석축을 타일형식으로 부착하여 문화재 주변에 전통적인 양식을 도입하여 정비한다.

2) 수목 제거 및 시설물 정비

□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팔각형의 황궁우의 주변은 현재와 같은 정원으로 꾸미지 않고 황궁우와 동·서무 건축물로 구성되었으며, 건축물 사이의 포장은 현재와 같이 잔디 및 석물, 식재 등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의 공간으로 고증에 의해 정비한다.



그림 4-28 황궁우 주변 조경석 및 수목

□ 현재 황궁우 주변에는 정원 형식의 수목들이 산재하고 있어 환구단으로써의 상징성 및 본래의 모습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되어 주변의 수목에 대한 이식 및 제거가 되어 황궁우와 어울리도록 한다.

□ 또한 황궁우 계단 주변에 있는 수목은 이식하고 조경석을 설치하여 전통적인 조경형식과 맞지 않는 시설물을 정비한다.



그림 4-29 삼문 주변 수목

□ 황궁우 전면의 삼문 좌 · 우측 주변 방향으로 난간석과 수목 및 석물 등이 산재하여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은 중수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근래에 조선호텔과 지하주차장을 정비하면서 추가로 설치된 시설물로 보인다.



그림 74-30 황궁우 주변 수목

□ 그리고 황궁우 주변에는 잔디뿐만 아니라 초화류 및 관목류가 현재 난간석 안쪽(화강석 포장)으로 식재되어 있어 정원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 따라서 황궁우 주변에 있는 수목, 조경석, 시설물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가 되어 황궁우 주변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황궁우을 둘러싸고 있는 난간석, 앙구일구, 협문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하여 한 곳에 일곽적으로 보존하여 정비하는 것을 제시하자 한다.



그림 4-31 앙구일구

3) 야간 경관 정비

□ 황궁우 주변 및 보행로에는 조경등 및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행로 확보 및 황궁우를 비추어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있다.

□ 현재 보행로 주변은 유도등 형식으로 하여 조명기구가 바닥 상부에 돌출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황궁우 정면진입로와 삼문 주변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황궁우 주변에는 황궁우를 투광조명하는 조명기구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림 4-32 야간 경관 현황

□ 그리고 가로등의 형태는 일반적인 주철 형태의 도출형 가로등으로 황궁우 전면과 배면에 각각 설치되어 있어 황궁우 건축물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 따라서 현재 황궁우 주변에 야간 조명방법은 정원형식 위주의 조명시설물은 제거하고 황궁우 건축물 중심의 조명계획을 하고 황궁우 주변의 표면상부에 도출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황궁우 주변외곽에 보행등, 가로등을 설치하고 전통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그림 4-33 가로등 현황

(다) 주변 경관 정비 방안(중기계획)

1)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 현재의 환구단 주변은 건립 당시의 지형적인 경우와 경관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원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환구단의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규칙 제18조의 제2항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 제 58조에 따라 동 지침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 조례 제14조 2항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다.

□ 허용기준 마련 절차는 시군구청장이 허용기준안을 작성하여 시·도문화재 위원회의 검토를 걸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문화재청 행정지침-제25호) 제 5조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4-34 문화재 보호법 제5조 (허용기준 마련절차)

□ 환구단은 현재 사적지(보호구역) 밖 100미터 이내로 정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로 중수당시의 환구단 영역에 대한 기준안도 함께 검토한다.



그림 4-35 환구단 주변 검토 범위 현황

2) 경관 훼손 요소 정비방안

□ 황궁우 주변 사적지 내에는 현대적인 공간들이 들어서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시설물인 냉각탑, 배기휀 등이 황궁우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도록 황궁우 주변에 산재하여 있다.

□ 이들 시설물은 조선호텔, 지하공간(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조선호텔 관리부서)의 부속 시설물로 사적지내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변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하여 문화재 경관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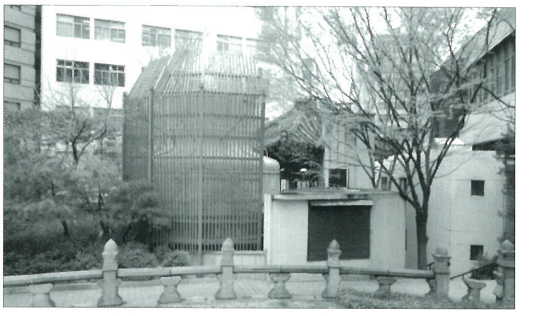


그림 4-36 북쪽 실외기 및 정자 부분

□ 특히 황궁우 북쪽에 있는 냉각탑, 남쪽 조선호텔 배면에 있는 각종 설비부분은 문화재 경관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로 현재 나무 가설물을 설치하여 냉각탑을 둘러싸고 있다. 그럼으로 냉각탑, 각종 설비 시설물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밖으로의 이전 설치하고 차폐벽(전통 담장, 가설물 담장)을 설치하여 문화재 경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4-37 남동쪽 조선호텔 배기휀

□ 또한 조선호텔과 지하 주차장 공간의 보행자 동선을 연결하고 있는 육각형 유리 박스는 현재 지하공간 주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리박스를 통해 지하 공간 지상 1층으로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계단등과 연결되어 지하 4층 주차장과 연결되는 수직 동선으로 유리박스의 형태를 제거하고 담장과 연계하여 전통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림 4-38 지하주차장 출입구(유리박스)

□ 시민광장과 연계되는 정원 수목은 현재 시청 앞 광장 및 덕수궁의 대한문 앞에서 볼 때 황궁우가 가려보이지 않도록 수목을 제거하여 황궁우 건축물이 시청광장에서 시민광장과 연속해서 보이도록 한다.



그림 4-29 황궁우와 시민광장 사이 수목

(라) 지하 공간 정비 및 활용

1) 정비 방향

□ 신세계 아케이드 지하주차장 일부가 환구단 사적지 경계 안으로 지하공간이 형성이 황궁우 건축물과 인접하여 배치되고 있어 현재 황궁우 건축물의 침하현상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지하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경계측량 시행 및 지하주차장 소유자와의 협의 및 행정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 그리고 현재의 지하공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리주체, 소유자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단계별 계획

- 단기 계획 : 지하공간 정비 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
- 중기 계획 : 지하주차장 일부 정비

  [사적지 내 지하공간 일부 정비(전시공간 활용), 동선 계획, 지상수목 제거]
- 장기 계획 : 지하주차장 정비 및 활용

  (지하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동선체계 정비, 시민광장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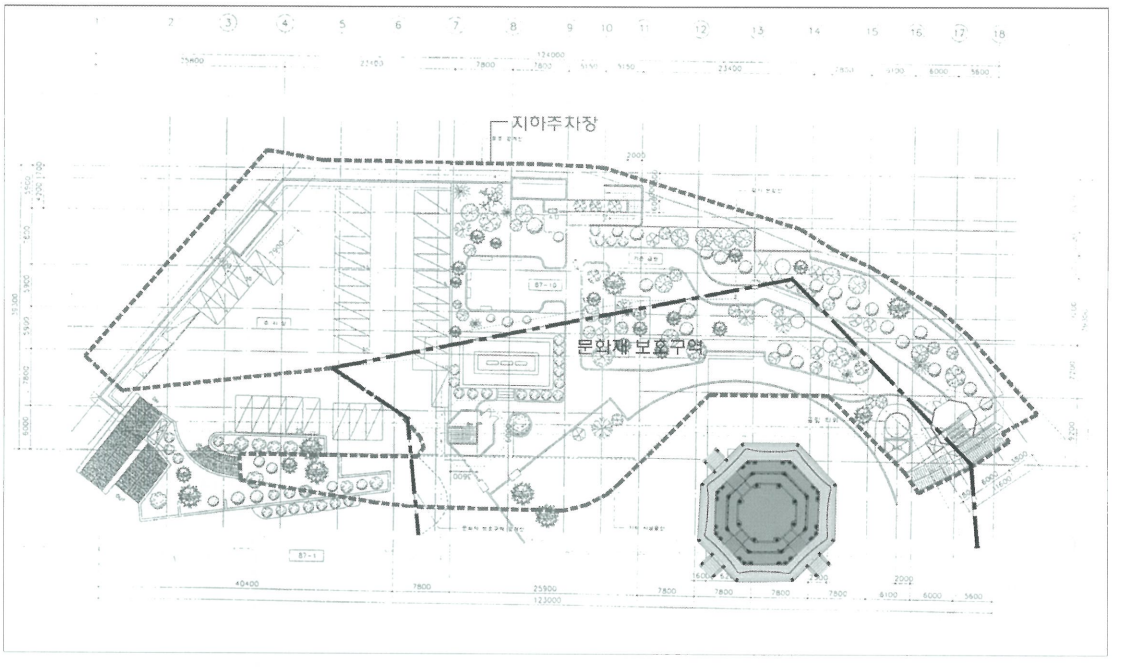


그림 4-40 황궁우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지하주차장영역 경계

□ 지하공간 개요

- 건 물 명 : 반도조선아케이드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용도 및 규모
  - 1층(업무시설) : 3,2673.94㎡
  - 지하1층(업무시설) : 3,561.88㎡
  - 지하2,3,4층 (주차장)
  - 총 연면적 : 17,736.41㎡



그림 4-41 지하주차장 출입구(배면)



그림 4-42 지하주차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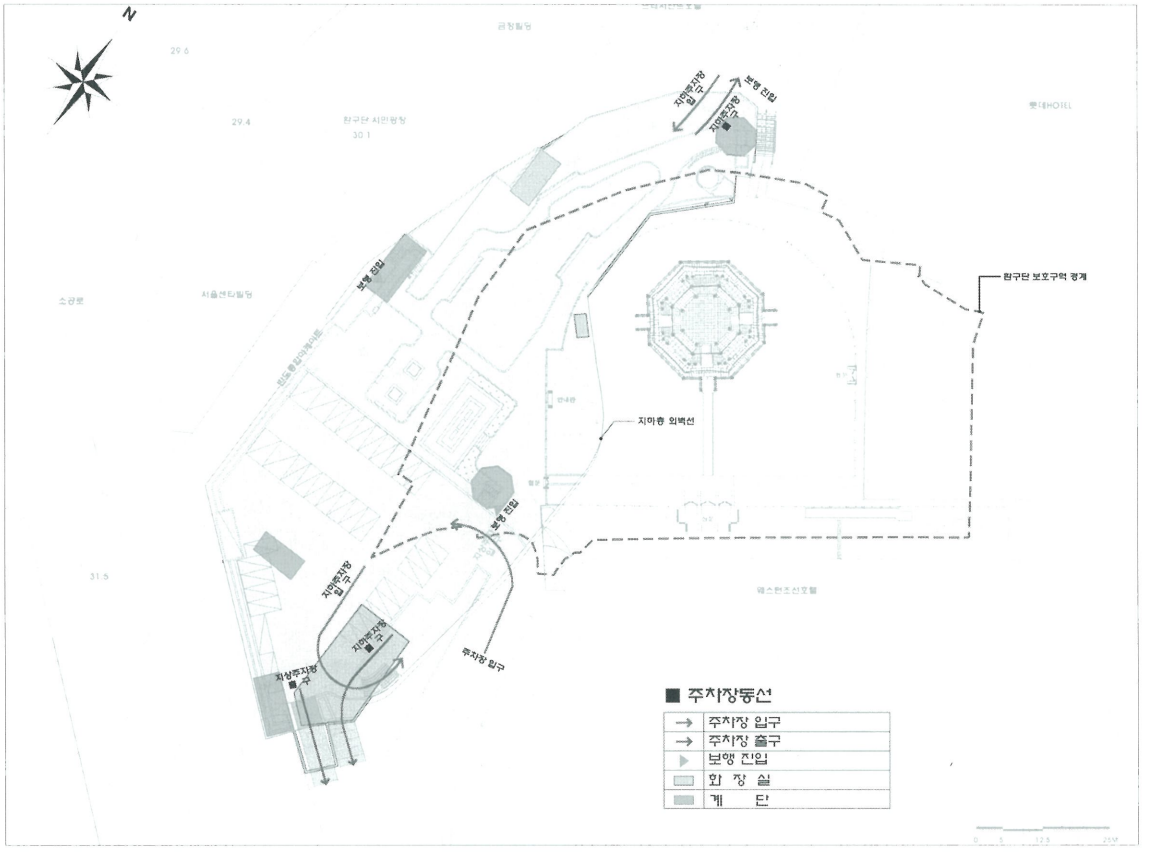


그림 4-43 지하공간 현황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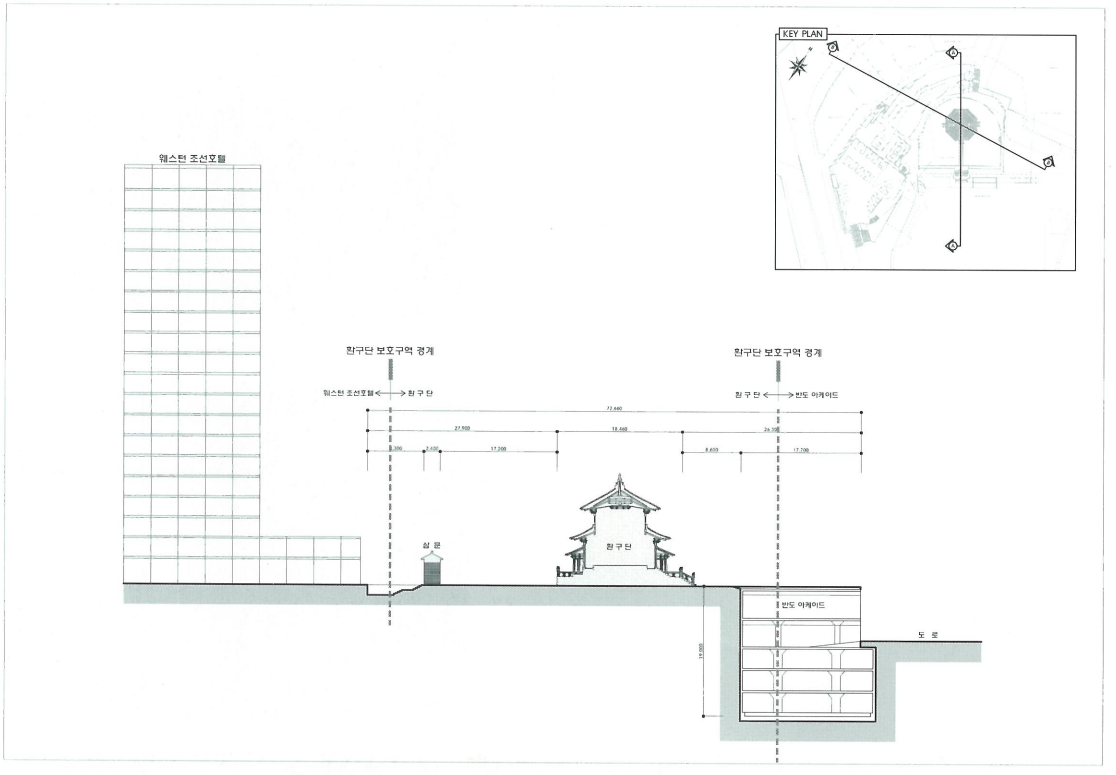


그림 4-44 지하공간 A-A'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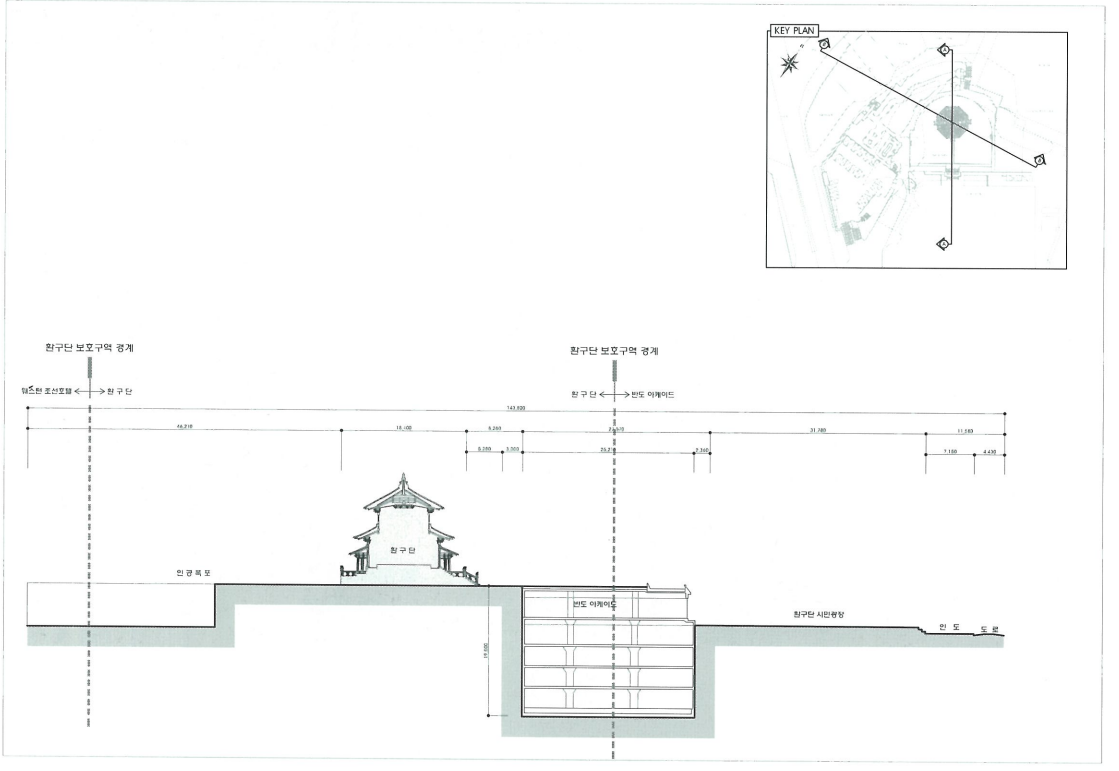


그림 4-45 지하공간 B-B' 단면도

□ 그리고 현재 황궁우 북서쪽 방향(지하공간 출입구에서 약 4m 도로변 건너편)에는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광장을 “환구단 시민광장”으로 불리고 있다.



그림 4-46 시민광장 전경

□ 현재 시민광장은 소공동 97-3번외 2필지로써 2000년 9월 8일 광장 공사를 계획하여 10월 23일 완료하였다. 광장의 면적은 총 1,183㎡(358평)이며, 광장부지 813㎡, 전면보도 112㎡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상사용도로부지 156㎡, 폭포 앞 도로부지 102㎡가 함께 조성되어 있다.

□ 시민광장은 환구단의 주변지형의 원형을 일부 확인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덕수궁, 시청광장과의 공간 연속성을 형성하기 위해 동선, 시각적으로 연계하여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47 시민광장과의 공간 연계

표 4-2 시민광장 주변 토지 현황

관할동	지번 지목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다른법령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토지소유자	건축물 개요	비고
소공동	97-3 대	469.60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광장(미관광장), 도로(접함)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서울특별시		
	97.4 대	72.7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도로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명칭)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을지로 1가	193-1 대	197.6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광장(미관광장), 도로(접함)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서울특별시		
	193-2 대	43.7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도로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명칭)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194-1 대	145.8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광장(미관광장), 도로(접함)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서울특별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지하1층/지상7층)	

□ 현재 시청광장에서 환구단을 보면 시민광장 양 옆의 빌딩으로 환구단으로써의 본래 경관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 곳 시민광장을 통해서만 이 환구단의 지붕 상부만을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시민광장, 폭포, 주차장 상부 수목 등의 정비를 통해야 일부라도 환구단의 주변 경관을 복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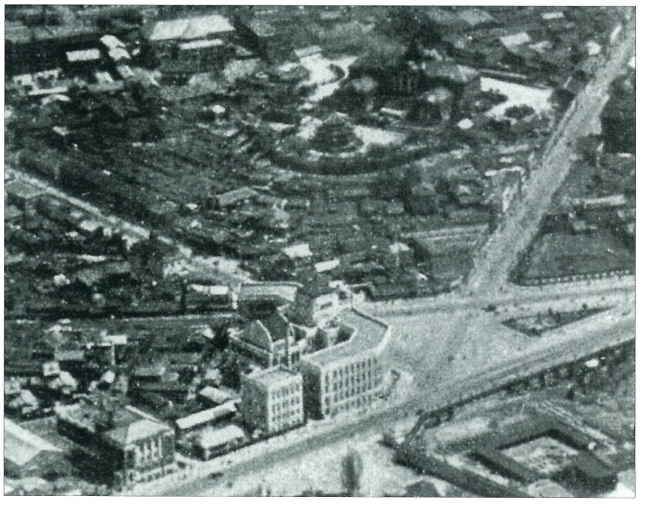


그림 4-48 서울 20세기100년의 사진기록 p88
촬영시기 : 1930년대 중반

4) 황궁우 안전성 확보(장기계획)

(가) 기본 방향

□ 황궁우 구조 안전진단결과 황궁우는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인 주의관찰에 의해 해체 및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황궁우 변형조사결과 현재 북동쪽(지하 공간인 주차장, 업무시설)방향으로 최대 처짐 구간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틀림 방향은 평면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시계방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4-49 황궁우 지붕 전경

□ 이에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현재의 황궁우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구조전문가에 의한 계측조사를 통한 해체복원 시점의 절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기본방향

구 분	단 기 계 획	중 기 계 획	장 기 계 획
주요 사업	계측 관리	계측 및 시점 결정	황궁우 해체 및 복원
내 용	구조전문가에 의한 계측조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계측관리를 통한 해체복원 시점 결정	기단부 이상 해체복원 기초지반 안정화공사

계획 목표	황궁우 구조물에 대한 보존관리체계 방안 수립 현존하고 있는 환구단의 중요 문화재인 황궁우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나) 해체 복원 계획

□ 황궁우 건축물은 2006년 8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황궁우는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 상태에서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도 정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요구된다.[299]라는 결과가 나왔다.

□ 현재 황궁우 기단석의 암석은 기계적 및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하여 부서지거나 화학적으로 분해 되어진다.[300] 이러한 풍화로 인해 황궁우와 관련한 월대와 기단은 대부분 표면박리가 발생하였고, 환경적인 영향과 시멘트 모르타르의 무분별한 보수로 인하여 시멘트 모르타르의 풍화도 발생하여, 보수부위 주변이 검게 변색되거나, 때로는 하얗게 표백된 등의 변형이 되고 있다.

□ 또한 현재 반도아케이드 부분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북서쪽 방향으로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써 월대 상부로 연결되는 계단의 F4-G4열의 계단의 부동침하가 발생하였으며, 변위조사결과 최대 처짐 구간이 대체적으로 D~F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틀림 방향은 평면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시계방향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러한 양상에 대해 원인은 첫째 환구단 주변 지하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나 공동의 침하, 목재의 건조, 소로의 쪼개짐, 살미의 변형, 창방의 뒤틀림 등으로 추정되었다.[301]

□ 따라서 황궁우 전체에 대한 해체 및 복원은 정기적인 정밀한 모니터링(변위, 변형 3D 스캐닝) 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변위 상황을 조사하여 해체 및 복원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판단하여 해체 및 복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중기 계획시 해체 및 복원시 건축물의 지반에 대한 기초 보강 및 지반 안정화 작업을 동시에 하여 황궁우 기초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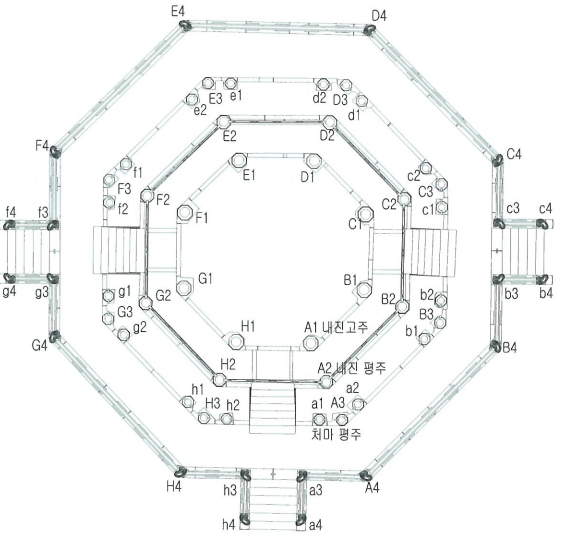


그림 4-50 황궁우 변형 조사 위치

299) (주)건양구조, 환구단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006.8, 1페이지
300) 문화재 보존과학 연수교육교재, "이상헌, '석조문화재의 암석의 풍화에 대하여' "
301) (주)건양구조, 환구단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006.8, 4페이지

5) 시설물 복원 및 방법

(가) 기본 방향

□ 환구단은 1902년 중수당시의 모습과 위상면에서 많은 변화를 걸쳐 현재는 황궁우 및 삼문만이 남아 있으며, 중수 당시의 영역내에는 새롭게 건립된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다.

□ 따라서 단계적으로는 현재 남아 있는 황궁우 영역 주변에 대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황궁우 전면의 환구단 영역과 제실, 전사청 영역까지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황궁우외 다른 영역에 대한 복원은 기존 건축물의 소유 및 노후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 그리고 환구단 동쪽의 석고각 영역에 대한 향후 복원계획 및 현재 황궁우 서남쪽에 있는 석고단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또한 현재 환구단이 변형되면서 이전된 건축물들에 대한 조사와 현재 환구단 정문으로 조사된 (구)그린파크호텔 정문인 백운문에 대한 실측조사 및 이전계획 수립과 석고각 정문인 광선문이 동본원사로 옮겨졌다는 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이전 복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기본방향

구 분	단 기 계 획	중 기 계 획	장 기 계 획
주요 사업	발굴/실측 복원 설계	동·서무, 담장 복원	전체 복원(제안)
내 용	종합 복원도 작성 발굴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	동 · 서무 복원 원형 담장 복원 석고각 정비	환구단(원단) 복원 제실, 향대청, 전사청 복원 석고단 복원
계획 목표	환구단의 중수 당시의 모습 복원을 통한 환구단 본래 모습 찾기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고증 및 복원 자료화를 통한 복원 방향설정		

(나) 황궁우 주변 복원 계획

1) 동 · 서무(황궁우) 복원

□ 고증에 의하면 황궁우와 삼문의 사이에 동 · 서 방향으로 각각 동 · 서무가 있는 사진과 문헌조사를 통해 동 · 서무 존재가 파악되었으며, 중국에 있는 천단의 경우도 동 · 서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림 4-51 황궁우 전면의 동·서무 위치

□ 따라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동 · 서무에 대한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복원시 동 · 서무와 같은 시기에 건립된 건축물에 대한 조사에 의한 개략적인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 반의 규모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 동 · 서무의 위치는 관련사진을 통해 확인될 수 있듯이 황궁우 전면 기둥열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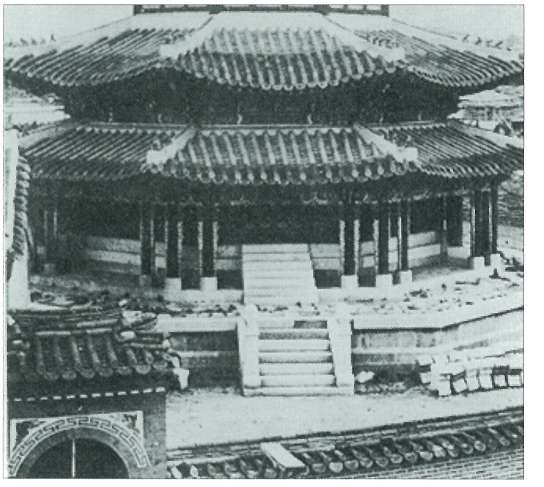


그림 4-52 중수 당시 황궁우 및 동·서무, 협문

□ 건축물의 형태

- 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반(반칸 퇴칸)
- 구조 : 목구조(외벽은 조적식)
- 지붕 : 맞배 지붕(양성), 막새기와

□ 계획 내용

- 대상 지역 발굴 및 유구 조사
- 동 · 서무 복원 : 1안 - 기단(터) 만 복원, 2안 - 건축물 복원

2) 출입문 및 담장

□ 황궁우 주변은 관련사진을 고증한 결과 황궁우 및 동 · 서무를 에워싸는 원형 담장이 정문인 삼문과 동쪽의 협문을 연결하는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원형의 담장은 지금의 난간석 경계와 일치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 원형 담장은 황궁우 월대에서 정면 계단을 올라가는 곳을 중심으로 반지름 23m 정도의 규모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 계획 내용

- 황궁우 및 동 · 서무 주변을 둘러싸는 담장과 기단석 설치
- 삼문 및 협문은 구조검토에 의한 보수 범위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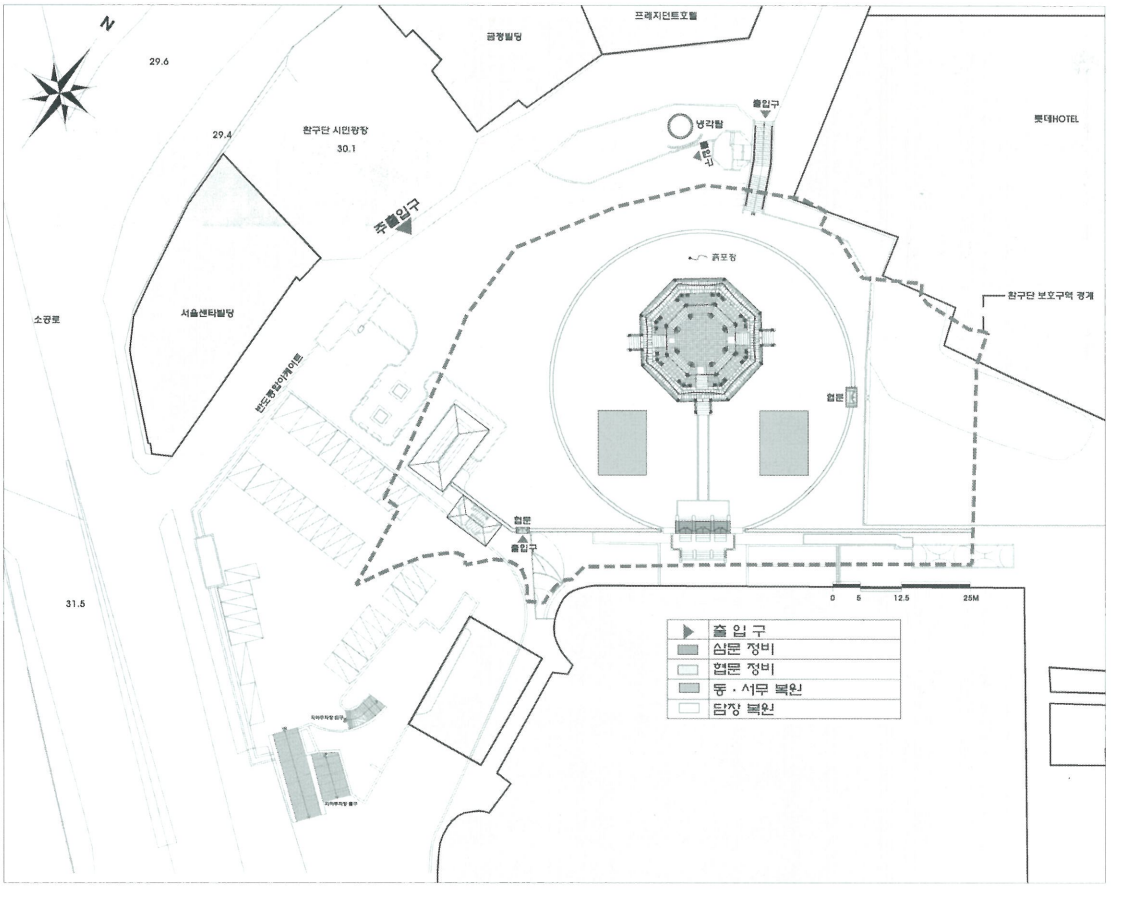


그림 4-53 황궁우 주변 정비 계획

3) 포장 공사

□ 황궁우 주변은 현재 잔디식재로 되어 있으며 삼도는 폭 1.8m의 잔다듬 화강석 포장으로 되어 있다.

□ 그러나 황궁우 주변은 잔디가 아니 다른 포장 마감을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삼문 주변의 박석 포장은 삼도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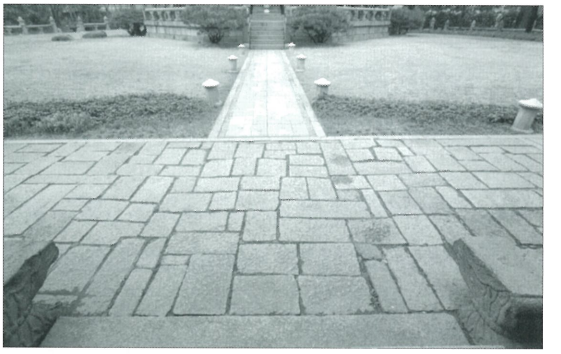


그림 4-54 삼문 주변 박석 포장

□ 계획 내용

- 황궁우 울타리 내의 잔디 제거 후 흙 포장
- 삼도 제거 및 재설치



그림 4-55 진입 포장 및 잔디식재

4) 정 문

□ (구)그린파크호텔 정문인 백운문이 환구단의 정문으로 확인되어 기존의 정문을 이전 복원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 우선 백운문에 대한 정밀한 실측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조사 내용에 의하여 해체 이전 보수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림 4-56 (구)그린파크호텔 정문(백운문) 현황

□ 환구단 중수 당시 정문 위치는 지금의 조선호텔 진입로(소공로)의 도로 중간으로 추정되며 이곳으로 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3장에서 제시한 4가지 대안 중 해체 및 이전을 할 경우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 계획 내용

- 정밀 실측조사 :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밀 현황조사
- 해체 후 이전 보수공사

(다) 석고단 정비 계획(중기계획)

4) 기본 방향

□ 석고단의 원래 위치는 롯데호텔 주차장 자리로 알려졌으며, 철도호텔이 건립되면서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었다.

□ 따라서 석고단으로 이전에 최종적인 정비계획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석고단은 외부에 노출되어 훼손이 진행되고 있으며 원래에도 석고단 위에 석고각을 설치하여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석고각은 사방이 개방된 건축물로 되어 있었다.(철도호텔이 이전하면서 촬영한 사진참조)

5) 정비 내용

□ 석고각 정비 안 제시

세워져 있는 석고를 누워서 재설치하고 석고각에 설치하도록 한다. 석고각은 2가지 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 1안 : 가변 시실물에 의한 구조물 설치

- 2안 : 사진을 참고한 한식목구조 복원

□ 그러나 석고단의 돌북의 변형부분은 고증에 의한 재설치하고 석고단 주변 석단 및 석고각 주변에 환구단의 역사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가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향후 원 위치 확보가 가능할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석고각을 원형 복원한다.

□ 또한 석고단 주변의 난간석, 계단 등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정비한다.

(라) 최종 복원(장기 계획)

□ 환구단의 최종적인 복원 목표는 환구단이 있었던 웨스턴 조선호텔, 제실 영역과 황궁우 북서쪽의 반도종합아케이드, 석고단이 있었던 롯데백화점 및 주차장, 일부 롯데 호텔 등이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주변 여건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서 주변까지를 포함한 완벽한 복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향후 관련 주변의 건축물 등의 훼손 및 노후 등으로 부득이하게 대상 부지내의 건축물이 없어질 경우에는 최종 환구단 복원의 목표는 1902년 당시의 중수 모습에 의해 환구단 및 석고단의 모습을 복원한다.

□ 복원 방안 수립은 장기 계획시 작성한 복원도 자료 및 추가로 발굴조사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원계획이 되어야 한다.

□ 최종 복원시 도입 가능한 시설물

- 웨스턴 조선호텔 자리의 환구단 복원
- 반도종합아케이드, 지하 주차장 자리의 재실영역(향대청, 어재실, 출입문) 복원
- 롯데백화점 및 주차장자리에 석고단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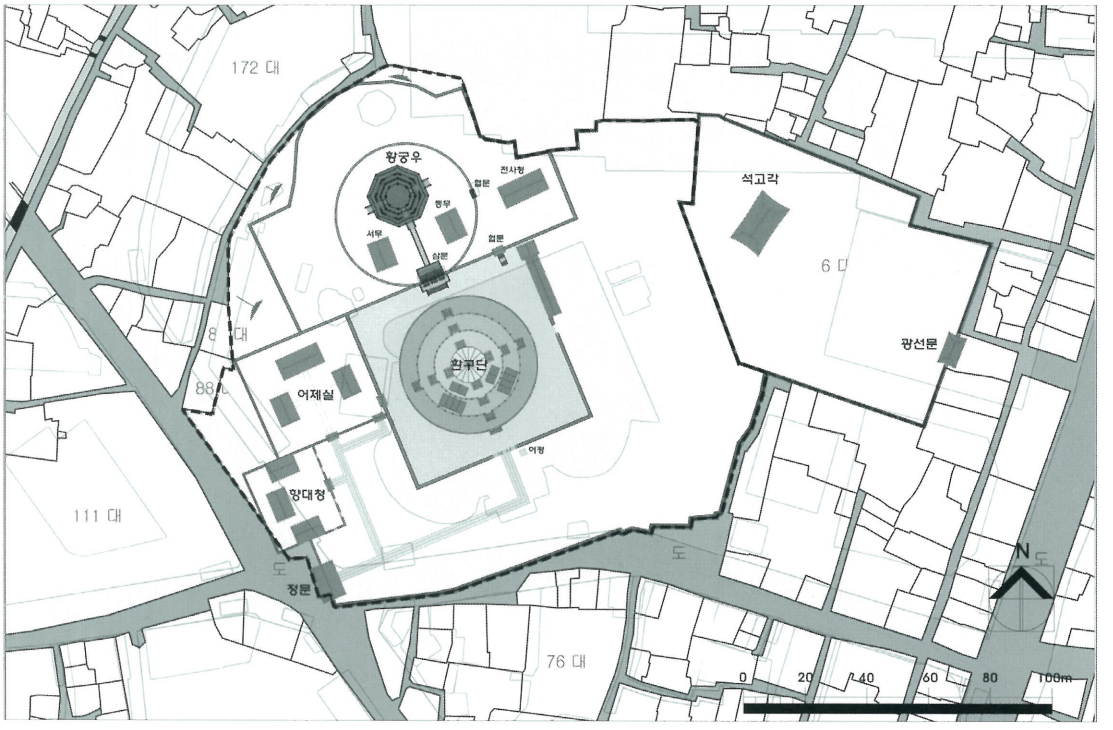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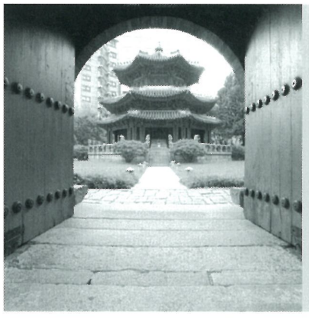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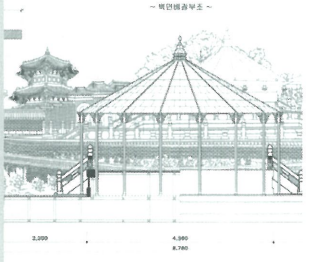
그림 4-57 최종 장기 복원 방안(현재 현황에 복원도 배치)

5장
사업 추진 계획









Ⅴ. 사 업 계 획

가. 기본 방향

(1) 전 제

□ 환구단의 주변을 복원 정비하고 고종 때 중수 당시의 원형모습을 복원함으로써 중구의 전통문화공간으로써 방문객에게 환구단의 상징성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전통문화공간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조사·연구·설계·시공과정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도·자문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유지 매입, 유적지 보존, 전통 건축물 조성 등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써의 위상에 맞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

(2) 기 본 방 향

□ 본 계획의 사업내용, 소요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성격상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단계별로 집중투자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단계별 사업의 구분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단기계획에 수립하고 중기, 장기계획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였다.

□ 또한 향후 단계별 사업내용에 따라 주변 대지소유자, 인근 관련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별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중 · 단기 계획, 장기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5-1 단계별 계획(총괄)

구 분	단기 계획(2008-2009)	중기 계획(2010-2012)	장기 계획(2013-)
역사적 의미 회복 및 재조명	1-1 안내사인 시스템 정비 - 시설물 설계 및 설치	1-2 전시공간 확보 - 기능 : 전시실, 화장실, 준비실 - 재천행사와의 연계성	1-3 제천행사 재현 - 관련 단체와 연계한 재현
사적지 보존 및 주변 경관 정비	2-1 동선 및 황궁우 주변 정비 - 진입로 개선 및 정비 (조선호텔 진입, 북쪽 진입) - 시설물, 수목 제거 및 이전	2-2 주변 경관 정비 -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 주변 경관 훼손 시설물 정비 - 시민광장과 연계되는 수목제거	2-3 지하공간 정비 및 활용 - 지하공간에 대한 용도변경 - 동선체계 정비 - 시민광장과 연계
황궁우 안정성 확보	3-1 계측관리 - 구조전문가의 의한 계측조사 -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3-2 황궁우 해체 및 복원 - 기단부 이상 해체복원 - 기초 지반 안정화 공사 ※계측관리 : 해체복원 시점 결정
시설물 복원 및 방법	4-1 종합 복원계획도 작성 4-2 발굴 및 실측 복원 설계 - 발굴 조사 - 동·서무 및 담장 복원 실시 설계 - 정문 해체이전보수공사	4-3 동·서무, 담장 복원 공사 - 동· 서무 복원 - 원형 담장 복원 - 석고각 정비	4-4 최종 복원(제안) - 환구단(원단) 복원 - 제실, 향대청, 전사청 복원 - 석고단 복원

나. 사업 계획

표 5-2 분야별 추진 일정

구 분		단 기		중 기			장 기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역사적 의미 회복 및 재조명	안내사인 시스템 정비							
	전시공간 확보							
	제천행사 재현						계 획	
사적지 보존 및 주 변 경관정비	동선 및 주변정비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기 준			
	주변 경관 정비							
	지하공간 정비/활용		계 획					
황궁우 안전성 확보	계측 관리							
	해체 및 복원							
시설물 복원 및 방법	황궁우 주변 정비 (동·서무 및 담장, 석고각)		발 굴					
	정문 해체이전							
	전체 복원(제안)	복원도 작성						

협 의 발굴/계획 설 계 공 사 장기계획

□ 소요사업비 산출

- 시설별 공사비 산출은 2007년도 평균 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물가변동/기타요소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 따라서 각 시설물의 규모 · 구조 · 재료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소요사업비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
- 대지매입비, 최종대안 제시, 지하 공간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예산을 제외한 순 공사비 관련 금액임.

표 5-3 소요 사업비 (안)

구 분		내 용		단위	규모	단가 (천원)	계 (천원)	단계별 추진(천원)			비 고
								단 기	중 기	장 기	
역사적 의미 및 재조명	안내사인 시스템 정비	설치공사	안내판 설치	개	3	15,000	45,000	45,000			
			방향표지판	개	5	3,000	15,000	15,000			
			안내 부조 설치	m	30	5,000	150,000	150,000			
			계				210,000	210,000			
		디자인 설계		식	1		21,000	21,000			설치비의 7% 적용
		소 계					231,000	231,000			
	전시실 확 보	건축공사(리모델링)		㎡	500	1,000	500,000		500,000		
		전시공사		㎡	300	2,000	600,000		600,000		
		실시설계		식	1		77,000		77,000		공사비의 7% 적용
		소 계					1,177,000		1,177,000		
합 계							1,408,000	231,000	1,177,000		
사적지 보존 및 주변 경관 정비	동선 및 주변 정비	진입동선 정비	전통 석축 및 계단	M	30	2,000	60,000	60,000			
			전통 담장	M	30	3,000	90,000	90,000			
			출입문(조선호텔)	㎡	5	5,000	25,000	25,000			
		수목제거 및 시설물 정비 (황궁우 주변)	철거 및 이전 공사	식	1	30,000	30,000	30,000			
			흙 포장	㎡	1,680	65	109,193	109,193			
			수목 정비	식	1	15,000	15,000	15,000			
			담장 설치	m	70.00	2,794	195,580	195,580			
			난간석 해체/이전	m	95	1,055	100,225	100,225			
		경관 조명	경관조명 기구	식	1	30,000	30,000	30,000			
			조명 설치	식	1	50,000	50,000	50,000			
		계					704,998	704,998			
		실시 설계		식	1		49,350	49,350			공사비의 7% 적용
		소 계					754,348	754,348			

구 분		내 용		단위	규모	단가 (천원)	계 (천원)	단계별 추진(천원)			비 고
								단 기	중 기	장 기	
사적지 보존 및 주변 경관 정비	주변 경관 정비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식	1	30,000	30,000		30,000		
		경관 훼손요소 정비	실외기 이전 및 정비	식	1	50,000	50,000		50,000		
			배기훼 가벽 설치	M	30	1,000	30,000		30,000		
			유리박스 철거	식	1	10,000	10,000		10,000		
			출입구 가변시설물 설치	㎡	30	2,000	60,000		60,000		
			수목 정비(시민광장)	㎡	600	100	60,000		60,000		
			전통 담장	M	60	3,000	180,000		180,000		
			계				420,000		420,000		
		실시 설계		식	1		29,400		29,400		공사비의 7% 적용
		소 계					479,400		479,400		
	지하공간 활용계획 수립			식	1		100,000	100,000			
	합 계						1,333,748	854,348	479,400		
황궁우 안전성 확보	계측관리			식	1	30,000	30,000	15,000	15,000		
	지반 안정화(황궁우영역)			식	1.00	179,000	179,000		179,000		견적
	황궁우 해체 복원			㎡	300.00	5,000	1,500,000			1,500,000	
	실시설계			식	1		105,000			105,000	공사비의 7% 적용
	합 계						1,814,000	15,000	194,000	1,605,000	
시설물 복원 및 방법	종합 복원계획도 작성			식	1	150,000	150,000	150,000			
	황궁우 주변 복원	동서무 복원	동·서무 발굴 조사비	식	1	50,000	50,000	50,000			
			동무 복원(기단)	㎡	54.00	1,500	81,000		81,000		
			서무 복원(기단)	㎡	54.00	1,500	81,000		81,000		
		출입문 및 담장	삼문 정비공사	㎡	15.00	4,000	60,000		60,000		
			협문 정비공사	㎡	4.00	4,000	16,000		16,000		
			담장 기단(원형) 설치	M	130.00	1,000	130,000		130,000		
		포장공사	삼도 설치	M	15.00	3,000	45,000		45,000		
		계					463,000	50,000	413,000	0	
		실시 설계		식	1		32,410	32,410			공사비의 7% 적용
		소 계					495,410	82,410	413,000	0	
	정문 해체	정밀실측조사		식	1	70,000	70,000	70,000			
		해체 이전복원 공사		㎡	60.00	8,000	480,000	480,000			
		실시 설계		식	1		33,600	33,600			공사비의 7% 적용
		소 계					583,600	583,600			
	석고각	정 비 공 사	가변 시설물 설치	㎡	80	1,500	120,000		120,000		
			석고 정비	식	1	10,000	10,000		10,000		
			계				130,000		130,000		
		실시 설계		식	1		9,100		9,100		공사비의 7% 적용
		소 계					139,100		139,100		
	합 계						1,368,110	816,010	552,100	0	
총 예 상 사 업 비							5,923,858	1,916,358	2,402,500	1,60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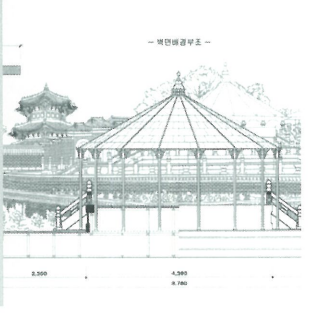
6장

부 록









이상과 같은 연구 검토로 환구단 중수 이후 이곳에 조선총독부 도서관과 철도호텔이 들어서서 환구단과 석고단(석고각) 영역 등이 훼손되기 이전까지의 환구단 영역에 대한 개략적인 규모와 전각들의 배치관계를 추정해 보았고, 이후 조선호텔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도 검토하였다.

이 연구과정에서 배치관계와 영역에 대한 추정작업은 캐드로 도면을 그려가면서 작성하였으며, 이것을 여러 차례 다른 지도류와 비교 수정하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각종 사진자료를 통해 전각들의 위치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12년 지적도를 비롯한 여러 지도류를 검토하여 환구단 전체영역을 설정하여 이것을 현재의 지도에 옮기는 작업을 통해 대지면적 등을 추정하였다.

둘째, 지도에 나타난 환구단의 위치와 황궁우의 위치, 석고단(석고각)과 광선문의 위치, 또한 조선호텔처리지에 그려진 재실을 비롯한 여러 전각들의 위치관계를 참고하여 개략적인 공간구성을 설정하게 되었고, 1921년 지도와 1936년 지도에 나타난 석고단(석고각) 영역에 대한 위치관계를 판단하였다.

셋째, 중수된 환구단의 위치관계는 1908년 지도 등에 나타난 환구단의 위치를 검토하고, 이를 캐드로 옮겨 규모 등을 검토한 후에 위치관계를 추정하였다.

넷째, 환구단의 재료와 크기 등의 판단은 독립신문기사와 중수기록, 환구단 건축비 관련 명세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규모와 재료 등을 판단하였고, 사진류를 비교해 가면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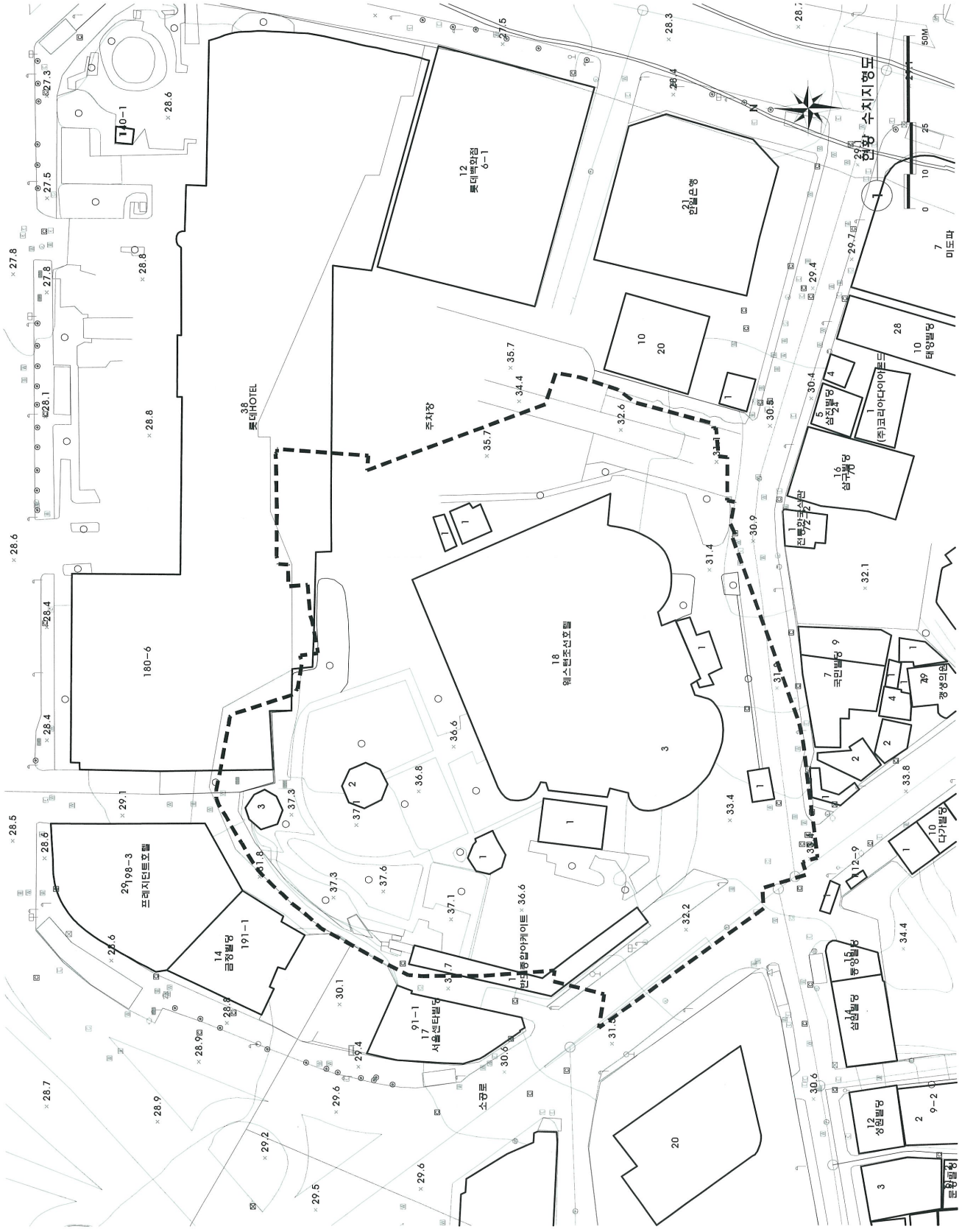
다섯째, 환구단 영역의 추정도면은 옛 사진자료를 정밀하게 서로 비교 및 분석하면서 각 전각의 위치관계를 구성하였고, 전각명칭은 사직서의궤와 등에 나타난 전각 명칭 등을 참고하면서 판단하였다.

이러한 추정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검증작업 자료는 다음의 항목에 기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추정도면, 황궁우 실측자료,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도면류 등도 함께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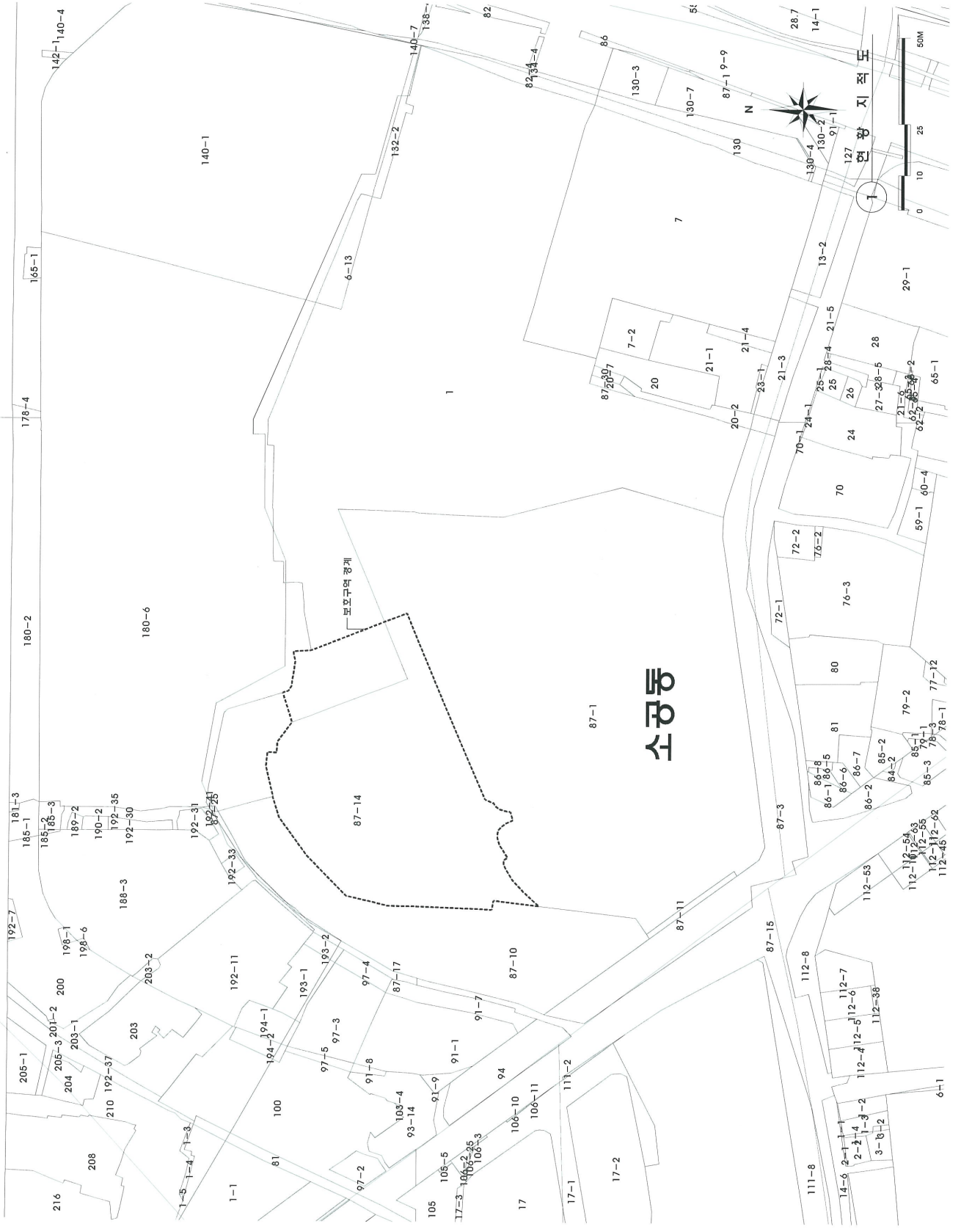
1. 부 록 (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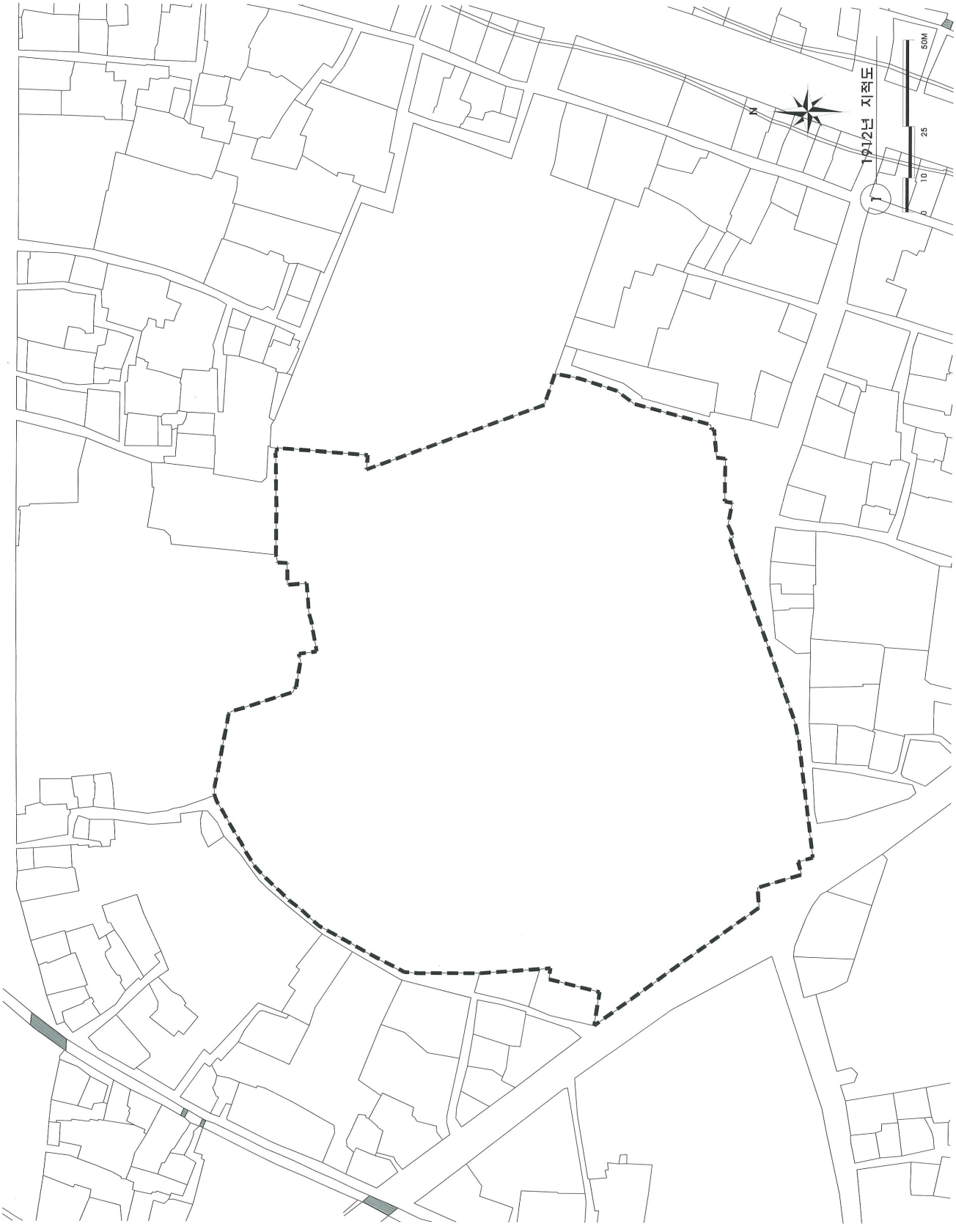
목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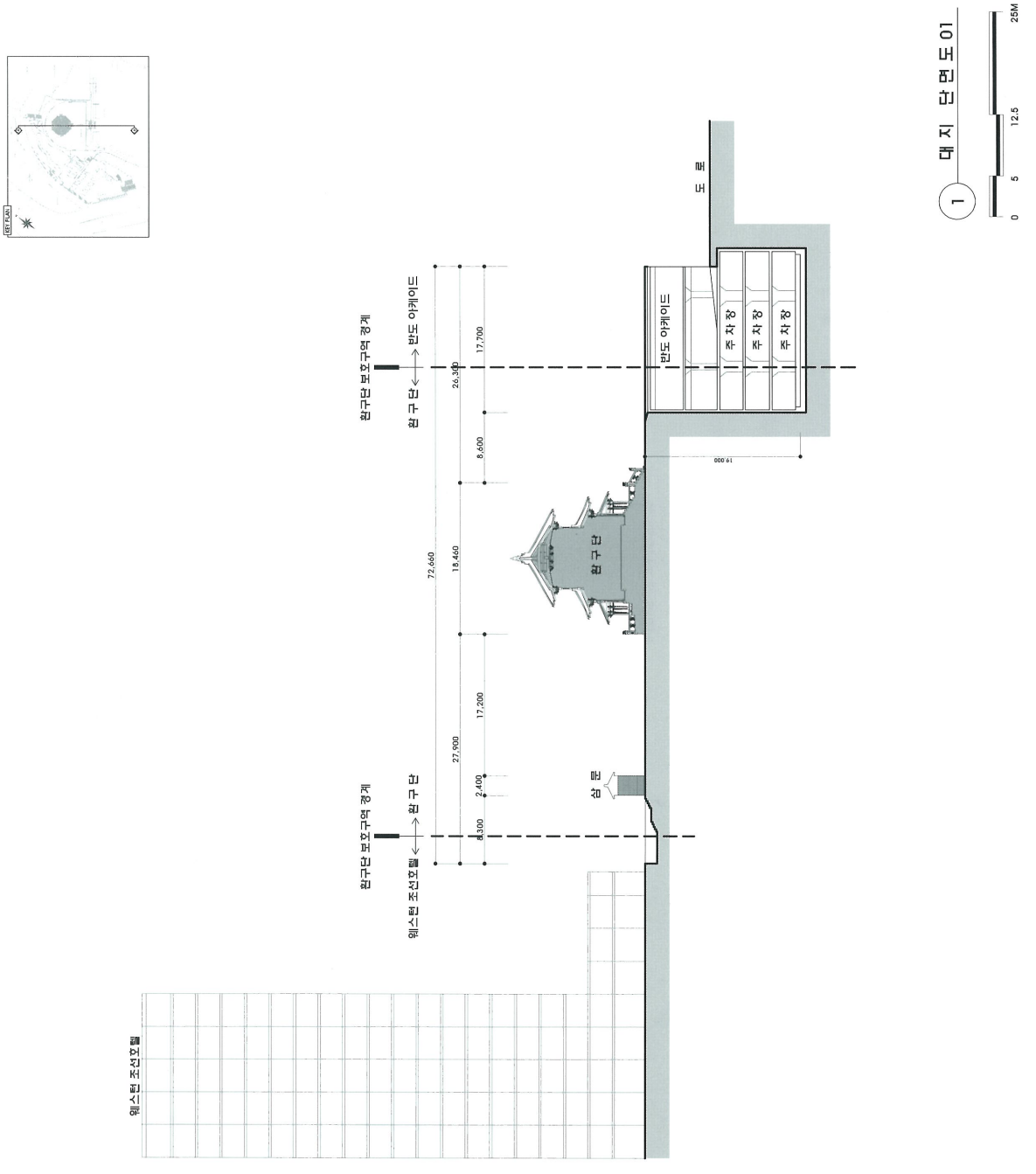
- 현황 수치지형도 ---------- 179
- 현황 지적도 ---------- 180
- 1912년 지적도 ---------- 181
- 대지 단면도 01 ---------- 182
- 대지 단면도 02 ---------- 183
- 전체 복원배치도 ---------- 184
- 현황 확배 배치도 ---------- 185
- 단기 계획 배치도 ---------- 186
- 중기 계획 배치도 ---------- 187
- 장기 계획 배치도 ---------- 188
- 식재 현황배치도 ---------- 189
- 황궁우 평면도 ---------- 190
- 황궁우 입면도 01 ---------- 191
- 황궁우 입면도 02 ---------- 192
- 황궁우 단면도 01 ---------- 193
- 황궁우 단면도 02 ---------- 194
- 황궁우 앙시도 ---------- 195
- 황궁우 와복도 ---------- 196
- 정문(백운문) 평면도 ---------- 197
- 정문(백운문) 단면도 ---------- 198
- 환구단 예상 복원도(조감) ----------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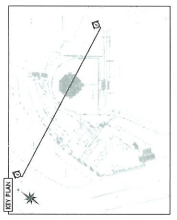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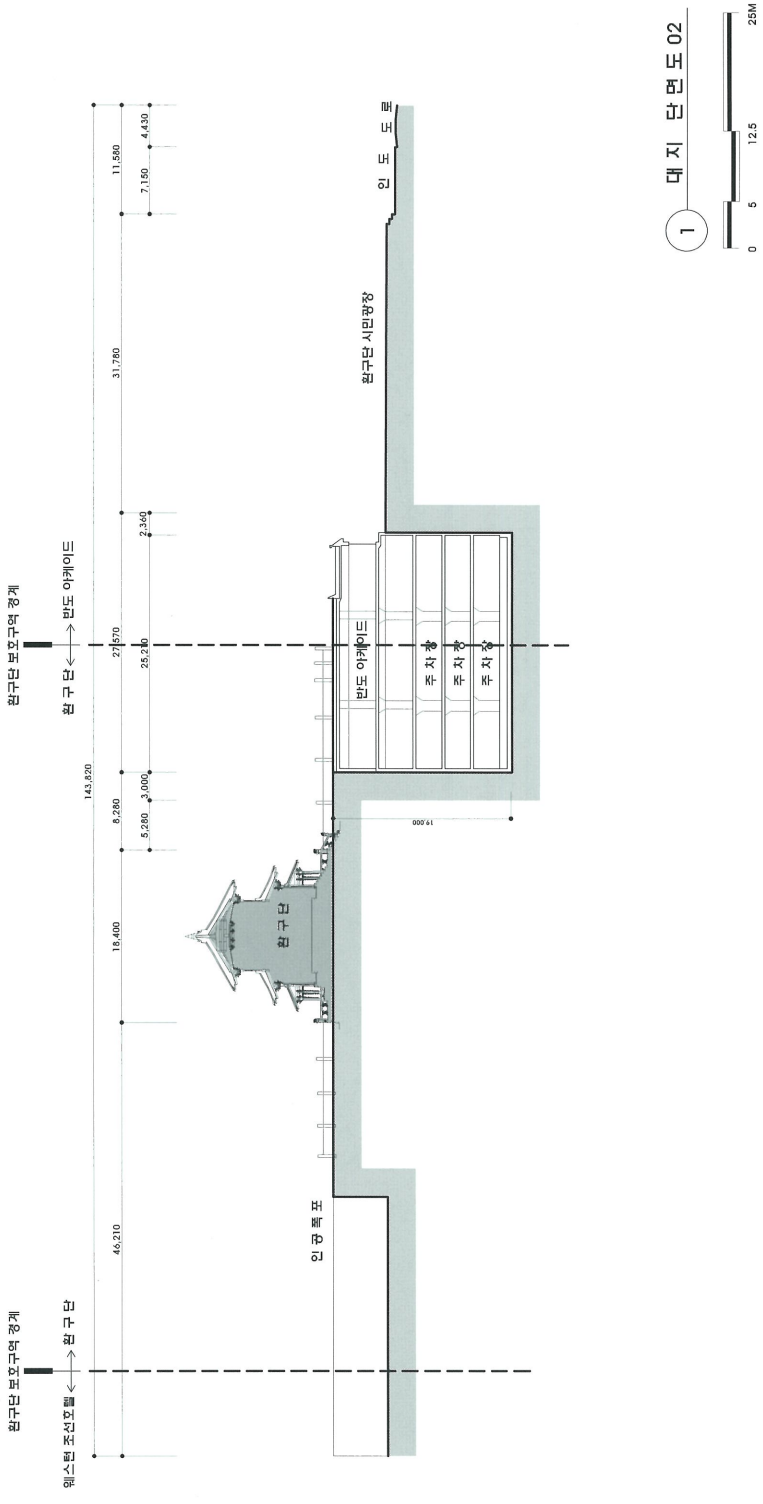
현황 수치지형도
N
50M
25
10
0
12
롯데백화점
6-1
21
한일은행
38
롯데HOTEL
주차장
18
웨스턴조선호텔
180-6
29
198-3
프레지던트호텔
14
금정빌딩
191-1
17
서울센타빌딩
91-1
소공로
20
7
미도파
10
태양빌딩
28
(주)코리아다이아트드
5
삼진빌딩
24
16
삼구빌딩
70
전통화로스팜
72-2
7
국민빌딩
9
49
경생의원
10
다가빌딩
112-9
15
동양빌딩
14
삼원빌딩
12
성원빌딩
2
9-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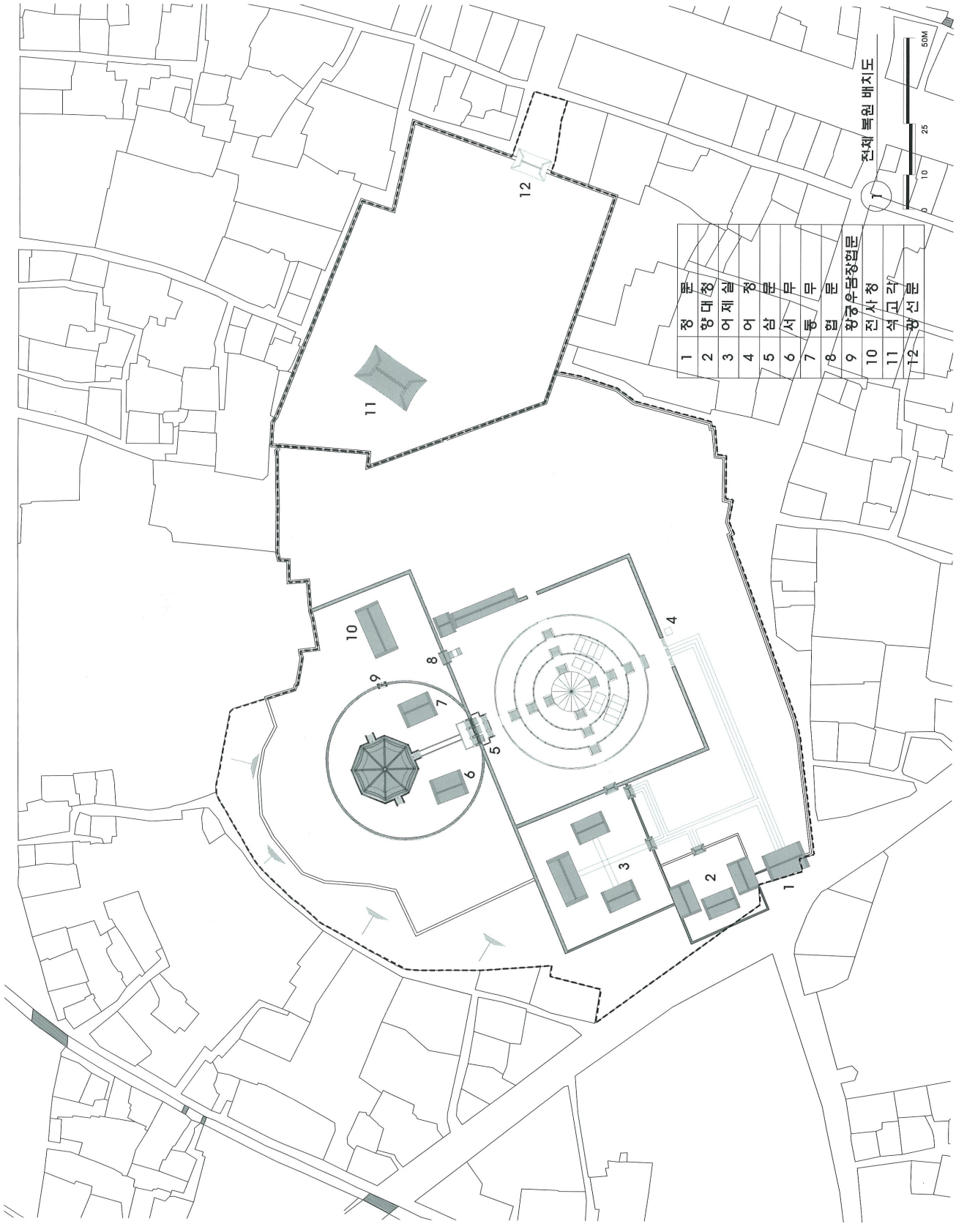

현황지적도
N
50M
25
10
0
보호구역 경계
소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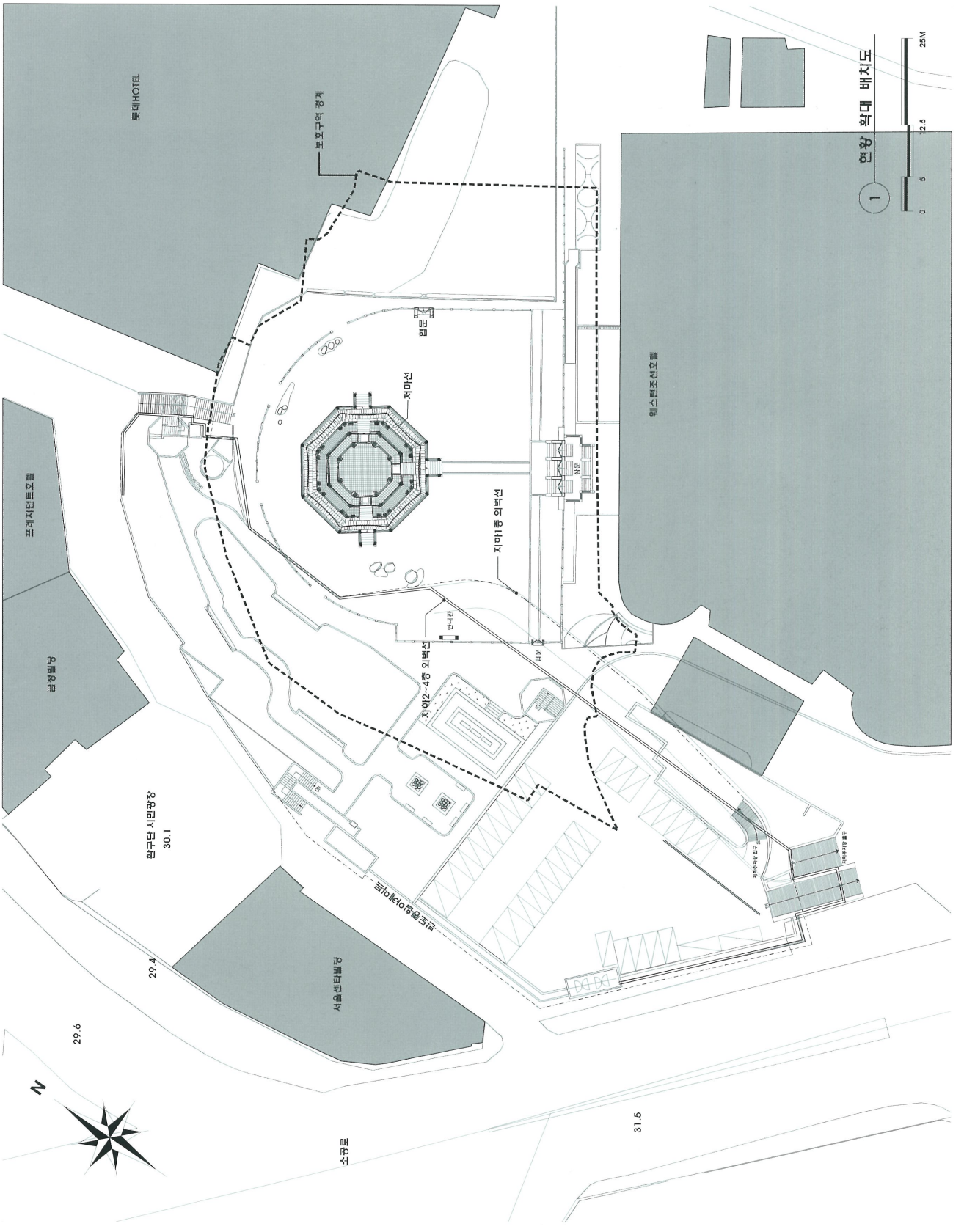

1912년 지적도
N
0
10
25
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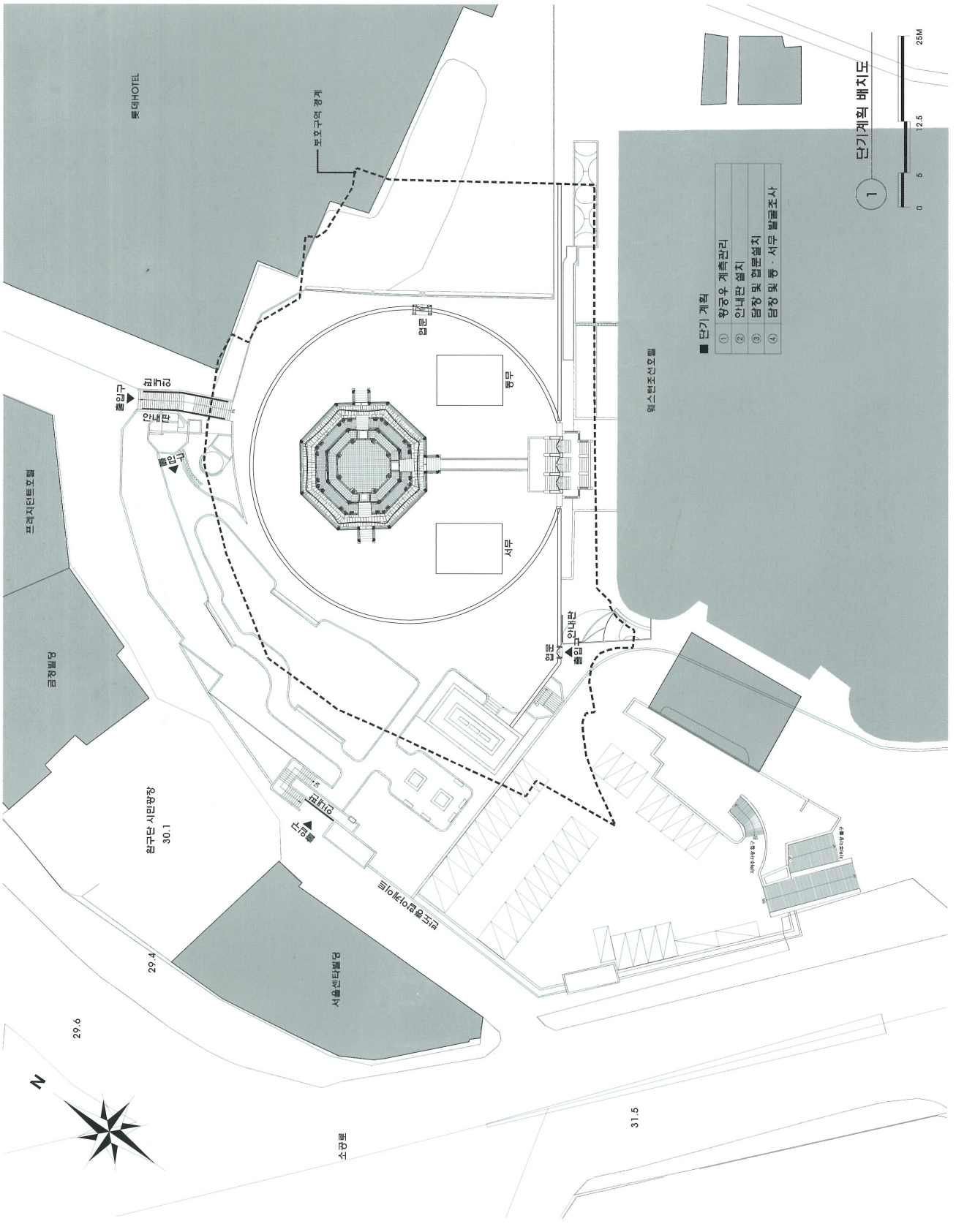

1 대지 단면도 01
0 5 12.5 25M
도로
반도 아케이드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환구단
환구단 보호구역 경계
환구단
반도 아케이드
환구단 보호구역 경계
환구단
웨스턴 조선호텔
웨스턴 조선호텔
삼문
26,300
17,700
8,600
72,660
18,460
27,900
17,200
2,400
8,300
1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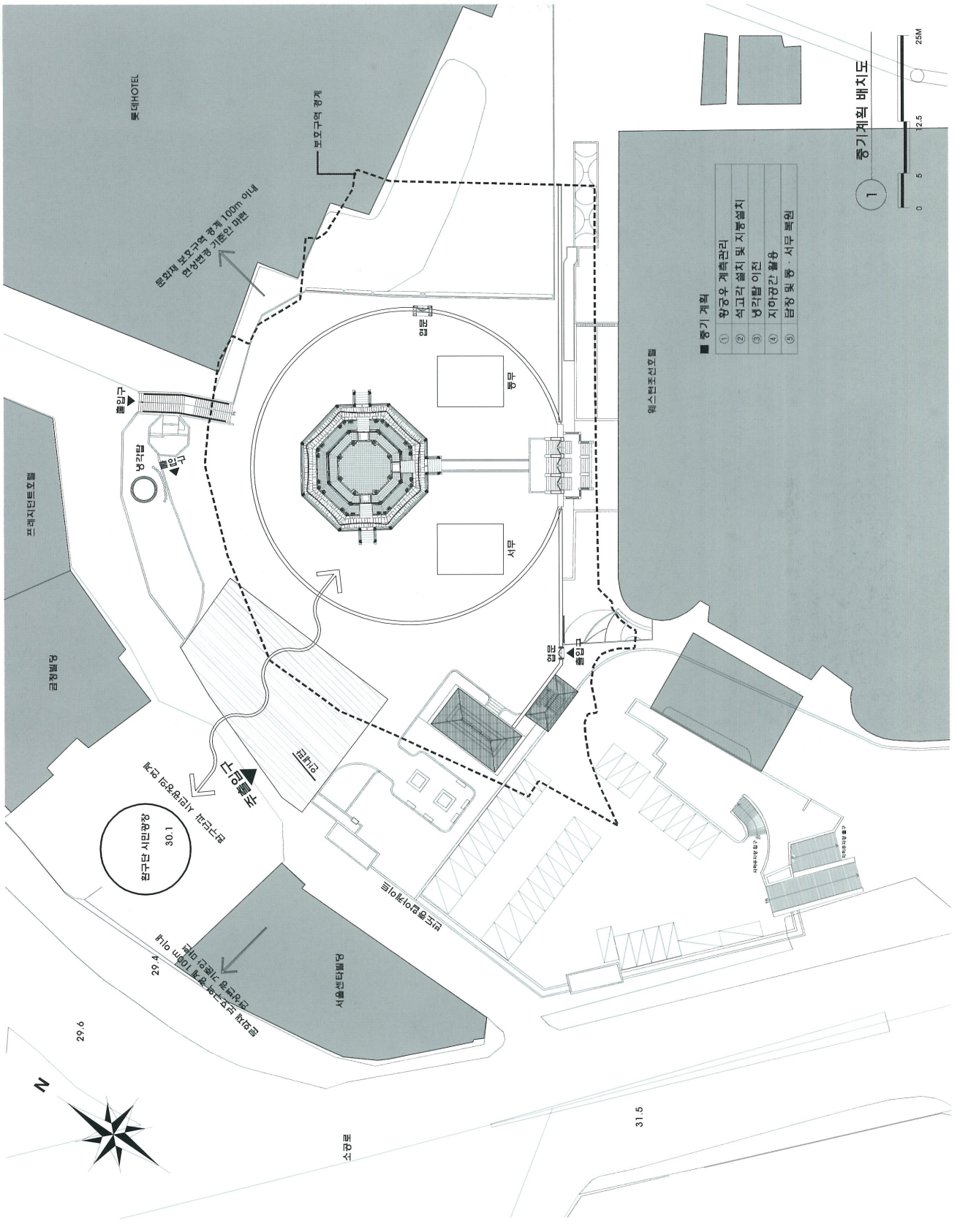

1
대 지 단 면 도 02
0
5
12.5
25M
인 도 도 로
완구단 시민광장
반도 아케이드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완 구 단
인 공 폭 포
완구단 보호구역 경계
완 구 단
반도 아케이드
완구단 보호구역 경계
웨스턴 조선호텔
완 구 단
143,820
11,580
4,430
7,150
31,780
2,360
27,570
25,210
8,280
3,000
5,280
18,400
46,210
19,000


전체 복원 배치도
0
10
25
50M
1 정 문
2 향대청
3 어제실
4 어 정문
5 삼 문
6 서 무
7 동 문
8 협 문
9 황궁우담장협문
10 전사청
11 삼고각
12 광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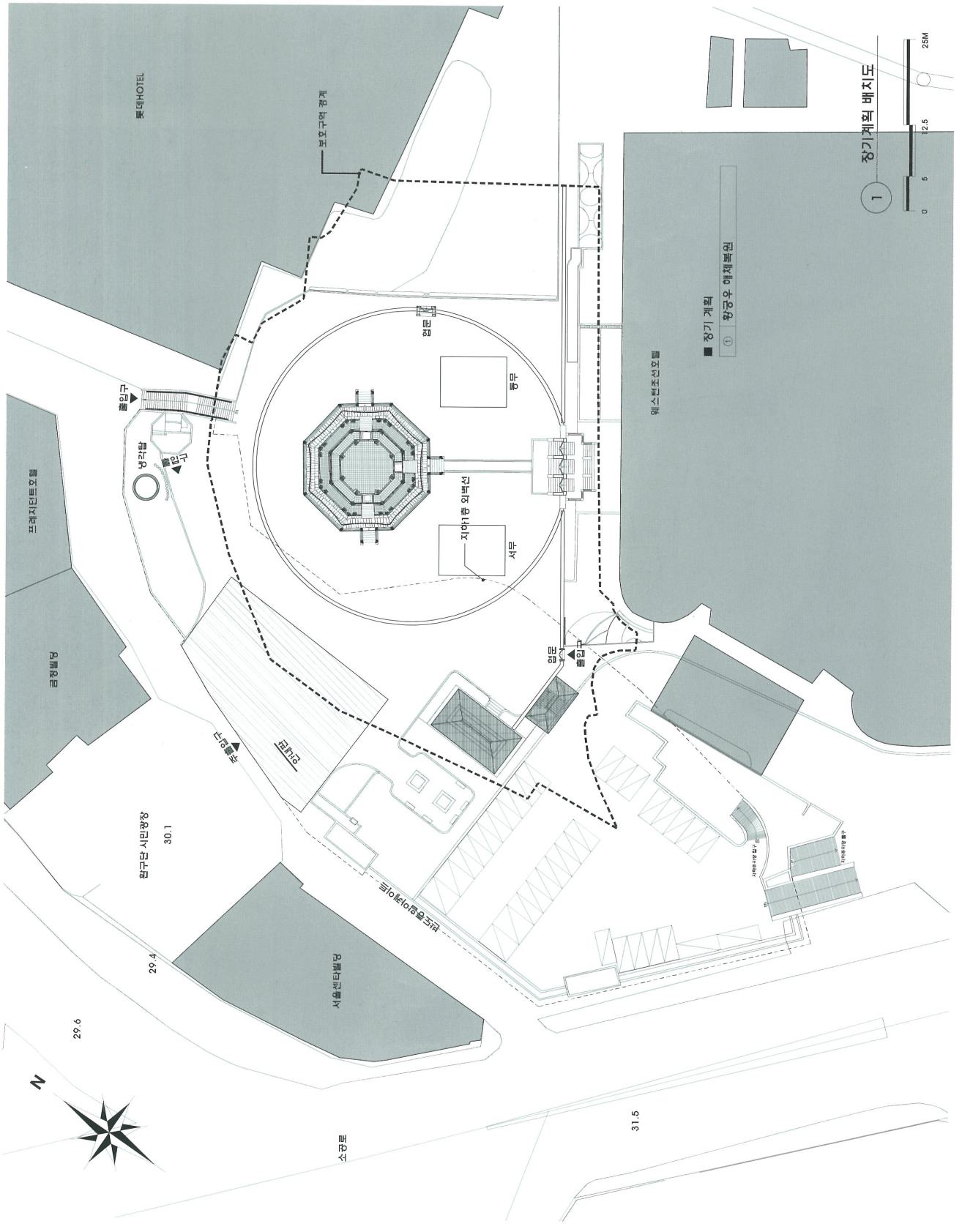

현황 확대 배치도
1
0
5
12.5
25M
롯데HOTEL
보호구역 경계
웨스틴조선호텔
프레지던트호텔
금정빌딩
서울센터빌딩
환구단 시민광장
30.1
29.4
29.6
31.5
소공로
N
지하1층 외벽선
지하2~4층 외벽선
지하2층 외벽선
지하3층 외벽선
지하4층 외벽선
지하5층 외벽선
지하6층 외벽선
지하7층 외벽선
지하8층 외벽선
지하9층 외벽선
지하10층 외벽선
지하11층 외벽선
지하12층 외벽선
지하13층 외벽선
지하14층 외벽선
지하15층 외벽선
지하16층 외벽선
지하17층 외벽선
지하18층 외벽선
지하19층 외벽선
지하20층 외벽선
지하21층 외벽선
지하22층 외벽선
지하23층 외벽선
지하24층 외벽선
지하25층 외벽선
지하26층 외벽선
지하27층 외벽선
지하28층 외벽선
지하29층 외벽선
지하30층 외벽선
지하31층 외벽선
지하32층 외벽선
지하33층 외벽선
지하34층 외벽선
지하35층 외벽선
지하36층 외벽선
지하37층 외벽선
지하38층 외벽선
지하39층 외벽선
지하40층 외벽선
지하41층 외벽선
지하42층 외벽선
지하43층 외벽선
지하44층 외벽선
지하45층 외벽선
지하46층 외벽선
지하47층 외벽선
지하48층 외벽선
지하49층 외벽선
지하50층 외벽선
지하51층 외벽선
지하52층 외벽선
지하53층 외벽선
지하54층 외벽선
지하55층 외벽선
지하56층 외벽선
지하57층 외벽선
지하58층 외벽선
지하59층 외벽선
지하60층 외벽선
지하61층 외벽선
지하62층 외벽선
지하63층 외벽선
지하64층 외벽선
지하65층 외벽선
지하66층 외벽선
지하67층 외벽선
지하68층 외벽선
지하69층 외벽선
지하70층 외벽선
지하71층 외벽선
지하72층 외벽선
지하73층 외벽선
지하74층 외벽선
지하75층 외벽선
지하76층 외벽선
지하77층 외벽선
지하78층 외벽선
지하79층 외벽선
지하80층 외벽선
지하81층 외벽선
지하82층 외벽선
지하83층 외벽선
지하84층 외벽선
지하85층 외벽선
지하86층 외벽선
지하87층 외벽선
지하88층 외벽선
지하89층 외벽선
지하90층 외벽선
지하91층 외벽선
지하92층 외벽선
지하93층 외벽선
지하94층 외벽선
지하95층 외벽선
지하96층 외벽선
지하97층 외벽선
지하98층 외벽선
지하99층 외벽선
지하100층 외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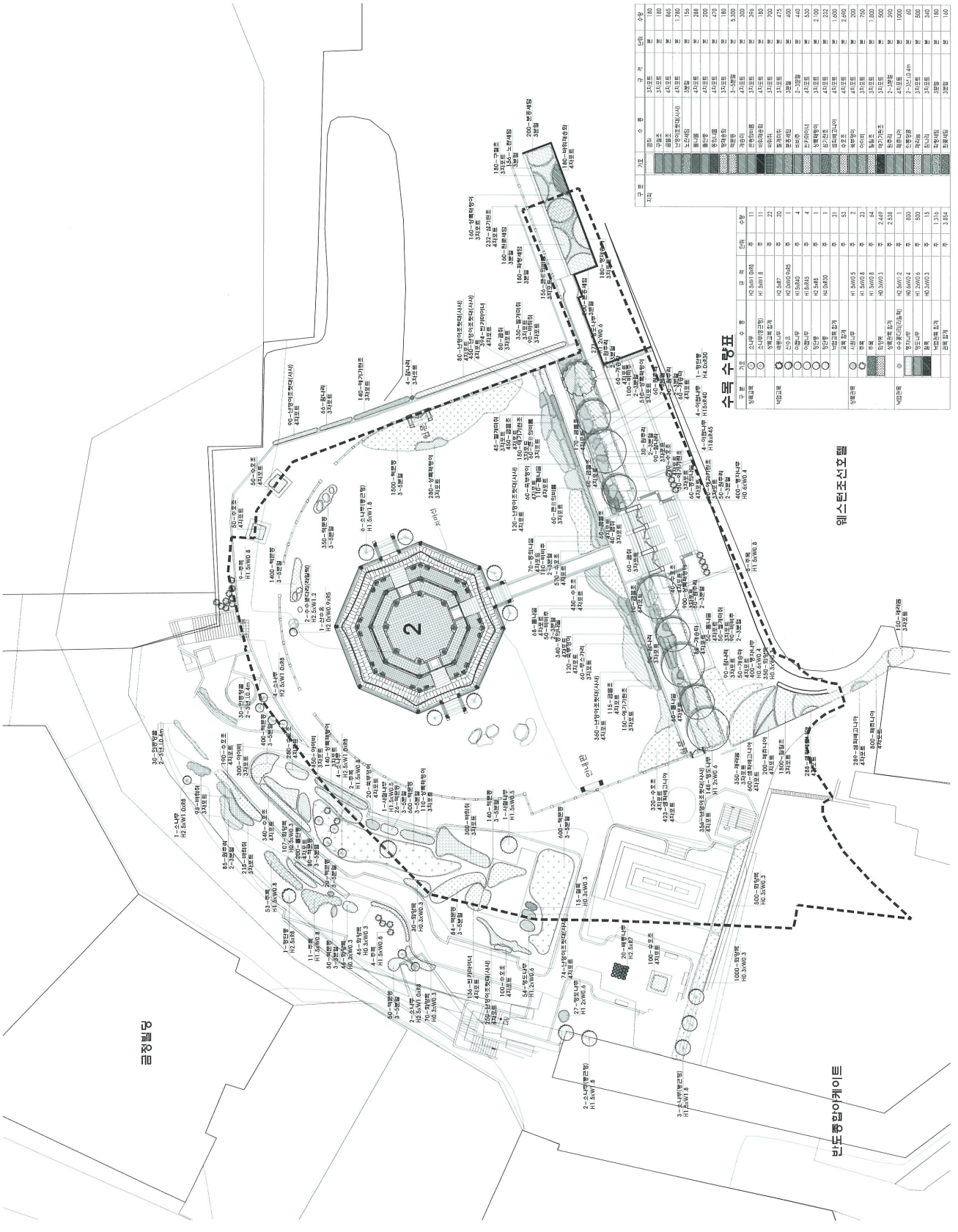
단기계획 배치도
1
0 5 12.5 25M
■ 단기 계획
① 황궁우 계측관리
② 안내판 설치
③ 담장 및 협문설치
④ 담장 및 통 · 서무 발굴조사
웨스턴조선호텔
롯데HOTEL
보호구역 경계
협문
동무
서무
출입구
안내판
프레지던트호텔
금정빌딩
환구단 시민광장
30.1
서울센타빌딩
29.4
29.6
31.5
소공로
N



롯데HOTEL
보호구역 경계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 100m 이내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
출입구
냉각탑
출입구
프레지던트호텔
금정빌딩
입문
동무
서무
입문
출입구
웨스턴조선호텔
■ 중기 계획
① 황궁우 계측관리
② 석고각 설치 및 지붕설치
③ 냉각탑 이전
④ 지하공간 활용
⑤ 담장 및 동 · 서무 복원
중기계획 배치도
0 5 12.5 25M
1
환구단 시민광장
30.1
서울센타빌딩
29.4
29.6
31.5
소공로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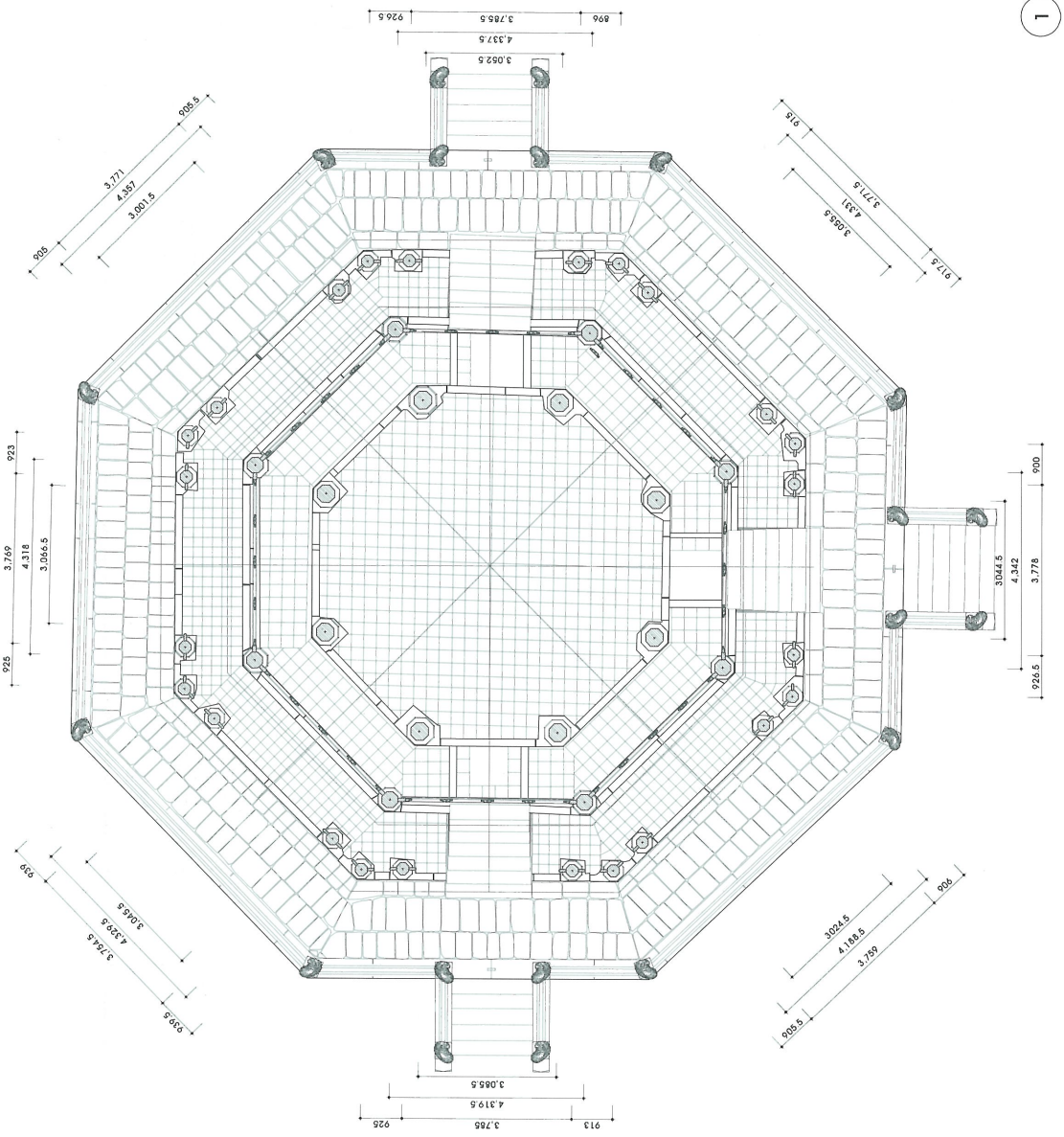


롯데HOTEL
보호구역 경계
웨스틴조선호텔
장기 계획
① 황궁우 해체복원
장기계획 배치도
0 5 12.5 25M
1
협문
동무
서무
지하1층 외벽선
출입구
냉각탑
프레지던트호텔
금정빌딩
환구단 시민광장
30.1
29.4
29.6
서울센타빌딩
31.5
소공로
N



구분	기호	수종	규격	단위	수량
상록교목	○	소나무	H2.5xW1.0x8	주	11
	○	소나무(평근형)	H1.5xW1.8	주	11
		상록교목 합계		주	22
낙엽교목	◎	배롱나무	H2.5xR7	주	20
	○	산수유	H2.0xW0.9x8	주	1
	○	이팝나무	H1.5xR40	주	4
	○	이팝나무	H1.8xR45	주	4
	○	청단풍	H2.5xR8	주	1
	○	청단풍	H4.0xR30	주	1
		낙엽교목 합계		주	31
		교목 합계		주	53
상록관목	○	사철나무	H1.5xW0.5	주	2
	◎	주목	H1.5xW0.8	주	23
	◎	주목	H1.5xW0.8	주	64
	◎	회양목	H0.3xW0.3	주	2,449
		상록관목 합계		주	2,538
낙엽관목	◎	수수꽃다리(라일락)	H2.5xW1.2	주	1
	○	영지나무	H2.6xW0.4	주	800
	○	영도나무	H1.2xW0.6	주	500
	○	철목	H0.3xW0.3	주	15
		낙엽관목 합계		주	1,316
		관목 합계		주	3,854

구분	기호	수종	규격	단위	수량
지피		금취	3지포트	본	180
		구절초	3지포트	본	180
		금불초	4지포트	본	865
		난장이조릿대(사사)	4지포트	본	1,780
		노간새덩	3분얼	본	156
		돌나물	4지포트	본	288
		돌단풍	4지포트	본	200
		중의나물	4지포트	본	470
		맹계송화	3지포트	본	180
		맥문동	3~5분얼	본	5,300
		개승마	4지포트	본	300
		관중의비름	3지포트	본	396
		비위재송화	4지포트	본	180
		비위위	3지포트	본	700
		불개미위	3지포트	본	475
		분홍새덩	3분얼	본	400
		비비추	2~3분얼	본	440
		반가미어나	4지포트	본	530
		상록패랑이	3지포트	본	2,100
		삼기관초	4지포트	본	232
		샘파배고나어	4지포트	본	1,600
		수호초	4지포트	본	2,690
		쑥부랑이	4지포트	본	200
		아이비	3지포트	본	750
		철쇼초	3지포트	본	1,800
		옥가기관초	3지포트	본	500
		원추리	2~3분얼	본	390
		패랑나어	4지포트	본	1000
		오랑캐꽃	2~3년 10.4m	본	60
		제라늄	3지포트	본	500
		돌나리	3지포트	본	340
		파랑새덩	3분얼	본	180
		흐물새덩	3분얼	본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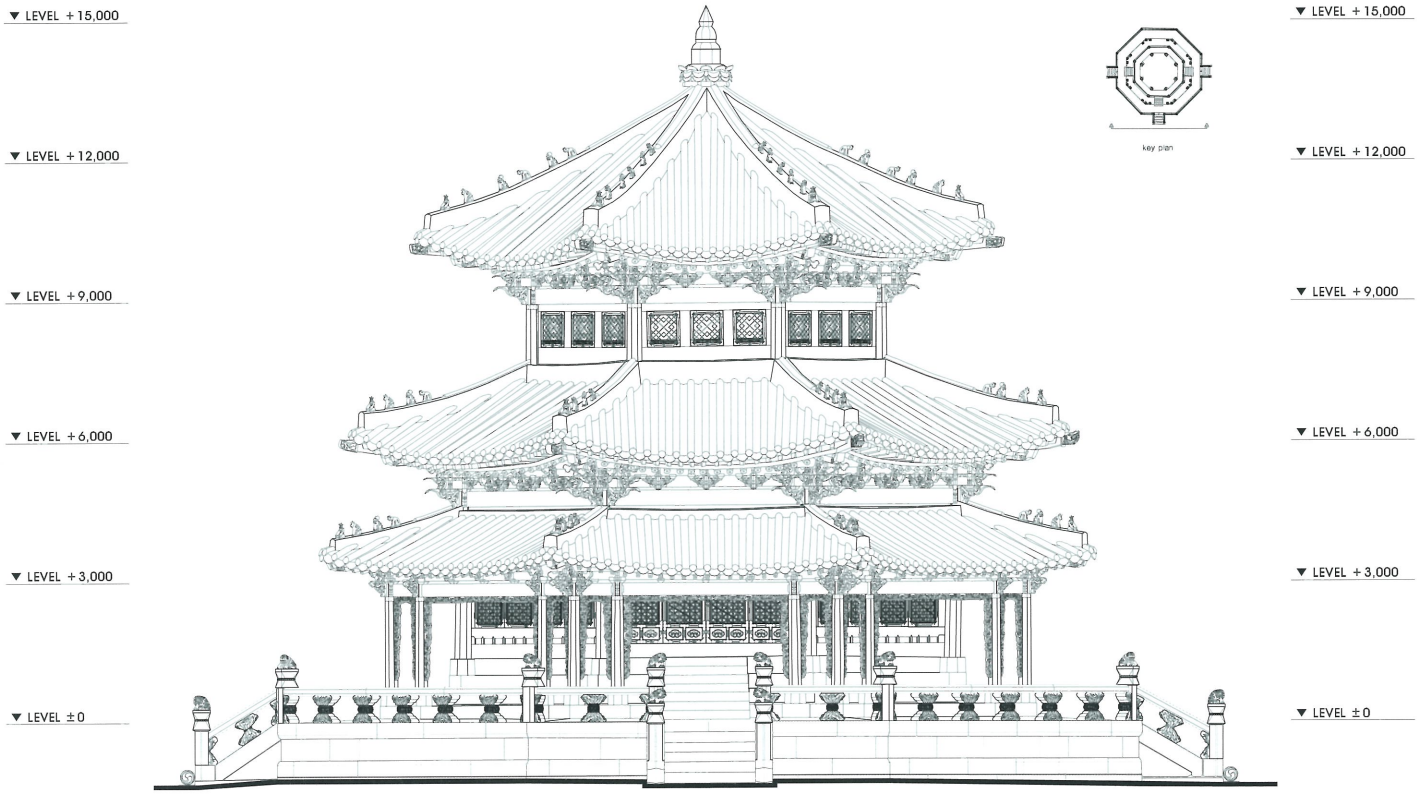


1 환구우 평면도

0 1 2.5 5M

★ 환구단 정밀실측 조사보고서 인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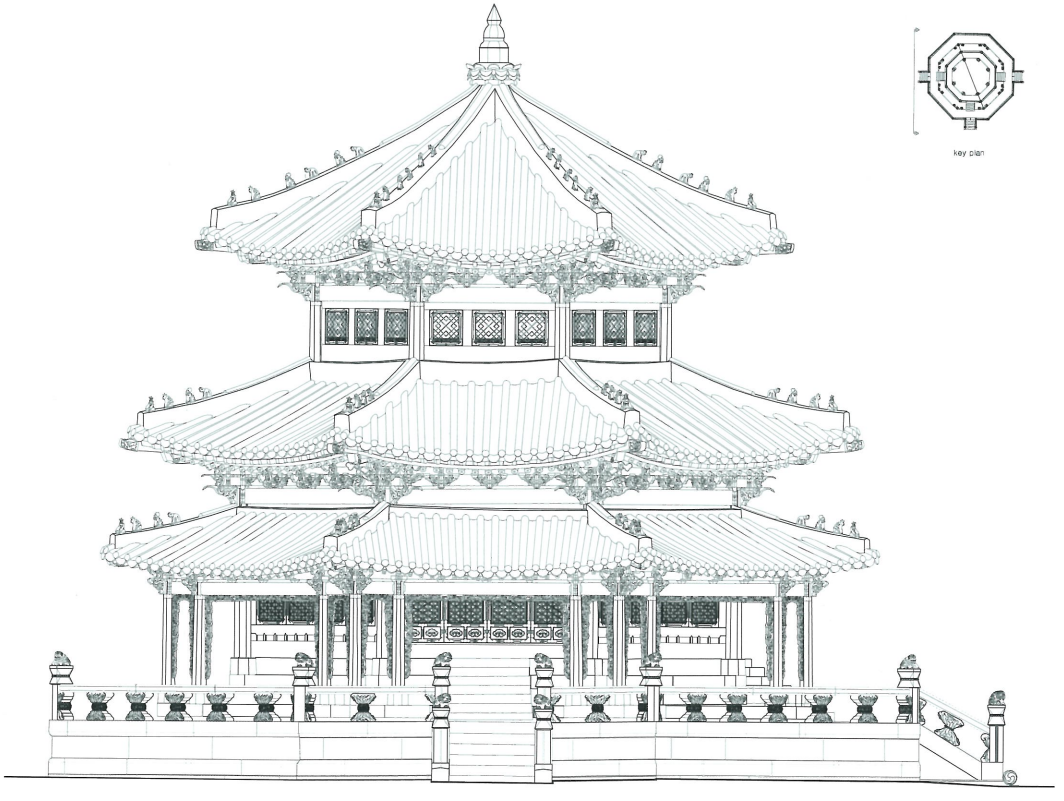
★ 환구단 정밀실측 조사보고서 인용 도면



① 황궁우 입면도 01

0 1 2.5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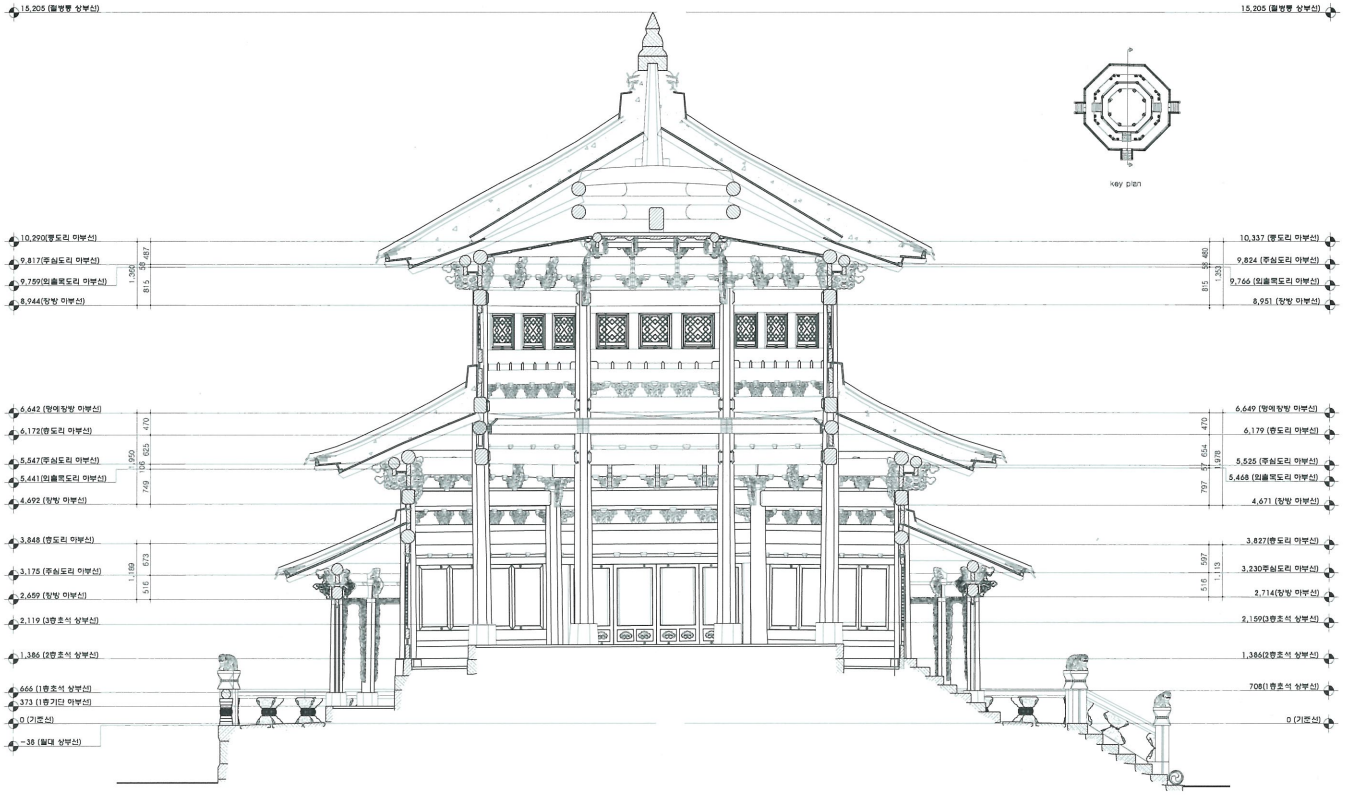
★ 환구단 정밀실측 조사보고서 인용 도면



1 황궁우 입면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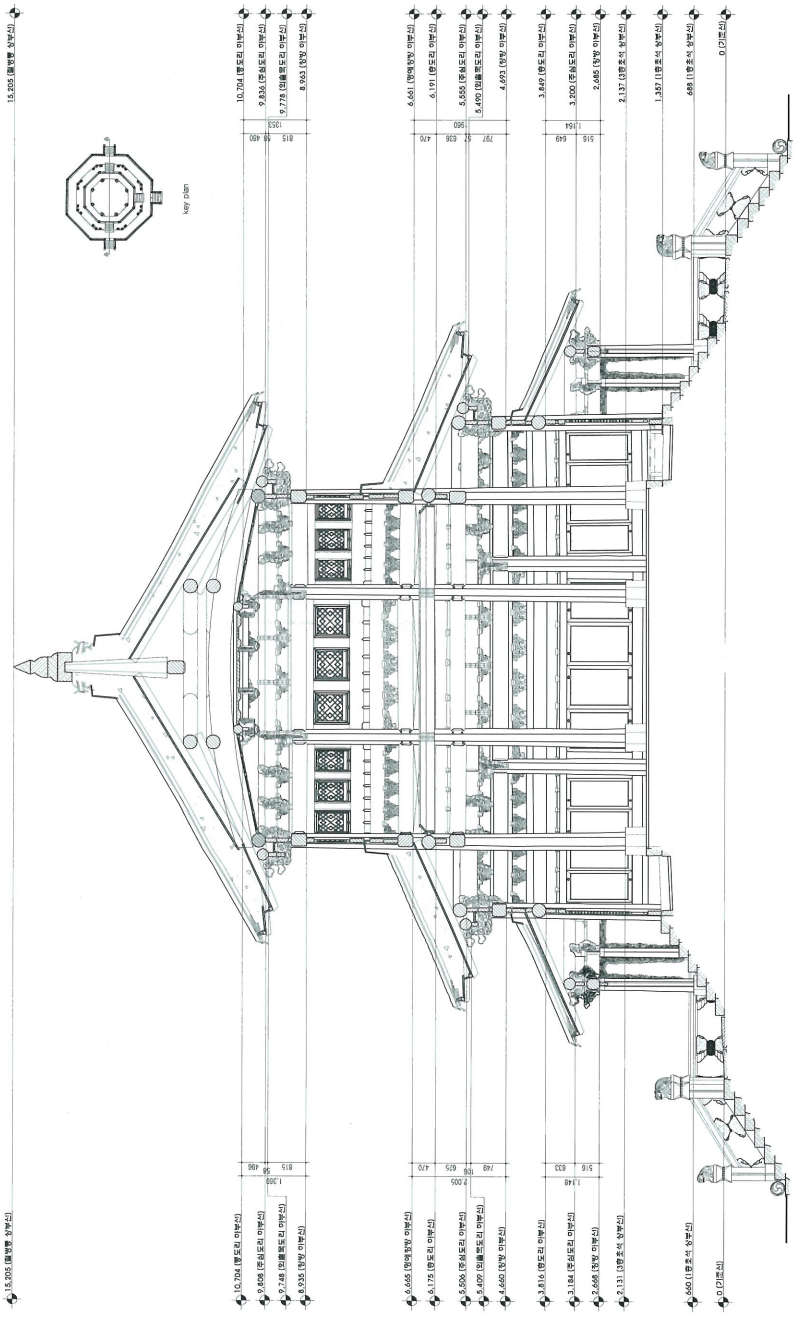
0 1 2.5 5M

★ 환구단 정밀실측 조사보고서 인용 도면



① 황궁우 단면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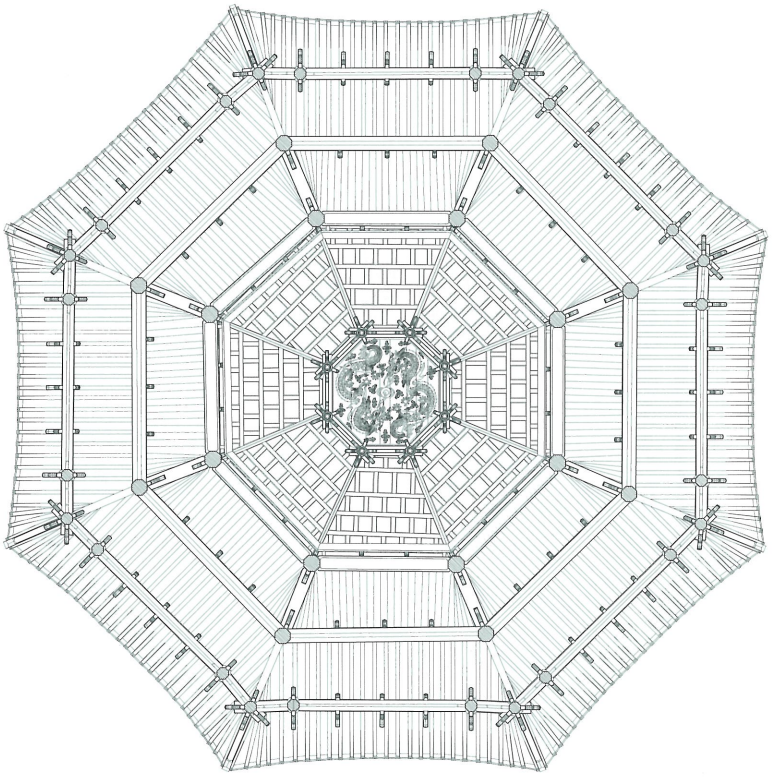
0 1 2.5 5M



1 황궁우 단면도 02

0 1 2.5 5M

★ 환구단 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조사보고서 인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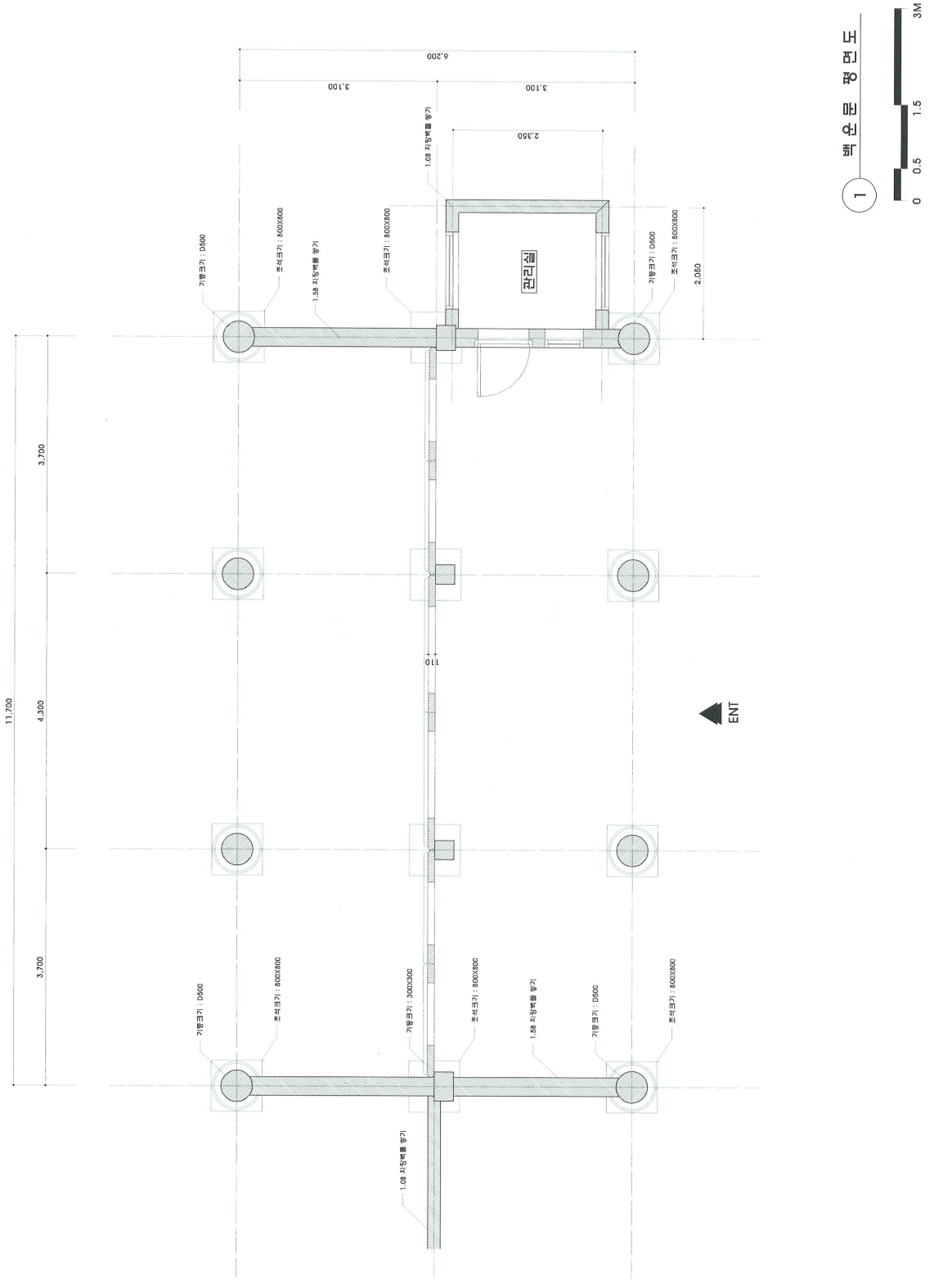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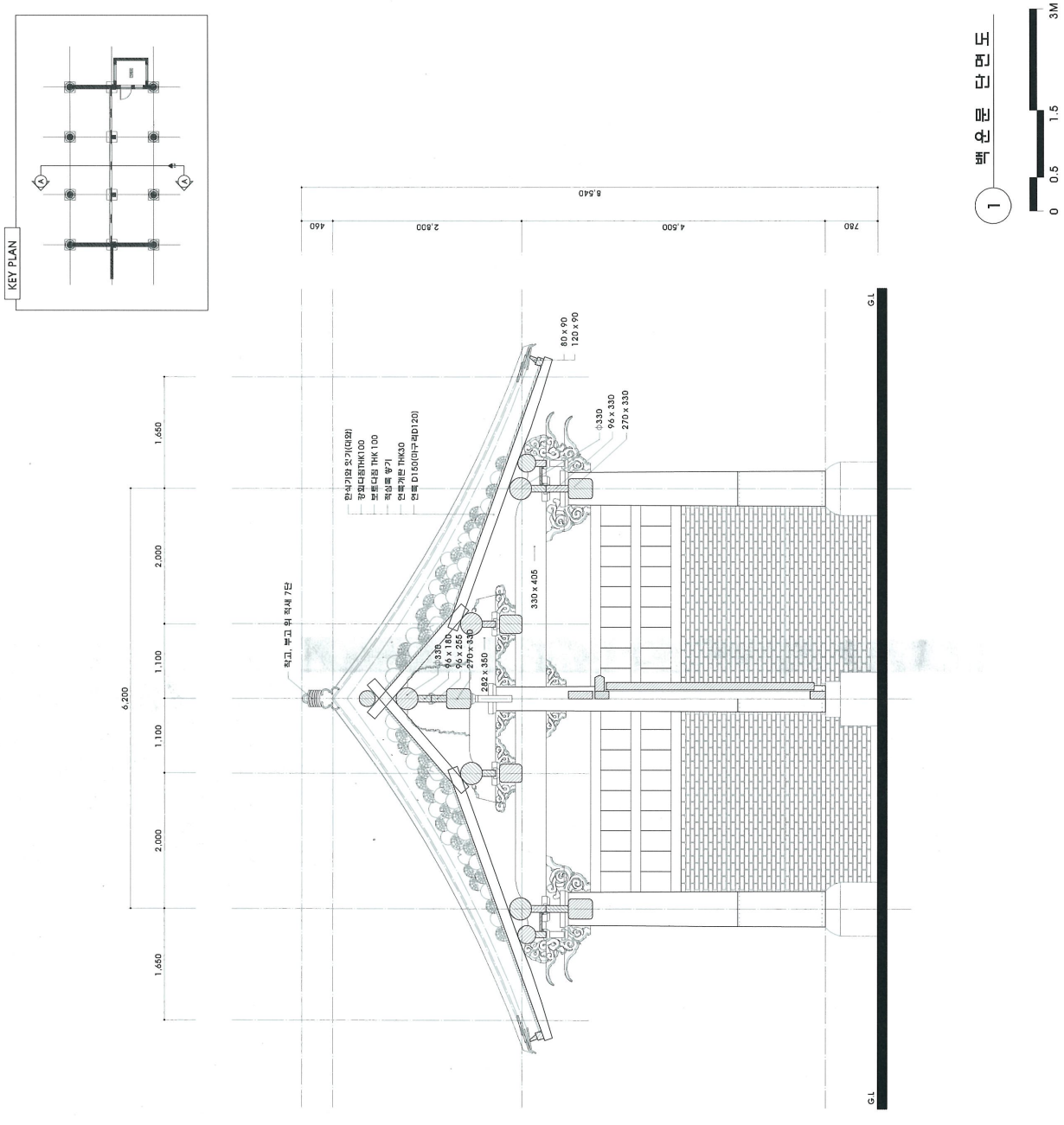
1 황궁우 전체앙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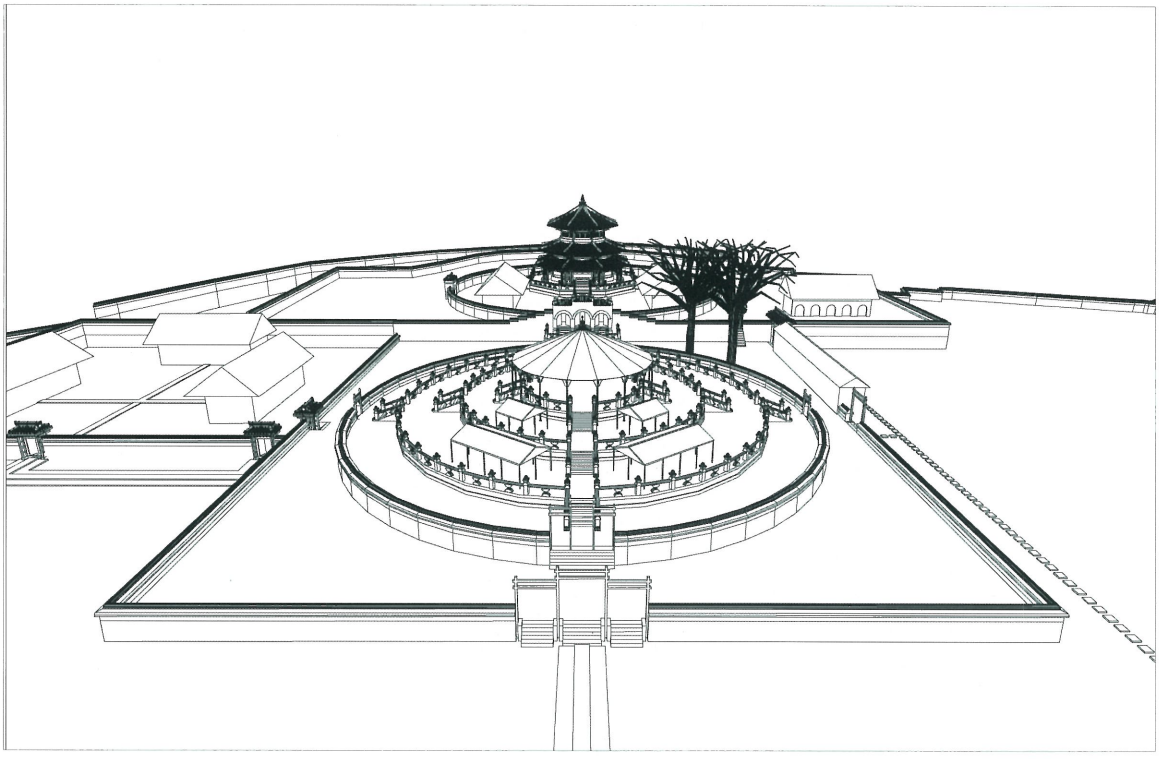
0 1 2.5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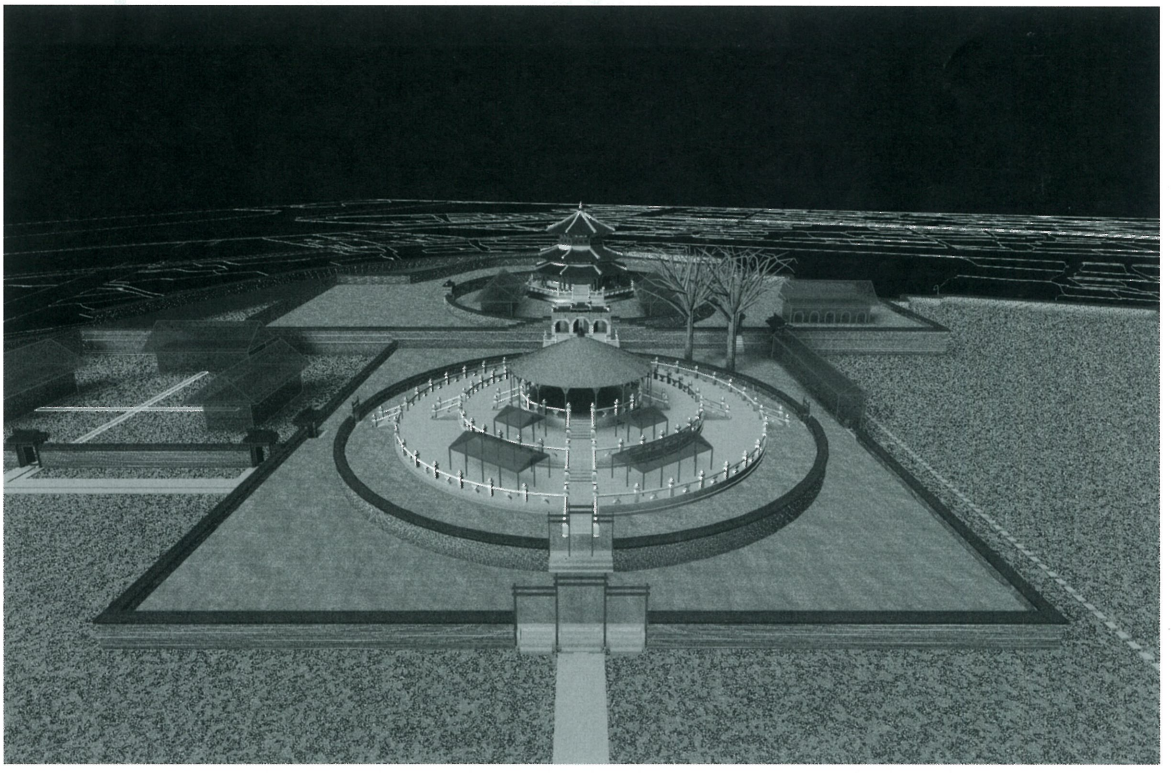
★ 환구단 정밀실측 조사보고서 인용 도면

★ 환구단 정밀실측 조사보고서 인용 도면


1 백운문 평면도
0 0.5 1.5 3M
6,200
3,100
3,100
2,350
2,050
관리실
1.08 지장벽돌 쌓기
기둥크기 : D500
조석크기 : 800X800
1.58 지장벽돌 쌓기
조석크기 : 800X800
기둥크기 : D500
조석크기 : 800X800
3,700
4,300
3,700
11,700
110
ENT
기둥크기 : D500
조석크기 : 800X800
기둥크기 : 300X300
조석크기 : 800X800
1.58 지장벽돌 쌓기
기둥크기 : D500
조석크기 : 800X800
1.08 지장벽돌 쌓기


KEY PLAN
A
A
1
백운문 단면도
0
0.5
1.5
3M
8,540
460
2,800
4,500
760
G1
G1
80 x 90
120 x 90
330
90 x 330
270 x 330
330 x 405
282 x 350
330
90 x 180
90 x 255
270 x 330
적고, 누고 위 적새 7단
6,200
1,650
2,000
1,100
1,100
2,000
1,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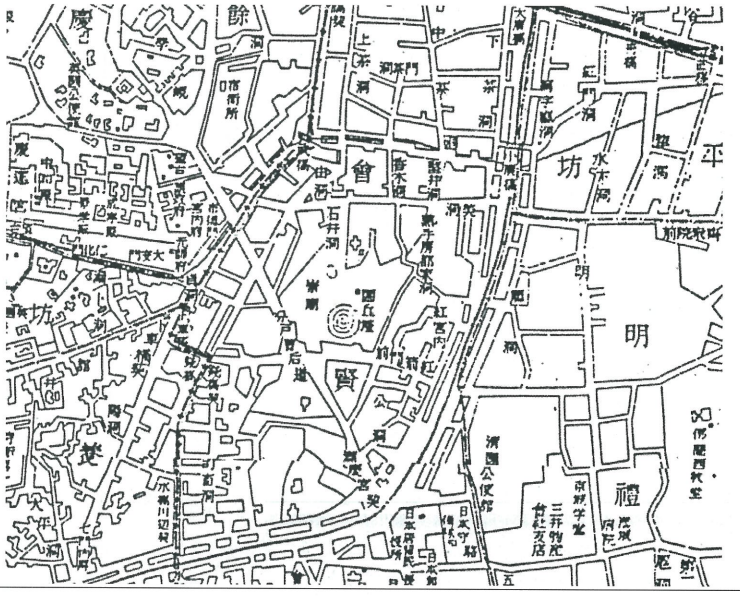


환구단 추정 복원 시뮬레이션 작업※1)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사연구실 장원희 제작

2. 부 록 (관련자료)

1) 지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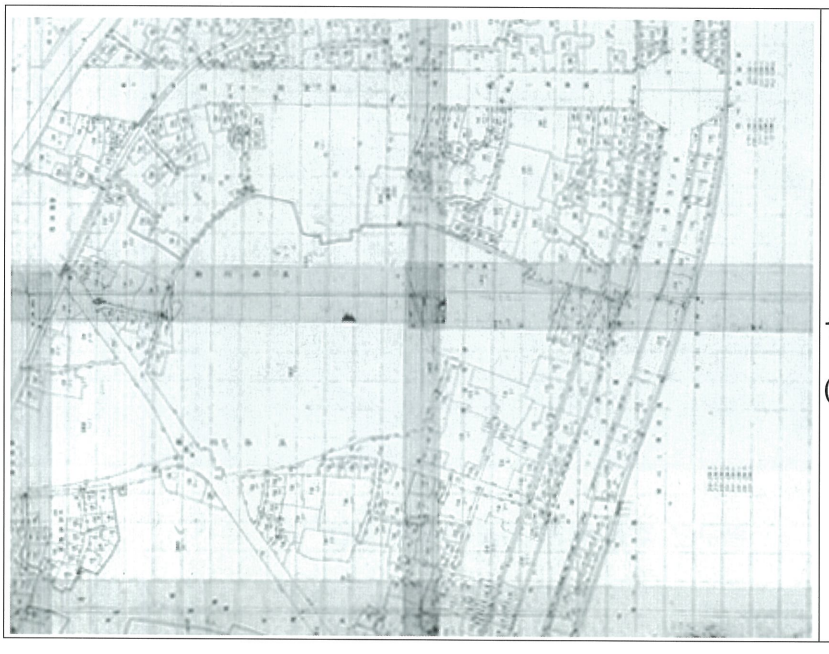


자료출처 :

이상구 제공

(1903년 지형도)

지도의 중심에 환구단과 황궁우가 표시되어 있다. 개략적인 위치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고, 아울러 캐드화하여 환구단의 추정규모와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위치관계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자료출처 :

1912년도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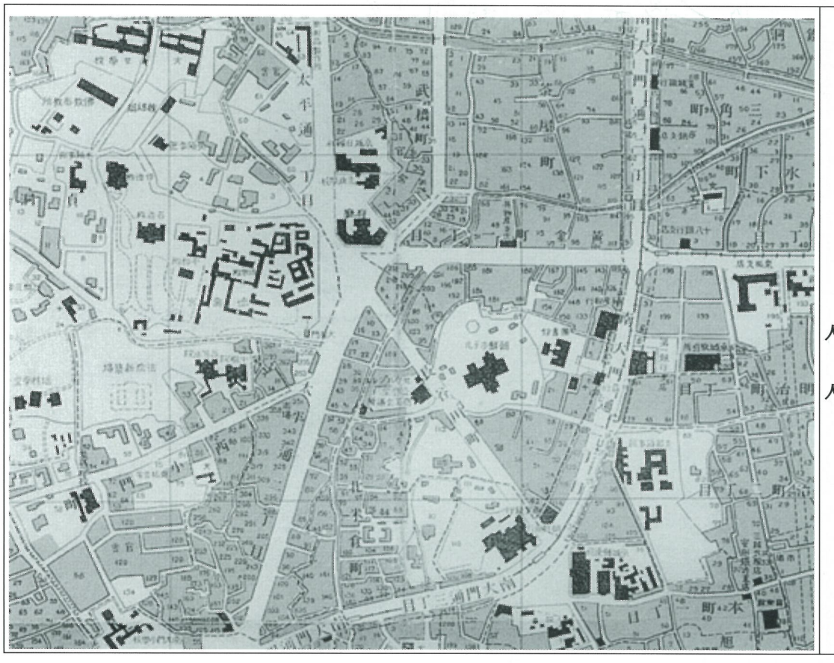
(국가기록정보원)



자료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최신경성전도 1907년

圜丘壇이라는 명칭과 함께 崇廟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자료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경성시가도 1927년

황궁우와 조선호텔이 표시되어 있고, 조선호텔 서쪽으로 재실로 추정되는 3동의 건물군이 보이고, 동북쪽으로 전사청 및 신실로 추정되는 3동의 건물이 보이며, 동남쪽으로도 2동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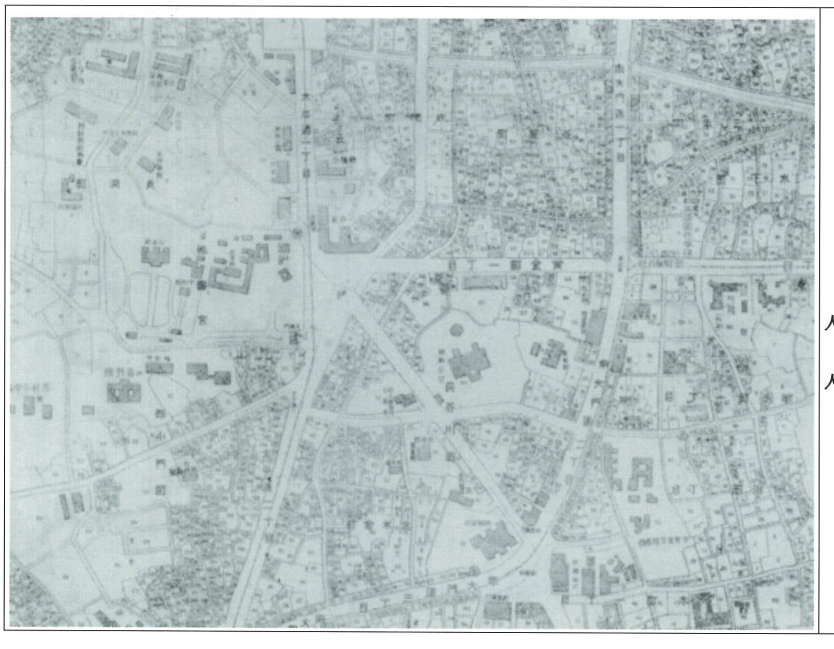
자료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1933년 경성시가도

1927년 경성시가도와 유사하게 황궁우와 조선호텔을 중심으로 동서남쪽으로 기능을 알 수 없는 여러 동의 건물이 보인다.



자료출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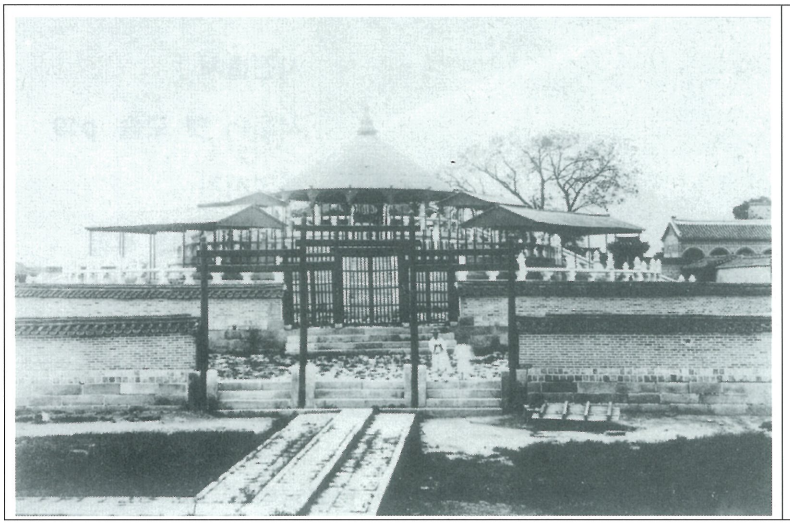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1946년 지번구획입경성전도

황궁우와 조선호텔, 조선호텔 정문(환구단 정문)이 보이고 재실과 기타 부속전각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2) 사진자료



사진출처 :

서울의 옛 모습, 1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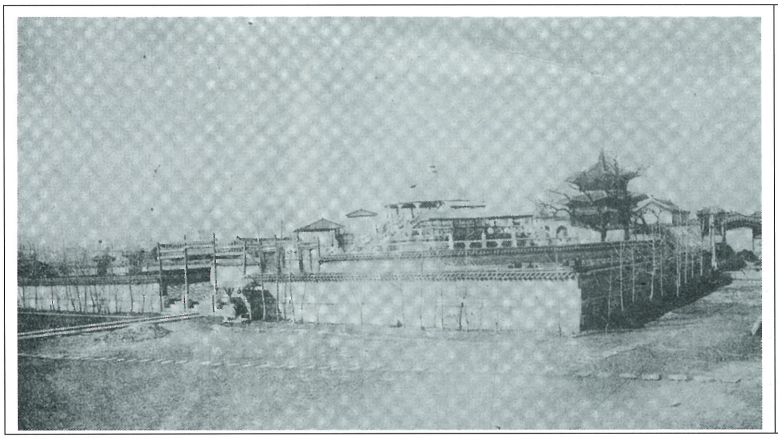
촬영시기 :

환구단 중수 이후

(1913년 이전) 추정

출처원문 : 『환구단은 화강암으로 된 3층 단이며, 중앙 상부에 황색으로 도색한 원추형의 지붕을 얹혔으나, 1913년 헐리면서 그 자리에 조선호텔이 들어섰다. (1913년 이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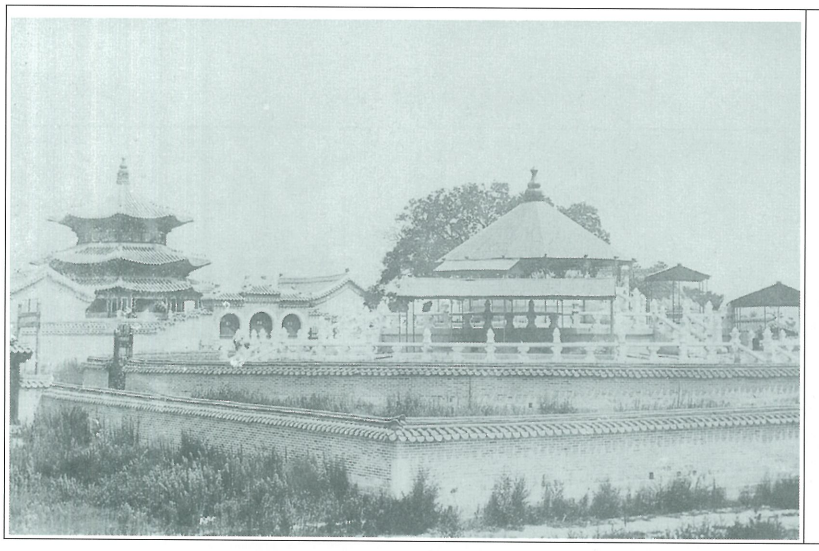
환구단의 난간 및 황막(원추형 지붕) 그리고 단상 동서무 등 시설물이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수 이후 모습으로 보인다. 환구단의 각 단들은 9-10개 정도의 계단으로 오를 수 있으며(다른 사진 참고함), 오른쪽으로 그 쓰임은 알 수 없으나(전사청으로 고려함) 벽돌조의 아치로 정면을 장식하고 지붕마루를 양성한 건물이 보인다. 사진상으로 환구단의 정면(남쪽)에 세워진 담은 장대석과 벽돌로 쌓은 것으로 보이나, 오른쪽(동쪽) 담은 문에 붙어서 같은 폭의 지붕으로 덮여 있는 건물이 보인다. 중수명세서에 있는 행각 등의 건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홍살문 앞으로 삼도로 구성된 어도가 보이고, 동쪽으로 어정으로 고려되는 우물이 보인다.



사진출처 :

조선호텔 처리지

환구단과 황궁우를 남동쪽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원형 담장 안으로 2그루의 나무가 보이며, 방형 담장에도 줄지어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방형 담장 정면은 황살문이 설치되었지만 오른쪽(동쪽)으로는 전통건축의 가구식으로 짜여진 건물(행각)이 보인다.



사진출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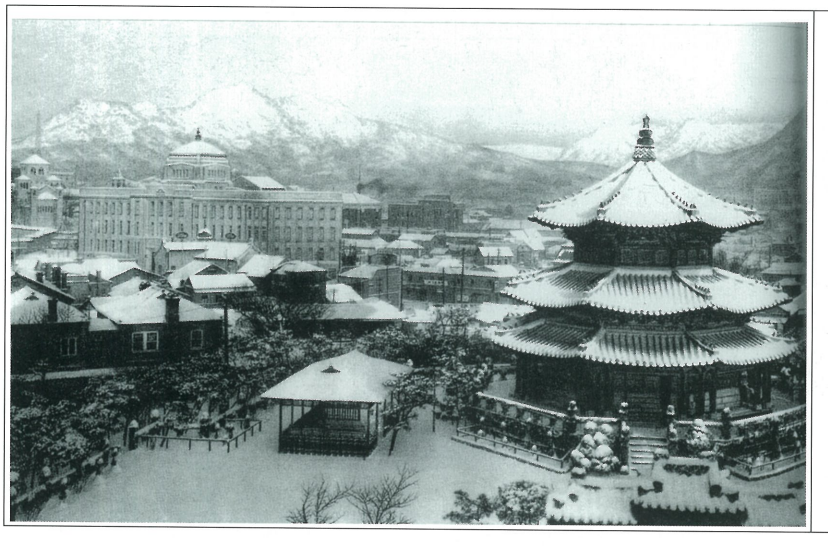
서울의 옛 모습. p19

촬영시기 :

1907년 무렵 추정

출처원문 :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에 즉위하면서 남별궁터에 제천단인 환구단을 만들고, 1899년에는 단 북쪽 경내에 천지의 신위를 봉안하는 팔각 3층의 황궁우를 지었다. 모두 내부 소속 기사 심의석이 설계한 것이라고 한다. (1907년 김응수 소장)』

환구단 서남 모퉁이에서 촬영한 것으로, 황막, 단상 동서무와 난간, 황궁우와 동서무, 삼문 등이 구성된 것으로 보아 중수 이후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상 동서무는 첫 단에 설치된 것은 4간, 둘째 단에 설치된 것은 2간으로 된 것이 확인된다. 환구단을 중심으로 원형과 방형의 담장구성이 확인되며, 담장은 아래는 장대석으로 쌓고 위는 벽돌로 쌓은 것이 확인된다. 원형과 방형 모두 홍살문이 설치된 것이 보인다. 또한 방형보다는 원형의 담장이 좀 더 높이 보인다. 서쪽으로 방형담장과 연결된 부부에 협문이 약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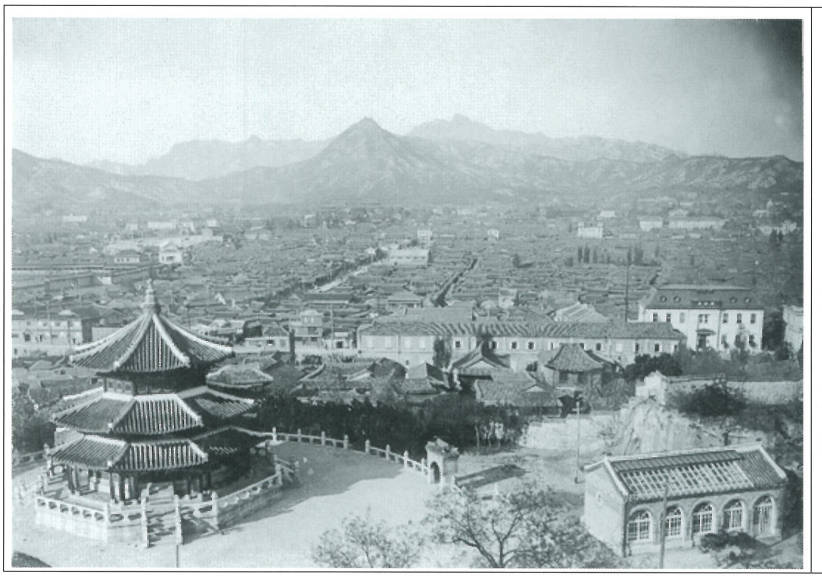


사진출처 :

서울 20세기 100년의 사진기록 p60

촬영시기 : 1926년 무렵

동서무는 이미 철거된 상태이다. 현재의 황궁우와 큰 차이는 없으나 왼편으로 용도를 알 수 없는 건물이 보인다.



사진출처 :

조선호텔 홍보과

황궁우가 왼편으로 보이고 오른쪽으로 벽돌로 세우고 기와지붕에 양성을 한 5간 건물이 보인다. 이전 시기의 사진에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황궁우에 딸린 부속건물(전사청 추정)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황궁우와 전사청 뒤쪽으로 환구단의 영역을 둘러싸는 담장이 약간 보이고, 황궁우 영역이 뒤편의 지역보다 높은 입지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진출처 :

조선호텔 홍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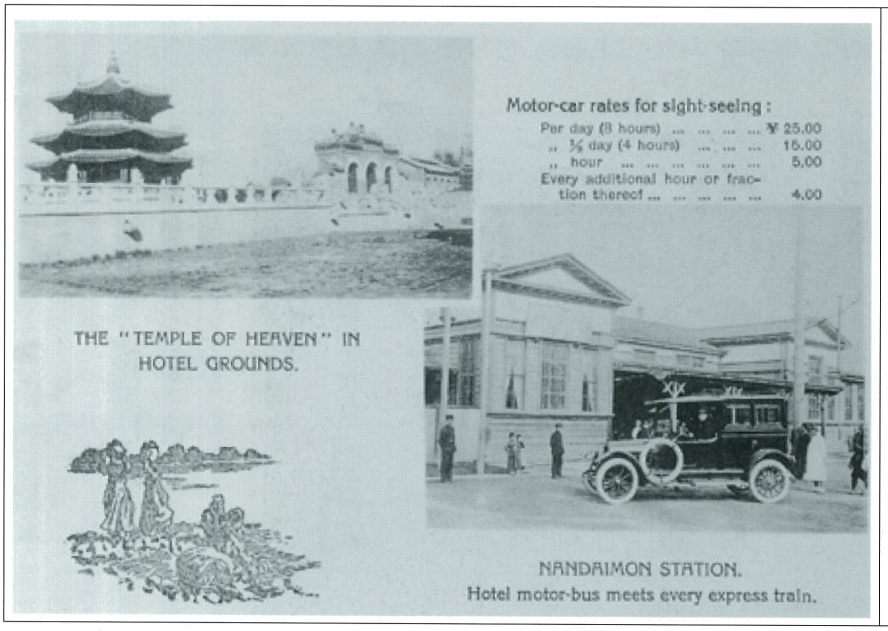
덕수궁 앞으로 난 세종로와 소공로길이 보이고, 조선호텔 건물이 보인다.



사진출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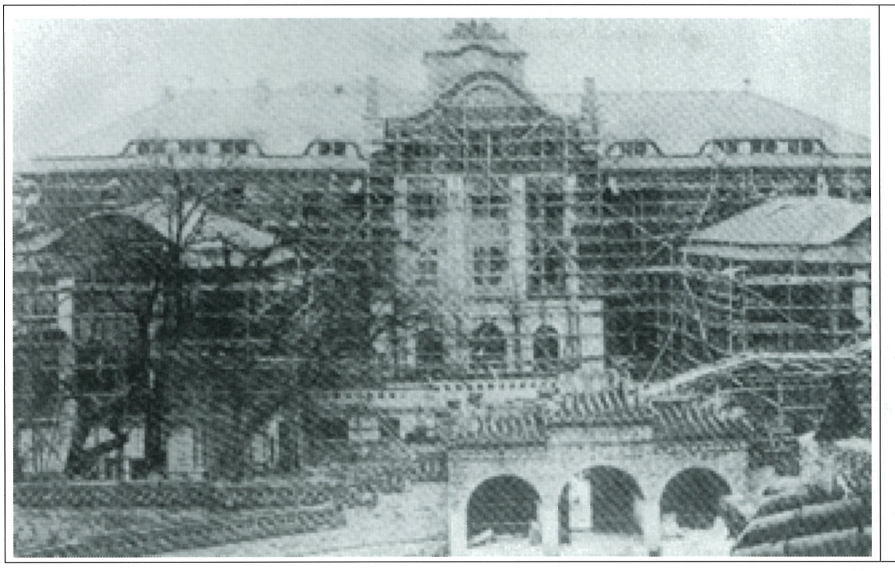
조선호텔 홍보과

조선호텔 정문으로 이용된 옛 환구단 정문으로 3간의 맞배지붕으로 구성된 점과 좌우로 담장이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출처 :

조선호텔 홍보과



사진출처 :

조선호텔 홍보과

황궁우에서 바라본 조선호텔 모습으로, 황궁우 삼문이 자세하게 보인다. 특징적인 점은 삼문 양옆으로 두 줄의 담장이 구성된다는 점이며, 이를 토대로 원단 영역의 방형 담장과 황궁우 영역의 원형 담장이 삼문을 중심으로 별도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조선호텔 홍보과

환구단 지역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 오른쪽 아래로 정문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재실건물들이 보인다. 사진으로 보면 환구단 영역보다 황궁우 영역이 보다 높은 입지적 조건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진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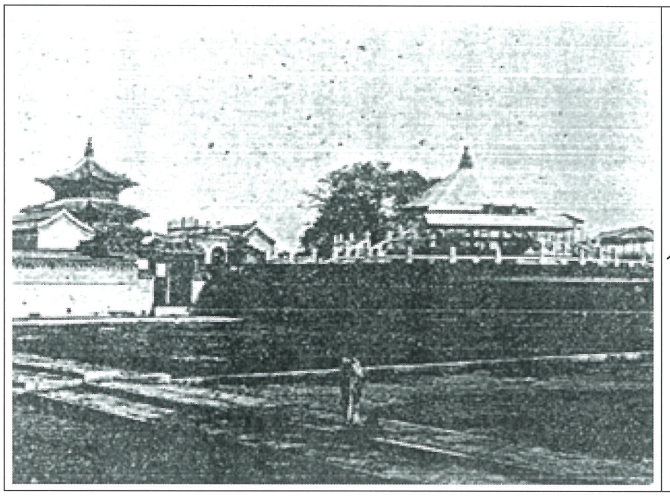
황궁우와 동서무의 측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또한 환구단의 난간 모습과 삼문 지붕에 장식된 취두가 확인된다. 또한 삼문으로 두 줄의 담장이 구성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진출처 :
서울 20세기100년의 사진기록 p88
촬영시기 : 1930년대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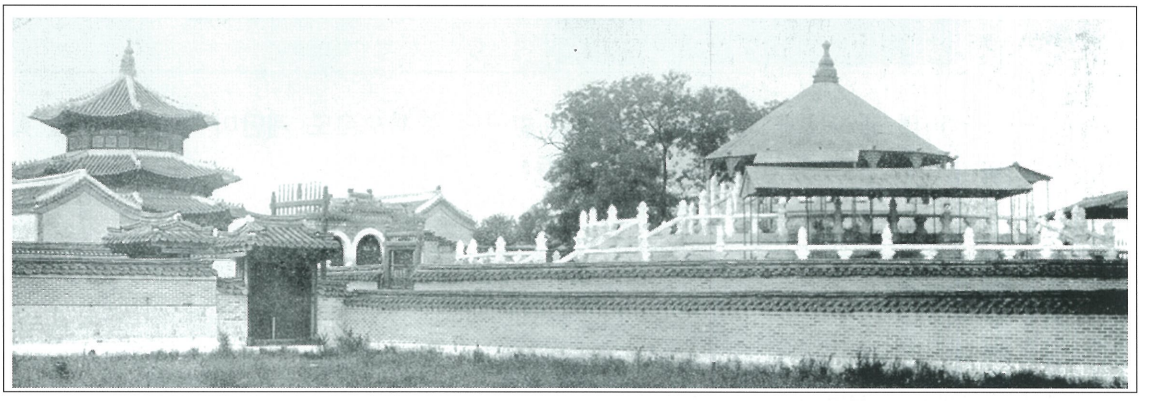
출처원문 : 『경복궁에서 남대문을 거쳐 용산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중심 축선에 총독부청사 - 경성부청사 - 경성역사가 자리잡았다. 경성부청사 주변은 서울의 남북축선과 동서간 도로의 교차점으로써 서울의 공간적 중심을 이루었다. 경성부청사 주변의 방사선형 도로망이 두드러진다.-』

소공로길 왼쪽으로 조선호텔과 황궁우 모습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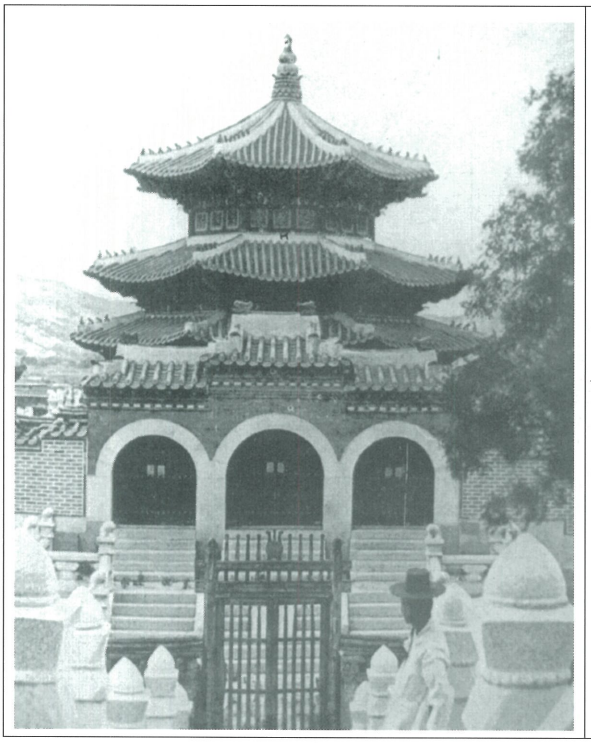


사진출처 : 경성부사 1권

좌측 아래로 환구단과 황궁우 쪽으로 삼도의 구성을 한 어도가 보인다. 따라서 정문에서 각 전각으로의 동선관계에 따라 방전으로 된 어도가 구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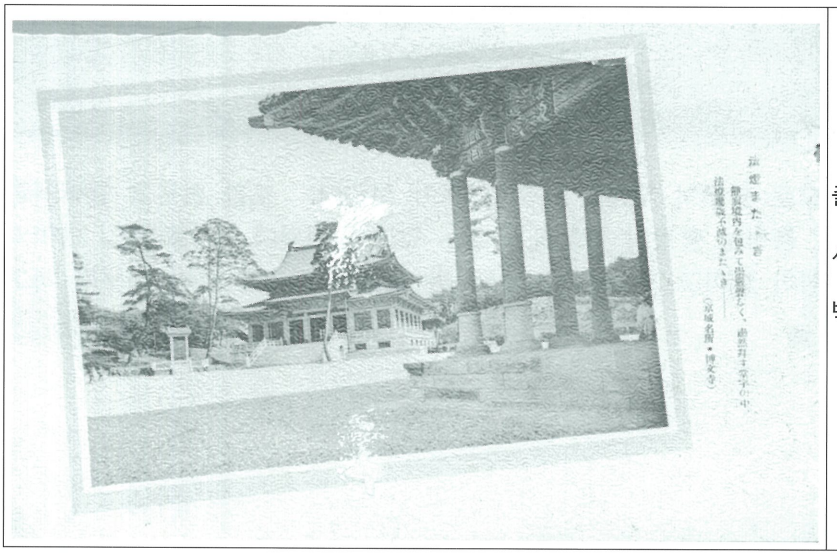


환구단의 방형담장 서쪽으로 협문이 구성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 또한 협문을 들어서면 바로 동쪽(환구단 쪽)으로 통하는 협문이 구성되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아울러 각 영역의 담장은 아래쪽으로 장대석이 놓이고 그 위로 벽돌(전)을 올리고 기와를 올려 마무리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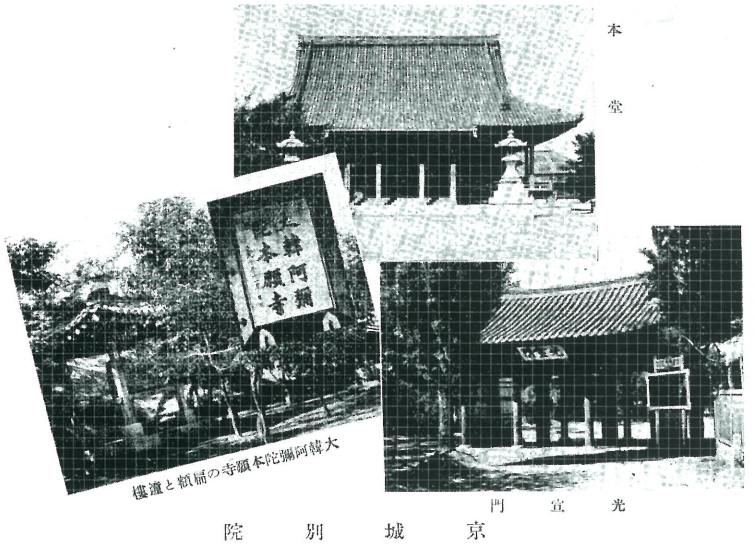
자료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자료

환구단에서 바라본 황궁우와 삼문의 모습으로, 환구단 북쪽으로도 계단이 구성된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점은 중국 천단의 구성과 유사하다.



출처 :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자료 (엽서)

박문사 오른편으로 이전된 석고각의 기단부와 축부, 지붕부분의 구성이 보인다. 석고각은 장대석 기단 위에 장초석을 놓고 둥근기둥을 세워 지붕구조를 받치고 있다. 공포는 다포식으로 확인된다.



출처 :

京城府南山町本願寺別院

朝鮮開教監督部

朝鮮開教五十年誌

남산으로 옮겨진 광선문이 보인다. 아울러 외쪽의 사진에 "大韓阿彌陀本願寺" 라는 편액이 보이는데 이것은 1906년 조선황실에서 하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10년 봉양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 왼쪽으로 종루도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지평군 용문산 상원사에서 구해온 것으로 조선에서도 귀중한 것이었다고 소개되고 있고, 받은 것은 1907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특이하게 감정도 關野 공학박사에게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관야는 감정서에서 이 종을 신라 경순왕의 명으로 주조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경성부사 3권

건축 중인 조선호텔 모습

長谷川町 환구단 터에 건축 중의 조선호텔로 우측 발판(足場) 중앙에 보이는 건물은 석고각의 각으로 지금은 박문사의 종루가로 이전된 것임. 좌측 발판의 중앙에 보이는 수목은 현재 호텔 대합실 뒤쪽에 있는 고목임. 그 좌측의 건물은 황궁우로 세간에서 흔히 오인되어 환구단으로 칭해지고 있는 것임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사진자료

광선문 후면 모습

팔작지붕으로 겹처마이며 용마루에 취두를 얹고, 원형기둥과 다포식의 구성을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사진자료

광선문 정면 모습

3칸의 중앙칸에 光宣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사진자료

석고각의 모습

정면 3칸에 좌우로 폭이 좁은 1칸씩을 더해 5칸의 구성을 하고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을 하고, 겹처마에 다포식을 구성하고 있다. 기둥은 원형기둥이며 기둥 하부에 돌기둥을 놓고 다시 그 위에 목조기둥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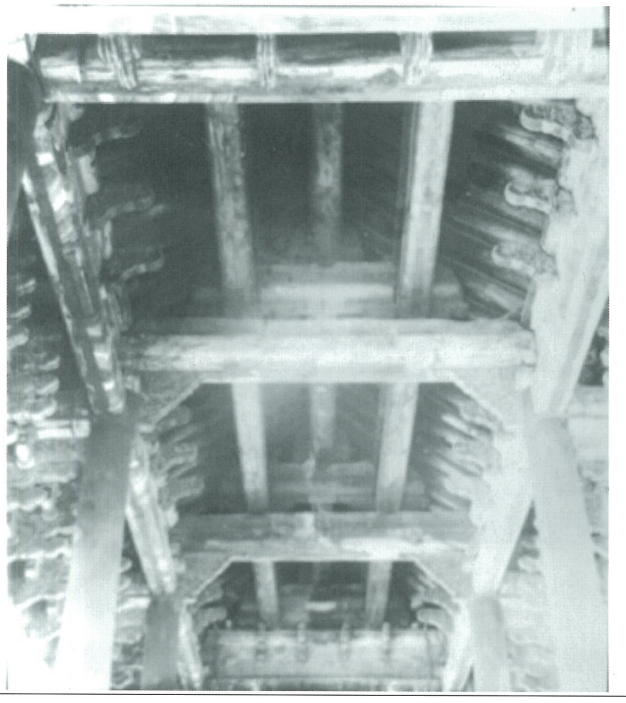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사진자료

석고각 측면 모습

중앙부 1칸에 좌우로 폭이 좁은 1칸을 더해 3칸의 구성을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사진자료

석고각 내부 모습

보위에 다시 중보를 얹고 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창방 위에 많은 장식을 사용하고 있어 화려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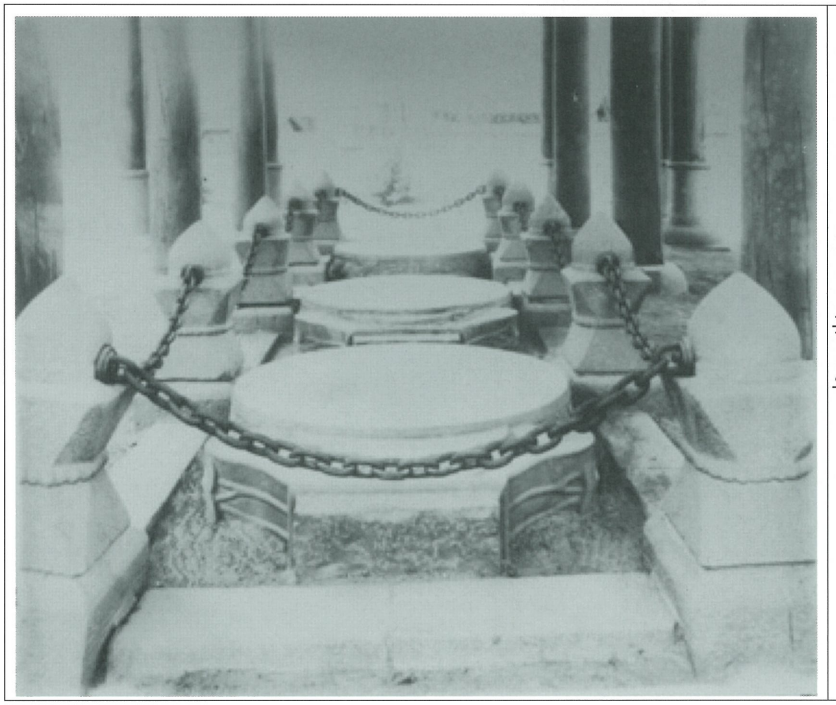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사진자료

석고각 정측면

2중의 기단 위에 원형의 돌기둥과 나무기둥을 세우고, 창방과 평방을 구성한 다음 다포식의 공포를 배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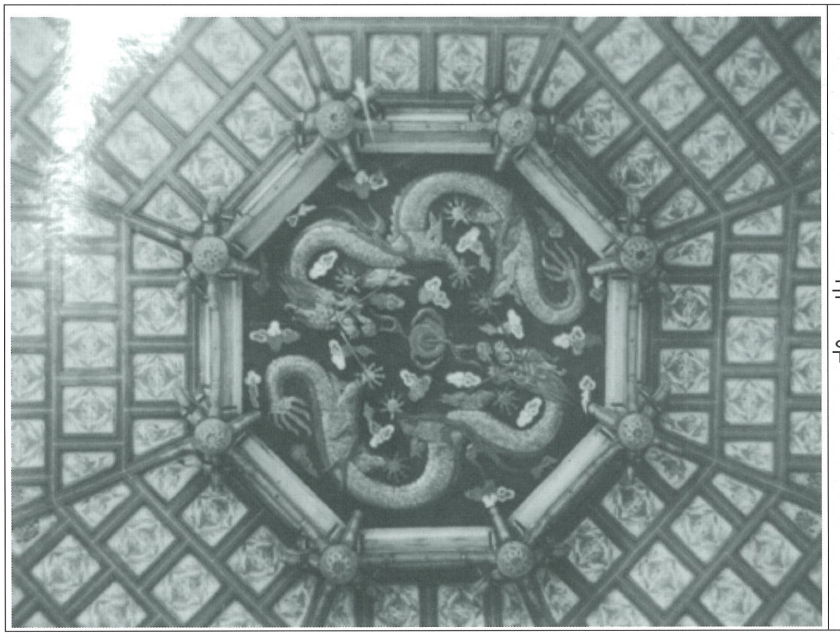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사진자료

석고각 내부 모습

눕혀져 있는 3개의 돌북이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사진자료

황궁우 내부 천장

발톱이 7개 달린 2마리의 용이 그려져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석고각 원판사진자료

석고각 모습

지붕에 양성을 하고 취두와 잡상을 얹고 있다.



국가기록원 사진자료

조선호텔 정문(환구단 정문)과 뒤편으로 조선호텔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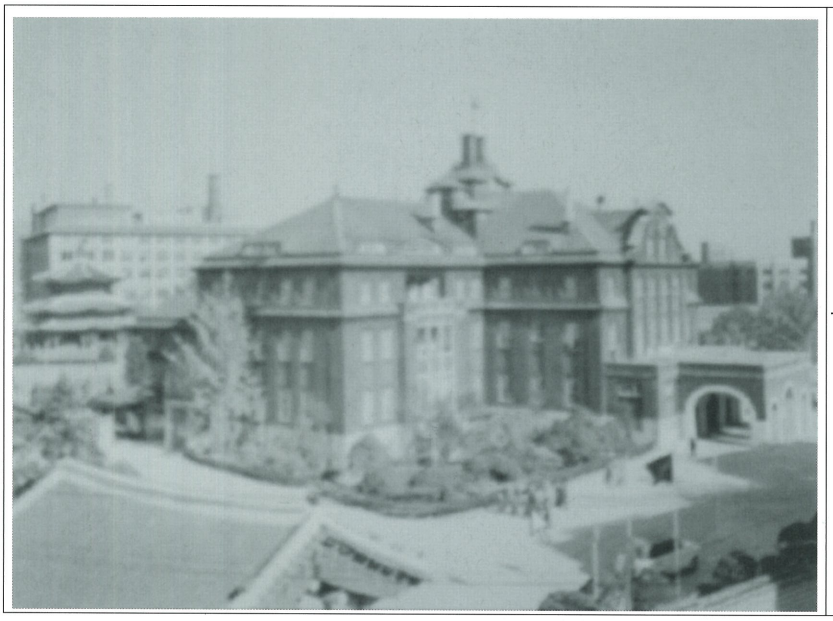
국가기록원 사진자료

조선호텔이라고 씌여져 있는 환구단 정문



국가기록원 사진자료

환구단 정문과 조선호텔 사이로 협문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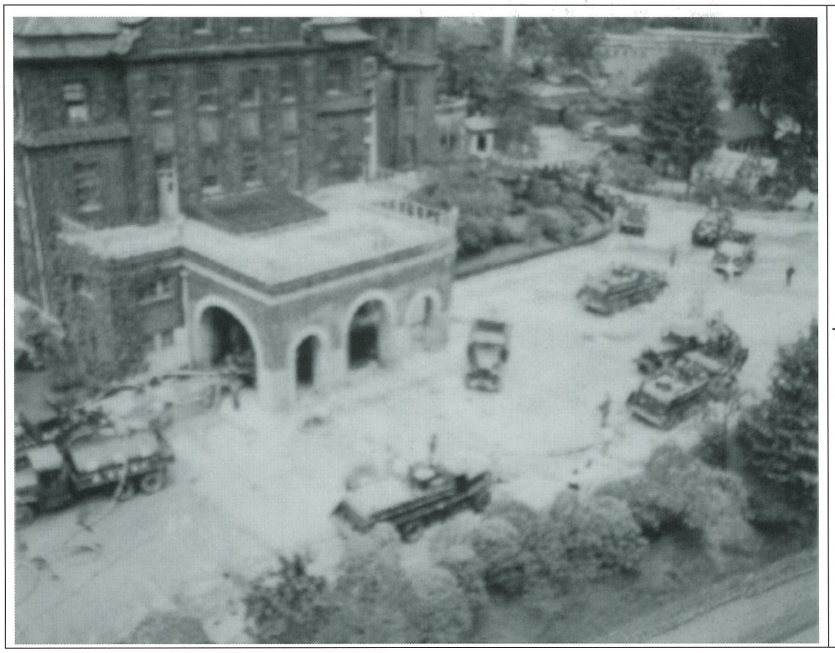
국가기록원 사진자료

조선호텔과 황궁우가 보인다.



국가기록원 사진자료

조선호텔과 환구단 정문, 재실, 황궁우 모습이 보인다.



국가기록원 사진자료

조선호텔 동쪽으로 기능을 알 수 없는 전각이 보인다.



국가기록원 사진자료

황궁우에서 바라본 삼문과 조선호텔

3) 고증자료

石鼓閣 上樑文


石鼓閣上樑文

石鼓閣上樑文
伏以祈
天命誠于民舊
邦鞏業紀
聖功被之石新

閣揭扁誠切揄揚功
訖輪奐欽惟
運乃
聖乃神之德齊作

君作師之任陟
帝位而通萬邦剖判以來
未有建
皇極而圍百姓率普之下
莫非

望六
寶齡既舉
靈壽閣故典於萬繁
祉復頌
中和殿新成肆致

四旬臨御之
治尤切億兆咸戴之
悃天地合四時合
盛德難名卿士從庶
民從衆願莫遏闡美

上聖非無鏤玉而雕金撰
頌
中興盖多刻石而銘
鼓麦伐苔紋之鑿鑿
遂倣籀篆之煌煌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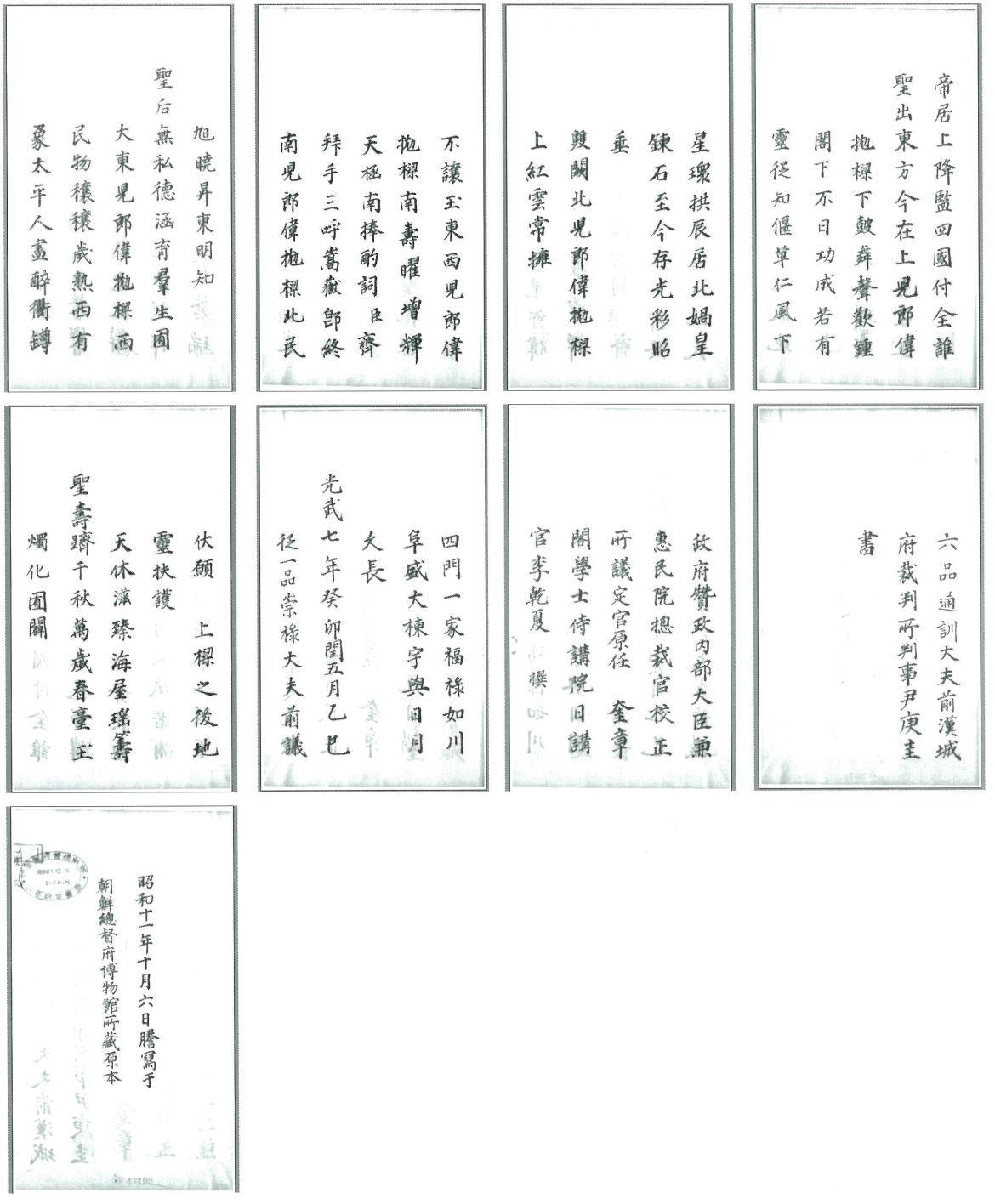
之彌堅平若君子之
履砥確然不動措爲
天下恭磐斷桐魚之
化桴聲聞三千里封
域協蓮龜之遐筭地

占萬億年洪基睠茲
國都南第一區迺在
皇壇東數百武通圜圜之
萬户定星方中接閶
闔之九天瑞雲其上

白磷一片匪敢擬
天日之寫摹丹雘數
楹可以備風雨之渝
泐斯爲祝
聖尊閣之所允叶聽輿經

營之謀肯搆肯堂上
溯
皇祖剏垂之烈如磨如琢
下述
儲嗣緝熙之工

聖主又得賢臣鍾樂與共
子民若趍父事馨響
不勝敢將張老之辭
庸助郢匠之曲兒郎
偉拋樑東蒼蒼瑞


帝居上降監四國付全誰
聖出東方今在上兒郎偉
抛樑下鼓舞聲歡鍾
閣下不日功成若有
靈從知偃草仁風下

星璟拱辰居北媧皇
鍊石至今存光彩昭
垂
雙闕北兒郎偉抛樑
上紅雲常擁

不讓玉東西兒郎偉
抛樑南壽曜增輝
天極南捧酌詞臣齊
拜手三呼嵩嶽郎終
南兒郎偉抛樑北民

旭曉昇東明知
聖后無私德涵育羣生囿
大東兒郎偉抛樑西
民物穰穰歲熟西有
象太平人盡醉衢罇

六品通訓大夫前漢城
府裁判所判事尹庚圭
書

政府贊政內部大臣兼
惠民院總裁官校正
所議定官原任　奎章
閣學士侍講院日講
官李乾夏　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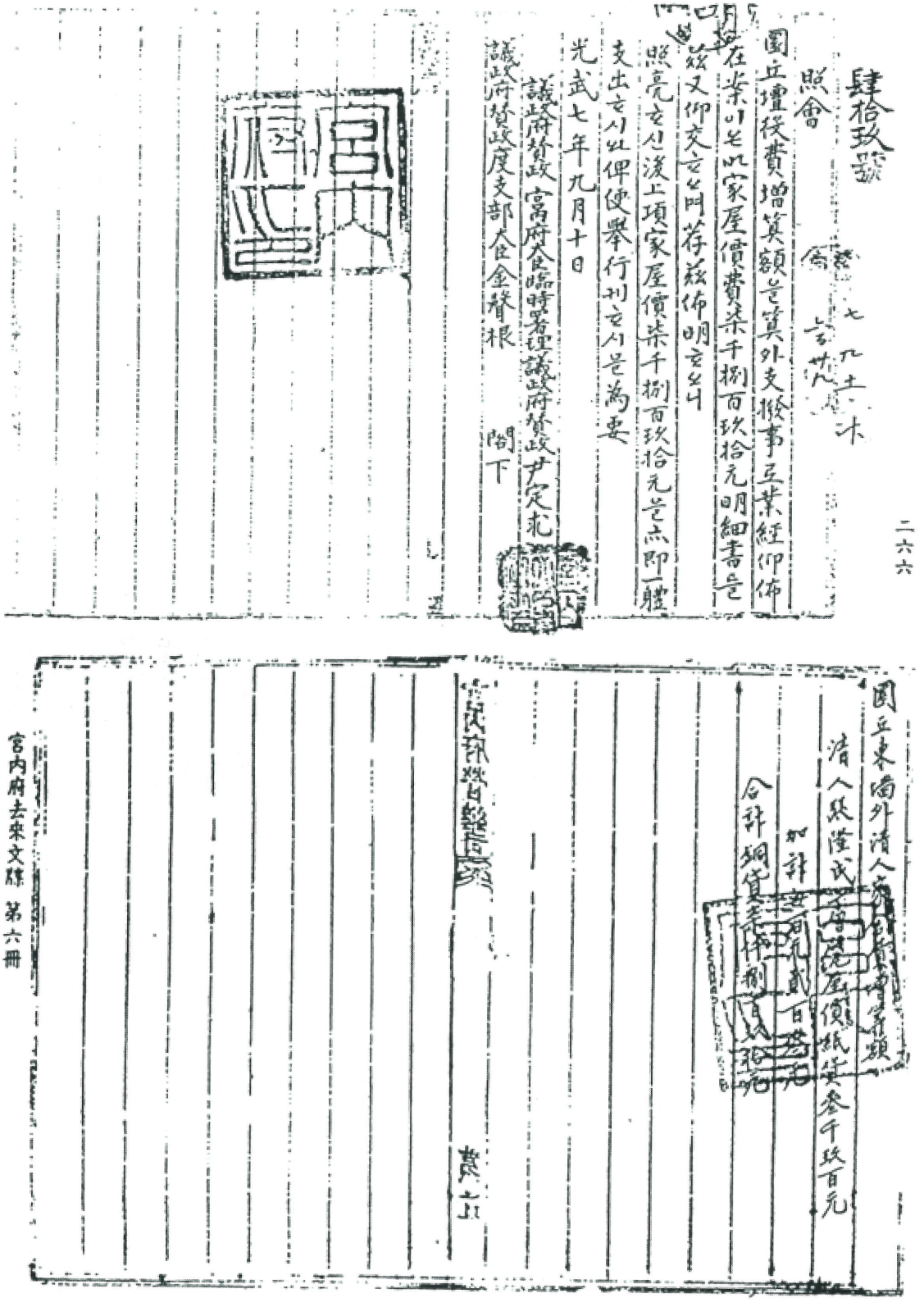
四門一家福祿如川
阜盛大棟宇與日月
久長
光武七年癸卯閏五月乙巳
從一品崇祿大夫前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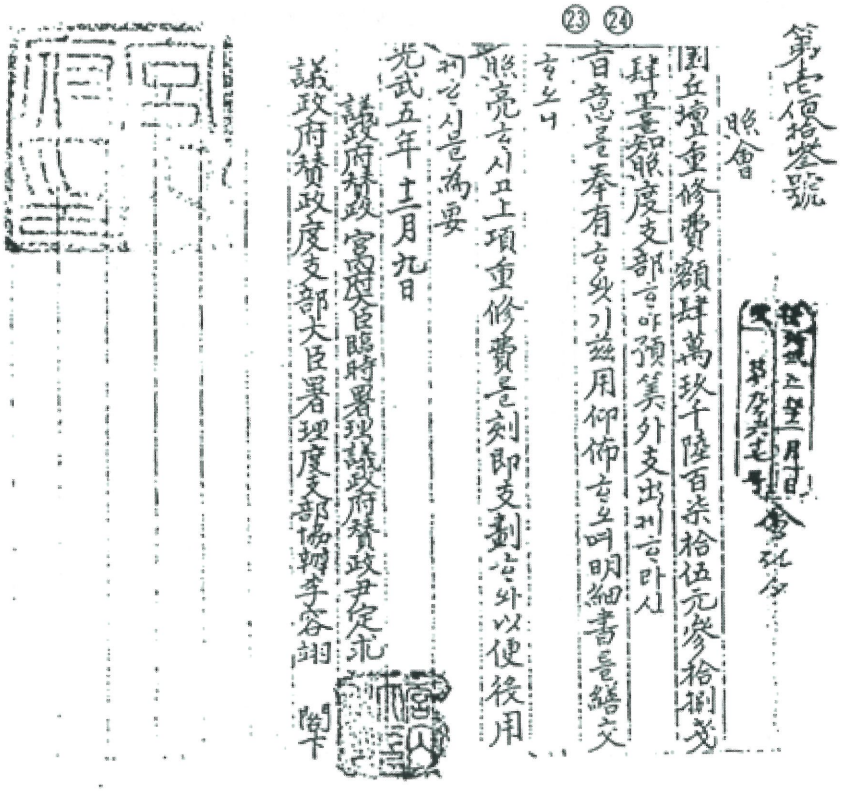
伏願　上樑之後地
靈扶護
天休滋臻海屋瑤籌
聖壽躋千秋萬歲春臺玉
燭化囿闢

昭和十一年十月六日謄寫于
朝鮮總督府博物館所藏原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석고각 상량문 (순서는 上左-右下)

宮內府去來牒 원문





第壹億叁號

照會

因丘壇重修費額肆萬玖千陸百柒拾伍元參拾捌戔肆毫額度支部言咋預算外支出難言昨[illegible]

㉓ ㉔

旨意奉有旨交[illegible]欽此欽遵[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照亮[illegible]此上項重修費[illegible]即支劃[illegible]外以便後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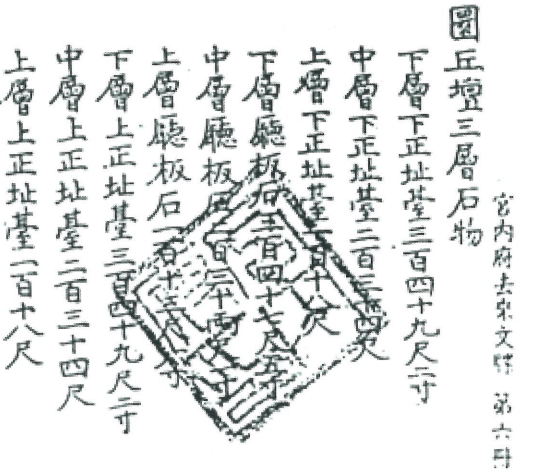
[illegible]此[illegible]為要

光武五年十二月九日

議政府贊政宮內府卿臨時署理議政府贊政尹定求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署理度支部協辦李容翊

二六七



圜丘壇三層石物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下層下正址堂三百四十九尺二寸

中層下正址堂二百三十四尺

上層下正址堂一百十八尺

下層廳板石三百四十七尺[illegible]

中層廳板石三百三十[illegible]

上層廳板石一百十[illegible]

下層上正址堂三百四十九尺二寸

中層上正址堂二百三十四尺

上層上正址堂一百十八尺

尺合二十九十五尺[illegible]所用別長廣[illegible]價每尺三兩二戔六

合錢六千七百五兩九戔二分

車運賃二十九十五尺[illegible]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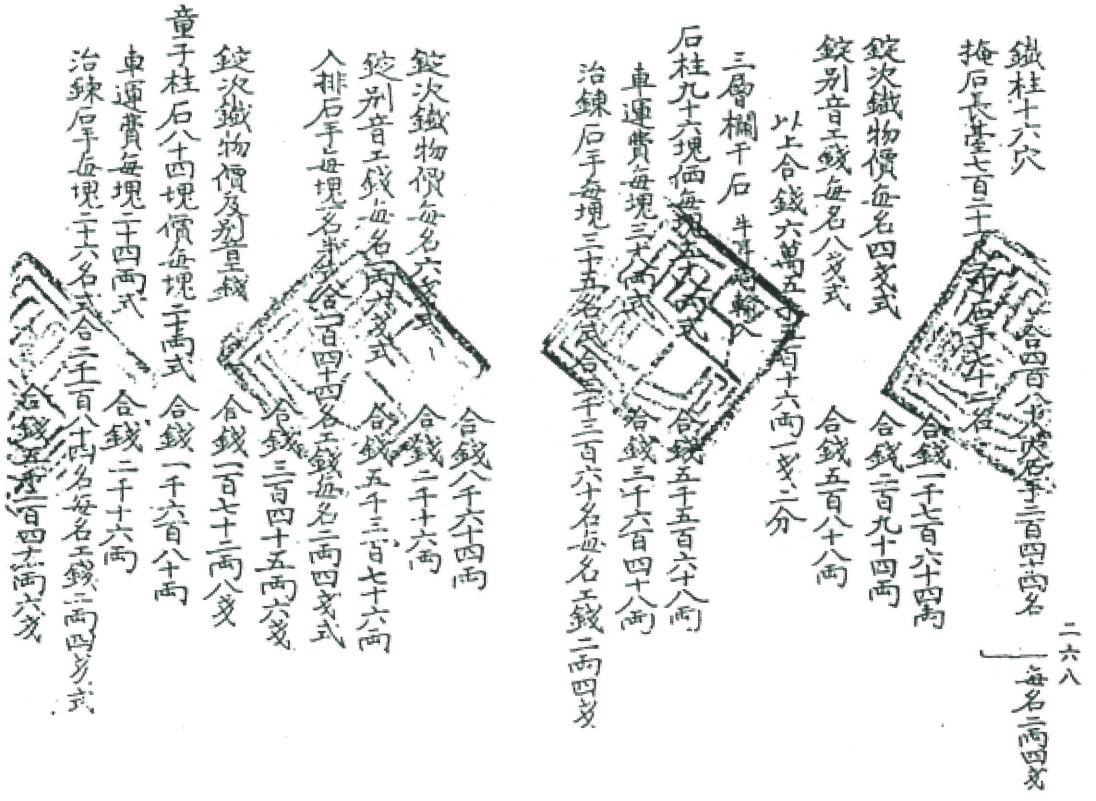
[illegible]

[illegible]

鐵柱十六穴 合四百八十六尺 每名二兩四錢
掩石長臺七百二十尺 每石手七十二名 合錢一千七百六十四兩
錠次鐵物價每名四錢式 合錢二百九十四兩
錠別音工錢每名八錢式 合錢五百八十八兩
以上合錢六萬五千五百十六兩一錢二分
三層欄干石 牛耳洞輸入
石柱九十六塊 每塊五十八兩式 合錢五千五百六十八兩
車運費每塊三十八兩式 合錢三千六百四十八兩
治鍊石手每塊三十五名式 合二千三百六十名 每名工錢二兩四錢

錠次鐵物價每名六錢式 合錢八千六十四兩
錠別音工錢每名二兩六錢式 合錢二千十六兩
入排石手每塊一名半式 合一百四十四名 工錢每名二兩四錢式 合錢五千三百七十六兩
錠次鐵物價及別音工錢 合錢三百四十五兩六錢
童子柱石八十四塊 價每塊二十兩式 合錢一百七十二兩八錢
車運費每塊二十四兩式 合錢一千六百八十兩
治鍊石手每塊二十六名式 合二千一百八十四名 每名工錢二兩四錢式 合錢二千十六兩
合錢五千二百四十六兩六錢

錠次鐵物價每名六錢式 合錢一千三百十兩四錢
錠別音工錢每名一兩六錢式 合錢三千四百九十四兩四錢
入排石手每塊一名半式 合一百二十六名 每名工錢二兩四錢式 合錢三百二兩四錢
錠次鐵物價及別音工錢 合錢一百五十一兩二錢
北石一百四十塊 一千二十九尺 價每尺一兩八錢式 合錢一千六百四十六兩四錢
車運費一千二十九尺 每尺二兩四錢式 合錢二千四百六十九兩六錢
治鍊石手每尺四名式 合四千一百十六名 每名工錢二兩四錢式 合錢九千八百七十八兩四錢
錠次鐵物價每名六錢式 合錢二千四百六十九兩六錢



錠別音工錢每名一兩六錢式 合錢六千五百八十五兩六錢
入排石手一百四十塊 每塊一名半式 合二百十名 工錢每名二兩四錢式 合錢五百四兩
錠次鐵物價及別音工錢 合錢二百五十二兩
以上合錢六萬三千一百九十二兩
三層步石 牛耳洞輸入
步石五百七十六尺 價每尺一兩六錢式 合錢九百二十一兩六錢
車運費每尺二兩四錢式 合錢一千三百八十二兩四錢
治鍊石手每尺三名式 合一千七百二十八名 每名工錢二兩四錢式 合錢四千一百四十七兩二錢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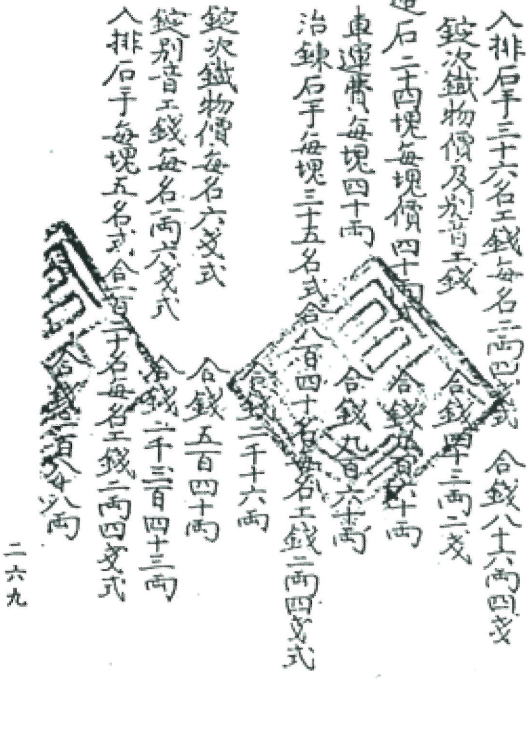
鋌次鐵物價每名六戔式　合錢二千三十六兩八戔
鋌別音工錢每名一兩六戔式　合錢二千七百六十四兩八戔
入排石手六十二名工錢每名工錢二兩四戔式　合錢一百四十八兩八戔
鋌次鐵物價及別音工錢　合錢七十四兩四戔
貢石二十四塊價每塊二十兩式　合錢五百七十六兩
車運費每塊三十四兩式　合錢八百十六兩
治鍊石手每塊三十二名式合二百六十八名每名工錢二兩四戔式
鋌次鐵物價每名六戔式　合錢一千八百四十三兩二戔
鋌別音工錢每名一兩六戔式　合錢四百六十兩八戔
合錢一千二百二十八兩八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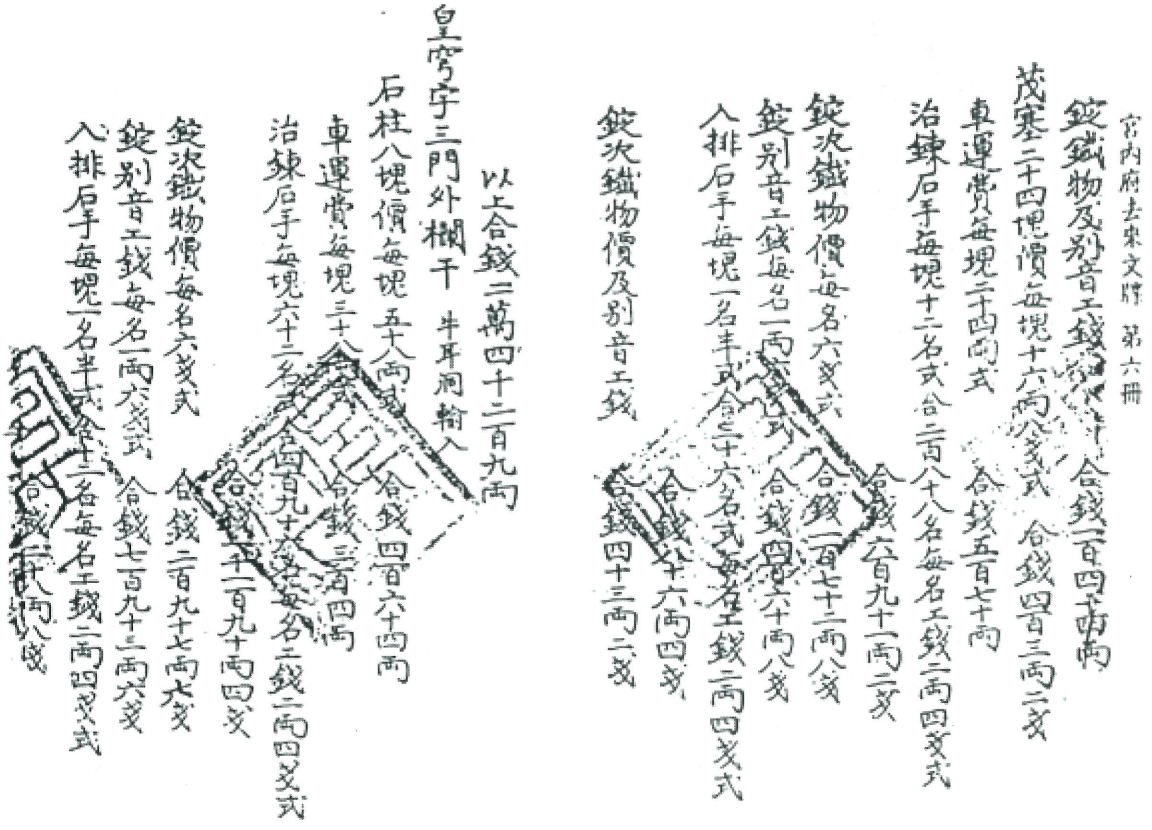
入排石手三十六名工錢每名二兩四戔式　合錢八十六兩四戔
鋌次鐵物價及別音工錢　合錢四十三兩二戔
邊石二十四塊每塊價四十兩式　合錢九百六十兩
車運費每塊四十兩　合錢九百六十兩
治鍊石手每塊三十五名式合八百四十名每名工錢二兩四戔式
鋌次鐵物價每名六戔式　合錢二千十六兩
鋌別音工錢每名一兩六戔式　合錢五百四十兩
入排石手每塊五名式合一百二十名每名工錢二兩四戔式　合錢二千三百四十三兩
合錢二百八十八兩

二六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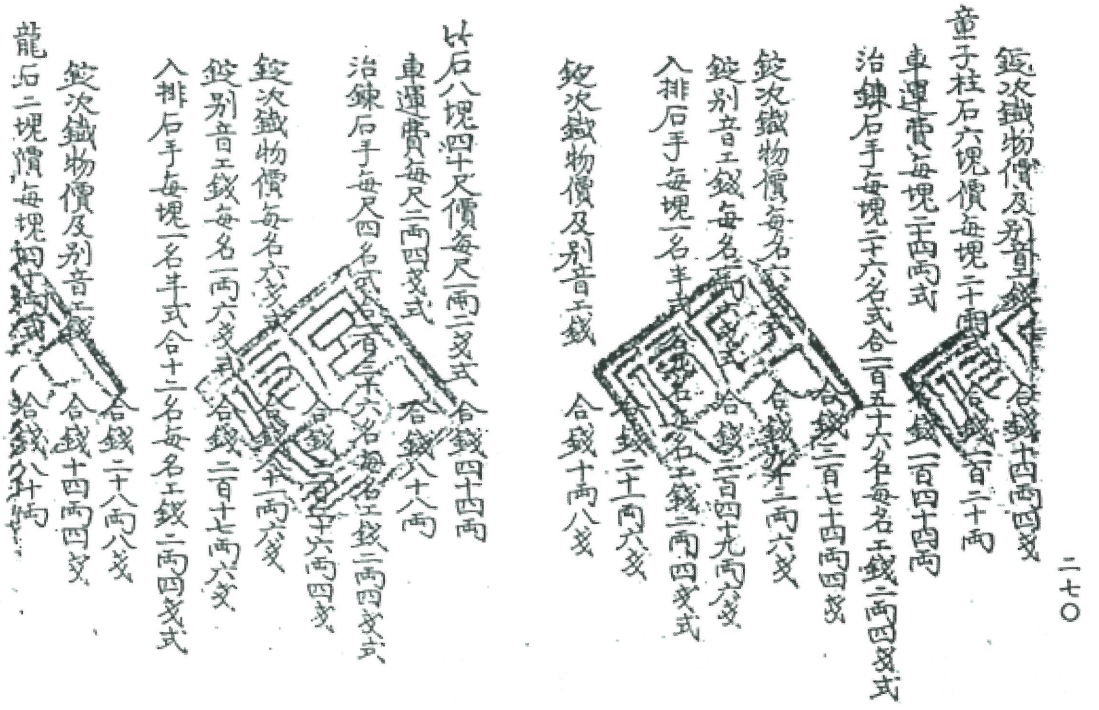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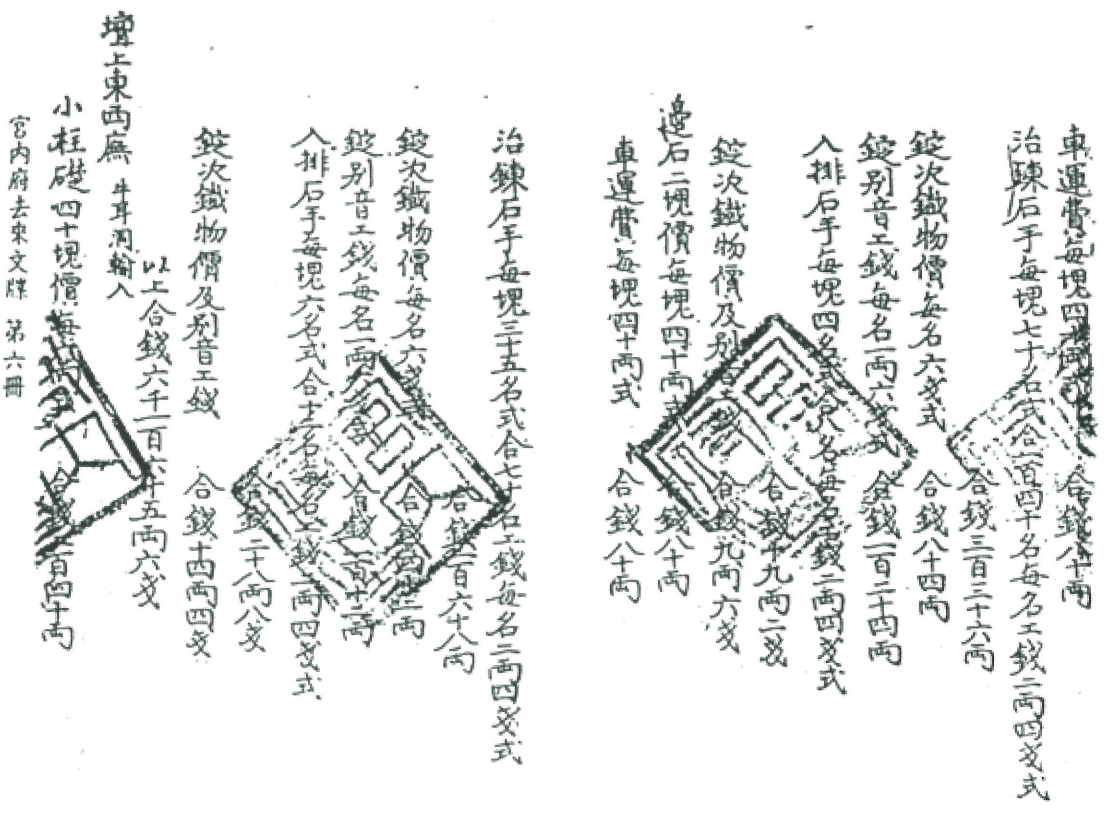
鋌鐵物及別音工錢　合錢一百四十兩
茂塞二十四塊價每塊十六兩八戔式　合錢四百三兩二戔
車運費每塊二十四兩式　合錢五百七十兩
治鍊石手每塊十二名式合二百八十八名每名工錢二兩四戔式
鋌次鐵物價每名六戔式　合錢六百九十一兩二戔
鋌別音工錢每名一兩六戔式　合錢一百七十二兩八戔
入排石手每塊一名半式合三十六名式每名工錢二兩四戔式　合錢四百六十兩八戔
鋌次鐵物價及別音工錢　合錢八十六兩四戔
合錢四十三兩二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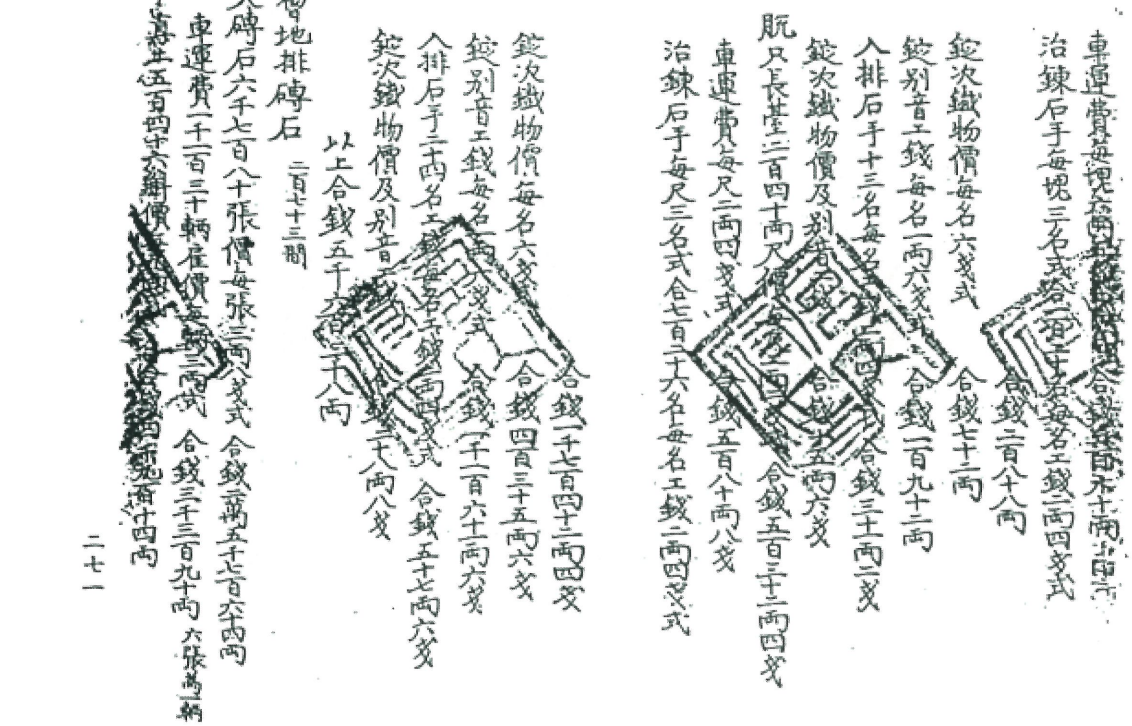




以上合錢二萬四千二百九兩
皇穹宇三門外欄干　牛耳洞輸入
石柱八塊價每塊五十八兩式　合錢四百六十四兩
車運費每塊三十八兩式　合錢三百四兩
治鍊石手每塊六十二名式合四百九十六名每名工錢二兩四戔式
鋌次鐵物價每名六戔式　合錢二千一百九十兩四戔
鋌別音工錢每名一兩六戔式　合錢二百九十七兩六戔
入排石手每塊一名半式合十二名每名工錢二兩四戔式　合錢七百九十三兩六戔
合錢二千八兩八戔







炭七石價每石二兩式 合錢十四兩
加乃十柄價每柄三兩式 合錢三十兩
光耳五十柄價每柄一兩三錢式 合錢六十五兩
三太一百立價每立三錢式 合錢三十兩
排尺四介價每介五兩六錢式 合錢二十二兩四錢
綱罟二千五百沙里價每沙里五分式 合錢一百二十五兩
舊壇撤毀都給錢三百四十兩
擔軍五千七百六十名每名雇價一兩五錢式 合錢八千六百四十兩
支架軍九千五百三十五名每名雇價一兩二錢式 合錢一萬一千四百四十二兩
募軍四千九百五十名每名雇價一兩一錢式 合錢五千四百四十五兩

以上合錢四萬五兩九錢
都以上合錢二十四萬八千三百七十六兩九錢二分
作銀四萬九千六百七十五元三十八錢四里

二七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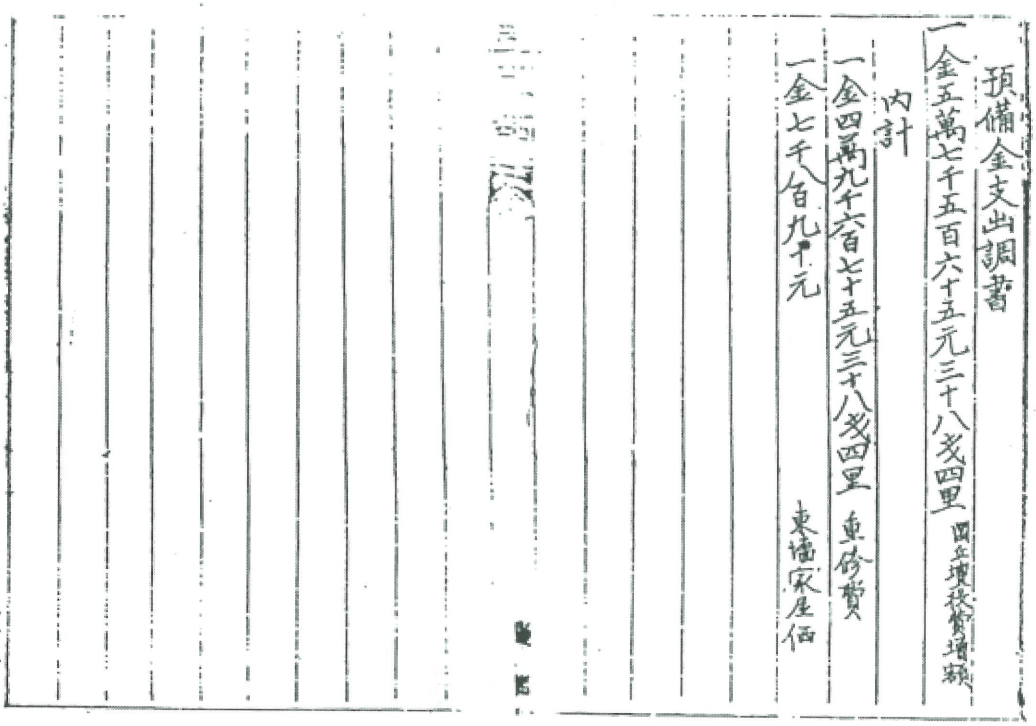
度支部公用信紙

圜丘壇役費增額을預算外金請議書起案經理課長
光武七年九月 日主任司計局長
大臣 協辦 局長
五年十二月九日 宮內府大臣署理第一百十三號照會로
重修費四萬九千六百七十五元三十八錢四里外七年九月十日
第四十九號照會로 圜丘東墻家屋價七千八百九十
을刻即支撥爲要等因이온바查役費를已爲挪撥
이온즉不得未支出勘簿이기로別紙調書을從立作預
備金中支出言을會議에提出事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金聲根

度支部公用信紙

議政府議政李根命 閣下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預備金支出調書

一金五萬七千五百六十五元三十八戔四里　國立壇祓費增額

內計

一金四萬九千六百七十五元三十八戔四里　重修費

一金七千八百九十元　東墻家屋価

二七三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御極四十年補慶禮式時所用房軍幕五坐修補兩備五件新造所入

貳拾陸元肆角　[illegible]五件外拱次洋木一百六十五尺價　每件五錢長六尺五寸　每尺八戔

貳拾叁元壹角　精上青染價　每尺七戔

貳拾陸元肆角　內拱次洋木一百六十五尺價　每尺八戔

拾叁元貳角　青染價　每尺四戔

拾陸元　[illegible]次青拘皮十丈價　每丈八兩

陸元　逢索次熟麻十斤價　每斤三兩

壹元伍角　布綵二斤半價　每斤三兩

陸元　針工尺綵價　每件六兩

壹元捌角　頭皮橘三介價　每介三兩

宮內會計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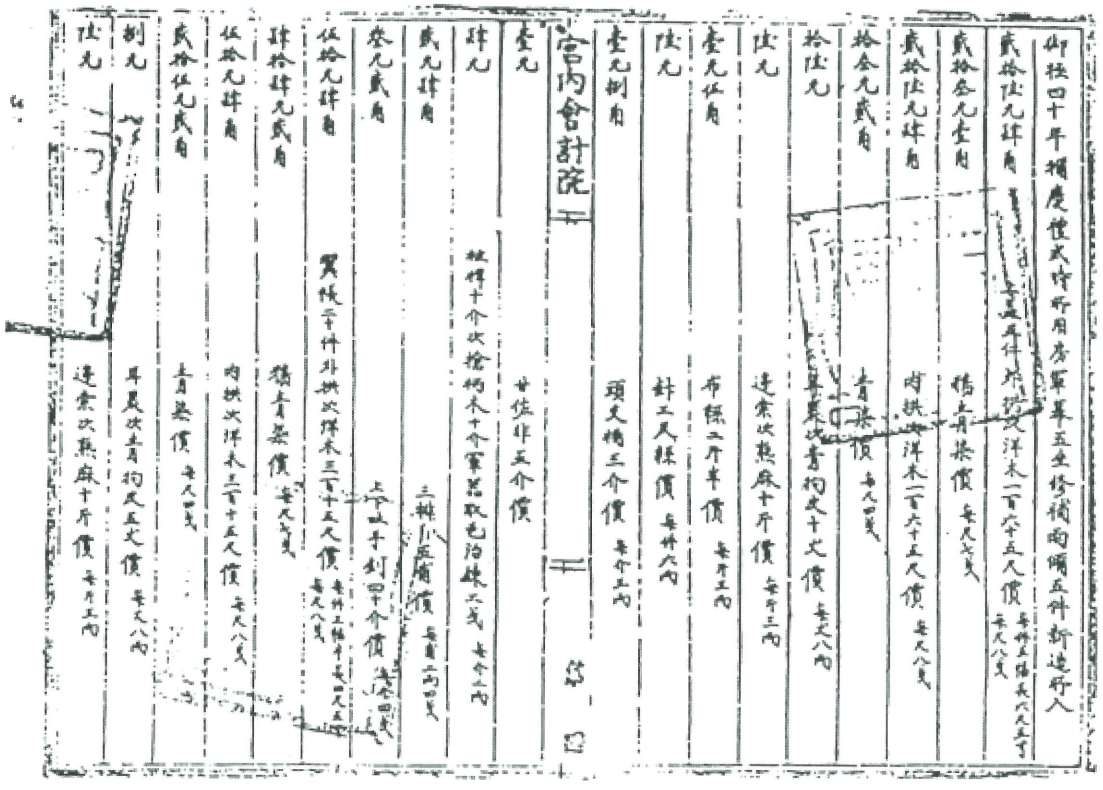
壹元　甘佐非五介價

肆元　粧桿十介次搶柄木十介軍器取色治鍊二戔　每介二兩

貳元肆角　三桿[illegible]價　每[illegible]二兩四戔

叁元貳角　上下吐手釗四十介價　每介四戔

伍拾元肆角　翼帳二十件外拱次洋木三百十五尺價　每件三錢半長四尺五寸　每尺八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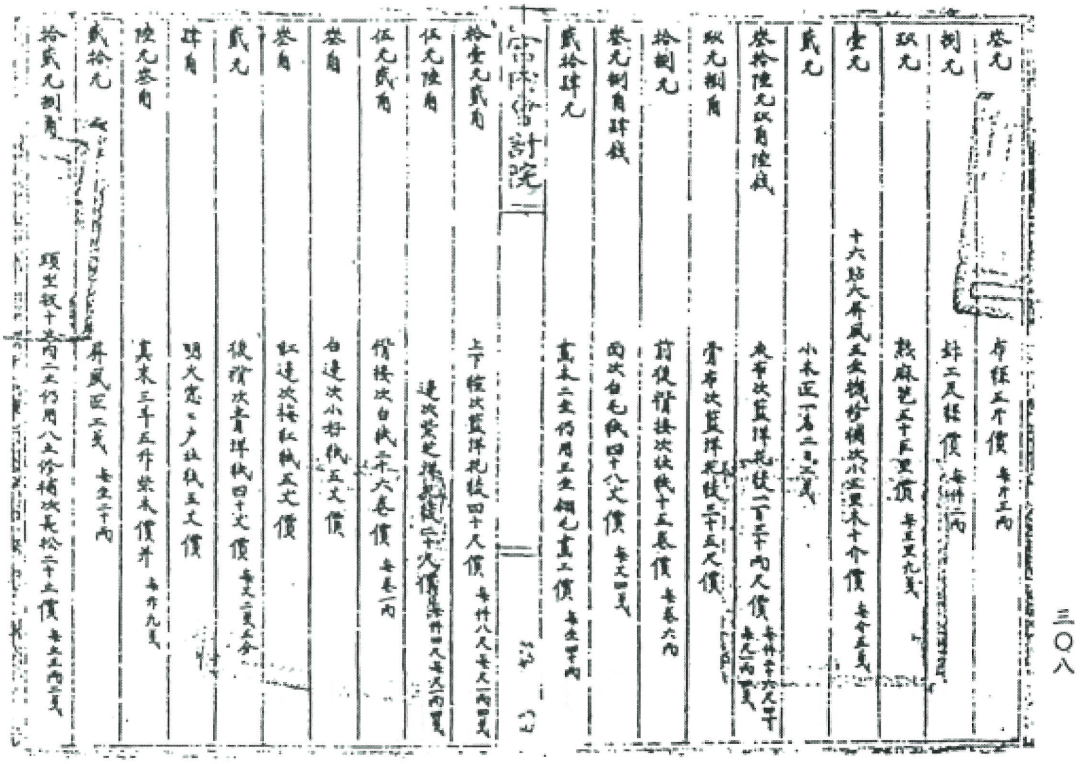
肆拾肆元貳角　精上青染價　每尺七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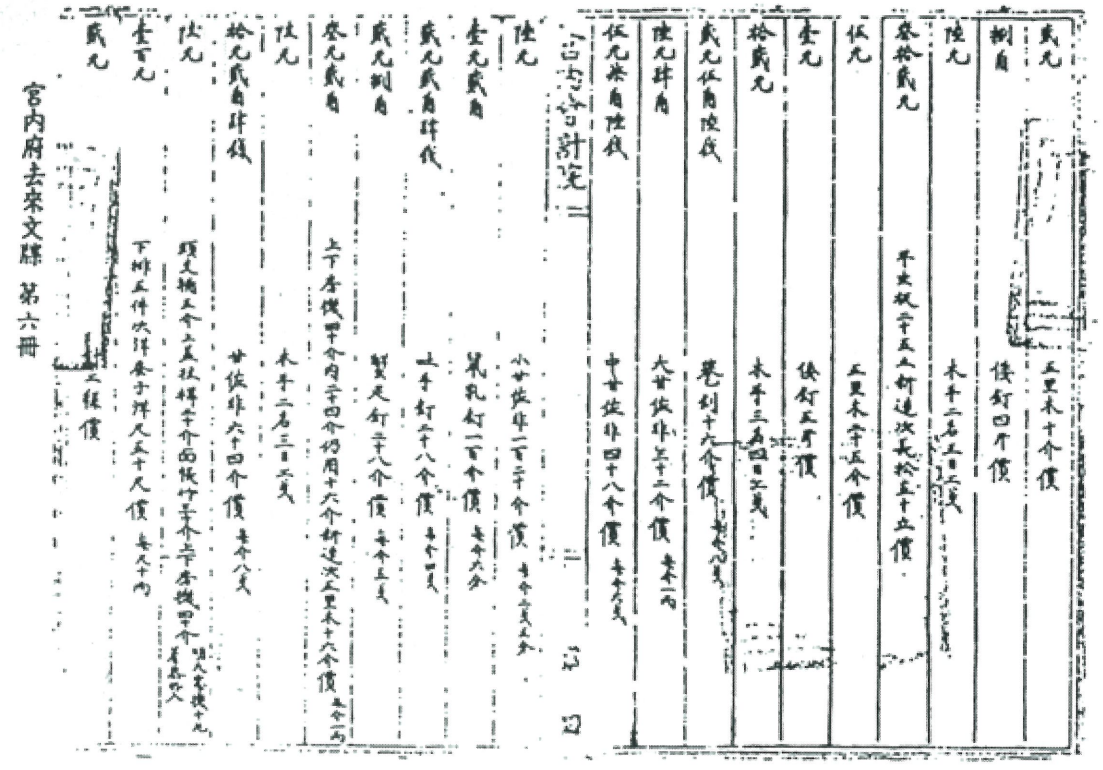
伍拾元肆角　內拱次洋木三百十五尺價　每尺八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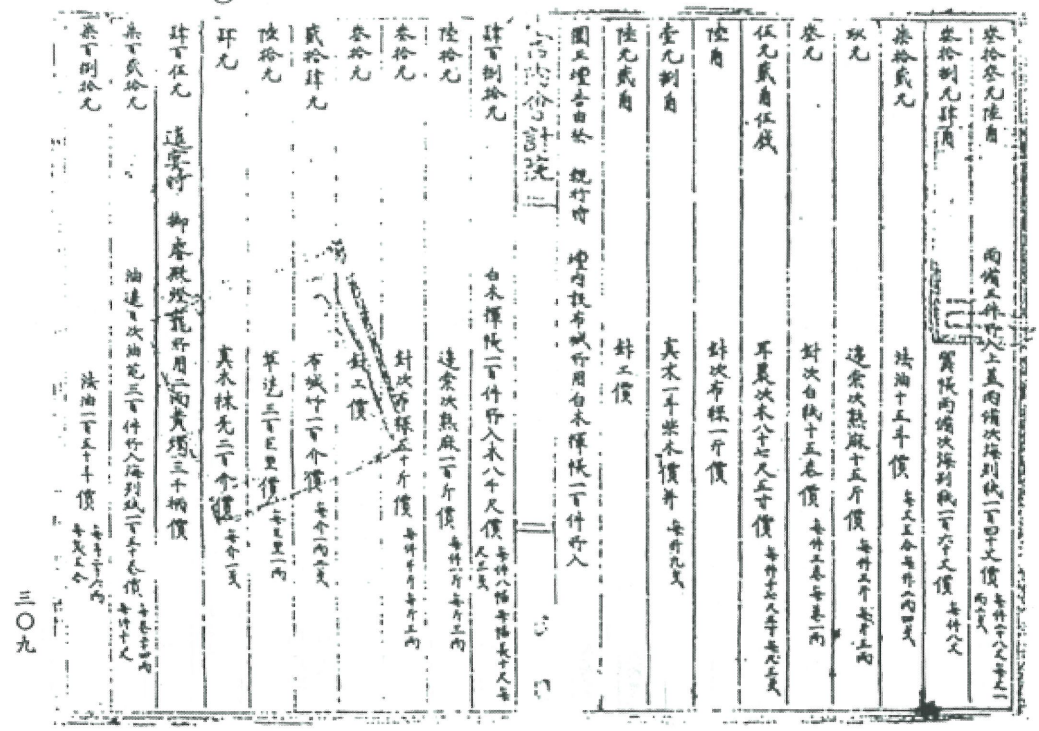
貳拾伍元貳角　上青染價　每尺四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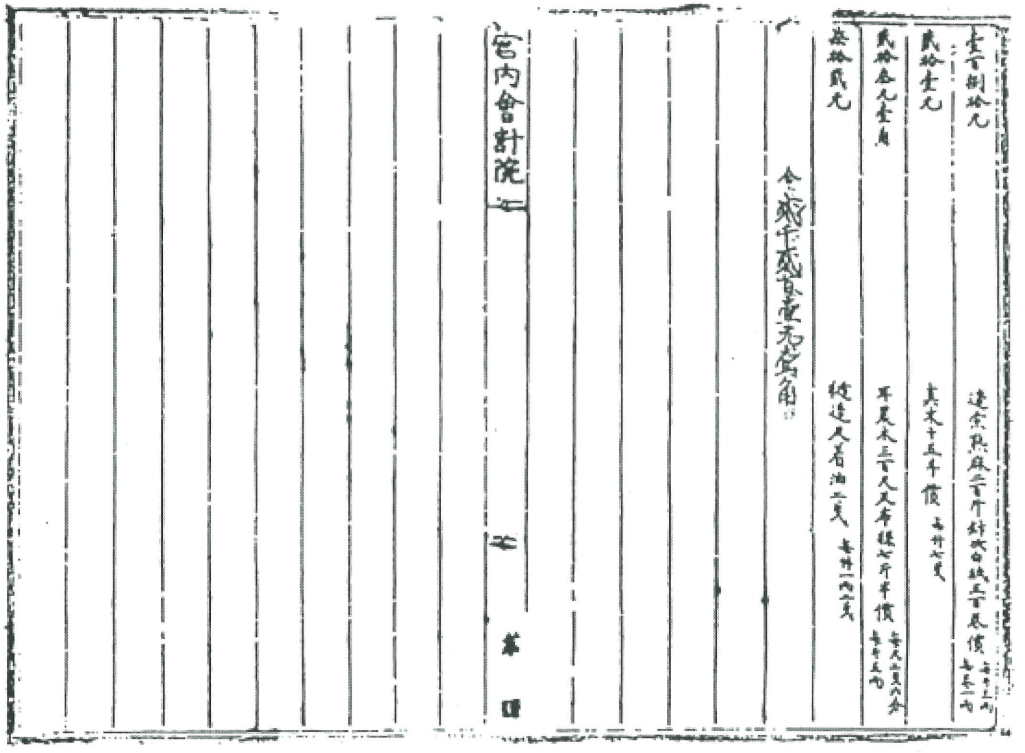
捌元　耳裏次上青拘皮五丈價　每丈八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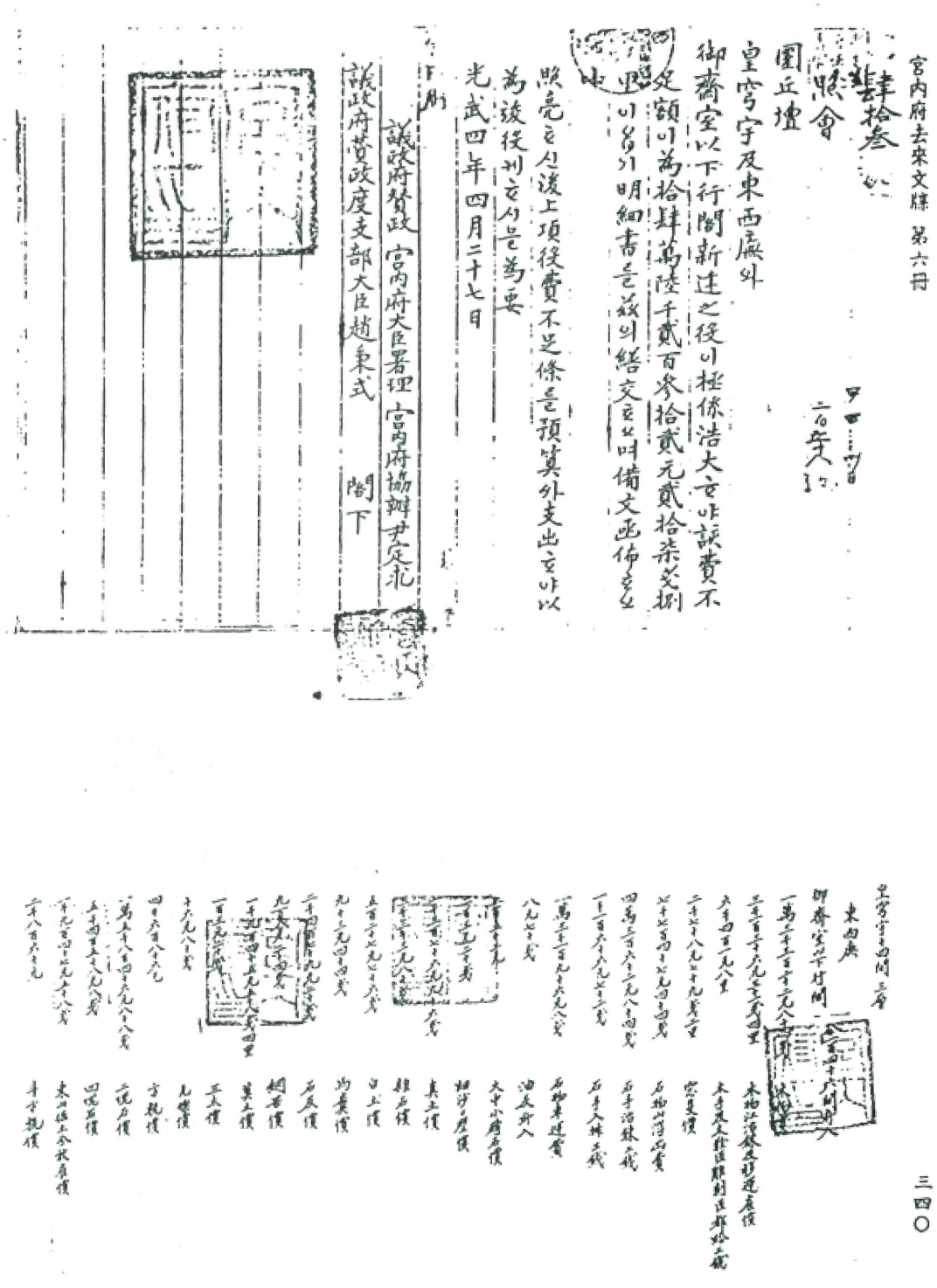
陸元　逢索次熟麻十斤價　每斤三兩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肆拾叁

照會

圜丘壇

皇穹宇及東西廡外

御齋室以下行閣新建之役이 極係浩大ᄒᆞ야 該費不足額이 爲拾肆萬陸千貳百參拾貳元貳拾柒錢捌里이 各가 明細書를 茲의 繕交ᄒᆞ오며 備文函佈ᄒᆞ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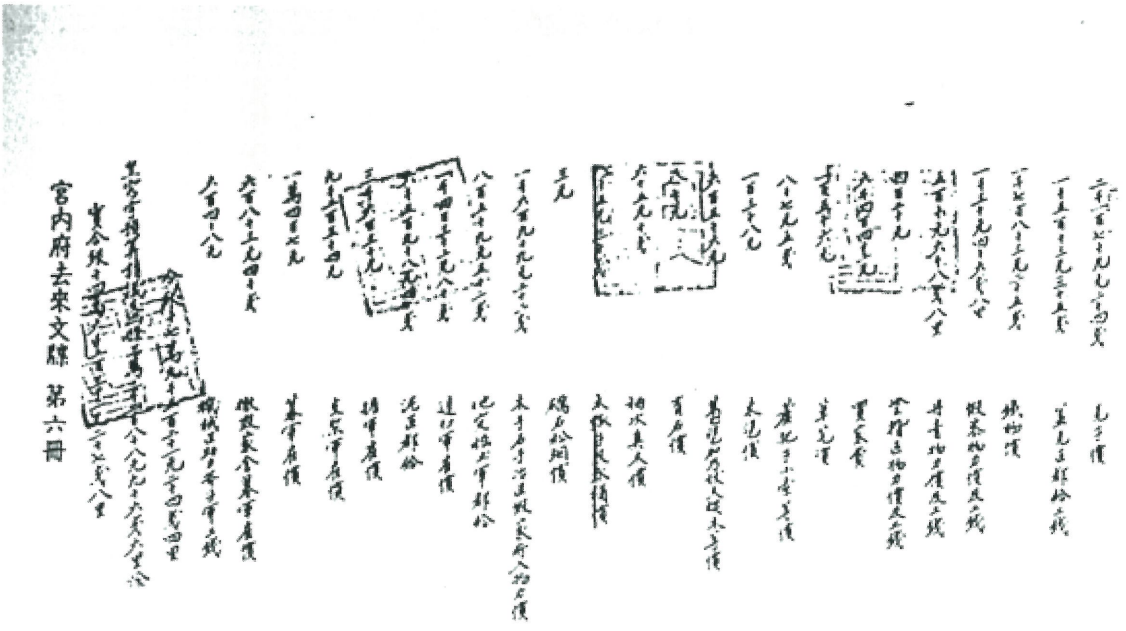
照亮ᄒᆞ시 後上項役費不足條를 預算外支出ᄒᆞ야 以爲該役刊ᄒᆞ시를 爲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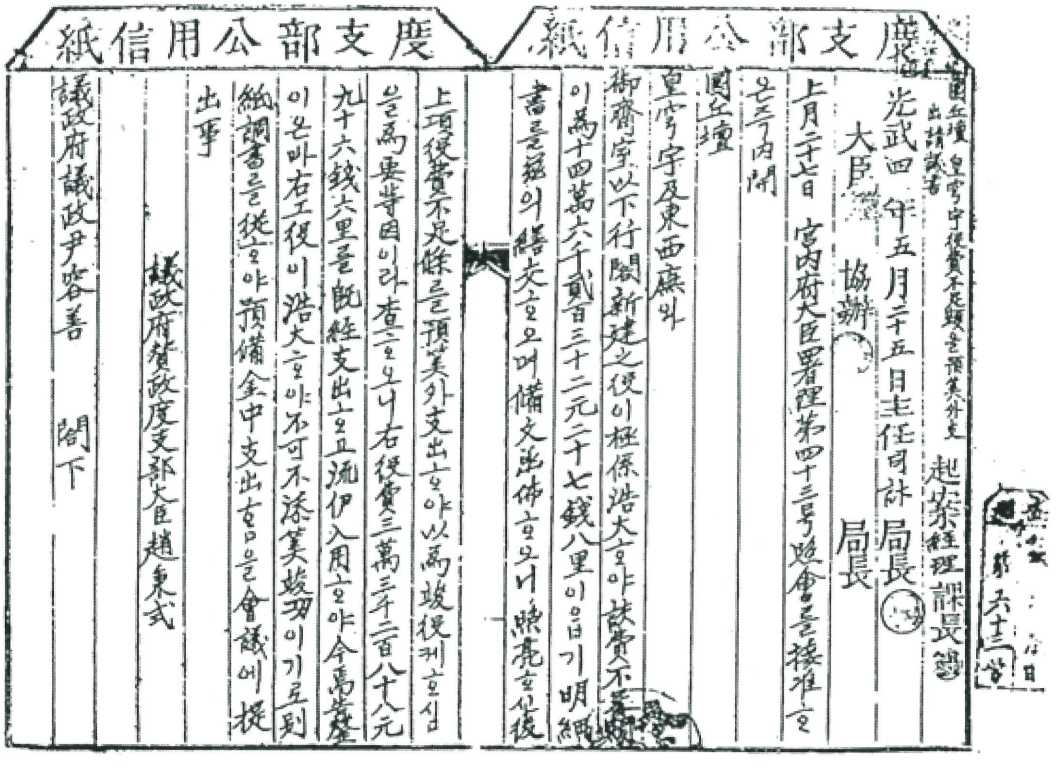
光武四年四月二十七日

議政府贊政 宮內府大臣署理 宮內府協辦尹定求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趙秉式 閣下

三四〇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度支部公用信紙

圓丘壇 皇穹宇役費不足額을預算外支出請議書

起案經理課長

光武四年五月二十五日主任司計局長

大臣 協辦 局長

上月二十七日 宮內府大臣署理第四十三号照會를接准ᄒᆞ온ᄌᆞ內開

圓丘壇

皇穹宇及東西廡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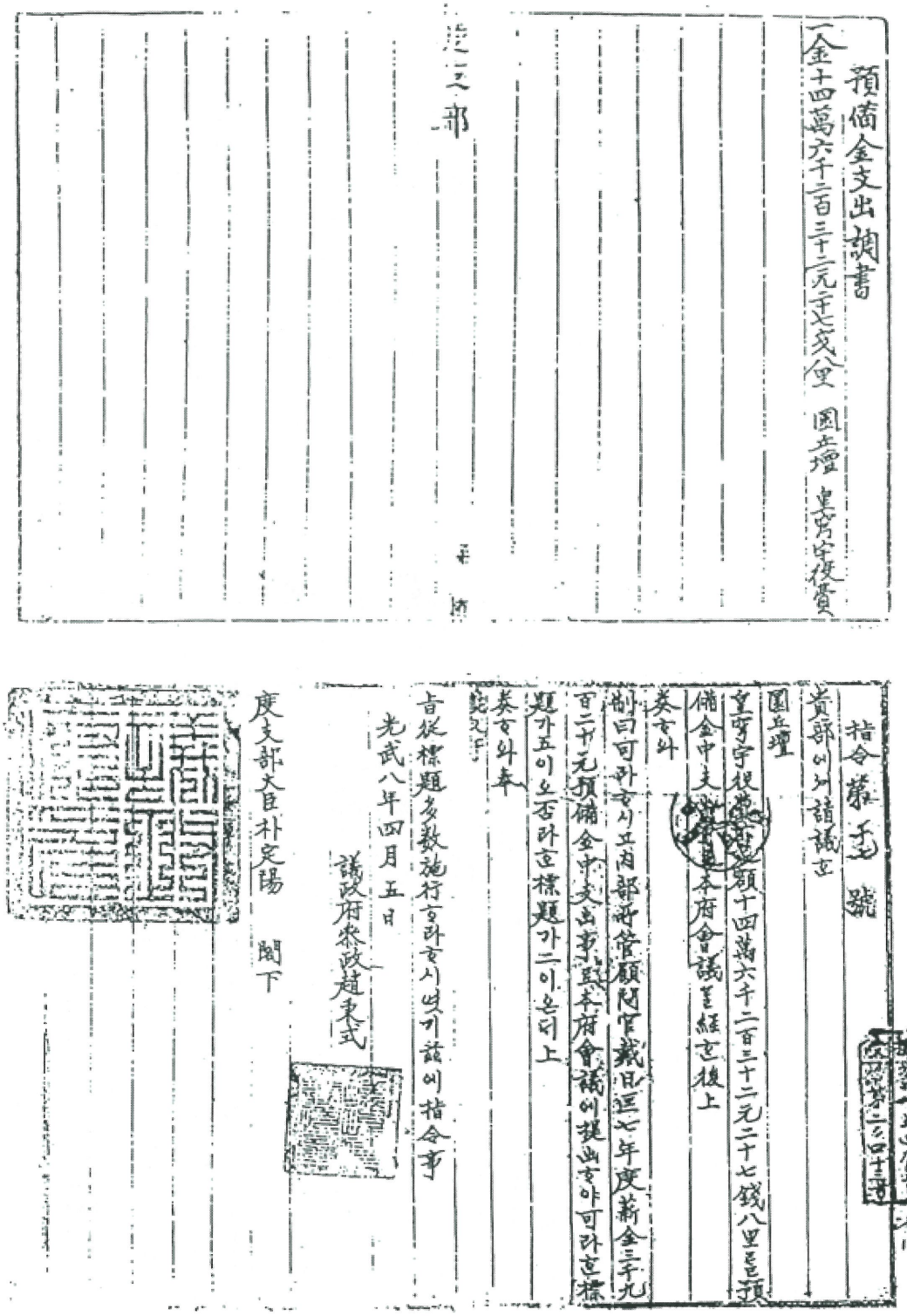
御齋室以下行閣新建之役이極係浩大ᄒᆞ야 缺費不足額이爲十四萬六千貳百三十二元二十七錢八里이읍기 明細書를茲의繕交ᄒᆞ오며 備文函佈ᄒᆞ오니 照亮ᄒᆞ신後

上項役費不足條를預算外支出ᄒᆞ야 以爲竣役케ᄒᆞ심을爲要等因이라 查ᄒᆞ오니 右役費三萬三千二百八十八元九十六錢六里를 既經支出ᄒᆞ고 流伊入用ᄒᆞ야 今爲整理이온바 右工役이 浩大ᄒᆞ야 不可不添算竣功이기로 則紙調書를 從ᄒᆞ야 預備金中支出ᄒᆞ오을 會議에 提出事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趙秉式

議政府議政尹容善　閣下

三四一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預備金支出調書

一金十四萬六千二百三十二元二十七戔八里 圜丘壇 皇穹宇役費

度支部

指令第 [illegible] 號

貴部에서 請議ᄒᆞᆫ

圜丘壇

皇穹宇役費 [illegible] 額十四萬六千二百三十二元二十七錢八里ᄂᆞᆫ預

備金中支出事 [illegible] 本府會議ᄂᆞᆯ經ᄒᆞᆫ後上

奏ᄒᆞ와

制曰可라ᄒᆞ시고 內部所管顧問官裁日 匡七年度薪金三千九

百二十元預備金中支出事 [illegible] 本府會議에 提出ᄒᆞ야 可라ᄒᆞᆫ標

題가五이오否라ᄒᆞᆫ標題가二이온디上

奏ᄒᆞ와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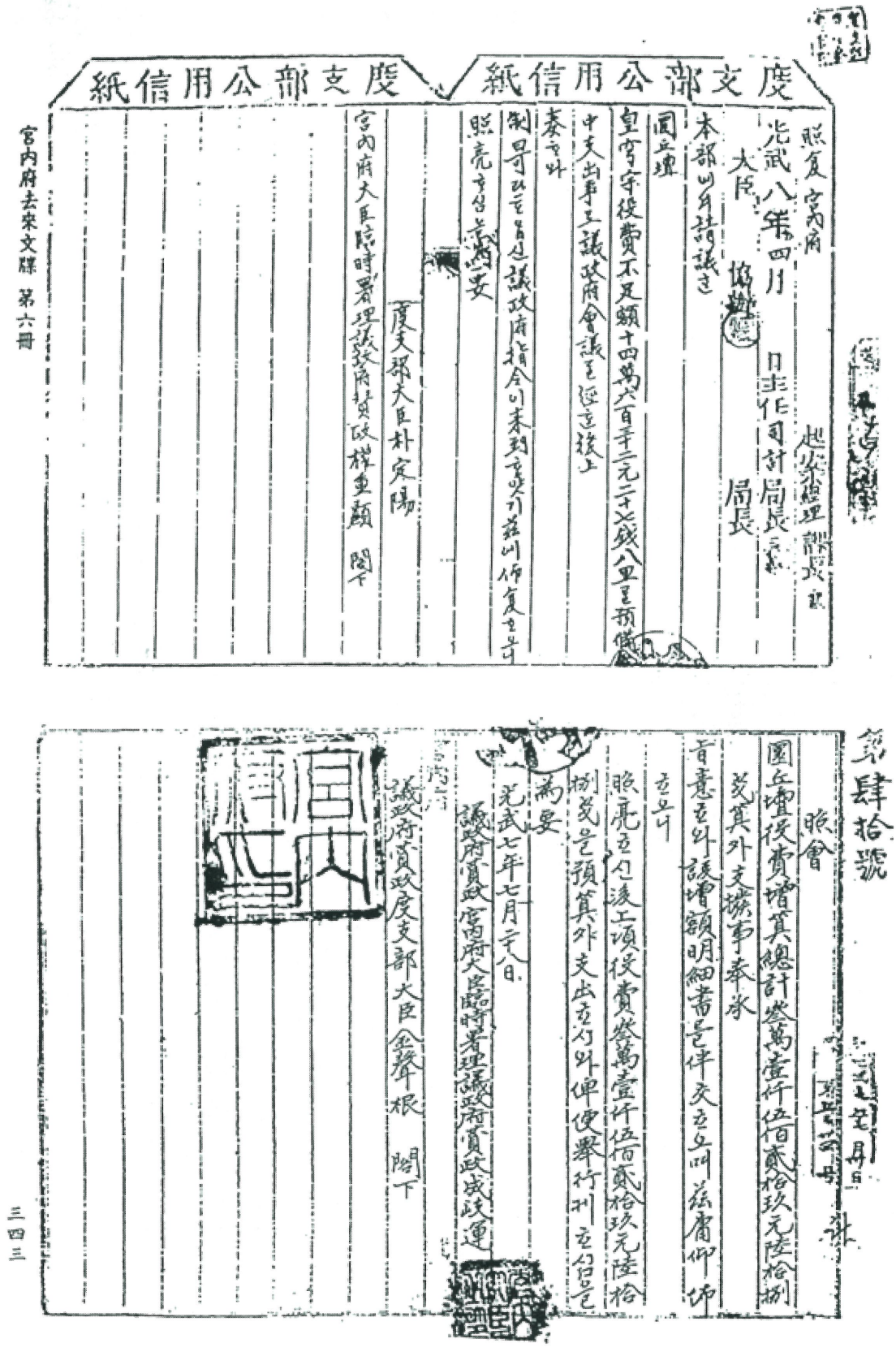
旨從標題多數施行ᄒᆞ라ᄒᆞ시ᄋᆞᆺ기 茲에 指令事

光武八年四月五日

議政府參政趙秉式

度支部大臣朴定陽 閣下

三四二



度支部公用信紙

照復 宮內府

光武八年四月 日主任司計局長 [illegible]

大臣 協辦 局長

本部以外請議之

圜丘壇

皇穹宇役費不足額十四萬六百三十二元二十七錢八里를預備

中支出事로議政府會議를經立後上

奏ᄒᆞ와

制可ᄒᆞ오ᄒᆞᆫ 議政府指令이來到ᄒᆞ옷기 茲以仰復ᄒᆞ오니

照亮ᄒᆞ심 [illegible]

度支部大臣朴定陽

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權重顯 閣下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第肆拾號

照會

圜丘壇役費增算總計叁萬壹仟伍佰貳拾玖元陸拾捌

錢算外支撥事奉承

旨意ᄒᆞ와 該增額明細書를伴交ᄒᆞ오니 茲庸仰佈

ᄒᆞ오니

照亮ᄒᆞ신後工項役費叁萬壹仟伍佰貳拾玖元陸拾

捌錢을預算外支出ᄒᆞ기와 俾便舉行刑ᄒᆞ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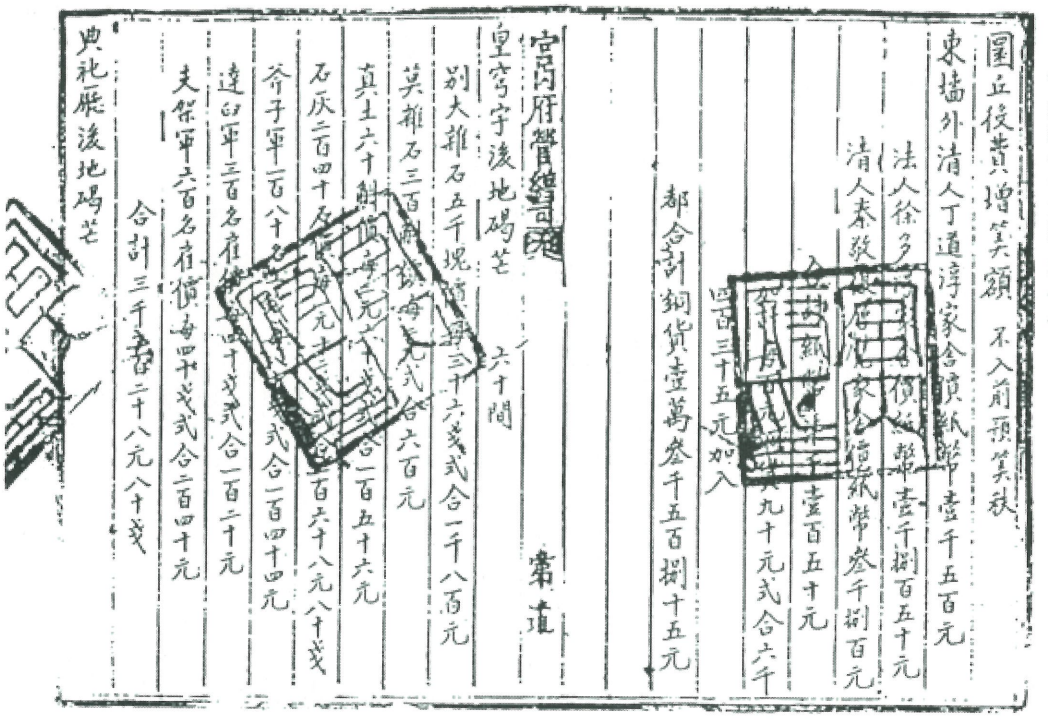
爲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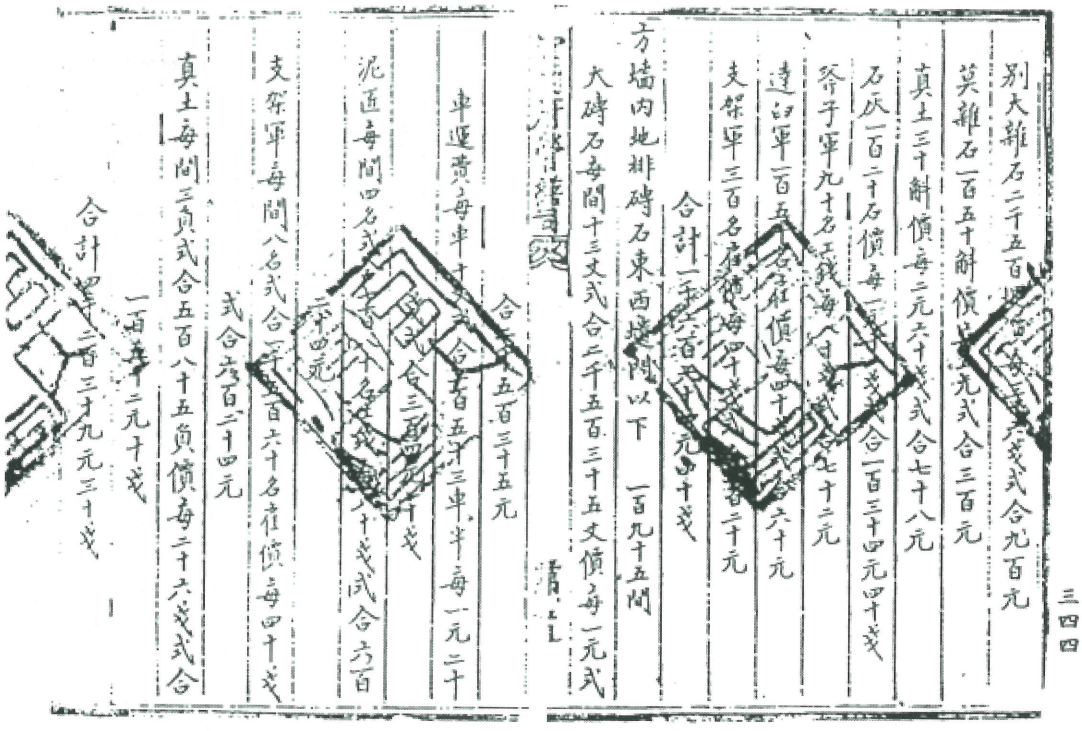
光武七年七月二十八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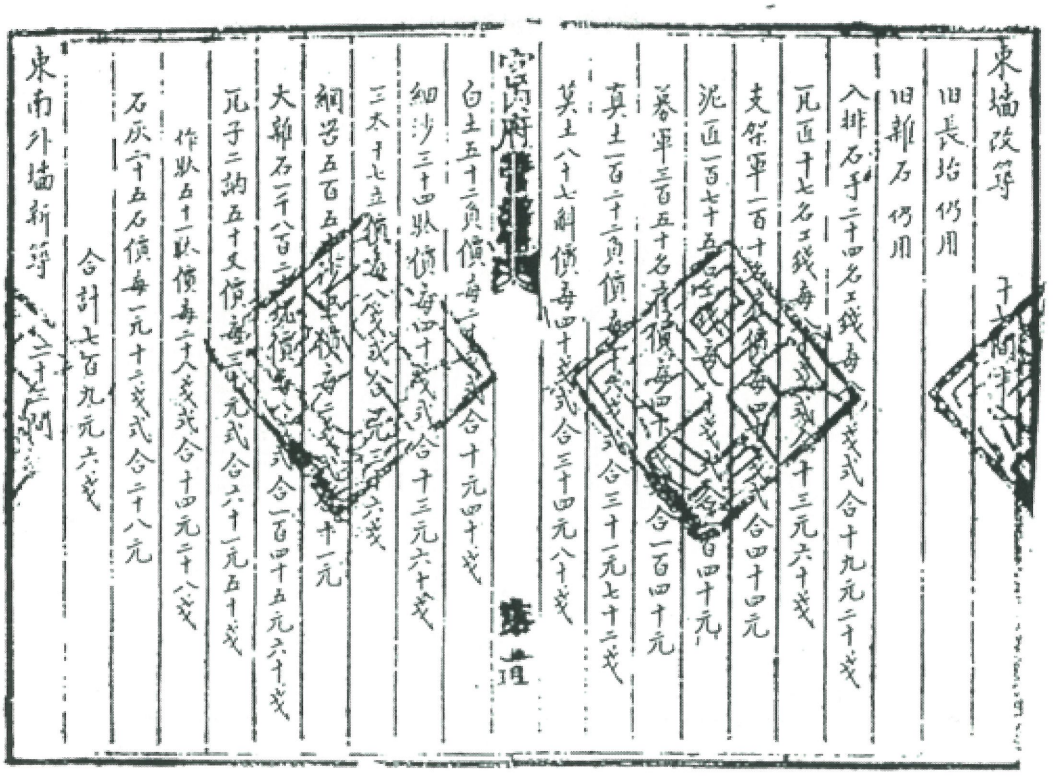
議政府贊政 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成岐運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金聲根 閣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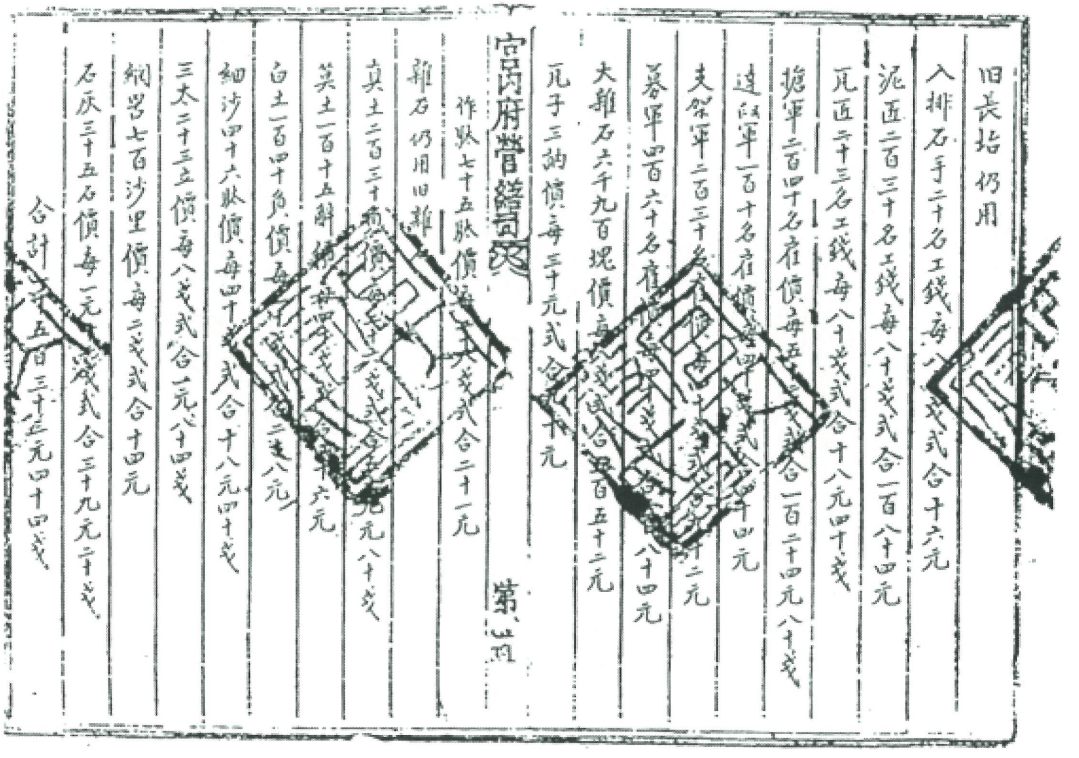
三四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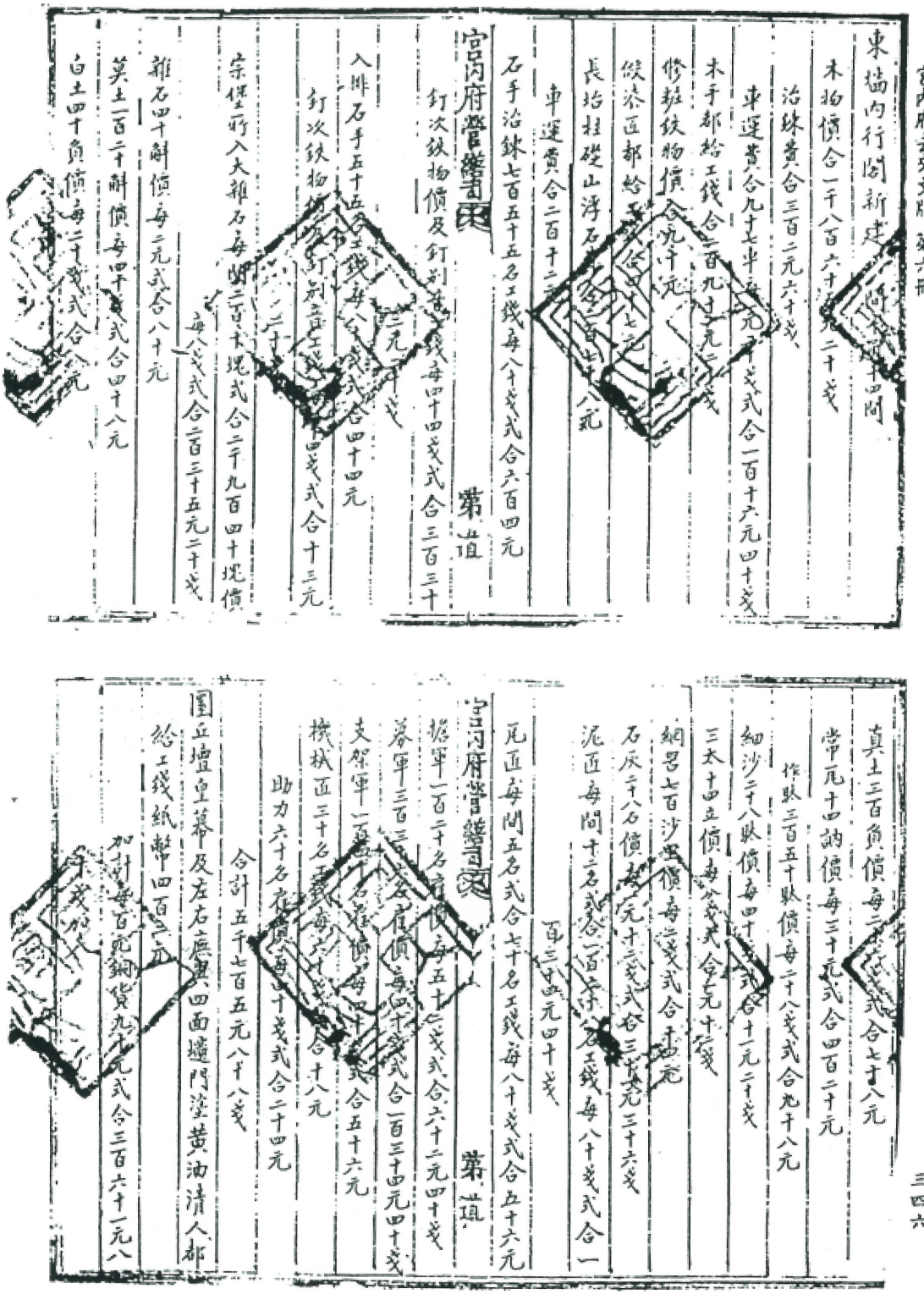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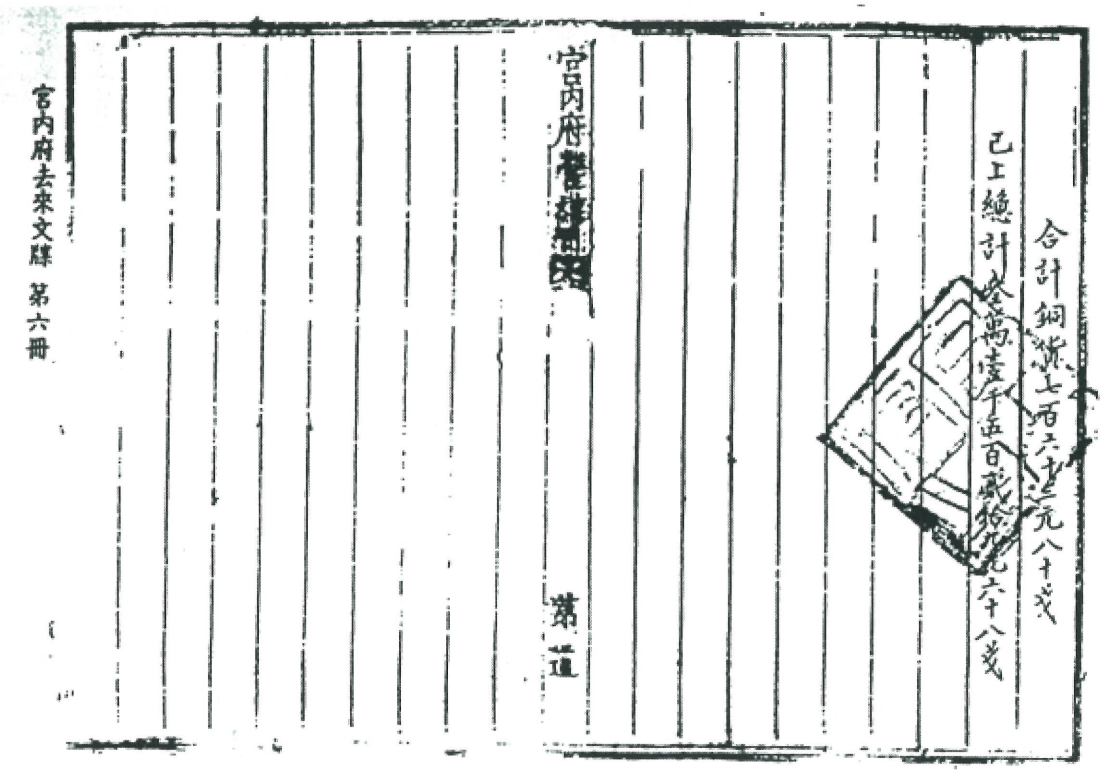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三四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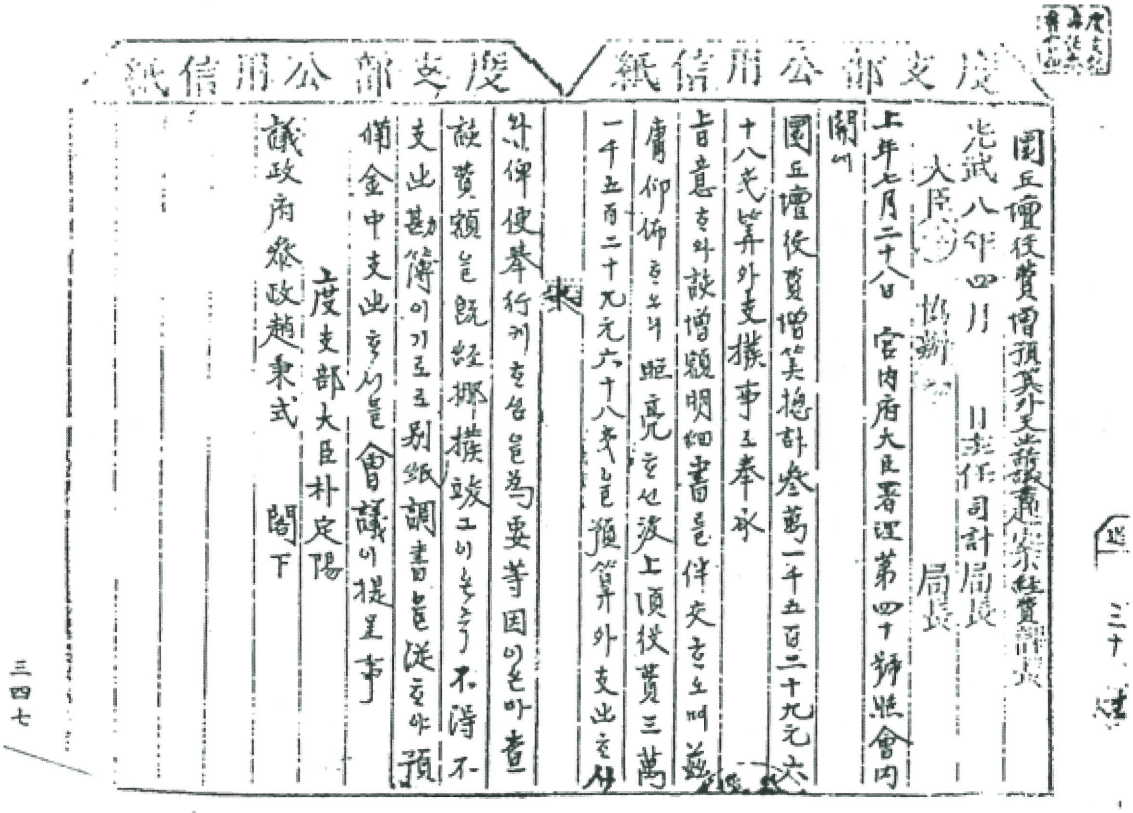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合計銅貨七百六十三元八十錢

已上總計叁萬壹千五百貳拾九元六十八錢

宮內府營繕司

第　道


度支部公用信紙

度支部公用信紙

園丘壇役費增預算外支出請議書送案經費詳表

光武八年四月　日主任司計局長

大臣　協辦　局長

上年七月二十八日　宮內府大臣署理第四十號照會內

開

園丘壇役費增算總計叁萬一千五百二十九元六

十八錢算外支撥事로奉承

旨意ᄒᆞ와該增額明細書를伴交ᄒᆞ오며茲

膺仰佈ᄒᆞ오니照亮ᄒᆞ신後上項役費三萬

一千五百二十九元六十八錢을預算外支出ᄒᆞ야

外俾使奉行케ᄒᆞ옵을爲要等因이온바查

該費額을既經挪撥竣工이온ᄒᆞ不得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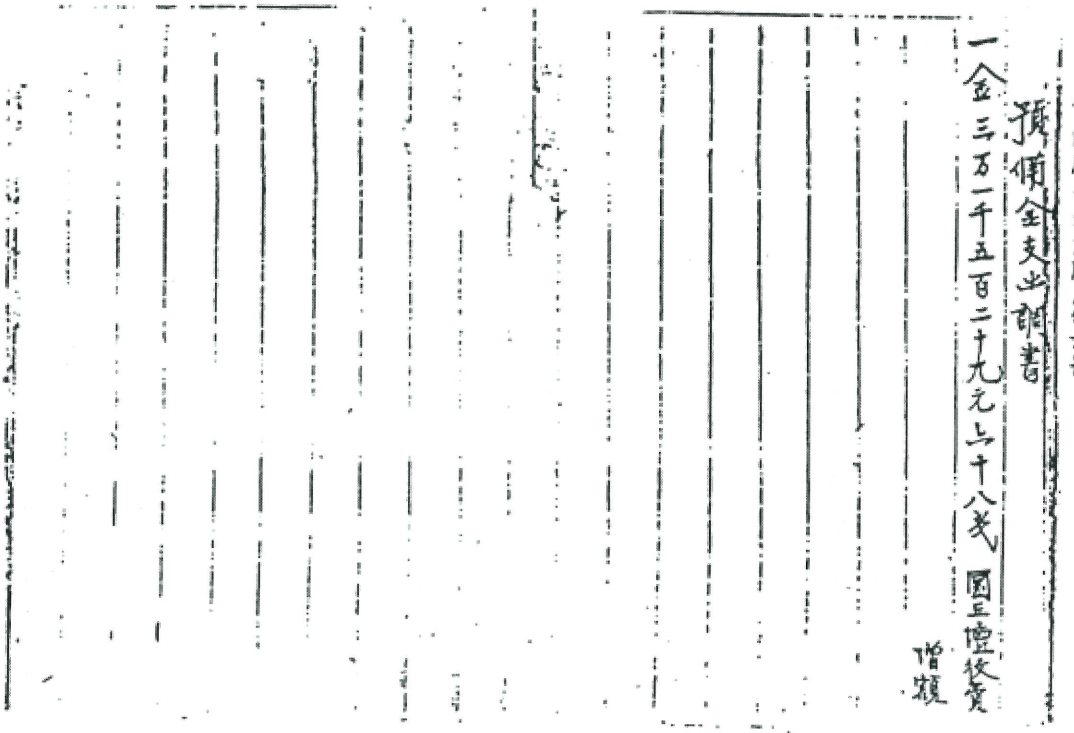
支出勘簿이기로로別紙調書를從ᄒᆞ야預

備金中支出ᄒᆞ시를會議이提呈事

上度支部大臣朴定陽

議政府參政趙秉式　閣下

三四七



宮內府去來文牒 第六冊

預備金支出調書

一金三万一千五百二十九元六十八戔 圜丘壇役費

增額

3. 부 록 (현황 사진)

목 록

- 환구단 원경, 근경 ---------- 242
- 황궁우 정면, 근경 ---------- 243
- 황궁우 정면 원경, 경관조명 ---------- 244
- 황궁우 상세 01 ---------- 245
- 황궁우 상세 02 ---------- 246
- 황궁우 내부 ---------- 247
- 황궁우 삼문 ---------- 248
- 황궁우 삼문 상세 ---------- 249
- 황궁우 협문 ---------- 250
- 석고단 01 ---------- 251
- 석고단 02 ---------- 252
- 환구단 시민광장 ---------- 253
- 정문(백운문) 정면, 배면 ---------- 254
- 정문(백운문) 상세01 ---------- 255
- 정문(백운문) 상세02 ---------- 256



환구단 원경



환구단(황궁우) 근경



황궁우 정면



황궁우 정면 근경



황궁우 정면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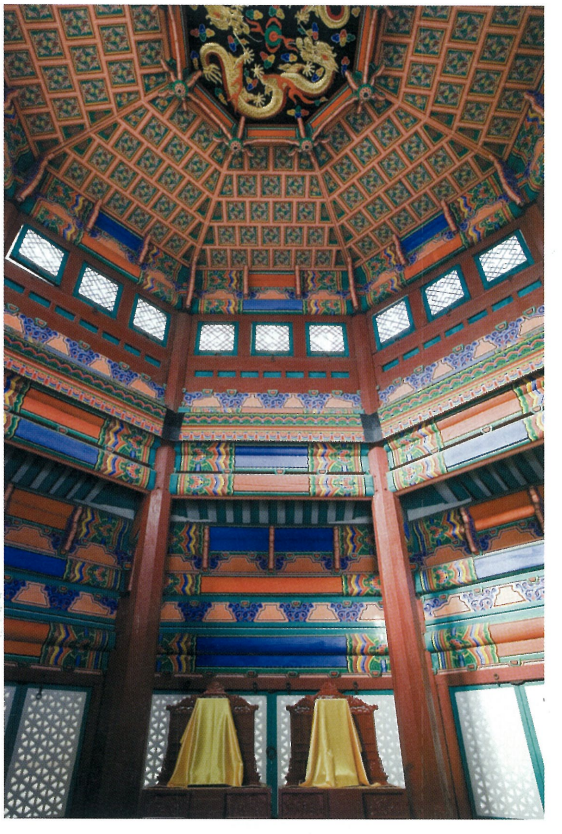
황궁우 정면 (경관조명)



황궁우 계단 및 기단



황궁우 기둥 상부 및 공포



황궁우 내부 전경



황궁우 난간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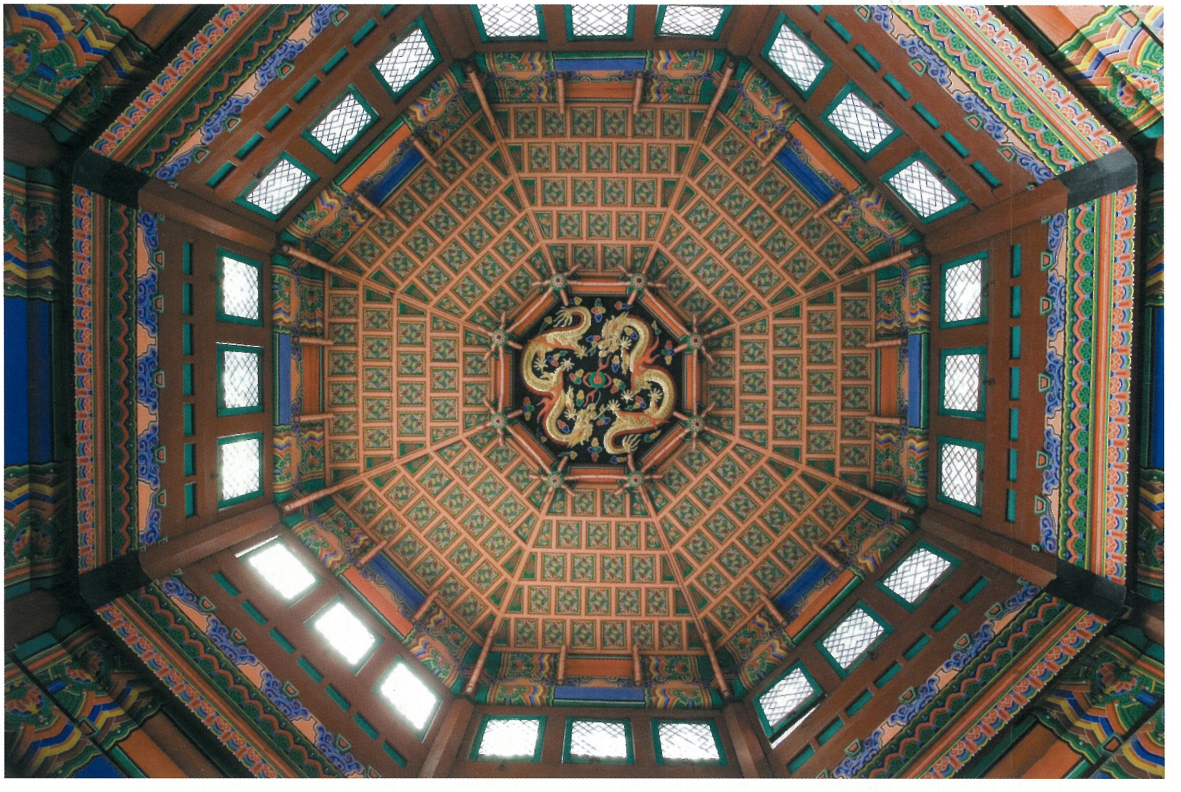
황궁우 난간 동자주



황궁우 난간 동자주



황궁우 내부 전경



황궁우 내부 천정



황궁우 삼문 정면



황궁우 삼문 배면



황궁우 삼문 계단 답도



황궁우 삼문 계단 석물



황궁우 삼문 계단 석물



황궁우 협문 전경



황궁우 협문 측면



황궁우 협문 정면 근경



석고단 전경



석고단 정면



석고단 측면



석고단 진입 계단



환구단 시민광장 전경



환구단 시민광장 근경



정문(백운문) 정면



정문(백운문) 배면



정문(백운문) 정면 어칸



정문(백운문) 정면 협칸



정문(백운문) 가구



정문(백운문) 측면 박공



정문(백운문) 기둥 상부 및 공포

4. 부 록 (자문회의 기록)

1) 07, 03, 28(수) 자문회의 내용과 보완 및 수정사항

□ 권기혁 교수

- 황궁우 서쪽 계단 6-7미터 떨어진 곳 지하주차장 부동침하 우려
- 기둥은 시계방향으로 뒤틀림 현상
- 지반침하
- 기초가 암반 위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
- 해체복원이 먼저 선행
- 지하주차장 사용을 없애는 것이 고려됨
- 복원할 수 있는 건물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기술적 고려
- 지하주차장 해체가 언제 가능한 가
- 복원이 멀었다면 지금 시점의 복원이 필요
- 복원의 기본방향 설정 필요
- 연구원 구성관계 _ 기술적 자문 고려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황궁우 해체복원 사항에 대해 반영함

▪ 지반공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함

□ 김동욱 교수

- 현 상태에서 최대한 정비하는 쪽으로 복원계획을 세울 것
- 조선호텔에서 불법으로 점유하는 지하공간을 정비할 것
- 환구단 명칭에 대한 제고

▪ 예전의 환구단 영역에 구성된 전각들의 복원보다는 현 상태에서의 정비에 주력해 계획함

▪ 단기계획에 지하주차장 문제 반영함

▪ 환구단 명칭 → 본 연구용역에서 명칭을 원구단으로 제안함

□ 이존희 교수

- 환구단 명칭에 대한 문제
- 進熟에 대한 고려
- 황궁우는 팔각형이 맞다.
- 홍순민 선생의 자문을 받아볼 것

▪ 환구단 명칭 → 본 연구용역에서 명칭을 원구단으로 제안함

□ 최기수 교수

- 발굴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지
- 역사문화도시를 만드는 과감한 개혁 필요
- 어느 정도 가능한지
- 지역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자료 필요
-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지침 필요
- 석파랑에 대한 시기 비교 필요
- 석고각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 조선호텔의 정원 성격을 원구단 성격으로 복원
- 황궁우 삼도 문제

▪ 중장기 계획에 발굴계획 반영함

▪ 지역 소유권 사항 조사함

▪ 문화재 영향성 검토 반영함

□ 홍대형 교수

- 정비의 목표를 정해서 정비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원구단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 석고각이 누워있는 것, 석고각 정도는 복원
- 지하 주차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 단기로 황궁우 해체 보강공사를 할 것
- 장기목표를 조선호텔을 포함해서 복원할 것

▪ 중장기 복원사항에 황궁우 해체복원계획 반영함

- 지하주차장 문제 반영함

2) 자문회의록 (2007, 6, 12, 화요일)

- 장 소 : 서울학연구소 회의실
- 시 간 : 오후 4시 - 5시 30분
- 참석자 : 송인호교수, 김웅호, 박희용 이상 서울학연구소
- 이상래소장, 황진하, 변기석 이상 한인건축사사무소
- 유상오팀장, 박춘복 이상 중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
- 이존희교수, 홍대형교수, 최기수교수, 권기혁교수, 김동욱교수 이상 자문위원
- 발표자 : 송인호, 김웅호, 황진하

□ 김동욱 교수

- 지하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복원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 : 오리지날에 대한 문제와 문화재에 대한 가치 문제
- 돌북에 대한 보존이 고려되어야 함 : 눕혀져 있는 것이 옳은 것 같다.
- 동서무에 대한 기능과 복원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
- 문화재 외곽에 대한 정비가 더 중요 : 3-4년 이내의 정비계획에 포함시킬 것
- 백남빌딩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한 문제
- 조선호텔의 정원느낌을 없앨 수 있는 방안 고려
- 주차장 입구의 유리계단 없앨수 있는 방안 고려

□ 권기혁 교수

- 담장복원은 같은 재료의 생산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 단기계획에서 진행성여부 판단을 할 수 있게 조치할 것 :

  계측기로 한 달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됨
- 3D스캔은 장비는 우수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해체공사를 하려면 기단까지 들어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 지하주차장은 버팀으로 보강하는 것도 필요함
- 삼문은 변형은 없지만 전벽돌의 훼손은 심함

□ 이존희 교수

- 서울시민에 대한 홍보, 관심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 덕수궁과의 관계성 보완
-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비할 것

□ 최기수 교수

- 100미터 주변의 문화재경관 주변 정리
- 협문을 만들면 황궁우 주변 분위기가 좋아질것 임

□ 홍대형 교수

-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할것
- 수목, 조경, 담장을 우선사업으로 실시할 것
- 단기, 중기, 장기적 목표를 세워서 접근할 것
- 동서무는 건물이 있어다는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됨
- 서쪽 협문을 복원하면 원형담장의 윤곽을 살릴 수 있을 것임
- 조선호텔 정원이 아니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 좀 더 엄숙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
- 동서무 위치 발굴터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 단계별 정비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송인호 교수

- 기본원칙이 연구용역의 초점과 불일치, 전략과 목표가 불투명함
- 4가지의 기본전략 구축 :

  첫째, 환구단의 존엄성과 공공성의 회복

  둘째, 황궁우의 안정성 확보

  셋째, 황궁우, 환구단의 역사인식 홍보

  넷째, 단계적인 복원사업 추진계획

3) 자문회의록 (2007, 6, 27, 수요일)

- 장 소 : 서울학연구소 회의실
- 시 간 : 오전 11시 - 13시 30분
- 참석자 : 송인호교수, 김웅호, 박희용 이상 서울학연구소
- 황진하, 변기석 이상 한인건축사사무소
- 유상오팀장, 박춘복 이상 중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
- 이존희교수, 홍대형교수, 최기수교수, 권기혁교수 이상 자문위원
- 발표자 : 송인호, 김웅호, 황진하

□ 권기혁 교수

- 삼문과 협문에 대한 계획이 요구됨
- 계측에 대한 예산은 전반기에 많이 배분하고 후반기에는 적게 배분해도 됨

□ 이존희 교수

- 대한제국기에 대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의 마련필요
- 대한제국기에 관련된 박물관이 없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전시공간의 마련은 바람직함
- 정비계획의 목표를 황궁우에 두지 말고 환구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기수 교수

- 예정 전시공간에 대한 위치는 바람직함
- 시만광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획이 필요함
- 현상변경기준안 마련은 단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안내사인위치는 바람직함, 그러나 디자인인 문화재청의 안내사인을 참고할 것

□ 홍대형 교수

- 전시공간의 확보가 계획되었다면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안내사인은 문화재를 가리지 않게 구성할 것

□ 송인호 교수

- 환구단과 서울역사도시문화의 조성은 밀접함 관련성이 있음

- 동서무 복원에 대한 전략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4) 연구용역 회의사항

(1) 4월 26일 (목) 회의

- 장소 : 서울학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송인호교수, 김웅호, 박희용, 이상래소장, 황진하 외

□ 회의내용

- 문화재 주변지역(영향성 검토구역)에 대해 조사 할 것
- 단기복원사항에 대한 체크 : 수목정비, 가로등 정비, 진입로 정비 등
- 환구단에 대한 도시문화적 측면에서의 접근 언급 : 문화재 영역 내에서 만이 아닌 영역 밖에서의 인식과 도시와의 관계성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것
- 중장기 복원과제에 대한 검토

(2) 5월 21일 (월) 회의

- 장소 : 서울학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송인호교수, 김웅호, 박희용, 이상래소장, 황진하 외

□ 회의 내용

- 영향성 검토지역에 대한 회의
- 중장기 복원과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
- 환구단과 관련된 소규모의 전시관이나 홍보관의 마련 언급
- 덕수궁, 독립문 등 주변 역사도시문화시설과의 연계성 언급
- 추정복원도에 대한 예시안 점검
- 최종 자문회의 날짜에 대한 협의

참 고 문 헌

국사편찬위원회 편 조선왕조실록 검색

경성부사 1, 2, 3권

독립신문 기사

환구단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006, 8. (주)건양구조

정수인, 2006「대한제국시기 원구단의 원형복원과 변화에 관한 연구」서울학연구 26,

이욱, 대한제국기 환구제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30, 2003.

김정동,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발언, 2004, 10.

우대성, 대한제국의 건축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2

황현 저, 김준 역, 매천야록, 교문사, 1996, 10,

이윤상, 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 한국학보 111,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8.

김동현, 韓國古建築斷章 下, 通文館, 1977, 3,

손호익, 南別宮考 下, 文獻報國 제5권 제8호 통권 제38호, 1939, 8,

여행신문, 한국관광 50년비사, 1999, 7,

이태진, 1896-1904년 서울 도시개조사업의 주체와 지향성, 한국사론 37,

윤장섭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건축학연구, 1985, 1.

국립민속박물관,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 2006,6,9

서문당, 최석로해설, 민족의 사진첩 2권, 3권, 1998,9,

天衢丹闕 -老北京風物圖卷, 刘洪寬 繪, 榮寶齋出版社, 2005, 8.

한국은행, 圜丘壇祀祭暑 本署儀軌.

규장각자료총서 錦湖시리즈 궁내부편 宮內府去來文牒 宮內府去來案 1992, 12,

강병희,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조선의 하늘제사 건축 -대한제국기 원구단을 중심으로-, 대원사, 2005, 12,

한우영,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대례의궤, 한국사론 45, 2001,

김문식, 고종의 황제 등극의에 나타난 상징적 함의, 조선시대사학보 37, 2006,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2006, 11,

이태진,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 1994, 2,

국제관광공사조선호텔처리의원회, 조선호텔처리지, 1967, 9.

서울의 옛 모습, 서울학연구소, 1995, 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05, 5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자료

인터뷰 기사, (주)메트로호텔 상무이사, 광제사 원행스님

환구단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2007년 12월 14일 인쇄
2007년 12월 21일 발행

발 행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조사편찬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주) 한인건축사사무소
편 집 : 理想 기획
인 쇄 : 대원

비매품 한정판